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이순신 관련 기사

태조부터 조선 철종 때까지 25대 472년간(1392~1863)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책

이순신 관련 기사 목록

- 21권 20년 10월 10일 (을축) 2번째기사 / 북병사가 적호가 침입했을 때 군기를 그린 경흥 부사 이경록 등을 가두었다고 보고하다

북병사(北兵使)가 치계하였다. “적호(賊胡)가 녹둔도의 목책(木柵)을 포위했을 때 경흥 부사(慶興府使) 이경록(李慶祿)과 조산 만호(造山萬戶) 이순신(李舜臣)이 군기를 그려서 전사(戰士) 10여명이 피살되고 1백 6명의 인명과 15필의 말이 잡혀갔습니다. 국가에 옥을 끼쳤으므로 이경록 등을 수금(囚禁)하였습니다.”

- 선조 21권 20년 10월 16일 (신미) 1번째기사 / 비변사가 이경록과 이순신을 잡아올 것을 청하자 백의종군 시키다

이경록(李慶祿)과 이순신(李舜臣) 등을 잡아올 것에 대한 비변사의 공사(公事)를 입계하자, 전교하였다.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과는 차이가 있다. 병사(兵使)로 하여금 장형(杖刑)을 집행하게 한 다음 백의 종군(白衣從軍)으로 공을 세우게 하라.”

- 선조 23권 22년 1월 21일 (기사) 1번째기사 / 비변사에서 무인을 불차 채용한다고 하자 각 신료들이 올린 명단

비변사에게 무신(武臣)을 불차 채용(不次採用)한다고 하자, 이산해는 손인갑(孫仁甲)·성천지(成天祉) · 이순신(李舜臣) · 이명하(李明河) · 이빈(李賓) · 신할(申砮) · 조경(趙徹)을, 심수경(沈守慶)은 이경(李景) · 신할 · 이용준(李用濬) · 박진(朴晉)을, 유흥(兪泓)은 이훈(李渾) · 왕경조(王景祚) · 이용준(李用濬) · 변응성(邊應星) · 유몽경(柳夢經) · 유연(兪淵)을, 정언신(鄭彦信)은 손인갑(孫仁甲) · 성천지 · 이순신 · 이명하(李明河) · 이시언(李時言) · 한인제(韓仁濟) · 이언함(李彦咸) · 정담(鄭湛) · 김당(金鎭)을, 윤탁연(尹卓然)은 유희선(柳希先) · 이종장(李宗張) · 윤안성(尹安性)을, 강섬(姜暹)은 유염(柳濂) · 정눌(鄭訥) · 문몽헌(文夢軒) · 김경로(金敬老) · 정발(鄭撥) · 정득열(鄭得說)을, 변협(邊協)은 조경 · 신할 · 이복남(李福男)을, 이진(李戣)은 신할 · 김순(金詢) · 변응성을, 최원(崔遠)은 이경(李景) · 전협(田決)을, 신림(申砮)은 최미수(崔眉壽) · 변응성 · 변응정(邊應井) · 이지시(李之詩) · 정현룡(鄭見龍) · 이범(李範)을 추천하였다.

- 선조 23권 22년 7월 28일 (계유) 1번째기사 / 좌부승지 황우한이 하삼도 병·수사를 선발한 비변사의 밀계를 아뢰다

좌부승지 황우한(黃佑漢)이 비변사의 밀계로써 아뢰기를, “전번에 하삼도(下三道)의 병·수사(兵水使)를 잘 선택하라는 전교를 받고 신들이 상의한 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약간 명에 이르기엔 즉시 계달(啓達)합니다. 그중에 조대곤(曹大坤) · 장의현(張義賢) 등은 이미 논박을 받아 체직되었으며, 경상 우수사 윤사흥(尹思欽)도 재주가 용렬하니 아울러 체직하소서. 병·수사에 적합한 사람으로는 서득운(徐得運) · 이목(李沃) · 이빈(李賓) · 이훈(李渾) · 신할(申砮) · 이경(李景) · 조경(趙徹) 등을 대강 서계(書啓)합니다. 조치(措置)와 주획(籌畫) 등의 사목(事目)은 천천히 헤아려 서계하였습니다. 요충(要衝)이 되는 고을에 호(濠)를 파는 일과 방어사(防禦使)나 조방장(助防將) 중에 가합한 사람을 골라서 큰 고을의 수령으로 차견(差遣)할 것을 전교하였는데, 남방 연해(沿海)에 적로(賊路)의 요충이 되는 열읍(列邑)이 매우 많고 염려되는 기미가 바로 조석(朝夕)에 있으니 성(城)을 쌓고 호(濠)를 파는 모든 방어 도구를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흉년에 굶주린 백성을 조발(調發)한다는 것은 지극히 염려되는 일이니 본도의 감사로 하여금 요해처(要害處)가 되는 고을 중에 더욱 허술한 데를 자세히 심사 개록(開錄)하여 계문(啓聞)한 뒤에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소서. 또 큰 고을의 수령을 체차(遞差)하는 데는 방어사나 조방장 중에 가합

사람을 골라 차견(差遣)하는 것이 지당합니다. 다만 날날이 적출(摘出)해내는데 매우 시끄러울 것이니, 나주 목사(羅州牧使) 윤우신(尹又新)부터 먼저 체차하는 것이 어떨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서득운을 전라 병사로, 이흔을 우수사로, 신할을 경상 좌수사로, 조경을 제주 목사로 삼고자 한다. 이옥과 이경은 본처(本處)를 고수해야 하고 이빈은 범한 죄가 가볍지 않으니 경솔히 수용(收用)할 수 없다. 또 이경록(李慶祿)·이순신(李舜臣) 등도 채용하려 하니, 아울러 참작해서 의계(議啓)하라.”

- 선조 25권 24년 2월 12일 (기묘) 2번째기사 / 비변사 낭청이 이천·이억기·양응지·이순신을 남쪽에 보내 공을 세우게 하자고 청하다

비변사 낭청이 아뢰기를, “이천(李薦)· 이억기(李億祺)· 양응지(梁應地)· 이순신(李純臣)을 남쪽 요해지에 정송(定送)하여 공을 세우게 하라는 상의 분부가 지당합니다.”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선조 25권 24년 2월 13일 (경진) 1번째기사 / 심대·이홍·이경록·성운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사(政事)가 있었다. 심대(沈岱)를 사간에, 이홍(李珙)을 강원도 도사에, 이경록(李慶祿)을 나주 목사에, 성운문(成允文)을 갑산 부사에 제수하였다. 이비(吏批)에게 전교하였다. “전라 감사 이광(李洸)은 지금 자헌 대부에 가자하고, 윤두수(尹斗壽)는 호조 판서에, 이증(李增)은 대사헌에, 진도 군수 이순신(李舜臣)은 초자(超資)하여 전라도 좌수사에 제수하라.”

- 선조 25권 24년 2월 16일 (계미) 2번째기사 / 간원이 전라 좌수사에 초수된 이순신의 체차를 청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전라 좌수사 이순신(李舜臣)은 현감으로서 아직 군수에 부임하지도 않았는데 좌수사에 초수(招授)하시니 그것이 인재가 모자란 탓이긴 하지만 관작의 남용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체차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순신의 일이 그러한 것은 나도 안다. 다만 지금은 상규에 구애될 수 없다. 인재가 모자라 그렇게 하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사람이면 충분히 감당할 터이니 관작의 고하를 따질 필요가 없다. 다시 논하여 그의 마음을 동요시키지 말라.”

- 선조 25권 24년 2월 18일 (을유) 1번째기사 / 간원이 초수된 이순신을 개차하고, 나주 목사 이경록의 체차를 청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이순신은 경력이 매우 얕으므로 중망(衆望)에 흡족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재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어떻게 현령을 갑자기 수사(水使)에 승임시킬 수 있겠습니까. 요행의 문이 한번 열리면 뒤편을 막기 어려우니 빨리 체차시키소서. 나주(羅州)는 남쪽의 거진(巨鎭)으로 본시 다스리기 어려운 고을로 이름난 곳인데 변경(邊境)에 일이 생기면 원수(元帥)는 영(營)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이웃 고을 수령과 본주(本州)의 판관들이 모두 무변(武弁)인 만큼 군대를 이끌고 적을 방어하는 데 사람이 없는 것을 걱정할 것 없습니다. 목사 이경록(李慶祿)을 체차하고 재력이 있는 문관을 각별히 골라 보내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순신에 대한 일은, 개정하는 것이 옳다면 개정하지 어찌 않겠는가. 개정할 수 없다. 나주 목사는 천천히 발락(發落)하겠다.”

- 26권 25년 5월 23일 (임오) 5번째기사 / 전라 수사 이순신이 적선을 격파하니 가자하다

전라 수사 이순신(李舜臣)은 주사(舟師)를 동원해서 타도(他道)까지 깊숙이 들어가 적선 40여 척을 격파하고 왜적의 수급(首級)을 베었으며 빼앗겼던 물건을 도로 찾은 것이 매우 많았다. 비변사가 논상할 것을 계청하니, 상이 가자(加資)하라고 명했다.

- 선조 27권 25년 6월 21일 (기유) 4번째기사 / 원균과 이순신이 한산도·당포에서 승전한 일에 대한 기록

이때 동래(東萊)가 이미 함락되어 왜적들이 계속 몰아쳐 곧장 진격하니 가는 곳마다 대적할 사람이 없었다. 대가가 이미 서로(西路)로 들어가자 황해도 이남에서 동래까지 오직 패전 소식만 들려오고 전혀 다른 소식은 없었다. 그런데 경상 우수사(慶尙右水使) 원균(元均)은 전라 좌수사(全羅左水使) 이순신(李舜臣)과 약속하여 한산도(閑山島)에서 회합하였다. 이때에 이순신이 전선(戰船) 80척을 거느리고서 마침내 이해 5월 6일에 옥포(玉浦) 앞바다로 나아가니, 적선(賊船) 30여 척이 사면에 휘장을 두르고 길다란 장대를 세워 홍기(紅旗)·백기(白旗)들을 현란하게 달았으며, 나머지 왜적들은 육지로 올라가 마을 집들을 불사르고 겁탈하였다. 왜적들은 수군(水軍)을 보고는 노(櫓)를 빨리 저어 진지(陣地)를 나와 아군(我軍)과 바다 가운데서 만났는데 아군이 적선 26척을 불살라 버렸다. 이튿날 다시 대전(大戰)을 전개하기로 약속하였는데, 대가(大駕)가 서쪽으로 행행하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여러 장수들이 도착하지 않아, 그대로 서로 모여 통곡하고는 마침내 9일에 제각기 본진(本鎭)으로 돌아갔다. 29일에 순신과 균이 재차 노량(露梁)에서 회합하여 적선 1척을 만나 불살라버렸는데, 조금 후에 보니 바닷가 한 산에 왜적 1백여 명이 장사진(長蛇陣)을 치고 있고 그 아래로는 전선 12척이 버랑을 따라 죽 정박하고 있었다. 때마침 일찍 들어온 조수(潮水)가 벌써 빠져나가 바닷물이 얕아져서 큰 배는 나아갈 수 없었다. 순신이, “우리가 거짓 퇴각하면 왜적들이 반드시 배를 타고 우리를 추격할 것이니 그들을 바다 가운데로 유인하여 큰 군함(軍艦)으로 합동하여 공격하면 승전(勝戰)하지 못할 리가 없다.” 하고서, 배를 돌렸다. 1리를 가기도 전에 왜적들이 과연 배를 타고서 추격해 왔다. 아군은 거북선으로 돌진하여 먼저 크고 작은 총통(銃筒)들을 쏘아대어 왜적의 배를 모조리 불살라버리니, 나머지 왜적들은 멀리서 바라보고 발을 구르며 울부짖었다. 한창 전투할 적에 철환(鐵丸)이 순신의 왼쪽 어깨를 명중하였다. 2일에 당포(唐浦)에 도착하니 적선 20척이 강 연안에 죽 정박하였는데, 그 중에 큰 배 한 척은 위에 층루(層樓)를 설치하고 밖에는 붉은 비단 휘장을 드리워놓고서, 적장(賊將)이 금관(金冠)에 비단옷을 입고 손에 금부채를 가지고서 모든 왜적들을 지휘하고 있었다. 중위장(中衛將) 권준(權俊)이 배를 돌려서 노를 재촉하여 바로 그 밑으로 돌진하여 그 배를 쳐부수고, 적장을 쳐다보고 활을 쏘니 시위를 놓자마자 적장이 거꾸러졌다. 4일에 당포(唐浦) 앞바다로 나아가자 전라 우수사(全羅右水使) 이억기(李億祺)가 전선 25척을 거느리고 와 회합하니 여러 장수들이 기운이 증가되지 않는 이가 없었다. 5일에 외양(外洋)으로 나가다가 적선이 고성(固城) 당항포(唐項浦) 앞바다로 옮겨 정박하였다는 것을 듣고, 순신이 배 3척을 먼저 보내야 형세를 정탐하도록 하였는데, 겨우 바다 어귀를 나가자마자 바로 포(砲)를 쏘아 신호를 보냈다. 그러자 모든 군사들이 일시에 노를 재촉하여 앞뒤를 고기궤미처럼 연결하여 나아가 소소강(召所江)에 이르니 적선 26척이 강 연안에 죽 벌여 있었다. 그 중에 큰 배 한 척은 위에 3층 판각(板閣)을 설치하고 뒤에는 검은 비단 휘장을 드리우고 앞에는 푸른 일산을 세워 놓았으며, 휘장 안에는 여러 왜적들이 죽 나열하여 시립하고 있었다. 모든 군사들이 처음 한번 교전하고 거짓 패한 척하여 퇴각하니, 총각을 세운 큰 배가 돛을 달고 먼저 나왔다. 모든 군사들이 양쪽에서 공격하니 적장이 화살을 맞고 죽었다. 그러자 모든 군사들이 승세를 타 불을 질러 적선 1백여 척을 소각해 버리고 왜적의 머리 2백 10여 급(級)을 베었으며 물에 빠져 죽은 적은 그 수효를 다 기록할 수 없었다. 6일에 잔여 왜적을 외양(外洋)에서 추격하여 또 한 척을 불살라버렸으며, 9일에 모든 군사가 전투를 중지하고 본진으로 돌아왔다. 7월 6일에 순신이 익기와 노량에서 회합하였는데, 원균은 파선(破船) 7척을 수리하느라 먼저 와 정박하고 있었다. 적선 70여 척이 영등포(永登浦)에서 견내량(見乃梁)으로 옮겨 정박하였다는 것을 들었다. 8일에 수군이 바다 가운데 이르니, 왜적들이 아군이 강성한 것을 보고 노를 재촉하여 돌아가자 모든 군사가 추격하여 가보니, 적선 70여 척이 내양(內洋)에 벌여 진을 치고 있는데 지세(地勢)가 험악한 데다가 험악한 섬들도 많아 배를 운행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아군이 진격하기도 하고 퇴각하기도 하면서 그들을 유인하

, 왜적들이 과연 총출동하여 추격하기에 한산(閑山) 앞바다로 끌어냈다. 아군이 죽 벌어서 학익진(鶴翼陣)을 처기(旗)를 휘두르고 북을 치며 떠들면서 일시에 나란히 진격하여, 크고 작은 총통(銃筒)들을 연속적으로 쏘아대어 먼저 적선 3척을 쳐부수니 왜적들이 사기가 꺾이어 조금 퇴각하니, 여러 장수와 군졸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발을 구르고 뛰었다. 예기(銳氣)를 이용하여 왜적들을 무찌르고 화살과 탄환을 번갈아 발사하여 적선 63척을 불살라버리니, 잔여 왜적 4백여 명은 배를 버리고 육지로 올라가 달아났다. 10일에 안골포(安骨浦)에 도착하니 적선 40척이 바다 가운데 벌여 정박하고 있었다. 그 중에 첫째 배는 위에 3층 큰집을 지었고 둘째 배는 2층집을 지었으며 그 나머지 모든 배들은 물고기 비늘처럼 차례대로 진을 결성하였는데 그 지역이 험착하였다. 아군이 두세 차례 유인하였으나 왜적은 두려워하여 감히 나오지 않았다. 우리 군사들이 들락날락하면서 공격하여 적선을 거의 다 불살라버렸다. 이 전투에서 3진(陣)이 머리를 벤 것이 2백 50여 급이고 물에 빠져 죽은 자는 그 수효를 다 기록할 수 없으며 잔여 왜적들은 밤을 이용하여 도망하였다. 순신 등이 그의 군관(軍官) 이충(李冲)을 보내어 치계하고 수급(首級)을 바치도록 하니, 행조(行朝)에서는 상하가 뿔뿔이 기뻐하며 경하(慶賀)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총이 오자 상이 영남(嶺南)의 일을 하문하니, 대답하기를 ‘감사(監司) 김수(金粹)가 함양(咸陽)에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소식이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이 적로를 따라 올라오기 때문에 좌·우도(左右道)가 두 조각으로 갈라져서 호령이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였다.】

- 선조 27권 25년 6월 28일 (병진) 4번째기사 / 경상우도 초유사 김성일이 의병이 일어난 일과 경상도 지역의 전투 상황을 보고하다

경상우도 초유사(慶尙右道招諭使) 김성일(金誠一)이 치계하였다.

…… (중략) ……

남해(南海)는 호남(湖南) 지경에 끼어 있어 왜적이 아직 출현하지 않았는데 현령 기효근(奇孝謹)이 전라 좌수사(全羅左水使) 이순신(李舜臣)에게 통보하기를 ‘본현(本縣)이 적진과 가까우니 왜적이 만약 이곳을 탈취하면 이곳에는 군량이 많기 때문에 오래 주둔하면서 반드시 호남을 침범하려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현령이 바다로 나간 사이에 그 군관(軍官)으로 하여금 창고를 다 불태우게 하니, 고을 백성 및 미조항(彌助項) · 평산포(平山浦)로 들어왔던 군사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현령이 관아로 되돌아오니 다만 빈 성만 남아 있기에 부득이 보리를 거두어 군량을 마련하고 흩어진 군졸들을 수합하여 어렵게 성을 지키고 있는데 왜적이 쳐들어오면 반드시 먼저 무너져 흩어질 것입니다.

- 선조 27권 25년 6월 28일 (병진) 7번째기사 / 김수가 경상좌·우도의 전쟁 상황을 아뢰다

김수가 치계하였다.

…… (중략) ……

우도는 거창·안음(安陰)·함양·산음(山陰)·단성(丹城)·하동·곤양(昆陽)·사천·진주 이외에는 모두 적의 침략을 겪었으며, 남해의 섬들은 비록 왜적의 난을 겪지는 않았으나 군량과 군기를 전라 좌수사(全羅左水使)가 먼저 스스로 불태워버려 이미 빈 성이 되었습니다.

- 선조 28권 25년 7월 4일 (신유) 13번째기사 / 요동 도지휘사가 국왕을 배종할 군신의 숫자 등을 묻는 자문

요동 도지휘사(遼東都指揮司)가 본국에 자문(咨文)을 보내 왔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국왕은 잠시 물러나 서쪽에 와 있으나 중요사직을 계승하여 지키는 것을 중히 여겨야 한다. 더구나 해국(該國)의 사민(士民)들은 임금

그리는 마음이 없지 않아서, 이광(李洸) · 윤선각(尹先覺) · 원균(元均) · 이순신(李舜臣) 등 충용(忠勇)스런 사람이 적지 않다. 일은 해국의 집정 재상(執政宰相) 및 2~3명의 일을 담당하는 자가 기회에 맞게 독단하여 처리하는 데 있을 뿐이다. 한편으로는 국왕을 수행할 궁속(宮屬)·신재(臣宰)·복종(僕從)이 각각 몇 명인지를 조사하여 압록강을 건너는 무리가 하나라도 넘치는 인원이 없도록 힘써야 하고, 한편으로는 현재의 병마가 얼마인지를 조사하여 일을 담당할 제신(諸臣)이 책임지고 도망친 자와 배반한 자를 수습하여 왕자(王子)로 하여금 안집시키고 보호하게 하며, 청천강 등의 요해처를 보전하도록 하여 만에 하나라도 다른 걱정이 없게 해야 한다. 혹 부득이하여 반드시 요동으로 와야 될 형편이면, 마음에 계획을 정하여 충용스런 제신은 그곳에 두어 우리 군사와 함께 힘껏 미친 도적을 섬멸하고 다시 옛 임금을 맞이하게 해야 한다. 단지 아주 가깝고 믿는 권속(眷屬)과 신복(臣僕)만을 거느리고 임시로 적의 군사를 피할 것이요, 어지럽게 따르는 백성들 때문에 회복할 계책을 그릇되게 하지 말라

- 선조 28권 25년 7월 9일 (병인) 3번째기사 / 비변사가 수사 원균·이순신의 승전보를 아뢰며 논상을 청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전라도 수사(全羅右道水使) 이억기(李億祺)가 좌수사(左水使) 이순신(李舜臣), 경상 우수사 원균(元均)과 협동하여 적선 39척을 쳐부수었습니다. 수급(首級)을 바친 것은 단지 9급이지만 왜란 이후 전투에서 이긴 공이 이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억기를 특별히 논상(論賞)하소서. 계본을 받들고 온 이흥상(李興祥)은 멀리서 행재소에 도달하였고 또 군공(軍功)이 있으니 6품에 상당하는 관직을 제수하고, 진무(鎭撫) 이근석(李根碩)에게도 상당한 관직을 제수하소서. 계본 중에 기록되어 있는 군공에 대해서는 해사(該司)로 하여금 마련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이어서 억기 등이 노획한 회갑(盔甲) 따위의 물건을 중국 장수에게 가져다가 보여주었다.

- 선조 28권 25년 7월 29일 (병술) 3번째기사 / 정철 등을 인견하고 평양성의 왜적, 요동 망명 등을 논의하다

상이 행궁(行宮)의 동헌(東軒)에 나와 삼도 도체찰사(三道都體察使) 정철을 인견하였다. 【좌의정 윤두수(尹斗壽), 승지 민준(閔濬), 주서(注書) 강욱(康昱).】

…… (중략) ……

상이 이르기를, “이 왜적의 뜻을 살펴보면 팔도(八道)를 점거하려는 것이다.”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전라도는 이순신(李舜臣)을 힘입어 온전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적병이 벌써 전라도를 침범하였다.” 하니, 정철이 아뢰기를, “듣건대 고경명(高敬命)이 그의 아들 고종후(高從厚)에게 군사를 나누어 주어 방어하는데 적세가 호대(浩大)하다 합니다. 전하께서는 압록강을 건넌다는 말을 입밖에 내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도 영원히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 선조 29권 25년 8월 16일 (계묘) 5번째기사 / 비변사가 당항포의 대첩을 논상하라고 청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전쟁이 일어난 이래 제장(諸將)이 한결같이 퇴패(退敗)만을 거듭하였습니다. 작은 승첩(勝捷)이 있다 하더라도 몇 명씩 떼지어 다니는 보잘것없는 적과 싸운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제 당항포(唐項浦)에서 왜적과 만나 비로소 대첩(大捷)을 거두었습니다. 전후 공을 보고한 것 중 이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별도로 논상(論賞)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이순신(李舜臣)은 전에 이 일로 가자(加資)하였으나 개품(改品)이 없었으니 초자(超資)하도록 하라.”

- 29권 25년 8월 16일 (계묘) 6번째기사 / 비변사가 이순신의 계본에 따라 목장의 말을 육전에 쓰자고 청하다

비변사가 아뢰었다. “이순신의 계본(啓本)을 보건대, 각 고을 목장의 말을 몰아다가 잘 길들여서 육전(陸戰)에 쓰게 하되 본고을의 감목관(監牧官)과 함께 수를 헤아려서 각 장사들에게 한 필씩 주고 일일이 장부에 적어 두었다가 성공을 기다려 영구히 지급하자고 하였습니다.”

- 선조 29권 25년 8월 16일 (계묘) 7번째기사 / 이순신·배흥립·어영담·정운·김완 등에게 가자하거나 관직을 제수하다

전라 수사(全羅水使) 이순신을 자헌(資憲)으로 가자하고, 흥양 현감(興陽縣監) 배흥립(裴興立)·광양 현감(光陽縣監) 어영담(魚泳潭)을 통정(通政)으로 올리고, 녹도 만호(鹿島萬戶) 정운(鄭運)·사랑 첨사(蛇梁僉使) 김완(金浣)을 절충(折衝)으로 올리고, 낙안 군수(樂安郡守) 신호(申浩)를 겸 내자시 정(兼內資寺正)으로, 보성 군수(寶城郡守) 김득광(金得光)을 겸 내성시 정(兼內贍寺正)으로, 우후(虞候) 이몽구(李夢龜), 전 첨사 이응화(李應華) 등을 훈련원 첨정(訓練院僉正)으로, 이기남(李奇男)을 훈련원 판관(訓練院判官), 김인영(金仁英) 등 3인을 훈련원 주부(訓練院主簿)로, 변존서(卞存緒) 등 14인을 부장(部將)으로 삼았는데, 이는 당항포(唐項浦)의 전공에 대한 상이었다. 구성 부사(龜城府使) 윤승길(尹承吉)·평양 서윤(平壤庶尹) 남복흥(南復興)을 통정(通政)으로 올리고, 지례 현감(知禮縣監) 김호(金浩)를 겸 선공감 판관(兼繕工監判官)으로, 직산 현감(稷山縣監) 박의(朴宜)를 겸 의영고 영(兼義盈庫令)으로 삼았다.

- 선조 29권 25년 8월 24일 (신해) 2번째기사 / 비변사가 한산도 대첩에서의 승리에 대한 상을 논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경상 수사(慶尙水使) 원균(元均)의 승첩을 알리는 계본(啓本)은 바로 얼마전 이순신(李舜臣)이 한산도(閑山島) 등에서 승리한 것과 한때의 일입니다. 싸움에 임해서는 수종(首從)이 있고 공에는 대소가 있는 것이어서 그 사이에 차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확실히 알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적을 뵈었으므로 대략을 논하면, 힘을 다하여 혈전했음에는 의심이 없습니다. 다시 1등에 참여한 이는 마땅히 별도로 포상을 하여야 할 듯합니다. 첨사(僉使) 김승룡(金勝龍), 현령(縣令) 기효근(奇孝謹)은 특별히 당상(堂上)에 올리고, 현감(縣監) 김준계(金遵階)는 3품으로 승서(陞叙)하고, 주부(主簿) 원전(元堧)은 5품으로 승서하고, 우치적(禹致績) 등 4인은 6품으로 승서하고, 이효가(李孝可) 등 13인은 공에 맞는 관직을 제수하소서. 만호(萬戶) 한백록(韓百祿)은 전후 공이 가장 많은데 탄환을 맞은 뒤에도 나아가 싸우다가 싸움이 끝나고 오래지 아니하여 끝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극히 슬프고 애처로운 일이니, 또한 당상(堂上)으로 추증하소서. 배지인(陪持人) 박치공(朴致恭)은 3급(級)을 베고 왜적한 명을 사로잡았으니 6품으로 승서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이에 의하여 조처해야 한다. 원균에게는 가자(加資)를 하지 않는가?” 하였는데, 회계(回啓)하기를, “원균은 이미 높은 가자를 받았고 지금 이 전첩(戰捷)의 공은 이순신이 으뜸이므로 원균에게는 가자할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 선조 32권 25년 11월 11일 (정묘) 6번째기사 / 비변사가 중국군 장수와 주고 받은 왜적의 정세 및 조선의 형세에 대한 문답

중국에서 군사를 내어 구원하려고 왜의 정세와 우리 나라의 형세를 조목으로 물었다. 비변사가 조목에 따라 진술하였는데, 그 문답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1. 문 : 왜노의 분명한 수효는 얼마이며, 어떤 정세이고, 어디에 잠복하고 있는가? 답 : 왜선(倭船)이 처음 부산(釜山)에 도착한 것은 4백여 척이었으며, 또 뒤따라 도착한 것이 7~8백

. 그들의 개미처럼 흩어지고 멧돼지처럼 내달아 7도(道)를 나누어 점거하고 있다. 1. 문 : 왜선은 얼마나 되며, 현재 어느 하구(河口)에 정박하고 있는가? 평양에는 현재 얼마나 있으며 얼마나 파괴되었는가? 답 : 왜선은 길을 나누어 전라도를 침범했는데 본도의 수사(水使) 이순신(李舜臣) 등이 전후 일곱 차례 싸워서 4백여 척을 불태워 격파하였고, 목을 벤 자 이외에 물에 빠져 죽은 자가 부지기수이다. 현재 해항(海港)에 정박하고 있는 것은 4~5백 척이며, 우리 나라의 어선을 약탈한 평양에 남아 있는 적선은 겨우 수십 척이다. 왜인들의 수비가 매우 엄하여 우리 군사가 밤을 타 몰래 가서 몇 척을 파괴했다.

- 선조 32권 25년 11월 24일 (경진) 4번째기사 / 권율·이순신·박광옥 등이 탄일 축하 전문을 보내다

전라도 관찰사 권율(權慄), 좌도 수사(左道水使) 이순신(李舜臣), 순천 부사(順天府使) 권준(權俊), 나주 목사(羅州牧使) 박광옥(朴光玉)이 탄일(誕日) 하전(賀箋)을 보내왔다. 또 권율이 봉진(封進)한 탄일(誕日)·동지(冬至) 위전(慰箋)이 이르렀다.

- 선조 34권 26년 1월 11일 (병인) 15번째기사 / 각도에 있는 병마의 숫자

답보(答報)하면서 헤아려 개진한 것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 강화부(江華府)에 주차(駐劄)한 전라도 절도사 최원(崔遠)의 군사 4천 명, 경기도 순찰사 권징(權徵)의 군사 4백 명,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의 군사 3천 명, 의병장(義兵將) 우성전(禹性傳)의 군사 2천 명, 수원부(水原府)에 주차한 전라도 순찰사 권율(權慄)의 군사 4천 명, 【이상은 왕경(王京)의 서쪽에 있으며 경성(京城)과의 거리는 1일 정(程)이다.】 양주(楊州)에 주차한 방어사(防禦使) 고언백(高彦伯)의 군사 2천 명, 양근군(楊根郡)에 주차한 의병장 이일(李軼)의 군사 6백 명, 【이상은 왕경 동쪽에 있으며 경성과의 거리는 1일 정이다.】 여주(驪州)에 주차한 경기 순찰사 성영(成泳)의 군사 3천 명, 안성군(安城郡)에 주차한 조방장(助防將) 홍계남(洪季男)의 군사 3백 명 【이상은 왕경에 있으며 1일 반 정이다.】 충청도 직산현(稷山縣)에 주차한 본도 절도사 이옥(李沃)의 군사 2천 8백 명, 평택현(平澤縣) 등처의 장관(將官)들이 각각 수백 명을 거느리고 있는데 합해서 약 3천여 명, 각처의 의병이 각각 수백 명을 거느리고 있는데 합해서 약 5천여 명이다. 【이상은 왕경 남쪽에 있으며 경성과의 거리는 2~3일 정이나 4~5일 정이다.】 경상좌도 안동부(安東府)에 주차한 본도 순찰사 한효순(韓孝純)의 군사 1만 명, 울산군(蔚山郡)에 주차한 본도 절도사 박진(朴晉)의 군사 2만 5천 명, 창녕현(昌寧縣)에 주차한 의병장 성안(成安)의 의병 1천 명, 영산현(靈山縣)에 주차한 의병장 신감(辛碑)의 군사 1천 명, 경상우도 진주(晉州)에 주차한 본도 순찰사 김성일(金誠一)의 군사 1만 5천명, 창원부(昌原府)에 주차한 본도 절도사 김시민(金時敏)의 군사 1만 5천 명, 합천군(陝川郡)에 주차한 의병장 정인홍(鄭仁弘)의 군사 3천 명, 의령현(宜寧縣)에 주차한 의병장 곽재우(郭再祐)의 군사 2천 명, 거창현(居昌縣)에 주차한 의병장 김면(金沔)의 군사 5천 명, 【이상은 왕경의 남쪽에 있으며 경성과의 거리는 7~8일 정이나 12~13일 정이다.】 전라도 순천부(順天府) 앞바다에 주차한 본도 좌수사 이순신(李舜臣)의 수군(水軍) 5천 명, 우수사 이억기(李億祺)의 수군 1만 명 및 각처에 나누어 주둔한 조비군(措備軍) 1만 명, 【이상은 왕경 남쪽에 있으며, 경성과의 거리는 8~9일 정이나 13~14일 정이다.】 함경도 함흥부(咸興府)에 주차한 본도 절도사 성윤문(成允文)의 군사 5천 명, 경성부(鏡城府)에 주차한 평사(評事) 정문부(鄭文孚)의 군사 5천 명, 안변부(安邊府)에 주차한 별장(別將) 김우고(金友皐)의 군사 1백명, 조방장 김신원(金信元)의 군사 1백명, 【이상은 경성 북쪽에 있으며 경성과의 거리는 15~16일 정이나 24~25일 정이다.】 강원도 인제현(麟蹄縣)에 주차한 본도 순찰사 강신(姜紳)의 군사 2천 명이다. 【왕경 동쪽에 있으며 경성과의 거리는 4일 정도다.】 평안도 순안현(順安縣)에 주차한 본도 절도사 이일(李鎰)의 군사 4천 4백 명 내에 사수(射手) 1천 2백 80명, 법흥사(法興寺)에 주차한 본도 좌방어사 정희운(鄭希雲)의 군사 2천 명 내에 사수 2백 23명·포수(砲手) 50명, 의병장 이주(李柱)의 군사 3백 명 내에 사수 70명, 소모관(召募官) 조호익(曹好益)의 군사 3백 명 【이상은 평양부(平壤府) 동쪽에 있으며 본부와는 1일 정이다.】

(龍崗縣)에 주둔한 우방어사 김응서(金應瑞)의 군사 7천 명 내에 사수 7백 70명, 조방장 이사명(李思命)의 군사 1천 명 내에 사수 90명, 대동강 하류에 주둔한 수군장[舟師將] 김억추(金億秋)의 군사 3백 명 내에 사수 1백 20명, 【이상은 평양부 서쪽에 있으며 본부와의 거리는 1일 정이나 반일 정이다.】 황해도 황주(黃州)에 주둔한 본도 좌방어사 이시언(李時言)의 군사 1천 8백 명, 재령군(載寧郡)에 주둔한 우방어사 김경로(金敬老)의 군사 3천명, 연안부(延安府)에 주둔한 본도 순찰사 이정암(李廷菴)의 군사 4천 명이다. 【이상은 왕경에서 서북쪽, 평양부에서 남쪽에 있으며 왕경과의 거리는 7~8일 정이며 평양성과의 거리는 1~2일 정이나 4~5일 정인데 모두 대동강 남쪽에 잇따라 있다.】 위의 각처 군마(軍馬)는 합계가 17만 2천 4백 명인데, 적의 향방에 따라 기회에 따라 진격하므로 주둔하거나 가는 곳을 확실하게 지적할 수 없으며 또한 군사의 수효도 첨가되거나 나뉘어져서 많고 적음이 일정하지 않다.

- 선조 37권 26년 4월 18일 (임인) 9번째기사 / 무수한 왜선이 도착하고 있다며 비변사에 조처를 강구하라고 이른다

상이 정원에 분부하였다. “왜적이 금년 봄에 병력을 증파하는 일에 대해 누구인들 염려하지 않겠는가. 지난번에 유성룡의 장계를 보건대 ‘이순신이 식량을 운반하는 왜선(倭船)을 포획하였고 박의장(朴毅長)도 새옷을 만들어 가지고 오는 왜적을 사로잡았다.’ 하였으니, 그들이 병력을 증파하는 실상은 이미 의심할 것이 없다. 그리고 무수한 왜선이 도착하여 정박하고 있다는 말이 있으니 비변사에 일러서 다시 조처를 강구하게 하라.”

- 선조 38권 26년 5월 3일 (병진) 3번째기사 / 송 경락이 정주를 출발하면서 표현에게 적을 토벌하는 일을 말하고 전령전을 보내다

송 경락이 정주(定州)를 출발하던 날에 좌우를 물리치고 통사(通事) 표현(表憲)을 군막(軍幕) 안으로 불러들여 귀에 대고 말하기를,

…… (중략) ……

상이 정원에 전교하기를, “지금 경락이 표현(表憲)을 보내어 전령전이 도착하였으니, 마음을 다하여 적을 섬멸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경들은 절대로 그가 책임이나 때우려 한다고 여겨 데면하게 대하지 말고, 선전관(宣傳官) 중에서 용맹스럽고도 말을 잘 달리는 자를 급히 파견하여 밤낮으로 달려가서 이순신(李舜臣)에게 명령을 전하여 적선을 모두 불태우고 나서 그대로 해상에 머물면서 장병들을 거느리고 단단히 지켜 적의 퇴로를 끊음으로써 적이 바다를 건너가지 못하게 하라.”하고, 인하여 전교하기를, “이는 시급한 일이니 여러 당상관들에게 두루 하문할 수 없다. 빨리 주서(注書)를 보내어 좌상과 우상에게 하문하라.”하였다. 윤두수(尹斗壽)가 상의 하교에 따라 파견하겠다는 뜻으로 회계(回啓)하였다.

- 선조 38권 26년 5월 27일 (경진) 3번째기사 / 비변사와 중국군을 진격시킬 일과 왜적들의 동태에 대해 논의하다

상이 비변사에 묻기를,

…… (중략) ……

지금의 사세는 참으로 민망하고 절박합니다. 다만 근일 동쪽 변방의 비보(飛報)를 살펴보면, 이빈(李濱) 등 여러 장수들은 모두 사잇길을 따라 곧바로 부산(釜山)으로 나아가서 중국군의 뒤에 있지 않고, 권율(權慄)·선거이(宣居怡)·이복남(李福男) 등은 아직 경계를 넘지 못하였으며, 이순신(李舜臣) 등이 이끄는 주사(舟師)는 먼 해항(海港)에 있어 모두들 중국군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함세할 형편이 못 된다고 합니다. 각처의 품첩(稟帖)에 이른바 조선의 병마(兵馬)는 그림자도 비치지 않는다고 한 말이 아마도 전혀 안보(臆報)에서 나왔다고는 할 수 없을 것

. 그리하여 제독의 마음에는 자기가 외로운 군대를 이끌고 멀리 수천 리를 왔는데 성원이 될 만한 대병력을 볼 수가 없으니, 제독이 머뭇거리며 진격하지 않는 이유가 반드시 이 때문이 아니라고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 선조 38권 26년 5월 29일 (임오) 5번째기사 / 좌의정 윤두수 등을 인견하고 중국 남병의 주둔, 경성 이어 등을 논의하다

상이 비변사의 당상관인 좌의정(左議政) 윤두수(尹斗壽), 좌찬성(左贊成) 정탁(鄭琢), 서천군(西川君) 정곤수(鄭崑壽),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정창연(鄭昌衍), 창산군(昌山君) 성수익(成壽益), 병조 참판(兵曹參判) 심충겸(沈忠謙)을 인견하였는데 좌승지(左承旨) 홍진(洪進),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 박홍로(朴弘老), 지평(持平) 이수광(李睟光), 정언(正言) 이상신(李尙信), 검열(檢閱) 조유한(趙維韓)·신영(申泳), 가주서(假注書) 남이신(南以信)이 입시(入侍)하였다.

..... (중략)

두수가 아뢰기를, “이순신(李舜臣)의 장계를 가지고 온 사람이 ‘수전(水戰)을 할 때에는 반드시 왜적을 유인하여 바다로 나오게 한 뒤에야 공격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무리 유인하여도 나오지 않으니 공격할 만한 기회가 없다.’고 하였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억기(李億祺)의 장계를 보아도 역시 이와 같다. 그러니 수전 역시 할 수 없겠다. 또 화약(火藥)을 집집마다 활[弓]과 화살[矢]처럼 반드시 구비하여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하였다.

- 선조 40권 26년 7월 15일 (정묘) 8번째기사 / 원군이 진주성 함락 후 전라도 연해 백성의 소동을 보고하다

원군이 또 치계하였다. “신이 이순신(李舜臣)과 서로 약속(約束)하고서 한산도(閑山島) 등지에 진(陣)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흉적이 진주를 함락한 뒤로 전라도 연해(沿海)에 사는 백성들이 적이 전라도 지경에 이르기 전에 먼저 소동을 일으켜 관사(官舍)를 태우기도 하고 혹은 창고의 곡식을 노략질하기도 하는데, 도처가 다 그러합니다.”

- 선조 40권 26년 7월 20일 (임신) 9번째기사 / 전라 관찰사 이정암이 해안 지역 상황을 아뢰며 구원군의 파견을 청하다

전라 관찰사 이정암(李廷翰)이 치계하였다. “작년 6월 27일 좌도 수군 절도사(左道水軍節度使) 이순신(李舜臣)의 치보(馳報)에 ‘부산(釜山) · 김해(金海)의 적선(賊船)이 웅천(熊川)으로 옮겨 모였는데 그 수가 7~8백 척(隻)은 족히 된다.’고 했던 것을 이미 치계하였습니다. 웅천 등지에 옮겨와서 정박해 있던 그 적선들이 금년 6월 23일 야음(夜陰)을 틈타 몰래 도해(渡海)하여 거제(巨濟) 경계에서부터 영등포(永登浦) · 송진포(松珍浦) · 하청가이(河淸加耳)까지 가득 정박하고 있는데 선박의 수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염(閭閻)을 분탕(焚蕩)하는 것은 전년에 비해 더욱 심합니다. 이들 적세(賊勢)를 보건대, 수륙(水陸)이 함께 공격하여 호남을 침범할 뜻이 분명하므로 적로(賊路)의 요충(要衝)인 거제(巨濟)의 경계와 한산도(閑山島) · 견내량(見乃梁) 등처에서 삼도(三道)의 주사(舟師)가 합세하여 죽을 각오로 막기로 작정하였으나 행재소(行在所)가 멀리 있어 미처 치보(馳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4일에 구례(求禮)의 지경(地境) 석주(石柱)에 복병(伏兵)하고 있는 복병장(伏兵將) 고부 군수(古阜郡守) 왕경조(王景祚)의 치보에 ‘흉적 2만여 기(騎)가 진주(晉州)로부터 곧바로 약양창(岳陽倉)으로 와서 분탕한 다음 점점 우리 군사가 매복해 있는 곳으로 나오고 있다.’ 하였습니다. 4일에 보낸 왕경조의 치보에 또 ‘흉적이 우리 군사가 매복하고 있는 10여 리 밖에서 분탕질을 친 뒤에 진(陣)을 치자, 파수(把守)하는 군사들이 모두 도망하였으므로 파수할 방법이 없어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하였습니다. 적세가 가까워지자 매복한 군사들이 풍문만 듣고 모두 도산(逃散)하니 본도(本道)가 와해(瓦解)되는 화(禍)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 조정에서 급히 처치하여 정예(精銳)한 군사 다수를 보내주소서” 하였다.

- 43권 26년 10월 17일 (정유) 5번째기사 / 비변사가 군량 문제와 관련하여 둔전책을 제시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전쟁이 그치지 않았는데 군량이 모자라 판출할 방법을 백방으로 생각해 보아도 곡식을 구득할 도리가 없습니다. 대저 천지(天地)에서 나는 것은 원래 그만한 수량이 있는 법이어서 민간에 있지 않으면 관청에 있게 되는 것인데, 지금은 공유(公有)나 사유(私有)가 모두 고갈되어 교묘하게 명목을 붙여 다방면으로 수집(收集)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두회기렴(頭會箕斂)을 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옛적에는 싸움이 일어났을 때 반드시 먼저 둔전책(屯田策)을 강구했는데 이는 그 뜻이 모든 백성의 일정한 수확 이외에서 곡식을 구득하려 한 초처인 것입니다. 전에 병사(兵使)와 수사(水使)가 둔전하게 할 일을 이미 이순신(李舜臣)의 장계에 따라 각도(名道)에 이문(移文)했습니다. 각 진보(鎭堡)의 첨사(僉使)·만호(萬戶)와 각 고을의 수령은 광활한 목장(牧場)이나 관개(灌溉)할 수 없는 제언(堤堰)과 진황전답(陳荒田畓)을 가려내어 둔전을 만들고 형편대로 농사를 짓게 하되, 그 중에 곡식을 가장 많이 수확한 사람을 도(道)마다 각 1인씩 선발, 승진 서용(敍用)하기도 하고 포상(褒賞)하기도 한다면 사람들이 모두 다투어 권면하게 되어 번거롭게 하지 않고도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이런 뜻으로 팔도의 감사에게 이문하여 즉시 시행하게 하되, 각 고을과 각진(各鎭)의 둔전 경작 장소를 개록(開錄)해서 계문하게 함으로써 뒷날 상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뜻은 좋지마는 우리나라의 사정은 중국과는 다른데 농사지를 백성이 어디에서 나오겠는가. 백성들 또한 침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리고 포상하는 일에는 반드시 황당하게 거짓 꾸미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니 다시 살펴서 하라.” 하였다.

- 선조 43권 26년 10월 22일 (임인) 1번째기사 / 임금이 편전에 나아가 대신들과 함께 왜적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하다

상이 편전(便殿)에 나아가 대신들에게 이르기를, “왜적들이 이처럼 주둔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니, 풍원 부원군(豊原府院君) 유성룡(柳成龍)이 아뢰기를, “왜적이 강화(講和)를 핑계로 변방 고을에 주둔해 있으면서 여전히 약탈을 하고 있으니, 우리 나라가 진실로 그들의 술책에 빠진 것입니다. 김준민(金俊民)이 거제(巨濟)를 떠난 뒤부터는 왜적이 거제의 옥포(玉浦)·영등포(永登浦)·지세포(知世浦) 등의 섬을 나누어 점거하고 있는데, 병선 만들 목재가 이 섬들에만 있습니다. 만일 적군이 쉬면서 선척(船隻)을 많이 만들게 된다면 우리도 주사(舟師)가 있기는 하지만 사세가 막아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구나 수사(水使)들은 무재나 지략이 서로 비등하고 호령이 한결 같지 못합니다. 원균(元均)의 군사 6백여 명과 이순신의 군사 1천여 명이 오랫동안 바다 위에 머무르고 있는데다가 또 매우 굶주리고 있으니, 하루 아침에 무너진다면 적군이 바다와 육지로 한꺼번에 몰려올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백방으로 생각해 보아도 달리 방어할 계책이 없습니다. 반드시 중국군과 합세해야 하는데 군량이 모자라니 매우 민망하고 염려됩니다. 여기의 경비(經費)로 한 해를 지탱하여 쓸 만한 수량을 정하여 10만~20만 석쯤 요량해서 남겨두고 그 나머지는 모두 그곳으로 실어다가 군량에 보충한다면 일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사를 조발하는 등의 일에 있어서는 각 고을들이 오로지 하리(下吏)들에게만 맡기고 있으므로 강장한 자는 뇌물을 주어 면하고 쇠약한 자만 뽑힙니다. 이번에는 노약(老弱)은 제외하고 정예(精銳)만 뽑아 3등급으로 나누어 부책(簿冊)을 만들고, 그 임시에 조발하여 압령(押領)하고 가서 교부(交付)하게 한다면 일시에 이르게 되어 전처럼 혼잡해지는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 선조 45권 26년 윤11월 6일 (병술) 5번째기사 / 비변사가 통제사 이순신 이하 수사를 모두 추고하여 죄줄 것을 청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도원수(都元帥)의 장계를 보건대 ‘네댓 척이 출몰하는 적선(賊船)은 오히려 쫓아가 무찌를 수 있는데, 좌도(左道)·우도(右道)의 수사(水使)가 서로 잊어버린 것처럼 버려두니, 통제사(統制使) 이순신(李舜臣) 이하 수사를 모두 추고하여 죄주도록 명하소서.’ 하였습니니다. 수군이 바다에 오래 있는 것은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조정(朝廷)이 접때 잠시 군사들을 쉬게 하여 예기(銳氣)를 기르도록 허가하였으나, 지난해 싸움에 이긴 것을 아린 뒤로는 한 번도 적을 무찌른 일이 없으므로, 원수가 죄주기를 청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니, 장계한 대로 추고하여 칙려(飭勵)토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선조 45권 26년 윤11월 14일 (갑오) 2번째기사 / 임금이 남별궁에 나아가 유성룡을 인견하고 중국 사신에 관한 일 등을 의논하다

상이 남별궁(南別宮)에 나아가 막차(幕次)에서 영의정 유성룡을 인견하였는데, 도승지 심희수(沈喜壽), 주서 남이신(南以信), 대교 김상준(金尙濩), 검열 박동선(朴東善)이 입시하였다.

…… (중략) ……

이제 경상도에 적이 있는 곳으로는 울산(蔚山)의 서생포(西生浦)와 동래(東萊)·부산(釜山)과 양산(梁山)의 상용당(上龍堂)·하용당(下龍堂)과 김해(金海)·창원(昌原)이며, 바다 안은 가덕(加德)·천성(天城)과 거제(巨濟)와 거제의 영등포(永登浦)와 장문포(場門浦)입니다. 소방의 맹장(猛將)·정병(精兵)이 전후(前後)로 힘껏 싸우다가 함안(咸安)·진주(晉州) 사이에서 죽은 자가 무려 수만여 인이며, 적의 수미(首尾)가 가도·우도에 걸쳐 수백 리에 뻗쳐 있으면서 번갈아 나와서 마구 약탈해 왔는데 다행히도 천병(天兵)이 대구(大丘)·경주(慶州)에 압림(壓臨)하여 있으므로, 울산의 적이 경주로 넘어오지 못하고 동래의 적이 대구로 넘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북(西北)에 있는 본국의 제장(諸將) 즉 이빈(李賓)·고언백(高彦伯)·홍계남(洪季男)·선거이(宣居怡) 등도 또한 범이 산에 있는 위엄을 빙자할 수 있어서 영잔(零殘)한 군졸을 거두어 의령(宜寧)·울산·경주 사이에서 나누어 막으면서 날마다 혈전(血戰)하고 있는데 형세는 이미 위축되었습니다. 또 거제의 적이 전라도의 지경을 침범하기 쉬우므로 세 도의 주사장(舟師將) 이순신(李舜臣)·원균(元均)·이억기(李億祺) 등을 시켜 수군 1만여를 거느리고 한산도(閑山島)에서 서로 차단하여 서방으로 침범하는 길을 방비토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소방이 오늘날 적에게 대비하고 있는 형세의 대략이며, 그 밖에 정찰한 군사는 모두 총병의 영문에 가서 훈련을 기다립니다.

- 선조 46권 26년 12월 1일 (경술) 12번째기사 / 도원수 권율에게 수군과 육군을 모두 관장하게 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상가 도원수(都元帥) 권율(權慄)의 장계 내용을 보니, 도원수의 의견은 육전(陸戰)을 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제사(統制使) 이순신(李舜臣)은 전일에 조정에서 연해변의 수령들을 나이(那移)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령(下令)이 있었는데도 진주(晉州) 등 4~5개의 고을 수령들까지도 하해(下海)하게 하였다 합니다. 수군이 적도를 차단하는 것도 진실로 관계되는 바가 중하지만 진주 등의 고을은 바로 적을 맞는 요충지로서 바야흐로 대진(對陣)하고 있는 중인데 모두 하해시킨 것은 진실로 승산(勝算)이 아닙니다. 대저 도원수가 수군과 육군을 모두 관장하여 완급과 이해를 보아가며 편의한 바를 힘써 찾아 좋은 방향으로 조치하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회유(回諭)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 선조 46권 26년 12월 4일 (계축) 2번째기사 / 대신과 유사 당상을 인견하여 권율이 왜군을 바로 공격하려고 하는 것의 당부 등을 논하다

상이 이르기를, “나의 소견에는 적정을 아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된다. 먼저 적정을 알아야 변란에 대응할 수가 있는 것인데 적에게 변고가 생겼다는 것은 헛말이다. 적이 들어가더라도 반드시 구원병을 머물러 놓을 것이니 이는 우리를 속이고 철병(撤兵)할 계책인 것이다. 우리 나라는 장군이 병법을 몰라 군대의 부오가 정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양떼를 모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어떻게 적을 칠 수가 있겠는가. 군대에 관한 일은 비밀을 숭상해야 되는

귀신도 모르게 해야 되는 것인데 도원수의 거사에 대한 소문이 각도에 자자하니 외방에서도 모두 알 것이 틀림없다. 전일 김천일(金千鎰)이 강화(江華)에 있을 적에 날짜를 정하여 적을 친다고 했는데 내가 그때 의주(義州)에 있으면서 그 말을 듣고 실소를 금치 못했다. 아무리 명장(名將)이라 하더라도 처사가 이러하면 어떻게 적을 칠 수가 있겠는가. 어제 내린 서장(書狀)에서도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서 조금도 비밀스럽게 한 것이 없으니 군기(軍機)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공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견이 이와 같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하였다. 영천에 있던 적은 바로 일지병(一枝兵)이었기 때문에 공격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지금은 적의 거추(巨酋)인 평의지(平義智)가 거제도(巨濟島)를 지키고 있고 소서행장(小西行長)이 부산을 지키고 있으니 우리 나라의 장수가 어떻게 공격할 수 있겠는가. 혹 요행이 있었던 때도 있기는 했다. 옛날 관운장(關雲長)이 촉(蜀)을 칠 때 쟁(鎗)을 쳐야 하는데 잘못 북(鼓)을 쳐서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럴 수가 있기도 하다. 경의 말에 서생포(西生浦)를 공격하기도 하고 부산을 공격하기도 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병법에 약한 곳을 먼저 치라고 하였으니 서생포와 부산은 칠 수가 없다. 먼저 웅천(熊川)을 쳐서 제장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여 이순신(李舜臣)의 주사(舟師)가 통할 수 있게 된 다음에야 가능하다. 만약 거사하기를 바란다면 모쪼록 이런 내용으로 비밀히 하서하여 제장들과 의논하여 조처하게 하라.”

- 선조 46권 26년 12월 19일 (무진) 3번째기사 / 대신·비변사·삼사를 인견하여 왜를 공격할 일, 둔전설치 등을 논의하다

상이 행궁(行宮)의 편전(便殿)에 나아가 대신·비변사·삼사(三司)를 인견하였다. 상이 승지와 사관(史官)을 앞으로 나아오게 하고, 인하여 대신에게 이르기를, “옛사람은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반드시 여러 사람에게 계책을 물어 의견이 일치된 다음에도 점을 쳐서 귀신에게 길흉을 묻고 미리 약속을 하고 그 조처를 극진히 하여 계책이 아주 완전한 뒤에 거행하고도 오히려 여의치 못할까 걱정했는데, 더구나 지금의 일은 국가의 존망이 달려 있는데도 서로 모의도 하지 않고 갑자기 거사하려 하니 나는 알 수가 없다. 이제 이항복의 서장을 보건대, 유 총병과 도원수도 모두 모르고 있었고 나도 이제야 비로소 알았다. 그리고 이순신(李舜臣)의 장계를 보건대 수군(水軍)까지도 징발한다고 한다. 이렇게 하는 의도는 주머니 속에 든 물건을 취하듯이 쉽게 여겨서이다. 그러나 이 흉적을 어찌 이다지도 용이하게 공취(攻取)할 수 있겠는가. 이는 비변사의 재상들과 상론(商論)한 바가 있는 것이 틀림없으니, 내가 그간의 곡절을 알고 싶다. 이제 이미 제도(諸道)의 군사를 징발하였으니 중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흉적을 토벌하는 거사는 만고에 바꿀 수 없는 정론(定論)이니 나의 이 말은 중지하자는 것이 아니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신이 근일 감기로 앓아 누워 있었는데 비변사 낭청이 이 일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므로, 신도 미안하게 여겼습니다. 중국 군이 나오는 것은 기약할 수 없고 그렇다고 앉아서 멸망을 기다릴 수도 없으니, 군대를 초발하는 일은 중지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 도원수에게 사람을 보내어 근일의 적세(賊勢)와 거사에 대한 편부를 물어 보았습지만 아직까지 회보(回報)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대를 징발하여 거사한다는 보장(報狀)이 갑자기 왔고 또 이항복의 서장을 보건대 중국군과 상의하지 않은 것 같으니 매우 괴이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데 어찌 갑자기 결정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신들이 지난번 중국군과 합세하여 조만간 한번 거사해야 된다고 상의한 적은 있었으나 아직 약속이나 결정한 일은 없습니다.”

…… (중략) ……

성룡이 아뢰기를, “삼도(三道) 수사(水使)들의 의견은 영등(永登)에 있는 적을 공격하려 하고 또 선박을 옮겨 부산(釜山)에 있는 적이 돌진하여 오는 길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순신이 계속 승리한 것은 수군의 힘이다. 영상은 비변사에 가서 원수(元帥)에게 이문(移文)하여 그의 군사를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적이 돌격해 오지 못하는 것은 순신의 힘이니, 이와 서로 호응하여 공을 이루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영담(魚泳潭)은 수로(水路)에 익숙한 사람이니 일을 위임시켜야 합니다.”

- 선조 46권 26년 12월 30일 (기묘) 6번째기사 / 비변사에서 군량 마련을 위해 진주 흥선도 목장을 둔전으로 경작할 것을 청하다

아뢰기를, “지금의 형세는 곳곳에 양곡이 고갈되었는데 병란은 풀리지 않고 있으니 백방으로 생각하여 보아도 구제할 계책이 없습니다. 지난번 전라 수사(全羅水使) 이순신(李舜臣)이 해도(海島)에 둔전 설치하기를 청했는데 이는 매우 원대한 생각입니다. 가령 소득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지(內地)에서 운송해 가는 폐단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경상도 진주(晉州)의 흥선도(興善島) 목장(牧場)은 토지가 비옥하여 기장이 잘 된다고 하는데 지금 수군과 제장(諸將)들이 한산도(閑山島)에 있으면서 그 앞을 막고 있으니 금년에 조처하여 목자와 유민들로 하여금 김해(金海)·거제(巨濟) 등 처에서 귀순해 와서 갈 데가 없는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살게 하고, 남해(南海)·곤양(昆陽)·진주 등지의 금년 관적(官糶) 가운데 있는 종자를 내어 주어 힘써 경작하게 한다면, 이를 수확하여 군량에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처를 잃은 백성들도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원균(元均)의 군관(軍官)인 감찰(監察) 박치공(朴致恭)이 내려가니 이런 내용으로 원균과 관찰사 한효순(韓孝純)에게 하유하여 제때에 맞추어 시행하게 하소서. 또 장내(場內)의 마필(馬匹)의 수효도 조사하여 계문하게 하고 그 가운데 건장한 말은 숫자를 헤아려 끌어다가 전사(戰士)들에게 쓰게 하고 그 나머지 암컷과 망아지는 남겨두어 번식시키는 종마(種馬)로 쓰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의견도 상세히 헤아려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선조 52권 27년 6월 18일 (을축) 1번째기사 / 주문하는 일, 전염병을 구제하는 일을 논하다

상이 이르기를, “대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서성은 연소한 사람이라서 신이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전에 유 총병의 진영에서 보니 지식이 트인 사람이긴 하였습시다만 사실 큰 재주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이번에 계책을 아뢴 것을 보니 한 가지 일도 영성한 것이 없습니다. 위임한 뒤에 잘 할지의 여부는 모르겠으나 소신의 생각도 등용할 만하다고 봅니다. 주사(舟師)에 관한 것은 신도 생각해 보건대, 주사를 많이 배치하여 수로(水路)를 차단하고 오가는 배를 저격한다면 대세가 반드시 흔들릴 것이니 이를 기회로 수륙(水陸)에서 병진하자고 하는 이 계책이 매우 합당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계책을 한번 시험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수군이 기역(饑疫)으로 많이 죽어 이순신은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지금 서성에게 글을 내려 주사를 모아 오가는 적을 가로막아 죽이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순신의 호령이 수령에게 시행되지 않고, 여러 장수가 서로 화합하지 않는다고 하니, 명망이 있는 문관으로 종사관을 삼아 보내야 하지 않겠는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전 부사(府使) 정경달(丁景達)이 내려갔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명망이 있는 문관을 정하여 보내야 열읍(列邑)을 호령할 수 있을 것이며 군중(軍中)에 외람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를 꺼려 진정이 될 것이다. 병판(兵判)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충겸이 아뢰기를, “이 계책이 매우 타당합니다.” 하였다.

- 선조 52권 27년 6월 23일 (경오) 5번째기사 / 장수를 등용하는 일을 전교하다

비망기에 이르기를, “어제 유 총병(劉摠總)의 자문(咨文)을 보았는데 우리 나라를 위하여 이와 같이 염려해 주니 매우 감격스럽다. 전라도의 연변(沿邊) 수령은 다 바다로 내려가고 육군의 제장(諸將)은 다 영남에 모여 있으니, 만약 오도(五島) 등처에서 호남우도(湖南右道)를 공격해 나오면 사태는 반드시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규칙하여 면밀히 조치하라. 그리고 현재 장재(將才)가 부족한데 등용하는 일도 미진하다. 아무리 여러번 전공을 세운 지용(智勇)이 있는 사람이라도 한번 제장의 관하(管下)가 되면 그 또한 관하에서 끝날 뿐이다. 중조(中朝)에는 야불수(夜不收)가 도적이 되고 혹은 장군이 된 자도 있다. 이제 전사(戰士) 중에서 쓸 만한 사람을 발탁하여 조방장(助防將)의 직책을 주어 그에게 따로 한 부대를 거느리고 그 재주를 시험해 보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할 것인가? 들으니 한명련(朝明璉)과 백사림(白士霖) 같은 자는 말단의 부하로 두어서는 안될 것 같은데, 이 밖에 내가 모르고 있는 자가 얼마나 많겠는가. 아울러 참작하여 의논, 처리할 것으로 전교하라.” 하였는데, 비변사가 회계하기를, “삼가 성교(聖敎)를 받

예산(睿算)이 일반인의 견해보다 월등하십니다. 왜적은 갖가지로 흉악하고 교활하여 우리 나라 지방의 허실을 날날이 알고 있는데, 육군은 다 의령(宜寧)에 모여 있고 주사(舟師)는 다 한산도(閑山島)에 모인 것을 정탐하여 안다면 따로 기병(奇兵)을 내어 허술한 곳을 공격해 올 우려가 있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이 뜻을 통제사(統制使) 이순신에게 특별히 하유하여 여러 방법으로 계획하도록 하고, 순변사 이일(李鎰)에게도 이 뜻을 알려 미리 뜻하지 않은 사태를 대비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천 명의 병사는 얻기 쉽지만 한 명의 장수는 구하기 어렵다.’ 하였습니다. 지금 또한 편비(裨裨)와 병졸 속에 묻혀 있는 자 중에 반드시 장재를 가진 자가 없지도 않을 것입니다. 한명련과 백사림을 조방장으로 삼는 것이 사실 안 될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진중에 있으니 자연 각자 한 군대를 담당하게 하여 그 재주와 용맹을 시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재지(才智)가 있는 자를 널리 두루 찾아 다 수습하여 그 실재(實才)를 본 다음 발탁하여 쓰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선조 54권 27년 8월 20일 (을축) 6번째기사 / 경상 전라를 중심으로 왜적을 방비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문을 보내다

묘당의 의논을 따라 우리 나라의 사정을 진달해서 채택에 대비하는 일로 주문(奏文)을 보내었는데, 주문(奏文)은 다음과 같다.

…… (중략) ……

이제 적장(賊將) 가등청정(加藤清正)이 울산(蔚山) 서생포(西生浦)에 있기 때문에 배신 고언백(高彦伯) 등이 경주를 지키어 북쪽으로 나오는 길을 막고 있고, 적장 소서행장(小西行長)이 김해(金海)와 웅천(熊川)에 있기 때문에 배신 이빈(李賓) 등은 의령(宜寧)을 지켜 서쪽으로 침범하는 길을 막고 있으며, 또 바다 속의 거제도(巨濟島) 등지를 나누어 점거하고 있는 적이 수로를 따라 전라도 남쪽으로 해서 서해로 나오면 중심지인 충청도·경기와 황해·평안도 등이 모두 염려가 되므로 배신 이순신(李舜臣) 등으로 하여금 전선(戰船)과 수군을 거둬 모아서 거제현 서쪽 한산도(閑山島) 어구에서 지키게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소방에서 적을 방어하고 있는 형세의 대개입니다. 그런데 방어해야 할 지역이 이미 많은 데다가 병력도 나누어져서 각 장수들이 거느린 바가 모두 피폐한 약졸들인데 양식을 이어 대지 못하기 때문에 도망하고 흩어지는 자가 반이나 됩니다. 만약 적병이 크게 움직여 허악을 틈타 충돌해오면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 (중략) ……

소방 사람 중에 신을 위해 계책을 말하는 자들이 아뢰기를 ‘적병이 부산 등지의 요새지에 주둔하면서 성을 쌓고 호(濠)를 파니 쉽게 칠 수는 없으나 그들이 양식을 운반하고 군사를 증가하는 길은 부산에서 대마도까지 직접 배로 왕래하는 것입니다. 왜적이 육지 싸움에 능하고 수전은 잘 못하니 만약 수병을 정예하게 준비해서 거제도 앞 바다로 나가 왜적의 군량 보급로를 요격해 끊으면 해안에 있는 적병은 돌아갈 길이 끊어지고 형세가 자연 궁박하게 될 것입니다.’하니, 이 또한 한 가지 기이한 계책입니다. 그러나 수병을 많이 조발해야만 될 일인데, 소방의 힘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더욱 신이 비통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바입니다.”

- 선조 54권 27년 8월 21일 (병인) 3번째기사 / 유성룡의 병든 노모에게 의원을 보내고 왜적을 격퇴할 방안을 논의하다

이조 판서 김응남(金應南)이 아뢰기를,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김응서로 하여금 항복한 왜인을 거느리고 수군으로 들어가서 적의 소굴을 치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만약 수군으로 적들의 군량 보급로를 끊으면 적이 반드시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순신(李舜臣)이 혹시 일을 게으르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만약 이순신이 아니었다면 이만큼 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수·륙(水陸)의 모든 장수 중에 순신이 가장 우수합니다.” 하였다. 응남이 아뢰기를, “서로 대치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형세가 절로 쇠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과 부적이라 하나 왜적이 교체할 즈음에 군사의 형세가 허술할 것이니 공격할 만합니다. 용사를 많이 모아 그 한 부대를 치면 저들이 반드시 와해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

, “우리 나라 군사는 왜적의 한 부대도 공격할 수 없다.” 하였다. 응남이 아뢰기를,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늘 공격하려고 마음먹고 있다고 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지 않다. 군사의 형세가 같지 않다. 저 적들은 여러 해에 걸쳐 훈련을 했는데 우리 나라 군사는 모두 가르치지 못한 군사이니 백성이라 이를 수는 있어도 군사라 할 수는 없다.” 하고, 또 이르기를, “항복한 왜인 요질지(要叱只)가 나왔는데 이는 보통 왜졸이 아니니 우대함이 옳을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항복한 왜인을 대우하는 것이 매우 박하니 저들이 반드시 다른 마음을 품을 것이다.” 하였다.

- 선조 54권 27년 8월 23일 (무진) 4번째기사 / 비변사에서 수군 병력 증원 방법을 아뢰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수군의 병력을 증원하기 위한 사항을 신들이 반복해서 생각해 보았지만 좋은 계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행할 만한 계책도 있었습니다. 병란이 일어난 이래로 경상도의 백성이 다른 지방으로 유리(流離)한 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적에게서 도망하여 돌아온 자도 전후에 걸쳐 수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니 장수들로 하여금 지성으로 보살펴서 적절히 처리하게 하여 남해(南海) 등지에 안주시켜 노약자는 농사를 짓게 하고 장정은 격군(格軍)으로 삼으면 그 수가 반드시 입번(入番)하는 수군보다 많을 것입니다. 도원수 및 수사 원군과 통제사 이순신에게 하소하소서. 이제부터 적중에서 나오는 사람과 유리하는 사람들을 모두 거두어들여 해변의 기름진 땅에 정착하여 농사짓게 하고 장정은 잡역을 면제하고 격군에 충원하면 흠여졌던 백성은 죽음을 면할 수 있고 수군은 고단하고 잔악한 데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편부(便否)를 멀리서 알 수 없으니 원수로 하여금 정확하게 헤아려 속히 아뢰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선조 55권 27년 9월 19일 (갑오) 6번째기사 / 비변사가 거제의 왜적을 공격할 것을 아뢰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육지에 주둔한 적들은 진영이 이미 견고하고 우리들이 심히 많아서 우리의 잔폐한 약졸(弱卒)과 무딘 병기(兵器)로는 왜적의 일개 둔영(屯營)을 공격하여 깨뜨리기에 그 형세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직 주사(舟師)를 가지고 해로(海路)를 가로질러 차단하고 그 양도(糧道)를 끊는다면 적의 형세가 자연히 위축될 것이니, 이것이 바로 병법(兵法)에 이른바 견고한 곳을 피하고 틈 보이는 곳을 공격한다는 계책입니다. 또 거제(巨濟)에 비록 적이 주둔하고 있지만 형세가 외롭고 힘이 잔약하여 김해(金海)와 웅천(熊川)의 적과 물을 격해 서로 바라보면서 멀리서 성원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거제에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주사들이 견내량(見乃梁)을 지나서 동쪽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이제 거제의 적들을 공격하여 지탱하지 못하게 하면 웅천으로 가서 그곳의 적들과 서로 합할 것이니, 주사가 동쪽으로 가는 데에 장애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제도(諸道)의 전함(戰艦)을 옮겨다 영등포(永登浦) 앞바다에 정박시켜 출몰하면서 소굴을 공격하고 기치(旗幟)를 많이 벌여놓으며 금고(金鼓)가 서로 들리게 한다면, 언덕 위의 적들은 오로지 바다를 막으려고만 하여 반드시 모두 배로 옮길 것입니다. 그러면 육지의 제장(諸將)과 약속하여 동시에 함께 거사하되, 산골짜기나 숲속에 의병(疑兵)을 설치하여 적들이 병사의 다소(多少)를 헤아리지 못하게 하고, 간간이 정예병을 내어 수미(首尾)를 차단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제일의 기책(奇策)입니다. 그리고 거제의 형세를 신들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영등포와 옥포(玉浦) 사이에는 수풀이 하늘에 달고 초수(草樹)가 무성한데 거제의 사람 중에는 사냥하는 자가 많습니다. 만약 이들을 모두 모아서 밤낮으로 적진(賊陣)의 좌우에서 초격(勦擊)하게 하여 나무하는 적들을 사살(射殺)하게 한다면 거제의 적들은 반드시 달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최상의 계책인데도 그럭저럭 날만 보내어 지금까지도 일정한 계책이 없으니,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급히 선전관을 보내어 이 뜻을 가지고 주사 통제사(舟師統制使) 이순신(李舜臣)에게 통지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매우 마땅하다. 속히 거행하라.” 하였다.

- 55권 27년 9월 21일 (병신) 3번째기사 / 장수들에게 물품을 내려 노고를 치하하다

정원에 하교하기를, “바다와 육지의 여러 장수들이 여러 해 동안 방수(防戍)하며 적과 대치하느라 그 고생이 대단하다. 그런데도 물품을 내려주어 내 뜻을 보이지 못했다. 지금 이계명이 내려갈 적에 이엄(耳掩)을 보내어 여러 장수들에게 나누어주고자 하는데 누구 누구에게 주어야 할 것인지를 모르겠으니, 비변사에 문의하라.” 하니, 비변사가 회계하기를, “각처 육지와 바다의 여러 장수들이 여러 해 동안 노천에서 수고한 정상은 이루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편비(褊裨) 이하는 두루 지급할 수 없으니 주사(舟師) 중에는 통제사 이순신(李舜臣), 경상 우수사 원균(元均), 전라 우수사 이억기(李億祺), 충청수사 이순신(李純信)이 각도의 주장(主將)이니 의당 나누어 지급해야 될 것이요, 육군의 경우는 도원수 권율(權慄), 순변사 이빈(李賓), 경상 병사 고언백(高彦伯) · 김응서(金應瑞), 방어사 권응수(權應銖), 경상 좌수사 이수일(李守一), 전라 병사 이시언(李時言)에게 함께 은사(恩賜)를 내리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또 전 수사 정결(丁傑)은 80세의 나이로 나라 일에 힘을 바치려고 아직도 한산도(閑山島) 진중(陣中)에 머물러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아울러 은사가 내려진다면 군사들의 마음이 필시 감동될 것입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계사(啓辭)대로 장수 11인에게 각기 3령(令)을 주고 도원수(都元帥)는 4령을 주며, 또 조방장 김태허(金太虛)·홍계남(洪季男)·곽재우(郭再祐)·정희현(鄭希玄), 경주 부윤 박의장(朴毅長)에게 각각 3령씩을 사급(賜給)하라.”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체찰사가 있는 곳에도 이엄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지금 초피(貂皮) 4령을 내려주고 김덕령(金德齡)에게는 호피(狐皮)를 하사하고 입이엄(笠耳掩)도 아울러 보내라.” 하였다.

- 선조 56권 27년 10월 8일 (임자) 6번째기사 / 경상 우수사 원균의 전황에 대한 장계

경상 우수사(慶尙右水師) 원균(元均)의 장계에,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장문포(場門浦)에 둔거(屯據)한 적세(賊勢)와 접전한 절차에 대해서는 이미 치계하였습니다. 2일 평명(平明)에 다시 장문포에 진격하였는데, 전보다 약간 많아 무려 백여 명이나 된 것이 필시 둔처(屯處)한 왜병을 청원(請援)한 것이었습니다. 세 곳의 높은 봉우리에 모여 있으면서 많은 깃대를 세워놓고 무수히 총을 쏘아댔는데, 우리 병사들이 강개(慷慨)하여 진퇴(進退)하면서 종일토록 접전하다가 어둠을 이용하여 조금 물러나 외질포(外叱浦)에 진을 쳤습니다. 3일 진시(辰時)에 주사(舟師)를 동원하여 적진이 있는 장문포의 강 어귀에 줄지어 세워 놓고 먼저 선봉을 시켜 성(城)에 육박하여 도전하게 하니 적의 무리가 시석(矢石)을 피하여 성안에 숨기도 하고, 혹은 성밖에 땅을 파고서 몸을 숨기기도 하였는데, 그 수효를 알 수 없었습니다. 적이 총을 쏘고 대포도 쏘았는데 그 탄환의 크기가 주먹만 하였고 3백여 보(步)나 멀리 날아왔으며, 화력이 전일보다 감절이나 더했고 설비(設備)는 매우 흉험(兇險)하였습니다. 적진 근처에 마초(馬草)가 무수히 쌓여 있었으므로 신은 정예병을 선발하여 수직(守直)하는 왜병을 쏘아 쫓고 불을 질렀는데 타는 불꽃이 밤새도록 하늘에 달았습니다. 문제는 육병(陸兵)이 아니기 때문에 육지에 있는 적을 주사(舟師)로서는 다시 어떻게 끌어낼 방법이 없어 매우 통분스러웠습니다. 신(臣)은 다시 통제사(統制使) 이순신(李舜臣), 육병장(陸兵將) 곽재우(郭再祐), 충용장(忠勇將) 김덕령(金德齡)에게 상의하여 수륙(水陸)으로 합동 공격할 것을 계획하고, 길을 잘 아는 거제(巨濟) 출신 사수(射手) 15명을 뽑아 길잡이를 삼고 신이 거느린 각 선박에 육전(陸戰)을 할 만한 자로서 자원한 31명을 선발해서 곽재우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일을 단단히 약속하였습니다. 4일 묘시(卯時)에 여러 배로 적진에 돌진해 들어가면서 명화 비전(明火飛箭)을 쏘기도 하고 혹은 현·승자총통(玄勝字銃筒)을 쏘면서 도전하고, 정예선(鄭銳船)을 영등(永登)의 적 소굴에 나누어 보내 서로 들락날락하면서 이쪽저쪽을 공격할 기세를 보여 서로 지원하는 길을 끊도록 하였으나 그들은 성문을 굳게 닫고 나오지 않아 섬멸할 길이 없어 분함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육병장 등은 도원수(都元帥) 권율(權慄)에게 가서 직접 형세를 고하고 후일을 기약하기로 하고서 7일에 돌아갔고, 신 및 주사(舟師)는 그대로 외질포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5일 휴병(休兵)할 때에 신이 거느린 사후선(伺候船)을 장수를 정하여 정심포관(廷深浦串)으로 보내 적병의 동태를 급히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6일 묘시(卯時)에 사후장(伺候將) 원사웅(元士雄)과 조준표(曹俊彪) 등이 돌아와 보고하기를 ‘사후선 4척이 편대를 지어 거제의 오비질포(吾非叱浦)에 도착하여 적선 2척을 만났는데 기를 잡고 돌진해 들어가니 왜적의 반은 이미 육지에 내렸고 배를 지키던 적병도

배가 돌진해 감을 보고 물속으로 뛰어 들었다. 수문장(守門將) 김희진(金希進) 등과 있는 힘을 다해 집중사격을 가하자 맞아서 다친 왜병이 상당히 많았는데 배에서 내린 적병 30여 명이 총을 쏘면서 지원을 해와서 수급(首級)을 베어오지는 못하였으며, 적선 2척과 기타 실려있던 잡물(雜物)은 모두 불지르고, 막풍석(莫風席)·물통·낫·도끼·노(櫓) 등은 싣고 왔다.’ 하였습니다. 다시 타다 남은 적선을 가지고 와서 증거품으로 하라고 하였더니, 7일에 돌아와 고하기를 ‘오비질포에 도착하니 왜적 5~6명이 길을 잃고 바닷가에서 방황하고 있으므로 물에 내려 활을 쏘면서 추격하자 적의 무리가 산골짜기로 흩어져 도망을 쳤는데, 그중에 한 명이 다급하게 되자 칼을 풀고 항복하기에 사로잡아 데리고 왔다.’고 하였는데 타다 남은 2척의 적선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신의 중위장(中衛將) 곤양 군수(昆陽郡守) 이광악(李光岳)은 6일에 행군하여 왜적이 숨어 있는 해변에 복병하고 있으면서 출몰하는 것을 엿보아 재빠르게 배를 움직여 돌진해서 1명을 생포해 왔고, 선봉장 웅천 현감(熊川縣監) 이운룡(李雲龍)은 적진에 달려들어가 왜인이 싣은 판(版)을 탈취해 왔는데, 판본(版本)은 통제사 이순신이 있는 곳으로 보냈고, 한산(閑山)으로 돌아가 진을 치고 정신을 가다듬어 사변에 대비하도록 지휘하였습니다.”하였는데, 비변사에 계하하였다.

- 선조 56권 27년 10월 10일 (갑인) 8번째기사 / 요동 도지휘사사가 왜정에 관하여 보낸 자문

또 본월 15일 배신 경상우도 수군 절도사(慶尙右道水軍節度使) 원균(元均)의 치계에는 ‘3월 5일 본도의 병선(兵船)을 점검하기 위하여 통제사(統制使) 이순신(李舜臣) 등을 대동하고 고성(固城) 지역에 이르러 정탐하던 중에 중국 병사 2명이 탄 작은 배가 있어서 급히 앞으로 오게 하였는데 배 안에는 본국의 어린 사내아이가 한 명 있었다. 데려다가 물어보니 「나는 본도 상주(尙州)에 사는 정희순(丁希順)인데 잡혀간 해와 달은 기억할 수 없으나 적에게 잡혀가 웅천현(熊川縣)의 둔(屯)에 있으면서 심부름을 하였다. 그런데 오늘 적병들이 본국의 병선을 바라보고 각기 두려워 하는 마음을 품고 담 도사(譚都司)에게 금유(禁諭)하는 패문(牌文) 써주기를 간청하였는데, 나는 패문을 가진 관군(官軍)을 따라 실려왔다. 일전에 적병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 천사(天使)가 오면 우리는 모두 바다를 건너갈 것이지만 오지 않으면 병력을 크게 보강하여 수륙(水陸)으로 침략할 것이라고 했다.」 하였다.’ 하였으며, 본월 16일 배신 경상우도 병마 절도사 박진(朴晉)의 치계에는 ‘해 함안 군수(該咸安郡守) 안옥(安沃)이 「3월 26일 도망쳐 온 남자 허영명(許泳溟)이, 지난 해 4월 중에 적에게 잡혀가 일본국 낭고야(郎古耶) 지방으로 보내졌는데 그곳은 바로 적추(賊酋) 풍신수길(豐臣秀吉)이 있는 곳이었다. 지난해 8월 3일 수길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이름을 모르는 추왜(倭)가 대신 그 무리를 거느리고서 부산(釜山) 등지에 주둔하고 있는 왜적들과 6개월에 한 번씩 교대를 시켰다고 공칭하였다.」 는 내용의 비보를 하였다.’고 하였으며, 5월 2일 배신 경상좌도 병마 절도사 고언백(高彦伯)의 치계에는 ‘해 동래 현령(該東萊縣令) 김중민(金中敏)이 「4월 15일 포로가 되었던 군인 송창세(宋昌洗)가 둔류(屯留)하고 있는 적이 성을 쌓고 지붕을 덮는 등 조금도 쉬지 않았으면서 모두 말하기를, 대명(大明)의 참장(參將)이 황제의 명을 받들고 오면 우리는 일시에 파하고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고 공칭하였다.」 는 내용의 비보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 선조 57권 27년 11월 12일 (병술) 1번째기사 / 《주역》을 강하고, 정철의 관작 추탈·이순신과 원균의 문제 등을 논의하다

김수(金睟)가 아뢰기를, “원균(元均)과 이순신(李舜臣)이 서로 다투는 일은 매우 염려가 됩니다. 원균에게 잘못된 바가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리 대단치도 않은 일이 점차 악화되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까지 되었는가?” 하자, 김수가 아뢰기를, “원균이 10여 세 된 첩자(妾子)를 군공(軍功)에 참여시켜 상을 받게 했기 때문에 이순신이 이것을 불쾌히 여긴다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 들으니, 고언백(高彦伯)과 김응서(金應瑞)는 좌차(坐次) 때문에 서로 다투다 하는데 이들은 무슨 일 때문에 서로 다투는가?”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대개 공다툼으로 이와 같이 되었다 합니다. 당초 수군이 승전했을 때

스스로 공이 많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순신은 공격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선거이(宜居怡)가 힘써 거사하기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순신의 공이 매우 크지도 않는데 조정에서 이순신을 원균의 옷자리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원균이 불만을 품고 서로 협조하지 않는다 합니다.” 하고, 정근수(鄭根壽)는 아뢰기를, “정운(鄭運)이 ‘장수가 만일 가지 않는다면 전라도는 필시 수습할 수 없게 될 것이다.’고 협박했기 때문에 이순신이 부득이 가서 격파하였다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순신이 왜적을 포획한 공은 가장 많을 것이다.” 하였다. 정근수가 아뢰기를, “순신의 부하 중에는 당상관에 오른 자가 많은데, 원균의 부하 중에 우치적(禹致績)이나 이운룡(李雲龍) 같은 자는 그 전공이 매우 많은데도 그에 대한 상은 도리어 다른 사람만도 못하기 때문에 서로 분해 하고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원균의 하는 일을 보니, 가장 가상히 여길 만하다. 내가 저번에 남방에서 올라온 사람에게 원균에 대해 물었더니 ‘습중에 걸린 몸으로 장기간 해상에 있으나 일을 싫어하는 생각이 없고 죽기를 각오하였다.’ 하니, 그의 뜻이 가상하다. 부하 중에 만일 공이 많은데 상을 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 보통 사람의 정리로 보아도 박대한 것 같으니 그는 반드시 불만스런 뜻이 있을 것이다. 당초에 어째서 그렇게 했는가? 과연 공이 많다면 지금 모두 상을 주어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라.” 하자, 김응남이 아뢰기를, “그에게 위로하는 뜻을 보이는 것이 옳습니다. 순신이 체직을 자청하는 것도 역시 부당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바깥 여론이 원균을 체직시키려 하는가?”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별로 체직시키려는 여론이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저번에 장계를 보니 ‘고언백(高彦伯)과 김응서(金應瑞)의 사이는 비단 물과 불 같은 정도뿐만이 아니다.’ 하였는데, 물과 불은 바로 상극(相克)인 물건이다. 만일 그럴다면 전쟁에 임해서 서로 구제하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반드시 서로 해칠 것이다. 이는 필시 문자(文字) 중에서 과장한 말일 것이나 역시 염려를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이는 문자 중에 과장한 말입니다.” 하였다. 정탁(鄭琢)이 아뢰기를, “소신이 남방에 가서 들으니, 왜적이 수군을 무서워한다 합니다. 원균은 사졸이 따르니 가장 쓸 만한 장수요 이순신도 비상한 장수인데, 단 이들이 다투는 일이 매우 못마땅합니다. 이때에 어찌 감히 사적인 분노로 이렇게 서로 다툴 수 있겠습니까. 글을 내려서 국가의 급우에 우선하도록 질책하는 것이 옳습니다. 만일 내린 글을 본다면 그들 또한 어찌 감격하고 뉘우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이 때문에 원균을 체직시킨다면 필시 수군이 흠어져질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 선조 57권 27년 11월 22일 (병신) 1번째기사 / 사헌부가 권율·이순신의 나국과 윤두수의 파직 등을 청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전번 거제의 싸움에서는 3도의 병력을 다 동원하였으므로 군세(軍勢)가 매우 웅장하였습니다. 양굴(兩窟)의 적도는 수백 명이 못 되었으니, 중과의 형세로 말한다면 마치 태산이 새알을 누르는 격과 같을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수륙(水陸)의 제장(諸將)들은 한 사람도 죽음을 각오하고 힘껏 싸우지 않고서 혹은 외양에서 배회하기도 하고 혹은 나갔다 물러갔다 하면서 관망하기도 하고, 혹은 안정된 곳에 물러나 있으면서 단지 대장(代將)만을 보내어 결국 군사들이 패하여 위엄을 손상케 하였습니다. 사후선(伺候船) 3척이 실종되고 사도의 병선은 남김없이 소탕되었으며, 그 배에 실린 군졸들은 거의 다 죽었는데도 서로 숨기고 사실대로 알리지 않고 도리어 장황한 말을 늘어놓고 망령되어 공훈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들이 조정을 안중에 두지 않고 속이는 일을 자행한 죄가 여간 많지 않으니 매우 통분스럽습니다. 도원수 권율(權慄)과 통제사 이순신(李舜臣)을 아울러 나국(拿鞠)하여 율에 의해 정죄하도록 하소서. 체찰사 윤두수(尹斗壽)도 몸소 대신이 되어 병권을 전담하고서 능히 기회를 보아 책응하지 않고 경솔히 거병하여 나라를 욕되게 하였으며, 또 사실대로 계문하지 않고 방자하게 속이고 숨겼으니, 더욱 무어라고 말할 대상이 안 됩니다. 파직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어찌 나국까지 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없는 일이다. 대신(大臣)은 더욱 파직할 수 없다.” 하였다.
- 선조 57권 27년 11월 23일 (정유) 2번째기사 / 사간원이 권율·이순신의 나국과 윤두수의 파직 등을 청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도원수 권율과 통제사 이순신은 이미 분군율(憤軍律)을 범했고 또 기망(欺罔)한 죄가 있으니, 왕법(王法)으로 따지면 결코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나국하고 율을 살피 정죄하게 하소서. 전 체찰사 윤두수는 처치

잘못하여 국위를 손상시켰고 또 제장들의 허위 보고를 가볍게 믿고 사실대로 계문하지 않았으니, 역시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파직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과중한 일이니, 그렇게 할 수 없다” 하였다.

- 선조 57권 27년 11월 23일 (정유) 3번째기사 / 사헌부가 권율·이순신의 나국과 윤두수의 파직 등을 청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도원수 권율과 통제사 이순신은 모두 나국하여 율에 의해 정죄하고, 체찰사 윤두수는 파직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통제사와 도원수는 나국하는 것은 지나치니 추고하라. 앞서 아뢴 대신 문제는 더욱 파직시킬 수 없다.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 선조 57권 27년 11월 24일 (무술) 2번째기사 / 사간원이 권율·이순신의 나국과 윤두수의 파직 등을 청하다
사간원이 도원수 권율과 통제사 이순신을 나국할 것과 전 도체찰사 윤두수를 파직시킬 일을 잇따라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 선조 57권 27년 11월 24일 (무술) 3번째기사 / 사헌부가 권율·이순신의 나국과 윤두수의 파직 등을 청하다
사헌부가 도원수 권율과 통제사 이순신을 나국할 것과 전 도체찰사 윤두수를 파직시킬 일을 잇따라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 선조 57권 27년 11월 25일 (기해) 1번째기사 / 양사가 권율·이순신의 나국과 윤두수의 파직 등을 청하다
양사가 도원수 권율과 통제사 이순신을 나국할 것과 전 도체찰사 윤두수를 파직시킬 일을 잇따라 아뢰니, 답하였다. “도원수와 통제사는 이미 추고하였으니 나국할 수 없고 체찰사는 대신이므로 파직시킬 수도 추고할 수도 없다.”
- 선조 57권 27년 11월 26일 (경자) 3번째기사 / 양사가 권율·이순신의 나국과 윤두수의 파직 등을 청하다
양사가 도원수 권율, 통제사 이순신, 도체찰사 윤두수 등의 일을 잇따라 아뢰니, 답하였다. “도원수 등은 이미 추고하였으니, 나국할 수 없다. 체찰사는 혹시 모를 수도 있는 일이니, 파직할 수 없다.”
- 선조 57권 27년 11월 28일 (임인) 2번째기사 / 비변사가 이순신과 원균의 불화에 대한 처리에 관하여 아뢰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이순신(李舜臣)과 원균(元均)은 본래 사이가 좋지 않아 서로 헐뜯고 있습니다. 만일 율로 다스린다면 마땅히 둘을 다 죄주어 내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순신은 왜변 초에 병선(兵船)을 모아 적의 진로를 차단하여 참곡(斬馘)을 바친 공로가 많았고, 원균의 경우는 당초 이순신과 협력하여 역시 적의 선봉을 꺾는 성과를 올렸으니, 이 두 사람의 충성과 공로는 모두 가상합니다. 위에서 특별히 잘 화합시켜 진정시킬 수 있는 대책을 생각하시어 급히 선전관을 보내 하서하여 국가의 위급을 우선으로 돌보라고 권하면서 마치 한 광무(漢光武)가 가복

()과 구순(寇恂)에게 하듯 하신다면, 저 두 사람 또한 전혀 양심이 없지 않을 것이니 어찌 감격한 마음으로 성상의 명령을 공경히 받들어서 옛 태도를 버리고 새로운 각오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성상의 뜻을 몸받지 않고 끝까지 깨닫지 못한 채 그전의 잘못을 영영 고집한다면, 그때에는 자연 나라의 법이 그들을 처리할 것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두 사람은 틈이 벌어질 대로 벌어졌으니, 원균을 체차(遞差)하여 그들의 분쟁을 지식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나의 생각에는 이순신은 대장으로서 하는 짓이 잘못된 것 같으니, 그중 한 사람을 체직시키지 않을 수 없다. 혹 이순신을 체차할 경우는 원균으로 통제사를 삼을 수 있거니와, 혹 원균을 체차할 경우는 다른 사람을 차출해야 할 것이니, 참작해서 시행하라.” 하였다.

• 선조 58권 27년 12월 1일 (갑진) 4번째기사 / 권을 등의 처벌과 원균의 체직 등에 대해 논의하다

장령 이철(李鐵)이 아뢰기를, “거제의 싸움에서 제장(諸將) 중에 어떤 자는 배회하면서 관망만 하고 나아가 싸우려고 하지 않았으며, 사후선(伺候船) 3척이 행방 불명되었는데도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군대를 무너뜨리고 위를 무시한 죄를 여러 날 논집하고 있는데도 아직껏 윤희를 앎으시니, 몹시 민망하고 답답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도원수가 어찌 이렇게까지 했겠는가. 우상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였다. 김응남(金應南)이 대답하기를, “그 사람은 일찍이 행주(幸州)의 싸움에서 공을 세웠습니다. 공론이 격분한 바가 비록 이와 같기는 하나 만일 체직시킨다면 대신할 사람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간의 말이 이와 같으나 전선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장수를 바꾸는 일은 병가(兵家)의 꺼리는 바이니, 체직시킬 수 없다.” 하였다. 정언 노경임(盧景任)이 아뢰기를, “전 체찰사 윤두수는 대신이 되어 병권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패군(敗軍)한 일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으니, 파직을 청한 것도 말감(未減)을 따른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체찰사는 혹 모를 수도 있는 일이다. 대신을 어찌 가볍게 파직시킬 수 있겠는가.” 하였다. 김응남이 아뢰기를, “두 장수가 화목치 못하니 형세 상 서로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원균을 부득이 체직시켜야 하겠는데 대신할 사람을 아직 얻지 못하였으니, 선거이(宜居怡)와 서로 바꾸는 것이 어떨겠습니까?” 하니, 【이때 원균이 경상 수사(慶尙水使)로 있으면서 통제사 이순신과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충청도 병사(忠淸道兵使)로 있는 선거이와 서로 바꾸자는 것이다.】 상이 이르기를, “비변사에서 추천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니, 김응남이 대답하기를, “곽재우(郭再祐) · 이광약(李光岳) · 배설(裵禔)입니다. 충청도 수사(忠淸道水使)도 차출해야 하겠는데, 적합한 사람이 없습니다. 박종남(朴宗南)이 비록 진주(晉州) 일로 계파(啓罷)되기는 하였지만, 이 사람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박종남은 성질이 느슨한 것 같으니, 이런 때에 그러한 사람으로 장수를 삼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에게 수사까지 제수하는 것은 마땅한 바가 아닌 듯 싶다. 이 밖에 쓸만한 다른 사람이 없는가?”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이계정(李繼鄭)이 적합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나는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다.” 하였다. 김응남이 아뢰기를, “성윤문(成允文)이 영남에 있을 때 인심을 잃었지만 충청 수사는 감당할 듯싶고, 또 구사직(具思稷)도 쓸 만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변사와 의논해서 잘 처리하라.” 하였다.

• 선조 58권 27년 12월 1일 (갑진) 5번째기사 / 비변사가 원균의 체직에 대해 아뢰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원균과 선거이를 서로 바꾸는 일을 어제 경연(經筵)에서 아뢰었습니다. 오늘 다른 대신의 의논을 들어보니, 원균이 이미 군율을 범하여 지금 추핵(推覈) 중에 있으므로 병사의 직임으로 바꾸는 것은 사체에 온당치 못하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군율을 범했다고 말한다면 유독 이순신만은 군율을 범하지 않은 사람인가. 나의 생각에는 이순신의 죄가 원균보다 더 심하다고 여겨진다. 원균을 병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그 주장을 나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참작해서 시행하라.” 하였다.

- 58권 27년 12월 1일 (갑진) 6번째기사 / 비변사가 원균의 체직에 대해 아뢰다

비변사가 회계하기를, “상께서 ‘군율을 범했다고 말한다면 유독 이순신만은 군율을 범하지 않은 사람인가. 나의 생각에는 이순신의 죄가 원균보다 더 심하다고 여겨진다. 원균을 병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그 주장을 나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참작해서 시행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통제사 이순신은 지금 기망죄(欺罔罪)를 범했으니 마땅히 중벌로 다스려야 합니다만, 주사(舟師)를 조처하는 일이 날로 급해지고 있어 이런 때 주장(主將)을 바꾼다는 것은 실로 옳은 계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단지 추고만 해서 후일의 성과를 책임지운 것입니다. 원균도 체직시키고 싶지 않습니다만 이순신이 통제사가 되고 원균이 부장(副將)이 되었을 때에도 주장의 절제를 따르지 않았는데, 원균을 체직시켜 다시 병사로 올려서 가까운 지방에 옮겨 놓는다면 군중 통령(軍中統令)의 체통은 이로부터 더욱 무너지수습 정돈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논의가 일치되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순신과 원균이 다같이 중한 군율을 범했는데, 원균만 체직시키는 것도 편중의 폐단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 전의 계청에 의하여 선거기와 서로 바꾸는 것이 무방합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선조 58권 27년 12월 19일 (임술) 7번째기사 / 사간원이 원균에게 그대로 수사의 직을 맡길 것을 청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해로를 차단하여 쳐들어오는 적을 막는 데는 주사(舟師)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 주사의 성쇠에 국가의 경중이 매인 것입니다. 조정에서는 깊이 생각할 것이요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될 것인데 중시 협력한 장사(將士)들을 태반이나 교체시키니, 허술해진 것이 이미 식자(識者)들의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경상 수사 원균(元均)을 지금 또 내지로 옮겼으므로 군정이 해이해지고 형세가 쇠퇴해져 주사의 일이 형편없으니, 후일의 걱정을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자는 말하기를 ‘원균과 이순신은 다 일시의 명장으로서 서로 화목하지 못하니, 형세상 둘 다 양립하기가 어렵다.’ 하니, 이는 너무도 생각이 없는 말입니다. 원균과 이순신은 공은 같은데 상이 달랐으므로 원균이 마음에 불쾌하게 여겼고, 관하의 장사들이 각자 좌지우지하여 다투어 서로 말을 주고받음으로써 틈이 벌어지게 해서 결국은 서로 부딪치게 된 것입니다. 만일 조정이 대의(大義)를 들어 나무라서 각자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면 저들도 선공 후사(先公後私)의 의리를 알 것이니, 어찌 거룩한 명을 공경히 받들어 그 옛 태도를 버리고 새로운 각오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격려하여 협력할 뜻으로 하서하여 호되게 꾸짖고, 그대로 원균에게 수사의 직을 맡기소서.” 하니, 이미 정하였다고 답하였다.
- 선조 59권 28년 1월 13일 (병술) 2번째기사 / 비변사가 거제를 협공할 계책에 대해서 아뢰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김응서(金應瑞)의 장계를 보니, 이순신(李舜臣) · 원균(元均)과 서로 모여서 수군과 육군으로 거제(巨濟) 등 처를 협공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분개하여 적을 토멸하려는 뜻은 가상하거니와, 듣건대 수군은 형편없이 약하고 육군 또한 잔약한데다 군량까지 떨어진 판국이어서 비록 대거 진공하려 해도 그 형편이 용이하지 않다 합니다. 이순신이 결행하지 못하고 미루고만 있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일 것이니, 가볍게 거사하는 것은 어려울 듯합니다. 그러니 수군과 육군을 약간 수습한 뒤에 종사관(從事官)을 급히 올려 보내어 조정에 품의해가지고 거사할 것을 김응서와 권율에게 비밀히 유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 선조 61권 28년 3월 18일 (신묘) 4번째기사 / 영의정 유성룡이 시무 대책을 건의하다

수군[舟師]의 형편도 매우 염려됩니다. 전일 적선(賊船)이 화호(和好)를 핑계로 몰래 와서 엿보고 갔다는데, 왜적이 하루라도 복수할 생각을 잊지 못하는 것은 실로 이순신(李舜臣)의 장계 내용과 같습니다. 왜적이 수륙(水陸)으로 한꺼번에 나올 경우 수군이 막지 못한다면 일은 더욱 위태롭습니다. 대체로 왜적이 해전에 익숙하지 못한 것이 아니

, 다만 그들의 배가 멀리서 왔고 선제(船制)가 견고하고 장대(壯大)하지 못하여 그 위에 대포를 안치할 수 없어서 우리 나라 배에 제압된 것입니다. 지금 왜적이 오랫동안 제목이 많은 거제(巨濟)에 있으니, 만일 우리 나라의 선제를 따라 판옥선(板屋船)을 많이 만들어 포를 싣고 나온다면 대적하기 역시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일이 급한 때에 수군이 전날보다 더 약하고, 순찰사 등은 또한 장래의 일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여, 제장은 전부 차사원(差使員)이 되었고, 군량도 많이 감소되었는데다, 불행히도 충청도의 배가 바다에 침몰하여 제때에 가기가 어려우니, 걱정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순신이 청한 제장을 금명간에 급속히 떠나보내고 또한 이러한 뜻을 이순신 등에게 밀유(密諭)하여 각오를 새롭게 하여 조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신은 병중이라 정신이 매우 혼미하여 정밀하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기(事機)가 위급하여 감히 민박한 생각을 아뢰는 것이니 비변사에 내려 급속히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대답하기를, “항왜(降倭)의 말이 비록 모두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의 조치에 있어 허술한 곳을 충분히 조치하여 대비하는 것이 뭐가 나쁜 것인가. 비변사의 회계가 혈후(歇後)하여 마침 매우 걱정이 되었는데, 이제 서계(書啓)를 보니 자별(自別)한 생각에 감동됨이 깊다. 비변사에 내려 신속히 거행해야겠다. 다만 근래 인심을 보니 더욱 게을러졌는데, 이것이 가장 걱정이다.” 하고, 이어 정원에 전교하기를, “이 서계를 비변사에 내려 속히 시행하게 하라.”

• 선조 64권 28년 6월 14일 (을묘) 4번째기사 / 통제사 이순신이 적의 정세에 대해 치계하다

통제사 이순신이 치계하기를, “경상도 수군 유업동(柳業洞) 등 4명이 적중에 투항했다가 본진(本陣)에 도망해 귀환했기에 적의 정세를 추문(推問)했더니, 공초하기를 ‘저희들은 창선도(昌善島)에 사는 고기잡이로서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 지난 2월 가덕도(加德島) 왜진의 결막(結幕)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모든 출입과 음식이 자유롭지 못했고 가재 도구를 빼앗기도 하며, 혹은 처자를 사로잡아 일본에 이송하고 조금만 뜻에 안 맞으면 살륙이 잇달으므로 부득이 이번 4월 6일 밤에 처자를 데리고 도망쳐 돌아왔습니다. 적의 정세에 대해서는 다른 계획은 상세히 알 수 없지만, 우리 나라 사람들이 요사이 적의 정세를 보고 다 탈출하려는 생각이 있으나 당초 투항한 죄 때문에 의심하고 주저한다.’ 하였습니다. 영남의 포작한(鮑作漢)들이 이익만을 탐해 처자를 거느리고 잇달아 적에 투항하니 그 정상을 따지면 아주 통탄할 일입니다. 그런데 윤업동 등 4명은 다른 사람들이 처를 빼앗기는 것과 심지어는 살해되는 것까지 보고서야 탈출해 돌아왔으니, 그 죄는 참으로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투항한 백성들이 서로 이어 탈출해 오는데 이러한 때에 갑자기 중률(重律)로써 다스리는 것은 실로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래 살던 곳으로 돌려보내어 당분간 위무하는 뜻을 보였습니다.” 하니, 상이 비변사에 내렸다. 비변사가 회계하기를, “수군 유업동 등이 나라를 등지고 적에 투항하여 임의로 왔다 갔다 하였으니 지극히 해괴한 일로서 중률을 시행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투항한 우리들이 참으로 많은데 그런 우리들이 탈출하려고 해도 죄가 두려워 망설이고 있다고 하니, 중죄로써 다스리는 것은 그 마음을 고쳐먹고 근본으로 돌아오려는 뜻을 꺾는 점이 없지 않습니다. 순신의 조처가 과연 사리에 합당하니 이 뒤로 탈출해 돌아온 사람들은 이 예에 의거하여 원거주지로 보내고 특별히 위무하는 뜻을 더하도록 행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 선조 65권 28년 7월 8일 (기묘) 1번째기사 / 별전에 나아가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다

상이 별전에 나아가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유성룡(柳成龍), 판윤 김명원(金命元), 병조 판서 이덕형(李德馨), 지중추부사 유근(柳根)·신점(申點), 동지중추부사 조경(趙敬), 부제학 이정형(李廷馨), 호조 참판 노직(盧稷), 동지중추부사 유영경(柳永慶), 동부승지 기자헌(奇自獻), 사간 황시(黃是), 장령 정기원(鄭期遠), 전한 김시헌(金時獻), 가주서 채형(蔡衡), 봉교 오백령(吳百齡), 홍문 정자(弘文正字) 윤의립(尹義立), 검열 성이문(成以文).】

…… (중략) ……

상이 이르기를, “누가 지킬 만한가? 왜적이 물러가면 급히 방수(防守)하지 않을 수 없다. 근일 수전(水戰) 등의 일

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거제(巨濟)를 잃었기 때문이다. 웅천(熊川)·천성(天城)·가덕(加德) 등 지역도 모두 텅 비었으니, 또한 때맞추어 들어가 점거하지 않을 수 없다. 왜적이 물러가면 이순신(李舜臣)에게 거제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옳다.” 하니, 이정형(李廷馨)이 아뢰기를, “전라도의 군대로 거제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 를, “비록 전라도의 군대로도 즉시 가서 지킬 수는 있으나 다만 좌수사(左水使)가 고단하고 약한 군대로 어떻게 능히 지키겠는가. 이처럼 지키기 어려운 지역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라도 해야 한다면 이순신으로 하여금 그 군대를 거느리고 큰 진영을 지키게 하는 것이 옳다. 부산(釜山)과 같이 큰 진영은 마땅히 이순신으로 지키게 하고 전라 수사(全羅水使)는 다른 사람으로 대신하게 하는 것이 옳다.”

- 선조 67권 28년 9월 22일 (신묘) 2번째기사 / 신속히 왜적을 축출할 것을 건의하는 총독 군문 표하 도지휘사사 장홍유의 첩문

의주 부윤 황진(黃璉)의 장계는 총독 군문 표하 도지휘사사(總督軍門標下都指揮使司) 장홍유(張鴻儒)의 품첩(稟帖)을 올려 보낸다는 내용이였다. 장홍유의 첩문(帖文)은 다음과 같다.“총독 군문 요섭 요해 등처 어왜 제조 도지휘사사(總督軍門繞攝遼海等處禦倭提調都指揮司使) 장홍유는 돈수 재배(頓首再拜)하고 조선 국왕 전하께 삼가 아립니다.삼가 생각하건대, 전하의 덕은 온 천하에 떨치고 인(仁)은 두 나라를 풍화(風化)하였으며, 성스러움은 신화(神化)를 모두 겸하였고 은택은 만민에게 미쳤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요사한 기운이 사라지지 않아 아직까지 왜적이 번병(藩屏)을 점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하께서 매양 동쪽의 왜를 염려하는 근심을 지니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나 안정되어 태평가(太平歌)를 부르게 되겠습니까. 홍유는 간절한 생각에 아침 저녁으로 밥먹는 것도 잊고 잠 자리에 누워서도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간절히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 차마 잊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해 가을에 동쪽으로 와서 전하께서 종시 잘 돌보아주시심을 힘입어 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돌아와서 곧 당도(當道)에 자세히 보고하였더니, 당도는 묘당(廟堂)에 자문으로 보고하였으므로 계속하여 이 공에 대해서 이미 기록하여 발탁 됨을 받았습니다.

…… (중략) ……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반드시 도총병(都摠兵) 권율(權慄) · 이순신(李舜臣)에게 명하여, 쓸 만한 인원을 차임하여 급히 저들의 소굴에 나가서 분명한 사실을 탐지하도록 하소서. 혹 왜이(倭夷)가 과연 진심으로 봉함을 받고 돌아가려 하거나 혹은 교사스러운 점이 많거나 혹은 동지(動止)를 청하고자 하거나를 체담하는 것이 모두 이번의 한번 거사에 달려 있으니, 호(胡)·신(愼) 두 관원이 돌아올 때 사연을 적어 믿을 수 있는 손은대(孫恩臺)에게 비밀히 부치소서. 만일 다시 어물어물하고 사실대로 고하지 않을면 손야(孫爺)가 마음을 쓰지 않은 뿐 아니라 귀국의 일에 크게 잘못되어 부질없이 생령(生靈)이 도탄에 빠지고 사직(社稷)이 폐허가 될 것이니 어찌 마음 아프지 않겠습니까. 삼가 밀서(密書)를 올려 진첩(進摺)하시기 바랄 뿐입니다. 정 통사(丁通事)가 복명하는 편을 인하여 이 짧은 소장(疏狀)을 올리니,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살피주소서. 이만 줄입니다. 늦가를 초5일”

- 선조 70권 28년 12월 8일 (병오) 3번째기사 / 호종한 재신과 시종의 자제들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조가 아뢰기를, “호종(扈從)한 재신(宰臣)과 시종(侍從)의 자제들은 처음의 전교로 인하여 보고 듣는 대로 거의 다 관직에 제수하였습니다. 아직 미처 관직에 제수되지 않은 인원은 갖추어 기록하여 아립니다. 전에는 비록 친자제가 아니더라도 혹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관직에 제수하였는데, 지금 또 아들·사위·아우·조카가 아닌 사람에게 관직을 제수해 주기를 원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조에서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어 감히 여쭙니다. 방수(防戍)한 제장으로서 이순신(李舜臣) · 원균(元均) · 이억기(李億祺) 등의 자제는 그때 전교로 인하여 관직을 제수하였거니와, 이밖에 두드러지게 공로가 있는 사람의 자제는 해조(該曹)로 하여금 초록(抄錄)하여 계하(啓下)한 뒤에 관직에 제수하게 하였습니다. 전사한 사람의 자제 중에는 전에 혹 관직에 제수된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교에 따라 듣고 본 바를 아울러 서계(書啓)합니다. 이 뒤로도 듣는 대로 관직에 제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니, 아뢴

하라고 전교하였다.

- 선조 75권 29년 5월 7일 (계유) 1번째기사 / 《주역》을 강독한 후 민심과 부역, 쇠마의 폐단 등의 문제를 대신들과 의논하다

상이 별전(別殿)에 나아가 《주역(周易)》을 강독하였다. 강독이 끝나고서 상이 이르기를,

…… (중략) ……

응남은 아뢰기를, “윤형은 그 폐단을 보고 아뢰었으나 원균 같은 자는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대개 장수에는 보장(步將)·수장(水將)의 차이가 있는데, 예전 송(宋)나라 때에 장세걸(張世傑)은 보장으로서 수장이 되고 유사용(劉思用)은 수장으로서 보장이 되어 그 쓰임이 잘못되었으므로 공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원균은 수장의 재주를 지녔으나 이순신(李舜臣)과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므로 할 수 없으니, 혹 경기 수사(京畿水使)를 제수하면 그 재주를 펼 수 있을 것입니다. 산성의 일은 신도 전일에 농한기에 할 것을 계청하였습니다.” 하고,

- 선조 76권 29년 6월 26일 (임술) 2번째기사 / 《주역》을 강독하고 대신들과 천재, 이순신과 원균 등에 관해 의논하다 상이 별전(別殿)에 나아가 《주역(周易)》을 강독(講讀)하였다.

…… (중략) ……

상이 이르기를, “이순신(李舜臣)은 밖에서 의논하기를 어떠한 사람이라고들 하는가?”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이순신은 쓸 만한 장수입니다. 원균(元均)으로 말하면 병폐가 있기는 하나 몸가짐이 청백하고 용력(勇力)으로 선전(善戰)하는 정도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순신은 처음에는 힘껏 싸웠으나 그 뒤에는 작은 적일지라도 잡는데 성실하지 않았고, 또 군사를 일으켜 적을 토벌하는 일이 없으므로 내가 늘 의심하였다. 동궁(東宮)이 남으로 내려갔을 때에 여러 번 사람을 보내어 불러도 오지 않았다.” 하자, 김응남이 아뢰기를, “원균이 당초에 사람을 시켜 이순신을 불렀으나 이순신이 오지 않자 원균은 통곡을 하였다 합니다. 원균은 이순신에게 군사를 청하여 성공하였는데, 도리어 공이 순신보다 위에 있게 되자, 두 장수 사이가 서로 벌어졌다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순신의 사랑됨으로 볼 때 결국 성공할 수 있는 자인가? 어떠한지 모르겠다.” 하자, 김응남이 아뢰기를, “알 수 없습니다마는, 장사(將士)들은 이순신이 조용하고 충도에 맞는다 합니다. 그러나 지금 거제(巨濟)의 진(鎭)에는 원균을 보내야 하니, 거제를 지키는 일이라면 이 사람이 아니고 누가 하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거제에서 군사를 철수한 뒤에 나도 물었고 비변사도 주둔시켜 지키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한산도(閑山島)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자, 윤근수(尹根壽)가 아뢰기를, “반드시 한산도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한산도는 진을 비울 수 없다. 그러나 지킬 경우에 군사가 적어서 세력이 분산되겠거니와 양향(糧餉)은 또 어떻게 장만하여 내겠는가?” 하자, 김응남이 아뢰기를, “거제를 지키고 주사(舟師)로 왜적의 양도(糧道)를 끊으면 감히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 선조 80권 29년 9월 24일 (정사) 1번째기사 / 영사 김응남 지사 김수 등과 물가·역마·종이의 공상 등에 대해 의논하다 영사(領事) 김응남(金應南), 지사(知事) 김수(金睟), 특진관(特進官) 이증(李增), 대사헌(大司憲) 유영경(柳永慶), 대사간(大司諫) 이정형(李廷馨), 특진관 허진(許晉), 참찬관(參贊官) 이호민(李好閔), 참찬관 정기원(鄭期遠), 검토관(檢討官) 정혹(鄭穀), 기사관(記事官) 조즙(趙澂)·윤의립(尹義立)·유경종(柳慶宗)이 입시하였다. 묘시(卯時) 정각에 상이 별전(別殿)에 나아가 《주역》을 진강(進講)하였다.

…… (중략) ……

아뢰기를, “신이 영남(嶺南)에 봉사(奉使)하여 한산도(閑山島)의 수군(水軍)이 있는 곳에 이르니, 격군(格軍)이 와서 호소하기를 ‘당초 왜적을 만나 배를 저어 진퇴(進退)하면서 승전한 공이 있었는데도 마침내 상을 받지 못했다. 이는 배를 조종하는 공이 수급(首級)을 뵈는 사람만 못한 것이어서, 지극히 원통하고 답답하다.’ 하였습니다. 신이 이원익(李元翼)에게 일러서 이미 장계(狀啓)하였으니, 통제사(統制使)에게 【이순신】 유시를 내려 상을 주도록 하신다면 원통한 마음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변사(備邊司)에 말하여 살펴서 하도록 하라.” 하였다.

- 선조 81권 29년 10월 5일 (무진) 1번째기사 / 도체찰사 이원익에게 적의 동태와 민심 등에 대해 아뢰게 하다
오정(午正)에 도체찰사 이원익(李元翼)을 인견하였는데, 승지 이덕열(李德悅), 주서 조즙, 검열 장만·유경중 등이 입시하였다.

…… (중략) ……

상이 이르기를, “통제사 이순신은 힘써 종사하고 있던가?”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그 사람은 미웁스럽지 않아 힘써 종사하고 있을 뿐더러 한산도(閑山島)에는 군량이 많이 쌓였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당초에는 왜적들을 부지런히 사로잡았다던데, 그 후에 들으니 태만한 마음이 없지 않다 하였다. 사람 됨됨이가 어떠하던가?”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소신의 소견으로는 많은 장수들 가운데 가장 쟁쟁한 자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르는 동안 처음과는 달리 태만하였다는 일에 대해서는 신이 알지 못하는 바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절제(節制)할만한 재질이 있던가?”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소신의 생각으로는 경상도에 있는 많은 장수들 가운데 순신이 제일 훌륭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하(啓下)한 일을 변통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1~2년을 기한으로 매우 힘든 요역은 호조(戶曹)로 하여금 견감하게 하여 민력(民力)을 조금이라도 여유있게 해준 뒤라야 그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대체로 소민들은 저축이 매우 적어서 한 번 침징(侵徵)하는 일이 있게 되면 즉시 가산(家産)이 파망하는 지경에 이르러 살아갈 수가 없게 되니, 매우 한심합니다. 근래에는 방비에 대한 일로 자주 침책(侵責)하기 때문에 더러는 유사(流徙)하기도 하고 사망하기도 하니, 그 원망을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적이 아무리 영려스럽다 하여도 민양(民喁)의 두려움이야말로 적보다 심하다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나라의 부고(府庫)는 양호(兩湖)이니, 소복시킬 방법을 어디보다도 먼저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호조에서는 그 절목(節目)을 변통하기도 하고 수입을 헤아려 지출을 조절하기도 하여 부공(賦貢)을 대부분 감해주어 잔폐(殘廢)한 것을 소생시켜야만 전쟁 뒤에 외로이 살아 남은 생령(生靈)들이 조그마한 은혜라도 입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 선조 82권 29년 11월 5일 (정유) 4번째기사 / 비변사가 장문포와 한산도를 지키는 일에 대해 아뢰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11월 1일의 조강(朝講) 때에 윤근수(尹根壽)가 아뢴 장문포(長門浦)를 방수(防守)하는 일에 대하여, 위에서 ‘우상(右相)과 비변사가 함께 의논하여 처리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한산도(閑山島)는 1만 척의 배를 감출 수 있고 출입하며 방어하기에도 편리하므로 끝내 버릴 수 없는 땅이니, 이것이 한산에서 철수하여 거제(巨濟)로 옮기지 않았던 까닭입니다. 군사를 나누어서 지키려 하면, 거제의 적은 물러가더라도 안골(安骨)·가덕(加德)의 적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왕래가 무상하므로 뜻밖의 근심이 반드시 없으리라고 보장하기 어려우니, 이것이 외로운 군사를 갑자기 들여보낼 수 없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부산으로 오는 적의 길을 막으려면 거제를 잃어서는 안 되는데 적이 물러간 지 한 해가 지나도록 아직 웅거하여 지키는 것을 구획(區劃)하지 않았으니, 이는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도체찰사가 이미 분부하여 올 가을부터 백성에게 경작하게 하고 또 이순신(李舜臣)을 시켜 진주(進駐)하는 것이 온편한지를 살펴서 회보(回報)하게 하였다 하니, 조정에서도 통제사(統制使)에게 하유(下諭)하여 들어가 지키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계획하여 상세히 아뢰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82권 29년 11월 7일 (기해) 3번째기사 / 대신 및 비변사 유사 당상과 함께 왜적 침입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다
미시(未時) 정각에 상이 별전(別殿)에 나아가 대신(大臣)과 【이산해(李山海)·유성룡(柳成龍)·윤두수(尹斗壽)·김응남(金應南)·정탁(鄭琢)·이원익(李元翼).】 비변사(備邊司) 유사 당상(有司堂上)을 【김명원(金命元)·김수(金睟)·이덕형(李德馨)·유영경(柳永慶), 승지 이덕열(李德悅).】 인견(引見)하였다.

…… (중략) ……

상이 이르기를, “원균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예로부터 육장(陸將)은 수전을 잘 못하고 수전하는 자는 육전을 잘 못했습니다. 원균이 제 몸을 잊고 용감히 싸우는 것은 그의 장점이나 지친 군졸을 어루만지는 것이라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니, 이 일을 맡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다면 써야 하겠습니다.” 하고, 정탁이 아뢰기를, “수전이 그의 장기이니, 이제 그 단점을 버리고 그 장점을 쓰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선거이(宜居怡)는 병이 있는가?” 하니, 이산해가 아뢰기를, “중풍을 앓은 지 오래 되었으므로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원균이 힘껏 싸운 것은 사람들이 모두 아는 바이기는 하나 한번 수전한 뒤부터 착오를 일으켜 영남의 수군 중에는 원망하고 배반하는 자가 많이 있으니, 원균에게 맡길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더구나 이순신(李舜臣)과 원균이 사이가 나쁜 것도 진실로 조정에서 아는 바입니다. 소신의 생각으로는 수륙의 차이가 있더라도 함께 협동해야 할 것이므로 두 사람이 모여 의논하게 하였으나 원균은 발끈하여 노기(怒氣)가 있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순신도 그러하던가?” 하자, 이원익이 아뢰기를, “이순신은 스스로 변명하는 말이 별로 없었으나, 원균은 기색이 늘 발끈하였습니다. 예전의 장수 중에도 공을 다룬 자는 있었으나, 원균의 일은 심하였습니다. 소신이 올라온 뒤에 들으니, 원균이 이순신에 대하여 분한 말을 매우 많이 하였다 합니다. 이순신은 결코 한산(閑山)에서 옮길 수 없으니 옮기면 일마다 다 글러질 것입니다. 위에서 하교(下敎)하시어 그대로 병사(兵使)로 있게 하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조정에서 여러 가지로 하유(下諭)하여도 뜻을 움직일 수 없었으므로 소신도 이런 위급한 때에 마음을 합하여 함께 구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였으나, 원균은 노기를 풀지 않으니, 이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난처한 일이다.” 하였다. 윤두수가 아뢰기를, “원균은 소신의 친족인데, 신은 오랫동안 그 사람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대개 이순신이 후진인데 지위가 원균의 위에 있으므로 발끈하여 노여움을 품었을 것이니, 조정에서 헤아려 알아서 처치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전일에 들으니, 당초 군사를 청한 것은 실로 원균이 한 것인데 조정에서는 원균이 이순신만 못하다고 생각하므로 원균이 이렇게 노하게 되었다 하고, 또 들으니 원균은 적을 사로잡을 때에 선봉(先鋒)이었다 한다.”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원균은 가선(嘉善)이 되었을 뿐인데 이순신은 정헌(正憲)이 되었으므로, 바로 이 때문에 원균이 분노한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들으니, 군사를 청하여 수전한 것은 원균에게 그 공이 많고 이순신은 따라간 것이라 하며, 또 들으니, 이순신이 왜자를 많이 잡은 것은 원균보다 나으나 공을 이룬 것은 실로 원균에게서 비롯하였다 한다.” 하였다. 이원익이 아뢰기를, “소신이 원균의 공은 이순신보다 나올 수 없다고 조용히 말하니, 원균이 말하기를 ‘이순신은 물러가 있고 구원하지 않다가 천 번 만 번 불러서야 비로소 진군(進軍)하였다.’ 하였는데, 원균은 침범당한 지방에 있으면서 오직 대적하기를 바랐으나, 이순신이 원균과 한꺼번에 나가 싸우지 못한 것은 그 형세가 그러하였던 것입니다.” 하고, 이덕열이 아뢰기를, “이순신은 열다섯 번 부르기를 기다린 뒤에야 비로소 가서 적의 배 60척을 잡고서 맨 먼저 쳐들어간 것으로 자기 공을 신보(申報)하였다 합니다.” 하고, 이원익이 아뢰기를, “호남에 있던 적의 배가 자기가 있는 곳에 돌진해 오면 적이 총만해질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뒤에 간 것입니다. 원균이 당초에 많이 패하였으니 이순신이 따라가서 옆에 서 있거나 손수 잡지 않았더라도 관하(管下)가 잡은 것 또한 많았을 것입니다. 참급(斬級)이 많은 것으로 논한다면, 원균보다 많습니다.” 하고, 정탁이 아뢰기를, “그들이 공을 다투는 마음을 보면 두 장수가 다 잘못된 것이 있음을 면하지 못하나, 이순신은 또한 가법지 않은 장수이니, 위에서 하교하여 화해시켜서 뒷날의 공효를 당부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이원익이 아뢰기를, “원균은 당초에 많이 패하였으나 이순신만은 패하지 않고 공이 있었으므로, 다투는 시초가 여기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였다.

- 82권 29년 11월 9일 (신축) 5번째기사 / 해평 부원군 윤근수가 왜적 침입에 대한 대비책을 아뢰다
 해평 부원군(海平府院君) 윤근수(尹根壽)가 아뢰기를, “신이 황신(黃愼)의 장계(狀啓) 가운데에 있는 사연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가슴을 치며 스스로 안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어찌 임금이 근심하면 신하가 욱되고 임금이 욱되면 신하가 죽는다는 경우에 그칠 뿐이겠습니까. 저 적이 방자하게도 침범한다는 말을 하여 조금도 꺼리는 것이 없으니, 대개 우리를 주머니 속의 물건처럼 보아서 스스로 반드시 이길 형세라 생각하여 다시는 먼저 말이 퍼지는 것을 꺼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이 다시 온다면, 전일 익히 패하여 흩어지던 군졸로 맞설 것인데, 어찌 다시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감히 생각한 것으로 함부로 어리석은 말을 하여 묘당(廟堂)의 계책에 만분의 일이라도 우러러 도우려고 삼가 아래에 조목조목 적으니 성명(聖明)께서 재단하여 취택하시기 바랍니다. 신이 접때 원균(元均)을 도로 경상 우수사(慶尙右水使)로 삼아 주사(舟師)를 다시 거느려 적이 오는 데에 미리 대비하기를 청하였으나, 원균이 현재 맡은 병사(兵使)를 대신할 자를 얻기가 어렵다는 것을 드디어 알려 왔습니다. 신이 전에 《일본고(日本考)》를 보니, 근일 임희 후(臨淮侯) 이언공(李言恭)이 지은 것인데, 왜적은 육투(陸鬪)를 잘하고 수전(水戰)을 잘못한다고 분명히 말한 것이 있습니다. 또 임진년의 병화(兵禍) 이후로 저들의 예봉(銳鋒)을 크게 꺾은 것은 주사(舟師)만이 그러하였을 뿐이고 육전(陸戰)은 다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또 듣건대 적은 주사를 특히 심하게 두려워하여 피하고 감히 접근하지 못하나 우리 육군은 어린아이처럼 생각한다 합니다. 임진년에 수전한 장수들 중에서 공이 있는 자는 손꼽아 셀 수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원균이 가장 우직하여 제몸을 잊고 용맹을 떨치며 죽음을 피하지 않아서 공적이 매우 뚜렷합니다. 또 수전에 익숙하여 적을 보는 대로 나아가 이기기만 하고 지는 일이 없으므로 군졸이 믿어서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제 주사를 버리고 기보(騎步)를 거느리니, 병사(兵使)가 수사(水使)보다 높기는 하나, 이것은 옛사람이 이른바, 그 잘하는 것을 버려두고 그 재주를 못 쓰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제 다섯 적장(賊將)과 큰 군사가 겨울이나 봄에 올 것이라는 신보(申報)를 들었으니, 우리 나라에서는 서둘러 바다 가운데에서 막아 죽일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혹 조금이라도 늦추어서 적이 물에 내릴 수 있게 한다면, 뒤에 보기(步騎) 수만 명이 있더라도 어찌 선평처럼 빨리 오는 예봉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임진년의 일을 경계해야 합니다. 바다 가운데에서 막아 죽여서 적이 감히 언덕에 오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늘날 적을 막는 첫째 방책이라면, 주사의 장수는 본디 과거에 싸워서 여러 번 이긴자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원균이 수군을 거느리면 반드시 이길 도리가 있음을 기대할 수 있겠으나, 마땅하지 않은 사람으로 담당하게 하여 적에게 대항하지 못함으로써 적이 혹 호남으로 가는 길을 한번 범하면 원균이 한 도의 기보 군졸을 거느려 대장(大將)이 되더라도 결코 수전에서처럼 뜻대로 싸우지 못할 것이니, 다시 주사를 삼아서 전일에 싸웠던 장기(長技)를 쓰게 하지 않아서는 안되겠습니다. 육군의 장수로 말하면 마땅한 사람이 있을 것이니, 어찌 원균을 대신하여 감당할 자가 없겠습니까. 어떤 이는 말하기를 ‘원균은 이순신(李舜臣)과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 이순신이 통제사(統制使)이므로 원균을 절제(節制)할 것인데, 원균이 그 아래에 있는 것을 감수하지 못하여 두 장수가 화합되지 않을 것이니, 일이 성공될 리가 없을 듯하다.’ 하나, 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통제사란 직임은 한때의 필요에서 생긴 것이어서 그대로 둘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으므로, 이순신의 통제사라는 직명도 오히려 낮출 수 있고 혹 원균을 경상도 통제사라 칭하여 이순신과 명위(名位)가 대등하게 할 수도 있으니, 신축자재하게 임의로 한다고 해서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이는 대개 원균의 자급(資級)이 본디 이순신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존망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감히 다시 아뢰어 번거롭게 하는 혐의를 피할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신은 지난번 또 한산(閑山)의 주사(舟師)를 빨리 거제(巨濟)의 장문포(場門浦)에 진주하게 할 것을 아뢰었습니다. 이제는 저 적이 와서 침범할 형상이 이미 드러나 눈앞에 닥친 일이라 매우 급박하므로 조금도 늦출 수 없으니, 죄다 거제에 진주하여 수로(水路)를 제압하고 있다가 책사(冊使)가 나온 뒤에는 모든 오가는 적의 배를 곧 주사로 막아서 잡아 죽임으로써 적이 오는 길을 끊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 적의 장수가 나오는데 주사의 장수들이 전쟁을 꺼려서 미처 막지 못하였다고 핑계하거든 곧 군법으로 처리하여 군율(軍律)을 엄하게 해야 합니다. 바라건대 속히 하서(下書)하여 이순신 등이 급히 진주하도록 엄히 신칙(申勅)하여 다른 말로 핑계하지 못하게 하소서. 신은 전에 경상 감사(慶尙監司)가 되어 좌도(左道)·우도(右道)의 바닷가에 있는 각 진포(鎭浦)를 두루 다녔는데, 좌도의 개운포(開雲浦) 이북으로 말하면, 판옥선(板屋船)을 부리는 데에 익숙하지 않고 제도가 어긋나서 작전하기에 어려우므로, 바닷길이 조금만 멀면 바다로 나가는 데에는 문득 작은 배를 쓰고 판옥선은 헛되이 만들어서 매어 둘 뿐입니다. 또 좌수사(左水使)의 본영(本營)은 본디 동래(東萊) 지역에 있어서 부산(釜山)에서 매우 가까웠는데, 이제는 적을 피해 멀리 옮겨 장기(長鬢) 같은 곳에 주재하므로, 우도의 주사와 성세(聲勢)가 아득하여 서로 달지 않습니다. 이것은 병란을 피하려는 생각이니, 급할 때에 어떻게 힘입겠습니까. 좌수사도 판옥 주사(板屋舟師)를

, 책사가 돌아와 부산에 달거든 곧 우도의 주사가 주재한 곳에 옮기게 하여 합해서 좌우의 형세를 만들어 기각(掎角)의 계책을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군용(軍容)이 조금 씩씩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개운포 이북의 판옥선도 수를 줄여서 그 줄인 배의 격군(格軍)·수졸(水卒)을 좌수사가 옮겨 주재할 때에 거느리고 와서 주사가 모자라는 곳에 채워야 합니다. 개운포 이북의 판옥선이 헛된 것으로 쓸데없는 것이라면, 주사가 모자라 한 군졸이라도 매우 중요한 이때에 어찌 앉아서 보기만 하고 갈 데가 없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크게 걱정할 것은 판옥선의 수가 적은 것이 아니라 오직 배마다 격군이 모자라는 것이니, 빨리 좌수사에게 하유하여 미리 장속(裝束)해서 시기에 맞춰 곧 봉행하게 하소서. 병화가 발생한 이후로 우리 나라의 장사(將士)는 적을 보면 곧 달아나서 혹 미처 교전하기도 전에 먼저 무너진 자도 있는데, 군졸은 ‘장수가 먼저 달아났는데 우리들만이 어찌 남아서 적봉(賊鋒)을 감당하겠는가.’ 하고, 장수가 된 자는 ‘관하의 군졸이 흩어졌는데 나만이 어찌 적을 감당하겠는가.’ 하여, 패하여 달아난 장졸(將卒)이 빈번이 서로 송사하는 자와 같으니, 먼저 달아난 자가 장수인지 군졸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이같은 짓을 그만두지 않고 적을 대하게 하면, 어찌 싸워 이겨 적을 물리칠 날이 있겠습니까. 이는 적이 다시 침입하기를 기다릴 것도 없이 이미 간담이 서늘해지는 한심한 문제인 것입니다. 병법(兵法)에 ‘군사 중에 선봉(選鋒)이 없으면 패한다.’ 하였습니다. 반드시 여러번 싸움을 겪어서 적을 보아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버리고 돌진하여 싸울 수 있어야 적과 혈전(血戰)하여 패배하게 되지 않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평안도·황해도·경기 등의 고을에서는 왜적이 두루 찻을 때에도 혹 여러날 동안 고전하거나 성을 지키면서 역전(力戰)한 자가 고을마다 있다 하니, 세 도에 하유하여 잘 가려 뽑아 정예하고 용맹한 자를 얻도록 힘쓰게 하여 모두 3~4백명이나 5~6백 명을 얻어 경중(京中)에 모아 양료(糧料)를 넉넉히 주고 말이 없는 자에게는 전마(戰馬)를 주어 나가 싸우게 하소서. 그러면 매복하였다가 차단하여 사살하기를 바랄 수 있고 맨 먼저 오르기를 책임지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이 또 듣건대 적이 함경남도에 들어왔을 때에 강찬(姜燦)이 군사를 내어 적을 맞아 싸워서 크게 전승(全勝)을 얻고 참곡(斬馘)한 것이 매우 많았는데, 보고 들은 자가 모두 ‘이 싸움에서 군졸이 용맹을 떨치니 적은 그 위세에 놀려 마치 질풍이 가을 낙엽을 쓰는 듯하였다.’ 했습니다. 북도(北道)의 토병(土兵)으로 말하면 여러 번 전투를 겪어서 사람들이 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을 보면 곧 용맹을 떨치니, 이들 3~4백 명을 징발하여 경중(京中)에 올려 와서 특별히 돌보아 남방의 적이 오는 길의 요충지에 내려 보내 각자 스스로 싸우게 하여 그 치돌(馳突)하는 장기(長技)를 펼 수 있게 하면, 조금 적의 형세를 막아서 감히 뜻대로 장구(長驅)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북도에는 접경하고 있는 호로(胡虜)가 있으므로 그 방수(防守)하는 군사를 거두어 다른 데에 쓸 수 없다.’ 하나 적들이 육진(六鎭)에 꼭 차 백성을 마구 살육하고 나온 뒤에도 호로가 끝내 우리 한 진(鎭)을 빼앗아 가지지 못하였으니, 두려울 바가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군사 3~4백 명을 뽑아내더라도 어찌 그 진을 비우게야 되겠습니까. 혹 호로의 환란을 염려한다면, 호로가 특히 두려워하는 것이 화포(火砲)이니, 포수(砲手)를 내려 보내어 토병과 바꾸되, 그 정예한 군사를 빨리 뽑아서 왜적을 막는 데 쓰는 것이 또한 눈앞의 환란을 늦추는 데에 급히 힘쓸 일입니다. 또 사람들이 흔히 ‘포수와 살수(殺手)를 양성하는 아동대(兒童隊)는 그 의도가 뒷날의 급할 때 쓰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환란이 눈앞에 닥쳐 있고 투사(鬪士)의 양식도 모자라는 판에 아동의 우리들까지 양식을 대줄 수 없는 형편이니, 임시로 폐지해야 한다.’ 합니다. 이 말이 조리가 있는 듯하니, 상의하여 처치하도록 아올러 명하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이렇게 써서 아뢰니, 매우 아름답고 기쁘다.” 하였다.

- 선조 82권 29년 11월 13일 (을사) 1번째기사 / 판중추부사 윤두수 등이 대가의 파천 계책에 대해 아뢰다
 판중추부사 윤두수(尹斗壽)·좌의정 김응남(金應南)·지중추부사 정탁(鄭琢)·우의정 이원익(李元翼) 등이 청대(請對)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오시(午時) 초에 별전(別殿)에 나아가 네 대신(大臣)을 인견(引見)하였는데, 승지(承旨) 허성(許箴)이 입시하였다

…… (중략) ……

정탁이 아뢰기를, “하삼도를 지키지 못하면 경성도 지킬 수 없고 경성을 지키지 못하면 다른 도도 지킬 수 없습니다. 강화는 경성에서 가까우며 아래로는 세 도에서 운반해 올 수 있고 위로는 대국(大國)의 원조가 있으니, 경성을 보전하려면 반드시 강화로 가야 할 것입니다.”하고, 윤두수가 아뢰기를, “왜를 막는 데에는 주사(舟師)만한 것이 없

것입니다. 저들의 배는 본디 알팍한데 장왜선(將倭船)은 더욱 가볍고 빠르니, 한번 포를 쏘고 나서 주사를 장문포(長門浦)에 들어가게 하고 원균(元均)으로 하여금 영등포(永登浦)를 지키면서 적선이 왔을 때에 포로 맞서 치게 하면, 아마도 편리할 듯합니다.” 하고, 정탁이 아뢰기를, “왜적은 주사를 매우 두려워하니, 이순신(李舜臣)을 시켜 주사를 거느리고 치게 하면 청적(淸賊)의 선봉(先鋒)을 격파할 수 있을 것이고, 적이 많아서 수적으로는 열세이지만 그들을 꺾어 패하게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고,

- 선조 82권 29년 11월 17일 (기유) 2번째기사 / 도체찰사 이원익이 왜적의 방비책·기인·방납 등에 대해 아뢰다
 묘시 정각에 상이 별전(別殿)에 나아가 우의정 겸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등도 도체찰사(右議政兼江原忠淸全羅慶尙等道都體察使) 이원익(李元翼)을 인견(引見)하였다.

이원익이 아뢰기를, “큰 배로는 물마루를 넘어 들어올 수 없으므로 저들이 다 새로 만들었으나 우리 배만 못하데, 튼튼하지는 않더라도 바다를 건너는 데 편리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매우 정교하지만 주사는 그들도 겁을 냅니다. 그들의 배는 매우 얇으므로, 우리 배와 부딪치면 부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원균(元均)은 주사로 용감히 싸웠으므로, 윤두수(尹斗壽)가 신에게 반드시 그를 쓰게 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소신도 반드시 그렇게 하려 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두 장수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으니, 일이 어떻게 될 수 있겠는가. 원균은 끝내 이순신(李舜臣)의 부하가 되려 하지 않고 매우 미워한다.” 하였다.

- 선조 83권 29년 12월 21일 (계미) 5번째기사 / 왕이 황신을 인견하다
 신시(申時)에 상이 별전에 나아가 황신(黃愼)을 인견하였다.

…… (중략) ……

상이 이르기를, “그대가 출입할 때 모두 우리 나라 배를 탔었는가?” 하니, 황신이 아뢰기를, “신의 처음 생각에는 왜선(倭船)이 필시 우리 배보다 우수하리라 여겼으므로 부산에서부터 일기도(一岐島)에 도착하기까지는 모두 왜선을 탔으나, 거기서부터 적관(赤關)까지는 우리 배를 타고 갔고 돌아올 때에도 우리 배를 탔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판옥선(板屋船)이던가?” 하니, 황신이 아뢰기를, “이순신(李舜臣)이 감독하여 만든 배로 왜선의 제도를 모방한 것입니다. 신이 일본에서 돌아올 때 곧바로 부산으로 건너려 하니, 여러 왜인들이 말하기를 ‘바람이 맞은편에서 부는듯하니 반드시 곧장 부산에 도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였습니니다. 다시 우리 나라 사공에게 물어보니 모두 건널 수 있다고 하므로 왜인들이 굳이 만류하는 것도 듣지 않았습니니다. 바다를 반쯤 건너자 왜인들이 기뻐하며 말하기를 ‘이제는 건널 수 있겠다.’ 하였습니니다. 밤중에 이르러 부산에 정박하니, 부산 진영에 머물러 있던 왜인들이 보고서 놀라는 기색이었습니니다.”

- 선조 83권 29년 12월 29일 (신묘) 2번째기사 / 이순신의 서장을 고친 조영을 추고할 것을 사헌부가 건의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국가에서 언관(言官)을 설치한 뜻은 크고 작은 일을 모두 듣고 알게 하려는 것인데, 군사 기밀이 비록 비밀일지라도 어찌 전혀 참여해 듣지 못하게 해야 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근간에 비변사에서 비밀에 관한 일을 회계(回啓)할 때에 대간이라도 보여주지 말기를 요청하였다 하니, 말도 안 되는 처사입니다. 비변사 유사 당상을 추고하도록 명을 내리소서. 신들은, 선전관 조영(趙瑩)이 통제사 이순신(李舜臣)에게 유지(有旨)를 가지고 갔다가 이순신으로부터 서장을 받아 온 일이 있는데 결봉투에는 뜯어 본 흔적이 뚜렷이 있고 서장 내에 기록한 월일(月日)의 숫자에 획을 고쳤다는 말을 듣고 그 서장을 가져다 보니, 결봉투를 뜯어 본 흔적은 알 수 없으나 날짜에 획을

그는 흔적은 분명하였습니다. 조영이 날짜를 지체한 죄를 면하려고 감히 수신(帥臣)의 장계를 고쳤으니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먼저 파직하고 나서 추고하소서. 정원도 이미 장계를 뜯어 보고 날을 고쳐 적은 사실을 알면서도 즉시 청죄(請罪)하지 않았으니, 또한 잘못입니다. 색승지를 추고하소서.” 하니, 모두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선조 84권 30년 1월 1일 (임진) 5번째기사 / 군공이 있는 김난서·안위·신명학의 포상을 청한 통제사 이순신의 서장
12월 27일에 성첩(成貼)한 통제사(統制使) 이순신(李舜臣)의 서장은 다음과 같다. “신의 장수 가운데 계려(計慮)가 있고 담력과 용기가 있는 사람 및 군관(軍官)·아병(牙兵)으로 활을 잘 쏘고 용력(勇力)이 있는 자들이 있는데, 항상 진영에 머물면서 함께 조석으로 계책을 의논하기도 하고 그들의 성심(誠心)을 시험하기도 하고 함께 밀약(密約)하기도 하였으며 또 그들을 시켜 적의 정세를 정탐(偵探)하게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터에 거제 현령(巨濟懸令) 안위(安衛) 및 군관 급제(及第) 김난서(金蘭瑞), 군관 신명학(辛鳴鶴)이 여러 차례 밀모(密謀)하여 은밀히 박의검(朴義儉)을 불러 함께 모의했습니다. 그랬더니 박의검은 아주 기꺼워하여 다시 김난서 등과 함께 간절하게 지휘(指揮)하면서 죽음으로 맹세하고 약속하였습니다. 같은 달 12일, 김난서 등은 야간에 약속대로 시간되기를 기다리는데 마침 서북 풍이 크게 불어왔습니다. 바람결에다 불을 놓으니, 불길이 세차게 번져서 적의 가옥 1천여 호와 화약이 쌓인 창고 2개, 군기(軍器)와 잡물 및 군량 2만 6천여 석이 든 곳집이 한꺼번에 다 타고 왜선(倭船) 20여 척 역시 잇따라 탔으며, 왜인 24명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이는 하늘이 도운 것이지만, 대개 김난서가 통신사(通信使)의 군관(軍官)에 스스로 응모하여 일본을 왕래하면서 생사를 돌보지 않았기에 마침내 이번 일을 성공한 것입니다. 안위(安衛)는 평소 계책을 의논하다가 적에 대해 언급할 경우 의분에 분개하여 자신이 살 계책을 돌보지 않았으며, 그의 군관 김난서와 신명학 등을 거느리고 적진으로 들어가 갖가지로 모의하여 흉적의 소굴을 일거에 불태워 군량·군기·화포 등 제구(諸具)와 선박 및 왜적 34명을 불태워 죽게 하였습니다. 부산(釜山)의 대적을 비록 모조리 다 죽이지는 못했지만 적의 사기를 꺾었으니 이 역시 한 가지 계책이었습니다. 일본을 왕래하는 경상 수영(慶尙水營) 도훈도(都訓導) 김득(金得)이 부산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날밤 불타는 모습을 보고는 이달 12일 2경(更)에 부산의 왜적 진영 서북쪽 가에다 불을 놓아 적의 가옥 1천여 호 및 군기(軍器)와 잡물·화포(火砲)·기구(器具)·군량 곳집을 빠짐없이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왜적들이 서로 모여 울부짖기를 ‘우리 본국(本國)의 지진(地震) 때에도 집이 무너져 사망한 자가 매우 많았는데 이번에 이곳에서 또 화환(火患)을 만나 이 지경이 되었으니, 우리가 어디서 죽을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합니다. 이 말을 믿을 수는 없지만 또한 그럴 리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안위·김난서·신명학 등이 성심으로 힘을 다하여 일을 성공시켰으니 매우 가상하며, 앞으로 대처할 기밀(機密)의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니 각별히 논상(論賞)하여 장래를 격려하소서.”

- 선조 84권 30년 1월 2일 (계사) 3번째기사 / 앞 전교에 대하여 체찰사로 하여금 편의에 따라 시행하도록 허성에게 전교하다
우부승지 허성에게 전교하였다. “이 일은 조정에서 허락하느냐 허락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을 뿐, 허다한 절차를 멀리서 지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금의 의논이 이러하니, 체찰사(體察使)로 하여금 급히 편의에 따라 시행하게 하되 여러 장수가 협력해서 하고 공을 다투다가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일을 성공하면 마땅히 김응서(金應瑞)와 이순신(李舜臣)을 함께 수공(首功)으로 삼을 것이다. 이런 뜻을 각별히 두 사람에게 내리는 유지(有旨)에 써넣도록 하라.”

- 선조 84권 30년 1월 2일 (계사) 8번째기사 / 지난날 적의 소굴을 불태운 것은 허수석이라고 김신국이 아뢰다
이조 좌랑(吏曹佐郎) 김신국(金愼國)이 서계(書啓)하였다. “지난날 부산의 적 소굴을 불태운 사유를 통제사 이순신

이미 장계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체찰사(都體察使) 이원익(李元翼)이 거느린 군관 정희현(鄭希玄)은 일찍이 조방장(助防將)으로 오랫동안 밀양(密陽) 등지에 있었으므로 적진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정희현의 심복이 된 자가 많습니다. 적의 진영을 몰래 불태운 일은 이원익이 전적으로 정희현에게 명하여 도모한 것입니다. 정희현의 심복인 부산 수군(水軍) 허수석(許守石)은 적진을 마음대로 출입하는 자로 그의 동생이 지금 부산영 성 밑에 살고 있는데 그가 주선하여 성사시킬 수 있었으므로 정희현이 밀양으로 가서 허수석과 몰래 모의하여 기일을 약속해 보내고 돌아와 이원익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날짜를 기다리는 즈음에 허수석이 급히 부산영에서 와 불태운 곡절을 고했는데 당보(塘報)도 잇따라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원익은 허수석이 한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이순신의 군관이 부사(副使)의 복물선(卜物船)을 운반하는 일로 부산에 도착했었는데 마침 적의 영이 불타는 날이었습니다. 그가 돌아가 이순신에게 보고하여 자기의 공으로 삼은 것일 뿐 이순신은 당초 이번 일의 사정을 모르고서 치계(馳啓)한 것입니다. 허수석이 작상(爵賞)을 바라고 있고 이원익도 또 허수석을 의지해 다시 일을 도모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갑자기 작상을 내리면 누설될 염려가 있으니 이런 뜻으로 유시(諭示)하고 은냥(銀兩)을 후히 주어 보내소서. 조정에서 만일 그런 곡절을 모르고 먼저 이순신이 장계한 사람에게 작상을 베풀면 반드시 허수석의 시기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적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방비를 더욱 엄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모한 일을 시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원익이 신에게 계달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이번 비밀리에 의논한 일은 이미 이원익의 장계에 있기 때문에 서계하지 않습니다.”

- 선조 84권 30년 1월 23일 (갑인) 1번째기사 / 왕이 대신 및 비변사 유사 당상을 명초하여 인견하다
사시(巳時)에 상이 대신 및 비변사 유사 당상을 명초하여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왜추(倭酋)는 【행장(行長)을 말한다. 행장이 김응서(金應瑞)에게 청정(淸正)을 도모할 계책을 일러 주었는데, 유성룡(柳成龍) 등이 적의 말을 경솔히 듣다가 그들의 계책에 빠질까 싫다며 경솔히 움직이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이다.】 손바닥을 보이듯이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는 해내지 못했으니, 우리 나라야말로 정말 천하에 용렬한 나라이다. 지금 장계를 보니, 행장 역시 조선의 일은 매양 그렇다고 조롱까지 하였으니, 우리 나라는 행장보다 훨씬 못하다. 한산도(閑山島)의 장수는 편안히 누워서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랐었다.” 【한산도의 장수는 통제사 이순신(李舜臣)이었다.】 하니, 윤두수가 아뢰기를, “이순신은 왜구를 두려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로 나가 싸우기에 싫증을 낸 것입니다. 임진년 정운(鄭運)이 죽을 때에도 절영도(絶影島)에서 배를 운행하다 적의 대포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고, 이산해는 아뢰기를, “이순신은 정운과 원균이 없음으로 해서 그렇게 체류한 것입니다.” 하고, 김응남은 아뢰기를, “정운은 이순신이 나가 싸우지 않는다 하여 참(斬)하려 하자 이순신이 두려워 마지못해 억지로 싸웠으니, 해전에서 이긴 것은 대개 정운이 격려해서 된 것입니다. 정연신(鄭彦信)이 항상 정운의 사람됨을 칭찬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번에 이순신에게 어찌 청정의 목을 베라고 바란 것이겠는가. 단지 배로 시위하며 해상을 순회하라는 것뿐이었는데 끝내 하지 못했으니, 참으로 한탄스럽다. 이제 도체찰사의 장계를 보니, 시위할 약속이 갖추어졌다고 한다.” 하고, 상이 한참동안 차탄(嗟歎)하고는 길게 한숨지으며 이르기를, “우리 나라는 이제 끝났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니, 윤두수가 아뢰기를, “왜적은 만세토록 잊지 못할 원수여서 밤낮으로 복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심유경(沈惟敬)은 분쟁(紛爭)을 푸는 것을 자기 임무로 삼고 있으니 어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모름지기 극진하게 대접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친히 접견하지 않았으니 그의 마음이 서운할까 싶습니다.”

- 선조 84권 30년 1월 27일 (무오) 1번째기사 / 수군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대신 및 비변사 유사 당상과 논의하다
상이 대신 및 비변사 유사 당상을 인견하였다.

…… () ……

판중추부사 윤두수가 아뢰기를, “이번에 도원수가 길에서 왜적 두세 명을 만났다 하는데, 혹시 적이 흉역(兇逆)을 부렸다면 얼마나 나라가 옥되게 되었을지 아득합니다. 마땅히 체찰사에게 하서하여 간이(簡易)하게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또 그런 영적(零賊)을 소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순신(李舜臣)은 조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전쟁에 나가는 것을 싫어해서 한산도에 물러나 지키고 있어 이번 대계(大計)를 시행하지 못하였으니, 대소 인신(人臣)이 누구든 통분해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지중추부사 정탁(鄭琢)은 아뢰기를, “이순신은 참으로 죄가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순신은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겠다. 계미년 이래 사람들이 모두 거짓되다고 하였다. 이번에 비변사가 ‘제장과 수령들이 호령을 듣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다른 까닭이 아니라, 비변사가 그들을 옹호해주기 때문이다. 중국 장수들이 못하는 것이 없이 조정을 속이고 있는데, 이런 습성을 우리 나라 사람들도 모두 답습하고 있다. 이순신이 부산 왜영(倭營)을 불태웠다고 조정에 속여 보고하였는데, 영상(領相)이 이 자리에 있지만 반드시 그랬을 이치가 없다. 지금 비록 그의 손으로 청정의 목을 베어 오더라도 결코 그 죄는 용서해 줄 수 없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이순신은 한동네 사람이어서 신이 어려서부터 아는데, 직무를 잘 수행할 자라 여겼습니다. 그는 평일에 대장(大將)이 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글을 잘 아는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성품이 강의(強毅)하여 남에게 굽힐 줄을 모르는데, 신이 수사(水使)로 천거하여 임진년에 공을 세워 정헌(正憲)까지 이르렀으니, 매우 과람합니다. 무릇 장수는 뜻이 차고 기가 퍼지면 반드시 교만하고 게을러집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순신은 용서할 수가 없다. 무장(武將)으로서 어찌 조정을 경멸하는 마음을 갖는가. 우상(右相)이 내려갈 때에 말하기를 ‘평일에는 원균(元均)을 장수로 삼아서는 안 되고 전시에는 써야 한다.’고 하였다.” 하니, 좌의정 김응남이 아뢰기를, “수군으로서는 원균만한 사람이 없으니, 이제 버릴 수 없습니다.” 하고, 유성룡이 아뢰기를,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깊습니다. 상당 산성(上黨山城)을 쌓을 때, 원균은 토실(土室)을 만들어 놓고 몸소 성 쌓는 것을 감독하였다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수군의 선봉을 삼고자 한다.”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지당합니다.” 하였다. 영중추부사 이산해(李山海)가 아뢰기를, “임진년 수전(水戰)할 때 원균과 이순신이 서서히 장계(狀啓)하기로 약속하였다 합니다. 그런데 이순신이 밤에 몰래 혼자서 장계를 올려 자기의 공으로 삼았기 때문에 원균이 원망을 품었습니다.” 하고, 윤두수가 아뢰기를, “이순신을 전라 충청 통제사(全羅忠淸統制使)로 삼고, 원균을 경상 통제사(慶尙統制使)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원균이 만약 적의 소굴로 직접 침입하면 누가 당하겠는가. 소공(邵公)과 이현충(李顯忠)의 일이 참으로 이와 같다.” 하였다. 김응남이 아뢰기를, “모름지기 어사(御史)를 보내 그로 하여금 규찰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문신(文臣)으로 특별히 어사를 정해 그간의 사정을 살피게 해야 한다.” 하였다. 윤두수와 김응남이 함께 아뢰기를, “이순신은 조용한 사람인 듯한데, 다만 속임수가 많고 전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병조 판서 이덕형(李德馨)에게 이르기를, “원균의 일을 급히 조치하라.” 하니, 아뢰기를, “원균을 처음 수전(水戰)에 내보낼 때 의논이 일치되지 않아 이에 이르렀습니다. 근래 변방 장수의 일을 보건대, 이운룡(李雲龍)은 도적 한두 명을 보면 나아가서 싸우지 않고 단지 문보(文報)만 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평소 같았으면 어찌 그의 몸에 견벌(遣罰)이 미치지 않았겠습니까. 원균을 좌도(左道)로 보내는 것이 무방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좌도로는 보낼 수 없다.”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서성(徐滄)이 술을 차려 잔치를 베풀고서 두 사람이 화해(和解)하도록 했는데, 원균이 이순신에게 말하기를 ‘너에게는 다섯 아들이 있다.’【다섯 아들이란 권준(權俊), 배흥립(裵興立), 김득광(金得光) 등을 말한다.】 하였으니, 그의 분해하고 불평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였다. 이덕형이 아뢰기를, “군사 일은 반드시 조리(條理)가 있어 마치고 그물에 강(綱)이 있는 것과 같은 연후에야 두서(頭緒)를 알 수 있는 것인데, 전라도의 일은 매우 문란합니다. 신이 군사의 액수(額數)를 알고자 하여 무학(武學)이라 이름하여 팔도로 하여금 병조에 올리게 하였더니, 황해도 등은 이미 올려보냈는데 전라도는 잠잠하게 아무 소식이 없으니, 매우 허술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일본에 사신 보내는 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만약 사신을 보내지 않으면 후회하는 일이 없지 않을 것이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사세가 이미 급하게 되었으니, 보내도 도움이 없을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사세로 보아 하기 어려운 것인가, 의리로 보아 말하는 것인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사세가 이미 급하게 되었는데, 어찌 의리를 생각하겠습니까.” 하자, 【이는 망발이다. 대신이 ‘어찌 의리를 생각하겠습니까.’라는 말을 입에서 내어 임금에게 들려줄 수 있단 말인가.】 상이 이르기를, “의리는 아무리 위급한 때라 해도 어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난번 황신(黃愼)이 갈 때에는 무슨 의리가 있었기에, 오늘날 성지(聖旨)를 받들어 사신을 보내는 것만 유독 의리가 아니라 말인가.” 하였다. 이산해가 아뢰기를, “신이 병으로 사실(私室)에 누워 있는데, 미아(迷兒)가 급히 와서 말하기

‘일변(日變)이 비상하다.’ 하였습니다. 변이 매우 참혹합니다. 양변에 극(戟)이 있었는데 그 극은 천문지(天文志)에 미세한 것이라고 하였지만 이것은 쏘는 빛이 매우 크니 극이 아닙니다. 또 붉은 기운 또한 흉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러한 때에, 어찌 천변(天變)이 있어야만 경계하겠는가. 계사년 정월 초하루에 흰 무지개가 해를 꺾었는데 누군들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그때 평양에서 크게 이겼으니, 이번에는 청정의 목을 벨 징조가 아니겠는가.” 하자, 이덕형이 아뢰기를, “계사년에 신과 제독(提督)이 군중에서 나와 흰 무지개를 바라보고 모두 기뻐 하였습니다.” 하였다.

• 선조 84권 30년 1월 27일 (무오) 3번째기사 / 수군의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대신들과 논의하다

상이 별전(別殿)에 나아가 비변사 대신 및 유사 당상인 영돈녕부사 이산해(李山海), 의정부 영의정 유성룡(柳成龍), 판중추부사 윤두수(尹斗壽), 의정부 좌의정 김응남(金應南), 지중추부사 정탁(鄭琢), 경림군(慶林君) 김명원(金命元), 호조 판서 김수(金粹), 병조 판서 이덕형(李德馨), 병조 참판 유영경(柳永慶), 이조 참판 이정형(李廷馨), 상호군 노직(盧稷)을 인견하였다. 좌승지 이덕열(李德悅), 주서 조즙(趙澂), 사변 거주서(事變假注書) 이순민(李舜民), 검열 심액(深謖)·이유홍(李惟弘)이 입시하였다.

..... (중략)

윤두수가 아뢰기를, “전일에 권율이 소신에게 편지를 보내왔는데 보니, 행장(行長)이 바야흐로 강화(講和)를 말하는데 고성(固城)·곤양(昆陽) 근처에 적도들이 쳐들어왔으므로 이것을 행장에게 말했더니, 행장은 ‘그 적은 나의 무리가 아니다. 조선에서 비록 그들을 죽이더라도 내가 가서 구할 리가 없다.’고 했다 했습니다. 신이 선거이(宣居怡)·이순신 등으로 하여금 군사를 이끌고 영등포(永登浦)에 진을 치고 있는 적과 싸우도록 했더니 장문포(長門浦)에 진을 치고 있던 적들이 와서 구원하고, 장문포에 진을 치고 있던 적과 싸우면 영등포에 진을 치고 있던 적들이 와서 구할 뿐 행장의 군사들은 관망(觀望)만 하고 있으면서 후원할 만한데도 끝내 와서 구하지 않았으니, 역시 오는 대로 격파해야 합니다. 원수(元帥)가 길에서 왜적 5~6명을 만났다고 하는데, 적이 만약 원수가 고단(孤單)함을 알았다면 말할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체찰사 역시 간약(簡約)한 사람인데 행동을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 비변사에서 이순신의 죄상(罪狀)을 이미 헌의(獻議)했으므로, 이순신의 죄상은 상께서도 이미 통촉하시지만 이번 일은 온 나라의 인심이 모두 분노해 하고 있으니, 행장(行長)이 자휘(指揮)하더라도 역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위급할 때에 장수를 바꾸는 것이 비록 어려운 일이지만 이순신을 체직시켜야 할 듯합니다.”하고, 정탁이 아뢰기를, “참으로 죄가 있습니다만 위급할 때에 장수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나는 이순신의 사람됨을 자세히 모르지만 성품이 지혜가 적은 듯하다. 임진년 이후에 한번도 거사를 하지 않았고, 이번 일도 하늘이 준 기회를 취하지 않았으니 법을 범한 사람을 어찌 매번 용서할 것인가. 원균(元均)으로 대신해야 하겠다. 중국 장수 이 제독(李提督)이하가 모두 조정을 기만하지 않는 자가 없더니, 우리 나라 사람들도 그걸 본받는 자가 많다. 왜영을 볼 태운 일도 김난서(金鸞瑞)와 안위(安衛)가 몰래 약속하여 했다고 하는데, 이순신은 자기가 계책을 세워 한 것처럼 하니 나는 매우 온당치 않게 여긴다. 그런 사람은 비록 청정(淸正)의 목을 베어 오더라도 용서할 수가 없다.” 하였다. 이산해가 아뢰기를, “임진년에 원균의 공로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공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앞장서서 나아가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사졸(士卒)들이 보고 본받기 때문이다.”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신의 집이 이순신과 같은 동네에 있기 때문에 신이 이순신의 사람됨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경성(京城)사람인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성종(成宗) 때 사람 이거(李瑀)의 자손인데, 직사(職事)를 감당할 만하다고 여겨 당초에 신이 조산 만호(造山萬戶)로 천거했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글을 잘하는 사람인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성품이 굽히기를 좋아하지 않아 제법 취할 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느 곳 수령으로 있을 때 신이 수사(水使)로 천거했습니다. 임진년에 신이 차령(車嶺)에 있을 때 이순신이 정헌(正憲)이 되고, 원균이 가선(嘉善)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작상(爵賞)이 지나치다고 여겼습니다. 무장(武將)은 지기(志氣)가 교만해지면 쓸 수가 없게 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때에 원균이 그의 동생 원전(元塹)을 보내 승전을 알렸기 때문에 그런 상이 있었다.”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거제(巨濟)에 들어가 지켰다면 영등(永登)·김해(金海)의 적이 반드시 두려워하였을 것인데 오랫동안 한산(閑山)에 머물면서 별로 하는 일이 없었고

바닷길도 역시 요격(邀擊)하지 않았으니, 어찌 죄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다만 체대(遞代)하는 사이에 사세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전일에 그렇게 계달하였던 것입니다. 비변사로서 어찌 이순신 하나를 비호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순신은 조금도 용서할 수가 없다. 무신(武臣)이 조정을 가볍게 여기는 습성은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 이순신이 조산 만호로 있을 때 김경눌(金景訥) 역시 녹둔도(鹿屯島)에 둔전(屯田)하는 일로 마침 그곳에 있었는데, 이순신과 김경눌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었다. 이순신이 밤중에 호인(胡人) 하나를 잡아 김경눌을 속이니, 김경눌은 바지만 입고 도망하기까지 하였다. 김경눌은 허술한 사람이어서 것처럼 위태로운 곳에서 계엄을 하지 않았고, 이순신은 같은 변방의 장수로서 서로 희롱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내가 그런 일을 일찍이 들었다. 김경눌은 매양 공(功)을 세우는 데 뜻을 둔 사람인데,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평일에 자부하던 기개를 어찌 난시(亂時)에 시험하지 않고 있는가.” 하자, 김수가 아뢰기를, “신이 임진년에 거느리고 오다가 용인(龍仁)에서 철환을 맞았는데 지금은 순찰사 둔전관(巡察使屯田官)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체로 허탄한 사람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 사람이 평소에 스스로 ‘글은 이름이나 쓸 정도이고 칼솜씨는 사람을 대적할 만하니, 오백의사(五百義士)같은 사람이다.’고 하였다.”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평소에도 활을 잘 쏘지 못하였는데 지금은 팔에 병이 났습니다.” 하였다. 이정형이 아뢰기를, “이순신이 ‘거제도에 들어가 지키면 좋은 줄은 알지만, 한산도는 선박을 감출 수 있는데다가 적들이 천심(淺深)을 알 수 없고, 거제도는 그 만이 비록 넓기는 하나 선박을 감출 곳이 없을 뿐더러 또 건너편 안골(安骨)의 적과 상대하고 있어 들어가 지키기에는 어렵다.’고 하였으니, 그 말이 합당한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들어가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했는데, 경의 생각은 어떤가?” 하자, 이정형이 아뢰기를, “신 역시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그럴습니다. 원균은 사변이 일어난 처음에 강개(慷慨)하여 공을 세웠는데, 다만 군졸을 돌보지 않아 민심을 잃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성품이 이처럼 포악한가?” 하니, 이정형이 아뢰기를, “경상도가 판왕된 것은 모두 원균에게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상(右相)이 내려갈 때 원균은 적과 싸울 때에나 쓸 만한 사람이라 하였으니, 여기에서 짐작할 수 있다.”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인심을 잃었다는 말은 우선 치지 도외하고 주사(舟師)로 써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억기(李億祺)는 내가 일찍이 본 적이 있는데, 쓸 만한 사람이다.” 하니, 이정형이 아뢰기를, “원균만 못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원균은 자기 소견대로만 하고 고칠 줄을 모른다. 체찰사가 비록 논리적으로 개유(開諭)해도 고치지 않는다고 한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대개 나라를 위하는 데는 성심이 있습니다. 상당 산성(上黨山城)을 쌓을 때 움막을 만들고 자면서 역사를 감독해 수축하였습니다.” 하고, 이산해가 아뢰기를, “상당 산성을 수축할 때에 위력으로 역사를 감독했기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고, 이정형이 아뢰기를, “상당 산성의 역사는 비록 이루어졌지만 도로 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체찰사가 이순신과 원균에게 분부하는 일이 있으면, 비록 온당하지 못하더라도 이순신은 그런대로 면종(面從)을 하지만 원균은 노기를 내어 청종(聽從)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그의 공(功)을 빼앗겨서인가? 원균을 좌도 주사(左道舟師)에 임명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2인을 진압하게 하는 것이 어떨겠는가?” 하니, 이정형이 아뢰기를, “이순신과 원균은 서로 용납하지 못할 형세입니다.” 하고, 김수가 아뢰기를, “원균은 매양 이순신이 공을 빼앗았다고 신에게 말하였습니다.” 하고, 이덕열이 아뢰기를, “이순신이 원균의 공을 빼앗아 권준(權俊)의 공으로 삼으면서 원균과 상의하지도 않고 먼저 장계한 것입니다. 그때에 왜선 안에서 여인(女人)을 얻어 사실을 탐지하고는 곧장 장계했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때 왜장(倭將)이 3층 누선(樓船)에 앉아서 관(冠)을 쓰고 바둑을 두고 있었는데 그 배가 매우 허술하였기 때문에 우리 배와 만나 즉시 부서졌다 한다. 왜선이 지금도 그곳에 있다 하니, 전선(全船)을 포착(捕捉)했다는 말이 반드시 허언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하고, 또 상이 이르기를, “전라도는 중국 사신을 지대(支待)하느라 주사(舟師)와 격군(格軍)이 아직 정돈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일은 모두 이순신만을 책할 수는 없다.”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불태우는 일을 이순신이 처음에 안위(安衛)와 밀약하였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불사르니 이순신이 도리어 자기의 공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정형이 아뢰기를, “변방의 일은 멀리서 헤아릴 수가 없으니, 서서히 처리해야 합니다.” 하고, 김수가 아뢰기를, “이것이 사실이라면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유성룡이 아뢰기를, “그 사람의 죄가 그럴기는 하나 지금부터 책려(策勵)해야 합니다.” 하고, 윤두수가 아뢰기를, “이순신과 원균을 모두 통제사(統制使)로 삼아, 서로 세력을 협조토록 해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비록 두 사람을 나누어 통제사로 삼더라도 반드시 조절하여 절제(節制)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원균이 앞장서서 싸움에 나가는데 이순신이 물러나 구하지 않는다면 사세가 어려울 것이다.”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그렇게 한다면 이순신을 중죄에 처해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옛날 이현충(李顯忠)의 일도 있었으니 반드시 문관

()으로 하여금 두 사람을 조절하게 하여 기탄하는 바가 있게 해야 한다. 그가 이미 통제사가 되었으니, 수군을 모아야 하는데 어째서 정돈하지 않고 있는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겨울이면 격군(格軍)을 풀어준다고 합니다.” 하고, 김수가 아뢰기를, “으레 10월이면 격군을 풀어주는 것이 이미 규례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윤두수가 아뢰기를, “신이 남원(南原)에 있을 때, 이순신이 군관을 남원에 보내 군사를 모집하다가 그곳 병방(兵房)을 참(斬)하기까지 하여 백성들이 잇따라 소란하고 곡성(哭聲)이 하늘에까지 사무쳤습니다. 군관을 불러서 물어보았더니, 그들의 멀고 가까운 친척까지 붙잡아 갔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로 보건대 군사를 모을 즈음에 상서롭지 못한 일이 많았습니다.” 하였다.

- 선조 84권 30년 1월 28일 (기미) 2번째기사 / 유영순을 경상우도 수군 절도사 겸 경상도 통제사로 삼아 수군을 지휘하게 하다

비망기로 유영순(柳永詢)에게 전교하였다. “우리 나라가 믿는 바는 오직 수군뿐인데, 통제사 이순신(李舜臣)은 나라의 중한 임무를 맡고서 마음대로 기망(欺罔)하여 적을 토벌하지 않아 청정으로 하여금安然히 바다를 건너게 하였으니, 잡아다 국문하고 용서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바야흐로 적과 진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우선 공을 세워 효과를 거두게 해야 한다. 나는 평소 경의 충용을 알고 있어 이제 경을 경상우도 수군 절도사 겸 경상도 통제사로 삼노니, 경은 더욱 책려하여 나라를 위해 힘을 다하라. 우선 이순신과 합심하여 전의 유감을 깨끗이 씻고 해적을 다 섬멸해 나라를 구해 이름을 역사에 남기고, 훈공이 종정(鍾鼎)에 새겨지게 하라. 경은 공경히 하라. 이를 원균에게 하유하라.”

- 선조 85권 30년 2월 4일 (을축) 1번째기사 / 통제사 이순신을 잡아 울에 따라 죄를 정할 것을 사헌부가 건의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통제사(統制使) 이순신(李舜臣)은 막대한 국가의 은혜를 받아 차례를 뛰어 벼슬을 올려 주었으므로 관직이 이미 최고에 이르렀는데, 힘을 다해 공을 세워 보답할 생각은 하지 않고 바다 가운데서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지가 이미 5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군사는 지치고 일은 늦어지는데 방비하는 모든 책임을 조치한 적도 없이 한갓 남의 공로를 빼앗으려고 기망(欺罔)하여 장계를 올렸으며, 갑자기 적선이 바다에 가득히 쳐들어 왔는데도 오히려 한 지역을 지키거나 적의 선봉대 한 명을 쳤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뒤늦게 전선(戰船)을 동원하여 직로(直路)로 나오다가 거리낌 없는 적의 활동에 압도되어 도모할 계책을 하지 못했으니, 적을 토벌하지 않고 놓아두었으며 은혜를 저버리고 나라를 배반한 죄가 큼니다. 잡아오라고 명하여 울에 따라 죄를 정하소서.” 하니, 천천히 결정하겠다고 답하였다.

- 선조 85권 30년 2월 4일 (을축) 2번째기사 / 금대부가 경성에 오려 하는 이유 등에 관해 대신들과 논의하다

사시(巳時)에 상이 대신 및 비변사 유사 당상을 명초(命招)하여 별전(別殿)에서 인견하였다

…… (중략) ……

이덕형(李德馨)이 아뢰기를, “이순신(李舜臣)이 당초 원균을 모함하면서 말하기를 ‘원균은 조정을 속였다. 열두 살 짜리 아이를 멋대로 군공(軍功)에 올렸다.’라고 했는데, 원균은 말하기를 ‘나의 자식은 나이가 이미 18세로 활쏘고 말타는 재주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대질했는데, 원균은 바르고 이순신의 이야기는 군색하였습니다.” 하였다.

- 85권 30년 2월 6일 (정묘) 3번째기사 / 이순신을 잡아오도록 김홍미에게 전교하다

김홍미(金弘微)에게 전교하였다. “이순신(李舜臣)을 잡아올 때에 선전관(宣傳官)에게 표신(標信)과 밀부(密符)를 주어 보내 잡아오도록 하고, 원균(元均)과 교대한 뒤에 잡아올 것으로 말해 보내라. 또 이순신이 만약 군사를 거느리고 적과 대치하여 있다면 잡아오기에 온당하지 못할 것이니, 전투가 끝난 틈을 타서 잡아올 것도 말해 보내라.”
- 선조 85권 30년 2월 25일 (병술) 1번째기사 / 대신들이 황정욱의 일과 무과 출신자를 선발하는 것 등을 건의하다

묘시(卯時)정각에 상이 별전(別殿)에 나아갔다. 【영사(領事) 김응남(金應南), 특진관 이증(李增), 동지사 노직(盧稷), 특진관 이충원(李忠元), 참찬관 윤담무(尹覃茂)·우준민(禹俊民), 장령(掌令) 유몽인(柳夢寅), 헌납(獻納) 이필형(李必亨), 검토관 정혹(鄭穀), 가주서 최충원(崔忠元), 기사관 이유홍(李惟弘)·허균(許筠)이 입시하였다.】 상이 《주역(周易)》을 강했는데, 관괘(觀卦)의 서괘(序卦)로부터 시작하여 ‘위관야(爲觀也)’까지 하였다

…… (중략) ……

노직이 아뢰기를, “이순신(李舜臣)이 한산도(閑山島)에서 지금 병선 40여 척을 건조(建造)하고 있는데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였다.
- 선조 86권 30년 3월 13일 (계묘) 2번째기사 / 이순신에게 벌하는 것을 대신들에게 의논하도록 하다

비망기로 우부승지 김홍미(金弘微)에 전교하였다. “이순신(李舜臣)이 조정을 기망(欺罔)한 것은 임금을 무시한 죄이고, 적을 놓아주어 치지 않은 것은 나라를 저버린 죄이며, 심지어 남의 공을 가로채 남을 무함하기까지 하며 【장성한 원균(元均)의 아들을 가리켜 어린 아이가 모공(冒功)하였다고 계문(啓聞)하였다.】 방자하지 않음이 없는 것은 기탄함이 없는 죄이다. 이렇게 허다한 죄상이 있고서는 법에 있어서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니 율(律)을 상고하여 죽여야 마땅하다. 신하로서 임금을 속인 자는 반드시 죽이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므로 지금 형벌을 끝까지 시행하여 실정을 캐어내려 하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신들에게 하문하라.”
- 선조 86권 30년 3월 20일 (경술) 4번째기사 / 2월 28일의 통제사 원균의 장계문

2월28일 통제사(統制使) 원균(元均)이 장계(狀啓)하기를, “부산포(釜山浦) 앞바다에서 진퇴(進退)하며 병위(兵威)를 과시하고, 가덕도(加德島) 등 처에서 접전(接戰)한 절차는 전 통제사 이순신(李舜臣)이 이미 치계(馳啓)하였습니다. 그때의 일을 자세히 탐문하였더니, 본영(本營) 도훈도(都訓導) 김안세(金安世)의 공초(供招)에 ‘전 통제사가 부산포 앞바다로 가서 진퇴하며 병위를 과시할 때, 통제사가 탄 배가 적진(賊陣) 가까이 갔는데 조수(潮水)가 물러가 물이 알아지면서 배 밀창이 땅에 닿아 적에게 배를 빼앗기게 되었을 적에 배 위의 전졸(戰卒)들이 큰 소리로 구원을 요청하니 안골포 만호(安骨浦萬戶) 우수(禹壽)가 노를 빨리 저어 달려가서 이순신(李舜臣)을 등에 업어 어렵게 우수의 배로 옮겼고 이순신이 뒀던 배는 선미(船尾)에 연결하여 간신히 안골포로 끌어 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대개 이번 부산의 거사(擧事)에서 우리 나라 군졸들이 바다 가득히 죽어 왜적의 비웃음만 샀을 뿐, 별로 이익이 없었으니 매우 통분할 일입니다. 이런 실수를 저지른 제장(諸將)들을 조정에서 처치하소서. 나주 판관(羅州判官) 어운급(魚雲級)은 대루(對壘)한 날에 불조심을 하지 않아 기계(器械)와 군량을 일시에 다 불타게 하여 적진(賊陣)의 코앞에서 참담한 화를 자초하여 도리어 저 적이 방새도록 구경하며 좋아라 깔깔대게 하였으니 더욱 통분스럽습니다. 어운급의 죄상을 조정에서 처치하소서.” 하였는데, 비변사에 계하(啓下)하였다. 비변사가 회계하기를, “전일 부산 앞바다에서 병위를 과시한 일은 유해무익(有害無益)했을 뿐만 아니라 주사(舟師)의 허실(虛實)을 적으로 하여금 모두 알게 하였으니 매우 한심합니다. 안골포 · 가덕도 두 곳에서 접전할 때 수령 · 변장(邊將) 등이 패전(敗戰)한 곡절(曲折)

추핵(推覈), 계문(啓聞)하여 죄를 주게 하고, 나주 판관 어운급은 잡아온 뒤에 빙문(憑問)하여 처치할 것으로 행이(行移)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선조 90권 30년 7월 22일 (신해) 5번째기사 / 조즙·이순신·권준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즙(趙澂)을 사간원 정언으로, 이순신(李舜臣)을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 겸 경상·전라·충청 삼도 통제사로, 권준(權俊)을 충청도 수군 절도사로 삼았다.

- 선조 90권 30년 7월 26일 (을묘) 5번째기사 / 도원수 권율이 한산도의 군사 상황을 보고하고 이순신의 파견을 건의하다

7월 21일에 성첩(成貼)한 도원수 권율의 서장에 아뢰기를, “신의 군관인 최영길(崔永吉)이 한산도에서 지금에야 비로소 나왔는데 그가 말하기를 ‘원균(元均)이 사지를 벗어나 진주로 향하면서 말하기를, 「사량(蛇梁)에 도착한 대선(大船) 18척과 전라선(全羅船) 20척은 본도에 산재해 있고, 한산에 머물러 있던 군민(軍民)·남녀·군기(軍器)와 여러 곳에서 모여든 잡선(雜船) 등을 남김없이 창선도(昌善島)에 집합시켜 놓았으며, 군량 1만여 석은 일시에 운반하지 못하여 떨어내어 불태웠고, 격군(格軍)은 도망하다 패배한 배는 모두 육지 가까운 곳에 정박시켰으므로 사망자는 많지 않았다.’ 고 하였다.” 하였습니다. 최영길을 곧이어 돌려보내겠습니다. 이순신(李舜臣)에게 흠어져 도망한 배를 수습하도록 사랑으로 들여보내소서.”

- 선조 92권 30년 9월 5일 (임진) 5번째기사 / 제독 마귀를 접견하고 전략을 의논하다

마 제독(麻提督)이 뒤이어 오자, 상이 별전(別殿)에 나아가 접견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중국의 대인(大人)으로서 일찍이 이렇게 예방(禮訪)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양 대인(楊大人)이 누추한 곳에 왕림하시는 것도 감히 만류하지 못하였는데, 오늘 또 대인께서 왕림해 주시니 더욱 황공합니다.” 하니, 제독이 말하기를, “양 도야(楊都翁)가 지금 이곳에 온 것은 남들이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요는 국왕(國王)과 나를 회견(會見)하기 위하여 온 것인데 내가 곧 돌아가시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내가 도야(都翁)에게 의논드렸더니 귀국(貴國)의 병사들은 본시 싸움을 잘 하지 못하니 병마(兵馬)를 많이 조련시키고 중국의 복색(服色)을 미리 준비하였다가 의병(疑兵)을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듣건대 수병(水兵)이 이미 지난달 27일에 의주(義州)에서 출발하였다고 하니, 한산도(閑山島)의 남은 배를 모아 이순신(李舜臣)으로 하여금 강화도(江華島) 등 처에서 천병(天兵)과 힘을 합하여 기회를 보아 진격하든지 퇴각하든지 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다만 수병이 흥양(興陽) 땅을 지키고 있는데, 만약 강화도로 불러 돌아오도록 하면 충청도와 전라도 지방에 방어하는 곳이 없게 되어 왜적이 침범할 우려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쇠잔하여 중국 의복을 쉽게 마련하지 못할 성심입니다. 그러나 힘이 미치는 대로 마련하겠습니다.” 하니, 제독이 말하기를, “우선 두건(頭巾)을 만들고 호의(號衣)를 입혀 절강성(浙江省) 병사의 모습을 만드십시오. 이순신이 흥양(興陽)을 지키고 있다면 그곳도 역시 긴요하므로 불러올 수 없으니 예전대로 파수(把守)하게 하고 배를 많이 모아 중국 병사를 성원(聲援)하도록 하십시오.” 하고, 파하였다.

- 선조 93권 30년 10월 11일 (무진) 4번째기사 / 동지 진등의 하처에 나아가 접견하고, 이어 유격 양만금을 접견하다

상이 진 동지(陳同知)의 【이름은 진등(陳登)이고 하간(河間) 사람으로 군량을 주관하였다.】 하처에 나아가 접견례

행하였다.

…… (중략) ……

또 말하기를, “도야(都爺)에게 들으니 이순신이 왜적을 많이 포획했다 하니 매우 좋은 일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가 황제의 위령에 힘입어 조금 포획하기는 하였으나, 한산도에서 패한 후로 선척과 기계 및 사졸과 양식을 모으지 못했었는데, 대강 모양을 이루게 된 것은 황제의 은혜가 아님이 없으니, 매우 감사함을 금할 수 없소이다.” 하니, 동지가 말하기를, “이는 오로지 현왕(賢王)의 큰 복록과 변장들이 힘쓴 데에서 연유한 것이니, 축하를 드립니다. 한 명의 장수를 벤 것은 천 명을 포획한 것과 같으니 더욱 기뻐합니다.” 하였다.

- 선조 93권 30년 10월 13일 (경오) 3번째기사 / 이순신과 이시언에게 군법을 어기는 자는 선창 후계하라고 지시하다
비망기로 한준겸에게 전교하였다. “이미 곤외(閩外)의 명을 받았으면 모든 관하의 죄지는 장수나 사졸들을 군법을 적용해 스스로 처단함이 옳다. 이와 같이 한 뒤에야 권한이 자기에게 귀결되면 장사들도 두려워하여 전쟁에 임해서 감히 명을 어기지 못하게 된다. 장수들의 성공하는 이유가 옛날에는 이 점에 있었는데, 지금 군령을 범하는 자를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고 조정에 아뢰면 더러는 유사(有司)들이 법을 무시하고 면해 주는 일이 있으니, 어떻게 사랑보다 위엄을 더 내세워 일을 성사시킬 수 있겠는가. 예로부터 곤외의 장수들이 어찌 이와 같이 하였던가. 이제부터 관하에서 군법을 범하는 사람은 하나하나 먼저 처단한 후에 아뢰라는 일로 이순신(李舜臣)과 이시언(李時言)에게 하서하라.”
- 선조 93권 30년 10월 20일 (정축) 1번째기사 / 경리 양호를 접견하다
상이 양 경리(楊經理)를 접견하였다.
…… (중략) ……
상이 말하기를, “통제사(統制使) 이순신(李舜臣)이 사소한 왜적을 잡은 것은 바로 그의 직분에 마땅한 일이며 큰 공이 있는 것도 아닌데, 대인이 은단(銀段)으로 상주고 표창하여 가상히 여기시니 과인은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니, 경리가 말하기를, “이순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다 흠어진 뒤에 전선(戰船)을 수습하여 패배한 후에 큰 공을 세웠으니 매우 가상합니다. 그 때문에 약간의 은단을 베풀어서 나의 기뻐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자,
- 선조 93권 30년 10월 23일 (경진) 2번째기사 / 비변사가 남원에서부터 서울에 이르는 파발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건의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경리의 분부가 매우 급한데 우리 나라의 일처리는 느낄 뿐만이 아닙니다. 직산(稷山) 이하가 새로 병화를 입어 관리가 흠어져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파발들이 왜적의 실정을 보고하는 일까지도 모두 제때에 전달되지 않아서 지극히 염려되니, 신중히 생각해서 법을 마련하여 조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원(南原)에서부터 은진(恩津)까지는 전라 감사에게 파발을 세우게 하고, 은진에서부터 직산까지와 직산에서부터 서울까지는 충청도 병사 이시언(李時言)과 경기 감사 홍이상(洪履祥)에게 조치하여 한결같이 시행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파발군에 들어간 자는 모두 잡부역을 없애주고 당번을 나누어 교체해서 쉬게 하여 전달 보고에 전력하게 하며, 그중에 신속하게 전달을 한 자는 상을 주고 느린 자는 죄로 다스리며 별도로 조목을 세워 징계와 권면을 베풀면 거의 지체되는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뜻을 먼저 경리에게 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순신이 있는 곳은 거리가 멀어서 지금 탐정하는 사람을 보내더라도 10일 이내로는 회보가 오지 못할 것이니 극히 염려됩니다. 병조를 시켜 별도로 무사 중에서 영리한 사람을 급히 내려보내 전보하도록 하되, 수병(水兵)이 이미 강화도에 이르렀는지

소식을 자세히 묻고 수병이 주둔한 처소와 중국군과 협동해서 전수(戰守)하는 상황을 급속히 회보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전라도에는 적병이 아직도 많다 하니 육로로 가서 진달하기는 사실 어렵고 바닷길로 가야만 진달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또한 염려됩니다. 이일에 대하여 접반사로 하여금 먼저 이러한 뜻을 경리에게 알려서 곡절을 알게 함이 어떨겠습니까?”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선조 94권 30년 11월 4일 (신묘) 5번째기사 / 명 수군장 계금이 이순신과 수군 행병에 대해 논의하고자 계책을 세우다 양 경리(楊經理)가 분부하였다. “수군장(水軍將) 계금(季金)이 이순신(李舜臣)을 만나보고 행병(行兵)에 대한 일을 상의하고자 하는데, 들으니 이순신이 해남(海南) 등의 지방으로 떠났다가 육로(陸路)에서 적의 차단을 당하여 올라 오기가 쉽지 않다고 하니, 속히 적당한 관원을 보내어 이순신으로 하여금 수로(水路)를 따라 중도에서 만나 논의하도록 하십시오.”
- 선조 94권 30년 11월 7일 (갑오) 3번째기사 / 경리 접반사가 이순신 등 조선 장수들의 지체함을 꾸짖다
경리의 접반사가 아뢰기를, “경리가 신에게 이르기를 ‘공격할 날짜가 이미 가까왔는데도 조선은 일마다 지연시켜 그르치고 있으니, 나로 하여금 어떻게 처리하라는 말인가. 이순신(李舜臣)에게는 군사가 주둔한 처소와 군사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을 물어보라고 하였으나 달이 지나도록 회답이 없고,
- 선조 94권 30년 11월 10일 (정유) 5번째기사 / 제독 총병부에 적군의 동태와 대비책, 우리 장수의 전과를 알리게 하다 제독 총병부(提督總兵府)에 이자(移咨)하였다.

…… (중략) ……

근래 또 배신 겸 삼도 수군 통제사(兼三道水軍統制使) 이순신(李舜臣)의 치계에 의하면 ‘한산도가 무너진 이후 병선과 병기가 거의 다 유실되었다. 신이 전라도도 수군 절도사 김억추(金億秋) 등과 전선 13척, 초탐선(哨探船) 32척을 수습하여 해남현(海南縣) 해로의 요구(要口)를 차단하고 있었는데, 적의 전선 1백 30여 척이 이진포(梨津浦) 앞바다로 들어오기에 신이 수사(水使) 김억추, 조방장(助防將) 배흥립(裨興立), 거제 현령(巨濟縣令) 안위(安衛) 등과 함께 각기 병선을 정돈하여 진도(珍島) 벽파정(碧波亭) 앞바다에서 적을 맞아 죽음을 무릅쓰고 힘껏 싸운바, 대포로 적선 20여 척을 깨뜨리니 사살이 매우 많아 적들이 모두 바다 속으로 가라앉았으며, 머리를 벤 것도 8급이나 되었다. 적선 중 큰 배 한 척이 우보(羽葆)와 홍기(紅旗)를 세우고 청라장(靑羅帳)을 두르고서 여러 적선을 지휘하여 우리 전선을 에워싸는 것을 녹도 만호(鹿島萬戶) 송여종(宋汝宗) · 영등 만호(永登萬戶) 정응두(丁應斗)가 잇따라 와서 힘껏 싸워 또 적선 11척을 깨뜨리자 적이 크게 꺾였고 나머지 적들도 멀리 물러갔는데, 진중(陣中)에 투항해온 왜적이 홍기의 적선을 가리켜 안골포(安骨浦)의 적장 마다시(馬多時)라고 하였다. 노획한 적의 물건은 화문의(畫文衣) · 금의(錦衣) · 칠함(漆函) · 칠목기(漆木器)와 장창(長槍) 두 자루다.’ 하였는데, 이미 절차대로 자보(咨報)하고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앞서의 연유에 따르면, 한산도가 무너진 이후부터 남쪽의 수로(水路)에 적선이 종횡하여 충돌이 우려되었으나 현재 소방의 수군이 다행히 작은 승리를 거두어서 적봉(賊鋒)이 조금 좌절되었으니, 이로 인하여 적선이 서해에는 진입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격장 서(徐)가 거느리고 있는 수병이 이미 강화도에 도착하여 충청을 거쳐 전라도 우수영(右水營) 앞바다까지 내려간다고 하는데, 남쪽 바다는 적이 통행하는 해로입니다. 만약 중국의 수군이 기회를 보아 전진한다면, 소방의 수군도 그 성세에 의지해 점차 소집을 하여 한산도 일로(一路)의 수복을 기도하여 적군의 소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니, 이는 다 귀원(貴院) 및 총독 군문이 승전 계획을 세우고 소방 사람들을 고무시켜 스스로 힘써 떨치고 일어나서 죽음 속에서 살 길을 찾도록 하는 데에 달렸습니다. 이에 따른 계획·독촉·소집·훈련 등의 일은 의당 귀자문의 내용에 따라 밤낮으로 각별히 힘써 감히 태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순찰사 권율이 각 배신들이 거느리고 있는 군병의 현재 수효 및 방어하고 있는 지방과 진영의 장소를 조사, 치계하기를 기다려 재차 갖추 써서 자보(咨報)하겠다는 사유들은 이미 회자(回咨)하였고, 이제 앞서의 연유를 접수하고 자복(咨復)할 연유를 참조하여 갖추 조사하여 자복함이 마땅할 것이기에 이렇게 회자를 하는 것이니, 조험(照驗)하여 전보(轉報)하십시오. 자문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선조 97권 31년 2월 9일 (갑자) 5번째기사 / 병조가 도망한 군졸에 대한 경중을 논하여 과죄할 일로 아뢰다
병조가 아뢰기를

…… (중략) ……

그리고 방어사(防禦使) 고언백(高彦伯)의 장계에는 ‘군관(軍官) 함백규(咸伯奎)가 심복(心腹) 정예병 15명을 이끌고 도망하였으니 군중(軍中)에 효시(梟示)하여 다른 사람을 경계시켜야 한다.’ 하였고, 경상 좌병사 성윤문(成允文)의 장계에는 ‘첨정(僉正) 김세창(金世昌)이 이처럼 전쟁이 한창일 때에 맨 먼저 앞장 서서 도망하였으니, 군중에 효시하여 다른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 하였고, 통제사(統制使) 이순신(李舜臣)의 장계에는 ‘주부(主簿) 현응신(玄應臣)이 어란(魚巖) 앞바다에서 접전(接戰)한다는 기별을 듣고 밤을 타 도망갔으니 군율(軍律)로 다스려 다른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 하였으므로, 본조에서 이 장계에 의거하여 각각 행이한 것이 무려 수십 번인데, 한 사람도 체포된 자가 없습니다. 이처럼 한 장의 공문(公文)만으로는 외방(外方)에서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사람을 뽑아 보내 잡아다가 국문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 선조 98권 31년 3월 18일 (계묘) 4번째기사 / 통제사 이순신이 적 수군의 동태 및 아군의 준비상황을 아뢰다

통제사(統制使) 이순신(李舜臣)의 서장에, “소서행장(小西行長)은 예교(曳橋)에 주둔하고 있으며 2월 13일에는 평수가(平秀可)가 그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같은 곳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사(舟師)는 멀리 나주(羅州) 경내의 보화도(寶花島)에 있으므로 낙안(樂安)과 흥양(興陽) 등의 바다에 출입하는 왜적이 마음 놓고 마구 돌아다녀 매우 통분스럽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잔잔하니 이는 바로 흉적들이 소란을 일으킬 때이므로 2월 16일에 여러 장수를 거느리고 보화도에서 바다로 나아가 17일에 강진(康津) 경내의 고금도(古今島)로 진을 옮겼습니다. 고금도 역시 호남(湖南) 좌우도의 내외양(內外洋)을 제어할 수 있는 요충지로 산봉우리가 중첩되어 있고 후망(侯望)이 잇대어져 있어 형세가 한산도(閑山島)보다 배나 좋습니다. 남쪽에는 지도(智島)가 있고 동쪽에는 조약도(助藥島)가 있으며, 농장(農場)도 역시 많고 한잡인(閑雜人)도 거의 1천 5백여 호나 되기에 그들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하였습니다. 흥양과 광양(光陽)은 계사년부터 둔전(屯田)을 하였던 곳으로 군민(軍民)을 초집(招集)하여 경작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계하하였다.

- 선조 98권 31년 3월 18일 (계묘) 5번째기사 / 전라 우수사 안위가 강진 고금도에서의 전투 준비상황을 아뢰다

전라 우수사 안위(安衛)의 계본에, “신은 본월 14일에 보화도에 도임하였는데 동월 16일에 통제사 이순신과 함께 소속된 각 관포(官浦)의 전선을 거느리고 강진의 고금도로 진을 옮겨 전비(戰備)를 다시 조치하고 더욱 새롭게 하여 변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해로(海路)의 적세는 흥양 이서(以西)는 아직까지 적이 왕래하지 않고 있으며 적중에서 불려온 사람의 초사(招辭)에 ‘예교(曳橋)에 적도들이 점점 들어와 군사를 증가하고 요새를 만들어 오랫동안 주둔할 계획을 세운다.’고 하였으니 매우 통분스럽습니다.”

- 98권 31년 3월 18일 (계묘) 6번째기사 / 이순신이 적장의 죽음 등 대치 상황을 아뢰다
 통제사 이순신의 서장에, “흥양 현감 최희량(崔希亮)의 치보(馳報) 내에 ‘정탐인(偵探人) 조언방(趙彦邦)이 와서 보고하기를, 「순천(順天) 삼일포(三日浦)에 진치고 있던 왜적이 주사(舟師)가 진영을 옮겼다는 것을 듣고 2월 24일에 예교로 옮겨가 합하여 현재 성을 쌓고 있다. 왜장 평수가가 2월 7일에 여역(癘疫)으로 죽었는데 10일에 배에 실어 본국으로 들여보냈고 현재 앓고 있는 왜적들이 적굴(賊窟)에 많이 있으며 죽은 시체가 널려 있다.」 고 하였다.’ 하였습니 다.”

- 선조 99권 31년 4월 2일 (병진) 2번째기사 / 한산 전투에서 패배한 장수들을 징계하도록 하니, 비변사가 원균의 징계를 청하다
 상이 이르기를, “지난해 한산(閑山) 싸움의 패배에 있어 수군(水軍) 제장들에 대하여 즉시 공(功)과 죄(罪)를 가려내어 법대로 처리했어야 했는데도, 아직까지 고식적인 습관에만 젖어 위엄을 밝히는 교훈을 보여줄 생각을 않고 있다. 지금까지 한 사람의 죄도 바로잡지 않고 한 사람의 공도 포상을 하지 않고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진 채 공을 세워 속죄하도록 하자는 것에 불과한데, 이에 대하여 비변사는 어떠한 소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비록 한백(韓白)이 장수가 되더라도 싸움을 승리로 이끌지는 못할 것이다. 도원수마저도 대수롭잖은 일로 보아 한 명의 교위(校尉)라도 목을 베어 군율(軍律)을 크게 진기시키지 않고 있으니, 어떻게 일을 성사시킬 수 있겠는가. 옛사람이 삼군(三軍)으로 하여금 죽음을 영광으로 삶을 치욕으로 생각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권징(勸懲)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지금 한산 싸움에 대하여 실시한 권징은 과연 어떠한가. 이 일은 여느 심상한 일이 아니니 서둘러 권징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세월이 점점 오래되고 나면 사실을 밝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였는데, 비변사가 아뢰기를, “원균(元均)이 주장(主將)으로서 절제(節制)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적들로 하여금 불의에 기습을 감행하도록 하여 전군(全軍)이 함몰되게 하였으니 죄는 모두 주장에게 있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래 각 장사들의 공죄(功罪)에 대해서도 신상 필벌을 행하여 군기(軍紀)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원균 한 사람에게만 핑계대지 말라.” 하였다.

【이산해(李山海)와 윤두수(尹斗壽)가 그렇게 아뢰게 한 것이다.】 사신은 논한다. 한산의 패배에 대하여 원균은 책형(磔刑)을 받아야 하고 다른 장졸(將卒)들은 모두 죄가 없다. 왜냐하면 원균이라는 사람은 원래 거칠고 사나운 하나의 무지한 위인으로서 당초 이순신(李舜臣)과 공로 다툼을 하면서 백방으로 상대를 모함하여 결국 이순신을 몰아내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았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일격에 적을 섬멸할 듯 큰소리를 쳤으나, 지혜가 고갈되어 군사가 패하자 배를 버리고 물로 올라와 사졸들이 모두 어육(魚肉)이 되게 만들었으니, 그때 그 죄를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가. 한산에서 한 번 패하자 뒤이어 호남(湖南)이 함몰되었고, 호남이 함몰되고서는 나라일이 다시 어찌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시사를 목도하건대 가슴이 찢어지고 뼈가 녹으려 한다.

- 선조 99권 31년 4월 3일 (정사) 4번째기사 / 마 제독과 함께 마 제독의 귀국, 아군과 적군의 정세에 대해 이야기 하다
 상이 또 마 제독(麻提督)을 찾아보았다.

…… (중략) ……

이어 묻기를, “이순신이 거느리고 있는 수병(水兵)은 얼마나 됩니까?” 하니, 상이 2천여 명일 것이라고 대답하자, 제독이 말하기를, “천조의 수병도 지금 많이 나왔는데 국왕께서는 그 소식을 들어 알고 있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미 알고 있다고 답하니, 제독이 말하기를, “수병을 거느린 총병(總兵)이 2명인데 총병 주우덕(朱佑德)은 여순(旅順)입구에서부터 강화(江華) 이서를 지킬 것이고, 총병 진인(陳璘)은 강화에서부터 호령(湖嶺) 이남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허 유격(許遊擊)도 군대 3천 명을 인솔하고 뒤이어 도착할 것입니다.”하고, 또 말하기를, “내가 귀국의 수로(水路)의 형세가 어떠한지 잘 모르는데, 만약 2만 명의 수병으로 선제 공격을 하면 한산도를 탈환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말하기를, “과인 역시 수로의 형세를 잘 몰라 경솔하게 대답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 99권 31년 4월 14일 (무진) 3번째기사 / 이정구가 군공의 보고, 이순신의 포상, 축성 문제 등에 대해 아뢰다
이정구가 경리 접반사의 말로 아뢰기를,
 …… (중략) ……
 또 분부하기를, ‘이순신(李舜臣)이 것처럼 힘을 다해 적을 죽이고 있어 내가 매우 가상히 여기고 좋아하고 있다. 서둘러 권장하는 상을 내려 사기를 고무해야 할 것이다.’ 하고,
- 선조 99권 31년 4월 15일 (기사) 2번째기사 / 경리 별도감에서 도 통판이 군량의 운송 상황을 문의했음을 아뢰다
 경리 별도감이 아뢰기를, “어제 저녁에 도 통판(陶通判)이 이원익과 【자상하고 청간(淸簡)하여 관서(關西) 관찰사로 있을 때 백성을 사랑하고 군대를 조련하는 등 성의를 다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여러 해 동안 조정에 있으면서도 아무런 건백(建白)이 없이 세상 따라 오르내려 언론이나 기량에 있어 하나도 불만한 것이 없었으니, 애석한 일이다.】 신 김수를 부르기에 즉시 가보았더니, 그의 말이, ‘대병(大兵)이 현재 영남에 주둔하고 있는데 적이 움직일 것 같은 형세가 보이기 때문에 17일 사이에 양 노야(楊老爺)의 표병(標兵)도 출발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남쪽에 군량이 고갈되었다는 말을 듣고 양 노야가 나에게 충주 등지에 가서 군량의 운반을 독촉하라고 하였다. 다만 지금은 농사 때라서 인부를 조발하면 농사에 방해될 염려가 있으니, 그대 나라 군대 중에서 전투 능력이 없는 자를 차출하여 운량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이어 경강(京江)에서 선척(船隻)을 관리하는 관원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신들이 두 방호장(防護將)과 경기 감사라고 대답했더니, 통판이 말하기를, ‘경강의 선척을 다수 조발하여 빠른 시일내에 경창(京倉)의 미두(米豆)를 영남으로 운송함으로써 그곳 양향을 극력 마련하라. 그리고 울산의 적들이 모두 부산으로 돌아갔다고 들었는데, 혹 후퇴할 뜻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하였습니다. 신들이 왜 부산으로 돌아갔는가를 물으니, 통판의 대답은 두려워서일 것이라고 하면서 이어 이순신(李舜臣)의 승첩 상황을 물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말은 모두 군량 운송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신들이 전투 능력이 없는 군병을 떨어내는 일은 아뢰어 의논해 처리하겠다고 대답하니, 통판이 또 정엄(鄭曄)을 체직시킨 일은 너무 심한 일이라서 마음에 매우 미안하다고 하였습니다. 감히 아립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선조 99권 31년 4월 15일 (기사) 3번째기사 / 비변사가 중국 장수에게 상문하는 일과 이순신에 대한 포상 여부를 아뢰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 (중략) ……
 그리고 이순신에 대하여는 참으로 포상할 만한 일이지만 가자(加資)하는 것은 좀 지나친 듯하다. 그러나 가자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달리 상을 내릴 만한 일이 있을는지 의논하여 아뢰라. 나머지는 아뢴 대로 하라.”
- 선조 99권 31년 4월 18일 (임신) 1번째기사 / 비망기로 속미를 바치고 도피죄를 면한 진몽일에 대해 회계토록 정원에 전교하다
 비망기로 정원에 전교하였다. “우리 나라는 유사(有司)들이 일을 잘못 처리하여 패한 것이다. 예로부터 싸움에 임하였다가 도주한 사람이 뇌물을 바쳐 그 죄를 면하고도 나라가 제대로 된 때가 있었던가? 내가 전에 그 불가한 점을 역설했었는데, 어제 통제사(統制使) 이순신(李舜臣)의 장계를 보았더니 납미령(納米令)이 내린 후부터 무사(武士)들

더욱 기탄없는 행동을 한다고 하였다. 이르고서야 장차 누구를 시켜 적을 막아 내겠는가. 무릇 병(兵)은 죽음의 땅인 것이다. 몇 석의 쌀로 자기 머리를 살 수 있다면, 무엇이 괴로와 칼을 뽑아들고 시체를 밟고 피바다를 건너는 싸움터에서 목숨을 내놓고 싸우겠는가. 그 법이 나라를 망치는 법이 아니고 무엇인가. 쌀 몇 석만 메고서 편히 누워 있기는 하지 않겠는가. 지금 금부(禁府)에 갇혀 있는 진몽일(陳夢日)이란 자도 싸움에 임했다가 도주한 자로 왕법(王法)으로 보아 당연히 목을 베어야 할 자인데, 지금 형추(刑推)하려고 했더니 그는 속미(贖米) 3석을 바치고 자문[尺文]을 받아 두었다고 하였다. 이미 쌀을 받았으니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 비록 추문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니 통분스러울 뿐만 아니라 천하의 비웃음을 사는 것도 적지 않을 것이다. 금부로 하여금 살펴서 회계하게 하라.”

- 선조 99권 31년 4월 20일 (갑술) 1번째기사 / 사헌부가 전시에 도망친 자들과 그들을 처리하지 못한 병조 관리의 추고를 아뢰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신들이 통제사(統制使)의 군관(軍官) 현응신(玄應臣)·윤사충(尹思忠)·진몽일(陳夢日)·오대기(吳大器)·최대성(崔大晟) 등의 도피 공사(公事)를 취고(取考)하였더니, 병조(兵曹)가 지난해 10월에 통제사 이순신의 장계에 의하여 각도에다 공문을 발송하여 그들을 철저히 찾아내어 체포한 다음 이순신에게로 압송(押送)하여 모두를 군율에 의해 처단하도록 계하받아 행이(行移)하였는데, 4개월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잡아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본병(本兵)으로서는 마땅히 감사를 추고하도록 청하고 독촉해서 잡아내어 그들을 군문으로 계송(械送)하여 대중 앞에 효시(梟示)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금년 1월에 와서는 그들의 죄가 지금으로서는 꼭 분명하다고 할 수 없으니 그들을 잡아들여 국문한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죄를 정해야겠다는 것으로 다시 아뢰어 전쟁에 임해 도주했던 자들을 즉시 효시를 못하게 만들었으니, 극히 통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병조의 당상과 색낭청을 모두 추고하소서. 그리고 종전 공사(公事)대로 그들을 통제사 이순신에게로 계송하여 그 중 정범(情犯)이 더욱 심한 자를 골라내어 법대로 처단하게 하소서. 또 진몽일은 출신(出身) 군관으로서 감히 도피하였으니 통렬히 징계하지 않을 수 없는 바, 그의 속미(贖米)에 관한 공문(公文)은 거행치 말도록 하실 것이며, 그 나머지 도피한 자들도 모두 철저히 찾아내어 체포한 후 죄를 정하게 하소서.”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그러나 진몽일은 이미 쌀을 바치고 공문을 받았으니 시행하지 않는다면 신의를 잃는 것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 선조 99권 31년 4월 28일 (임오) 6번째기사 / 정원이 이순신·김응함·우수 등을 포상토록 아뢰다

정원이 아뢰기를, “이순신(李舜臣) 등 3인에 대하여 각기 한 자급(資級)씩 올리도록 판하(判下)하신 바에 의하여 이순신과 김응함(金應緘)은 이미 절충(折衝)이 되었으니 가선(嘉善)에 올리고, 우수(禹壽)는 이미 자궁(資窮)이 되었으므로 당연히 당상(堂上)으로 승급되어야 한다는 승전을 받든 바 있습니다. 다만 한산(閑山) 싸움에서 패한 사람은 그대로 치부(置簿)하였다가 사핵(査覈)을 거쳐 처리하라는 전교가 계셨는데, 김응함과 우수는 모두 한산 패전에 간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수는 가음조도(加音助島) 앞바다에서의 접전 때 전선(全船)이 살아 돌아왔었고, 김응함은 병 치료를 위하여 진중에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김응함은 싸움에서 패한 것과는 다르다 하겠으나 우수는 당연히 사핵 대상에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이 두 사람 모두에 대해 승전을 받을 것인지,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른바 진중에 머물러 있었다는 말은 한산(閑山)을 가리켜 한 말인가? 또 김응함이 병 치료를 위하여 진중에 머물러 있었다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였다.

- 선조 100권 31년 5월 1일 (을유) 5번째기사 / 이정구가 한산 싸움의 상벌을 시행하자고 아뢰다

(李廷龜)가 군공청(軍功廳)의 말로 아뢰기를, “통제사 이순신(李舜臣)이 한산(閑山) 싸움에서 군공을 세운 사람들의 명단을 마련한 것을 입계해 윤희를 받았으므로 각 해사(該司)에서 스스로 시상(施賞)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한산 싸움에서 패전한 사람은 그 공죄(功罪)에 대해 아직 자세히 조사하지 못하였으니 우선 치부하여 두었다가 실정을 자세히 조사한 후에 처리하라고 별도로 분부하셨습니다. 실정을 조사하는 일은 아직 정탈(定奪)하지 못해 즉시 시행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대체로 한산 싸움에서 패전한 장사(將士)는 도원수가 별도로 계문하였으니, 이 별록(別錄)에 들어 있는 사람은 공죄를 막론하고 치부하여 조사하기를 기다리고, 그 밖의 군공이 있는 사람은 각 해사로 하여금 먼저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선조 101권 31년 6월 24일 (정축) 3번째기사 / 비변사가 이순신이 있는 곳의 군량 대책에 대해 아뢰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이순신(李舜臣)은 탕패당한 뒤, 떠돌아다니며 피란하는 사람들을 수습하여 군병(軍兵)을 만들고 황폐한 곳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가까스로 물력(物力)을 자급(自給)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많은 장관(將官)들이 내려가 그와 함께 진을 치고 있는데, 모든 일에 우리의 물력은 헤아리지 않고 끊임없이 독책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우리의 군병과 기계(器械)까지 점고(點考)하여 모든 사무를 자유로이 처리하지 못하고 한결같이 위관(委官)의 명령을 받고 있으니, 그간의 징색(徵索)의 폐단과 난감한 역사(役事)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육지로 군량을 운반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우리 나라 주사(舟師)의 군량으로 우선 공급하고 있으니, 조금 남아 있던 군량마저도 머지않아 고갈될 것입니다. 신들은 이 점이 몹시 우려됩니다. 지형이 좋은 곳을 구하여 서로 바라보이는 지역에 나누어 주둔하면서 기각(掎角)의 형세를 구축한다면 밖으로는 웅장한 형세를 갖추고 안으로도 진퇴(進退)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온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계 유격(季遊擊)과 함께 거처하고 있으니 이 일도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지금 회답하는 글에는 ‘그대로 따르겠다.’라고 답하셔야 합니다. 다만 그 안에다가 ‘본국의 수군은 한산도(閑山島)에서 패전한 이후로 선척과 기계를 모두 잃어서 현재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으며, 군사도 해상(海上)의 어호(漁戶)와 떠돌아다니는 백성들을 수습하여 가까스로 모양을 갖추고 있다. 이로 인해 대인이 분부한 일체의 군기(軍機)와 사의(事宜)에 잘못되는 점이 있을까 염려된다. 한편으로 신척하여 명대로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회답하소서. 그리고 이순신에게 하유하시어 모든 일을 더욱더 자세히 살펴 시행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선조 101권 31년 6월 27일 (경진) 2번째기사 / 비변사가 진 도독의 배신에 대한 군법 적용, 조선군 통솔 요구에 대해 아뢰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 (중략) ……

그리고 접반사(接伴使) 남복흥(南復興)에게 듣건대, ‘제독이 우리 나라의 군병을 직접 거느리고 싶어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 말대로 된다면 일은 더욱 어렵게 되어 통제사(統制使) 이하는 모두 군사없는 장수로 전락되고 말 것이므로 이번의 거조(舉措)를 신들은 몹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세는 이와 같은데 분부하신 말씀이 또 저와 같으니, 형편이 어렵다고 거절하고 싶으나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지난번 제독의 계첩에 대해 아직까지 회답을 보내지 않았으니, 당연히 ‘본국의 수군은 탕패한 나머지 제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그간의 기계(器械)와 선척도 힘이 모자라 많이 대비하지 못했다. 그리고 사졸들은 모두 해변의 어호(漁戶)와 여염의 백도(白徒)들로 훈련이 되지 않아서, 대인의 신산(神算)에 따라 지휘하는 데에 일일이 함당하게 하지 못할까 염려스럽다. 그러나 분부하신 사의(事意)대로 다시 신척하고 통제사 이순신(李舜臣), 경상 우수사(慶尙右水使) 이순신(李純信), 전라 우수사(全羅右水使) 안위(安衛), 충청 수사(忠淸水使) 오응태(吳應台) 등에게 각각 부하 장수들을 거느리고 소속 군병을 단속케 하여 모든 군기(軍機)와 대사(大事)를 대인의 분부대로 따르고 감히 태만히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회첩(回

)하시고, 또 이러한 뜻으로 별도로 유서(諭書)를 마련하여 수군의 제장들에게 하송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준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시면 설령 제독이 직접 군병을 통솔하려고 하더라도 제장들은 아마도 이해할 것입니다.

- 선조 103권 31년 8월 13일 (병인) 4번째기사 / 통제사 이순신이 해상 전투 상황과 진 도독의 무례함을 치계하다
통제사(統制使) 이순신(李舜臣)이 치계하였다. “지난번 해상(海上) 전투에서 아군이 총포를 일제히 발사하여 적선(賊船)을 쳐부수자 적의 시체가 바다에 가득했는데, 급한 나머지 끌어다 수급을 다 बे지 못하고 70여 급만 베었습니다. 중국 군대는 멀리서 적선을 바라보고는 원양(遠洋)으로 피해 들어가 하나도 포획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군사들이 참획한 수를 보고 진 도독(陳都督)이 뱃전에 서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 관하(管下)를 꾸짖어 물리쳤으며 신 등에게 공갈 협박을 가하여 못하는 짓이 없었으므로 신 등이 마지 못해 40여 급을 나눠 보내졌습니다. 계유격(季遊擊)도 가정(家丁)을 보내어 수급을 구하기에 신이 5급을 보냈는데 모두들 작첩(作帖)하여 사례하였습니다.”
- 선조 103권 31년 8월 15일 (무진) 1번째기사 / 마 제독과 동병의 시기, 활·화살·전마·포수 조달, 진 도독의 전과에 대해 이야기하다
상이 마 제독(麻提督)을 그의 처소에서 접견하였다.
…… (중략) ……
제독이 말하기를, “근일 남쪽 소식은 어떻습니까?” 하니, 상이 말하기를, “수로(水路)의 보고를 들으니, 진 도독(陳都督) 대인이 상당히 참획하였는데 소방(小邦)의 수군도 황제의 위엄을 힘입어 약간의 승리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하자, 제독이 말하기를, “저도 들었는데 이순신(李舜臣)이 아니었던들 중국 군대가 작은 승리를 얻는 것도 어려웠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국왕께서는 조선의 여러 장수 가운데 누가 양장(良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순신(李舜臣)·정기룡(鄭起龍)·한명련(韓明璉)·권율(權慄) 등이 제일이라고 여깁니다. 저번에 군문에게 이 말을 하였더니 군문이 상품을 나누어 보내 그들의 마음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하였다.
- 선조 103권 31년 8월 15일 (무진) 3번째기사 / 이순신의 승첩을 가지고 온 자에게 논상하도록 정원에 전교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이순신(李舜臣)의 승첩(勝捷)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논상(論賞)하라.”
- 선조 103권 31년 8월 23일 (병자) 5번째기사 / 경상 관찰사 정경세가 관백의 병사 여부와 적정을 치계하다
경상 관찰사(慶尙觀察使) 정경세(鄭經世)가 치계하기를, “관백(關白)의 병이 중태라니 이미 죽었다느니 하는 말들이 너무나도 허탄하기에 상께 보고하기 어려워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개 구법곡(仇法谷)의 적이 서생포(西生浦)로 옮겨간 것은 매우 확실한데, 기타 곡식을 베고 말을 기르며 짐을 배에 적재했다는 등의 일도 터무니 없는 말은 아니니, 그들에게 변화가 있는 것만은 분명한 듯합니다. 신은 당초 주사(舟師)로 호남(湖南)을 침범하지나 않을까 염려했는데, 지난번 우수사(右水使) 이순신(李舜臣)이 보고한 바 해상에서의 승리로 그 예봉을 상당히 꺾었으니, 그들이 호남을 침입하려는 계획을 가졌다 하더라도 반드시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단히 철수할 리가 없는데, 이처럼 변동하는 모습이 보이니 그들의 흉모가 어디에 있는지 헤아리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진(諸鎭)에 신칙하여 특별히 더욱 정탐케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계하(啓下)하였다.

- 103권 31년 8월 24일 (정축) 5번째기사 / 이덕형이 예교의 적정과 이순신의 동정을 치계하다

우의정 이덕형(李德馨)이 치계하였다. “예교(曳橋)의 적이 성곽을 수축하고 관솔[松明]을 많이 준비하여 야간에 불을 밝히고 총을 쏠 계획을 하고 있으니, 진을 철수한다는 설은 모두가 헛된 보고입니다. 통제사(統制使) 이순신(李舜臣)이 중국 장수와 함께 기회를 엿보아 적을 섬멸하려고 주사(舟師)를 정돈하여 바다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 선조 104권 31년 9월 10일 (임진) 3번째기사 / 통제사 이순신이 진 도독에 대해 치계하다

통제사(統制使) 이순신(李舜臣)이 치계하였다. 진 도독이 신을 불러 ‘육군은 유 제독이 총괄하여 통제하고 수군은 내가 당연히 총괄하여 통제해야 하는데 지금 듣건대 유 제독이 주사(舟師)를 관장하려 한다 하니, 사실인가?’ 하기에, 신은 모른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신이 주사를 정돈하여 바다로 내려가서 기회를 틈타 왜적을 섬멸하려 하여도 매번 도독에게 중지당하니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 선조 105권 31년 10월 4일 (병진) 5번째기사 / 비변사가 도독 진인이 거짓 장계를 올렸다고 아뢰다

비변사가 【이항복·한응인·이준(李準)·홍이상(洪履祥).】 아뢰었다. “이순신(李舜臣)이 절이도(折爾島)의 전투에서 적의 머리 71급(級)을 베었는데 진 도독(陳都督)이 40급을 빼앗고 계 유격(季遊擊)이 5급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도독이 순신에게 독촉하여 다만 26급을 베는 것으로 장계를 꾸미게 하였으므로 순신은 도독의 말대로 26급을 베었다고 거짓 장계를 만들어 보내고 또 별도로 장계를 만들어 사실대로 치계하였습니다. 왕 안찰(王按察)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 소문을 듣고 우리 나라에 공문을 보내 수급(首級)에 관련된 일을 묻고 아울러 그 장계를 보내라고 명하였습니다. 지금 만약 실제 장계를 보내면 반드시 도독을 큰 죄에 빠뜨릴 것이니 거짓 장계를 보내는 것이 합당할 듯하므로 감히 품합니다.” 【동정 장사(東征將士)들이 모두 욕심이 많았다. 진인(陳璘)은 남의 공로를 가로채어 자기의 공으로 삼으니 이와 같은데 성공을 바라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 선조 105권 31년 10월 13일 (을축) 3번째기사 / 수군 통제사 이순신이 왜적과의 전투 상황에 관하여 치계하다

수군 통제사(水軍統制使) 이순신(李舜臣)이 【사람됨이 충성스럽고 용맹하여 마음을 다해 왜적을 토벌하였다. 군율을 분명히 하고 사졸(士卒)을 사랑하니, 사람들이 모두 기꺼이 따랐다.】 치계하였다. “2일 수군이 합세하여 왜적을 공격하였는데 육군이 바라만 보고 진격하지 않음을 알고서 수군을 치기에 전력(專力)하였습니다. 우리 군대가 혈전(血戰)하니 왜적의 시체가 언덕 밑에 낭자하게 흩어져 있었으며 혹은 서로 적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군사 중에 탄환을 맞아 죽은 자는 29명이고 중국 군사는 5명입니다.”
- 선조 105권 31년 10월 27일 (기묘) 8번째기사 / 진 도독의 접반사인 남복흥이 유 제독이 퇴군함을 아뢰다

진 도독(陳都督)의 접반사인 남복흥(南復興)이 아뢰었다. “이달 7일 유 제독(劉提督)이 뜻밖에 먼저 퇴군(退軍)하고, 진 도독(陳都督)은 통제사 이순신과 진영을 합쳐 3일을 머무른 후에 배를 출발시켜 나려도(螺驢島)에 도착하여 현재 진을 치고 사변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 106권 31년 11월 3일 (갑신) 1번째기사 / 형 군문의 관사에 나아가 군량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다
상이 형 군문(邢軍門)의 【형개(邢玠).】 관사(館舍)에 나아가니, 군문이 맞아들어 배례(拜禮)를 행하였다
…… (중략) ……

군문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이후로는 심분 마음을 써서 남은 군량을 재촉하여 수송하는 것이 옳습니다. 흉적은 소굴을 굳게 지키고 있는데 우리 군사는 식량을 싸가지고 깊숙이 들어갔으니 동쪽의 일을 매듭짓기란 참으로 기일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귀방의 군사들도 또한 조용(調用)할 만하지만 걱정되는 것은 군량이니, 속히 재촉하여 수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군율을 어긴 장수 3~4명을 효시(梟示)할 것이니 국왕께서도 배신(陪臣)들의 태만함을 엄격히 조사하는 것이 어떨겠습니까? 귀방의 총병(摠兵) 이순신(李舜臣)은 마음을 다해 적을 토벌하니 대단히 칭찬할 만합니다. 제가 이미 상으로 은(銀)을 보내어 크게 표창하였습니다.” 하고, 군문이 술을 내놓았다

- 선조 106권 31년 11월 24일 (을사) 5번째기사 / 정원이 이순신의 후임을 정하는 문제에 대해 아뢰다
정원이 아뢰기를, “방금 군문 도감 낭청이 군문의 배첩(拜帖)을 가지고 문틈으로 와서 말하기를 ‘군문이 즉시 본부를 내려 유 제독(劉提督)과 동 제독(董提督)은 군사를 거느리고 함께 부산으로 모이게 하고 진 도독(陳都督)도 또한 부산으로 따라가게 하였다. 그리고 이순신(李舜臣)은 전사하였으니 그 대임을 즉시 차출하여야 한다. 명령을 듣고 가야 하니 어떤 사람으로 차출할 것인지에 대하여 내일 날이 밝기 전에 성명을 기록해 가지고 와서 고하라.’ 하였 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오늘은 밤이 깊어 할 수가 없다. 내일 아침에 승지는 배첩(拜帖)을 가지고 나아가 치사(致謝)하라. 통제사는 즉시 비변사로 하여금 천거해서 차출케 하라. 모든 일을 정원이 살펴서 시행하라.” 하였다.

- 선조 106권 31년 11월 25일 (병오) 9번째기사 / 진 도독이 통제사 직책의 후임을 원하는 계첩을 올리다
진 도독(陳都督)의 【진인(陳璘).】 계첩(揭帖)은 다음과 같다.“ 9일과 10일 진시(辰時)부터 사시(巳時)까지 부산 · 사천(泗川) 등지의 적선(賊船)과 노량도(露梁島)에서 대대적으로 싸울 때 모든 장수들이 목숨을 바쳐 싸운 것은 귀방에서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니 굳이 번거롭게 덧붙여 말할 것이 없고, 통제사 이순신(李舜臣)은 앞장서서 싸우다가 탄환에 맞아 운명하였습니다. 본관의 충성은 전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니 다시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통제사의 직책은 하루라도 비워둘 수 없습니다. 생각건대 이순신(李純信)으로 승보(陞補)하는 것이 귀방의 전형(銓衡)에 부합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건대 유념하여 조속히 결단하여 자나 깨나 기대하는 마음을 위로하소서. 간절히 빕니다.”

- 선조 106권 31년 11월 25일 (병오) 10번째기사 / 충청 병사가 이시언을 조용하였음을 알리는 회첩
회첩(回帖)은 다음과 같다. “장군이 누선(樓船)의 군사로 왜적을 노량(露梁)에서 막고 여러 장수에 앞장서서 용기를 내어 곧바로 나아가 왜선을 부수고 무수한 왜적을 죽이니, 사나운 기운이 깨끗이 사라지고 위엄이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대저 소방이 난리를 당한 지 7년 만에 처음으로 이러한 승리를 보게 되었으니 기린각(麒麟閣) 제일의 공로는 장군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통제사 이순신은 장군 휘하에서 힘을 다해 싸우다가 탄환을 맞아 갑자기 운명하였

참으로 매우 측은합니다. 이 직책은 3로의 수군을 총괄하기 때문에 그 대임을 잘 가리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미 충청 병사가 이시언(李時言)을 조용(調用)하였으므로 보내온 명령대로 하지 못하여 송구함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용서를 바라겠습니다. 해상에서 비바람을 무릅쓰고 또 몹시 추운 때를 당했으니 더욱 몸을 소중히 하십시오. 이만 줄입니다.”

• 선조 106권 31년 11월 26일 (정미) 3번째기사 / 미시에 형 군문의 관사에 나아가다

미시(未時)에 상이 형 군문(邢軍門)의 【형개(邢玠).】 관사에 나아갔다.

…… (중략) ……

군문이 말하기를, “왜적이 이미 도망쳤으니 국왕은 기쁘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부산의 왜적도 이미 진채를 불태웠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기쁨을 이루 형언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군문이 말하기를, “2백 척은 모두 이미 바다를 건너갔고 남은 왜적이 조금 있다고 합니다. 만약 오래 머물러 있을 계획이라면 어찌 진채를 불태웠겠습니까. 제가 이미 3로의 장수에게 분부하여 일시에 군사를 집합시켜 섬멸하게 하였습니다. 귀방의 수군 총병(水軍總兵)은 누구입니까? 속히 내려 보내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니, 상이 말하기를, “신임 총병은 이시언(李時言)입니다. 지금 전라도 지방에 있는데 즉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니, 군문이 말하기를, “이시언은 쓸 만한 사람입니까? 또 수로(水路)를 환히 알고 있습니까? 이순신은 마음을 다해 왜적을 토벌하다가 끝내 전사하였으니, 저는 너무도 애통하여 사람을 시켜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국왕께서도 사람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소서. 또 그 아들을 기용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순신과 같은 사람은 얻기가 쉽지 않은데 마침내 이렇게 되었으니 더욱 애통합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소방이 7년 동안 난리를 겪어 스스로 진작하지 못하므로, 소방의 힘으로는 실로 왜적을 섬멸하기 어려운데, 대인의 성산(成算)으로 흉적이 도망치거나 혹은 참획(斬獲)되어 동방의 한 지역이 재생(再生)의 목숨을 잇게 되었으니, 대인의 덕을 갚을 길없고 황은이 망극합니다. 또 등 총병(鄧總兵)은 소방의 일로 만리나 되는 험난한 길을 와서 해상에서 힘을 다해 싸우다가 불행하게도 운명하였으니 슬픔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이시언은 소방에서 훌륭한 장수로 일컬고 있습니다.” 하였다.

• 선조 106권 31년 11월 27일 (무신) 5번째기사 / 좌의정 이덕형이 수군의 활약상에 관한 치계를 올리다

좌의정 이덕형이 치계하였다. “금월 19일 사천(泗川)·남해(南海)·고성(固城)에 있던 왜적의 배 3백여 척이 합세하여 노량도(露梁島)에 도착하자, 통제사 이순신이 수군을 거느리고 곧바로 나아가 맞이하 싸우고 중국 군사도 합세하여 진격하니, 왜적이 대패하여 물에 빠져 죽은 자는 이루 헤아릴 수 없고, 왜선(倭船) 2백여 척이 부서져 죽고 부상당한 자가 수천여 명입니다. 왜적의 시체와 부서진 배의 나무 판자·무기 또는 의복 등이 바다를 뒤덮고 떠 있어 물이 흐르지 못하였고 바닷물이 온통 붉었습니다. 통제사 이순신과 가리포 첨사(加里浦僉使) 이영남(李英男), 낙안 군수(樂安郡守) 방덕룡(方德龍), 흥양 현감(興陽縣監) 고득장(高得蔣) 등 10여 명이 탄환을 맞아 죽었습니다. 남은 적선(賊船) 1백여 척은 남해(南海)로 도망쳤고 소굴에 머물러 있던 왜적은 왜선(倭船)이 대패하는 것을 보고는 소굴을 버리고 왜교(倭橋)로 도망쳤으며, 남해의 강언덕에 옮겨 쌓아놓았던 식량도 모두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소서행장(小西行長)도 왜선이 대패하는 것을 바라보고 먼 바다로 도망쳐 갔습니다.” 사신은 논한다. 이순신은 사람됨이 충용(忠勇)하고 재략(才略)도 있었으며 기율(紀律)을 밝히고 군졸을 사랑하니 사람들이 모두 즐겨 따랐다. 전일 통제사 원균(元均)은 비할 데 없이 탐학(貪虐)하여 크게 군사들의 인심을 잃고 사람들이 모두 그를 배반하여 마침내 정유년 한산(閑山)의 패전을 가져 왔다. 원균이 죽은 뒤에 이순신으로 대체하자 순신이 처음 한산에 이르러 남은 군졸들을 수합하고 무기를 준비하며 둔전(屯田)을 개척하고 어염(魚鹽)을 판매하여 군량을 넉넉하게 하니 불과 몇 개월 만에 군대의 명성이 크게 떨쳐 범이 산에 있는 듯 한 형세를 지냈다. 지금 예교(曳橋)의 전투에서 육군은 바라보고 전진하지 못하는데, 순신이 중국의 수군과 밤낮으로 혈전하여 많은 왜적을 참획(斬獲)하였다. 어느 날 저녁 왜적 4명이 배를 타고 나갔는데, 순신이 진인(陳璘)에게 고하기를 ‘이는 반드시 구원병을 요청하려고 나간 왜적일 것이다. 나간

벌써 4일이 되었으니 내일쯤은 많은 군사가 반드시 이를 것이다. 우리 군사가 먼저 나아가 맞아 싸우면 아마도 성공할 것이다.’ 하니, 진인이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다가 순신이 눈물을 흘리며 굳이 청하자 진인이 허락하였다. 그래서 중국군과 노를 저어 방새도록 나아가 날이 밝기 전에 노량(露梁)에 도착하니 과연 많은 왜적이 이르렀다. 불의에 진격하여 한 참 혈전을 하던 중 순신이 몸소 왜적에게 활을 쏘다가 왜적의 탄환에 가슴을 맞아 선상(船上)에 쓰러지니 순신의 아들이 울려고 하고 군사들은 당황하였다. 이문욱(李文勳)이 곁에 있다가 울음을 멈추게 하고 옷으로 시체를 가려놓은 다음 북을 치며 진격하니 모든 군사들이 순신은 죽지 않았다고 여겨 용기를 내어 공격하였다. 왜적이 마침내 대패하니 사람들은 모두 ‘죽은 순신이 산 왜적을 물리쳤다.’고 하였다. 부음(訃音)이 전파되자 호남(湖南) 일도(一道)의 사람들이 모두 통곡하여 노파와 아이들까지도 슬피 울지 않는 자가 없었다. 국가를 위하는 충성과 몸을 잊고 전사한 의리는 비록 옛날의 어진 장수라 하더라도 이보다 더할 수 없다. 조정에서 사람을 잘못 써서 순신으로 하여금 그 재능을 다 펴지 못하게 한 것이 참으로 애석하다. 만약 순신을 병신년과 정유 연간에 통제사에서 체직시키지 않았더라면 어찌 한산(閑山)의 패전을 가져왔겠으며 양호(兩湖)가 왜적의 소굴이 되겠는가. 아, 애석하다.

- 선조 106권 31년 11월 30일 (신해) 6번째기사 / 정원에 이순신의 증직과 장사 문제를 전교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이순신에게 증직(贈職)하고 치부(致賻)하고 관에서 장사를 도우라. 또 그의 아들이 몇 명인가? 상(喪)이 끝난 뒤에 모두 벼슬을 제수하는 것이 옳다. 해상(海上)에도 사우(祠宇)를 세워야 하니 이 한 조항은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그 밖에 전사(戰死)한 장수들에게도 모두 훈전(恤典)을 거행하고 혹 증직할 만한 자에게는 증직하되 차례대로 거행하라.”
- 선조 106권 31년 11월 30일 (신해) 7번째기사 / 예조가 이순신의 제사 문제를 여쭙다
예조가 아뢰기를, “형 군문(刑軍門)이 이순신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여 사람을 보내 제사를 지냈고, 우리 나라에서도 제사를 지내게 하려고 하니 그 뜻이 매우 훌륭합니다. 순신의 직품은 정 1품이었으니 자연 법전(法典)에 따라 제사를 지내야겠지만, 형 군문이 이처럼 말하니 먼저 별도로 제사를 지내야 합니까, 아니면 준례에 따라 제사를 지내야 합니까? 또 등 총병(鄧總兵)이 한 곳에서 같이 죽었으니 또한 제사를 지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시체를 찾았는지 못찾았는지 아직까지 확실히 알지 못하니 우선 상구(喪柩)가 서울로 올라온 뒤에 제사를 지내야 합니까? 아래에서 마음대로 결정하기 곤란하기에 아울러 재가를 여쭙니다.” 하니, 예조가 알아서 하라고 전교하였다.
- 선조 107권 31년 12월 1일 (임자) 5번째기사 / 비변사가 이순신의 사당을 세울 것을 요청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이순신(李舜臣)이 지난날 한산도에서 승첩을 거두어 큰 공을 세웠고, 주사가 패몰된 뒤에는 잔파된 나머지를 수습하여 기계와 군량을 전날과 다름없이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노량 해상에서 방새워 혈전하여 적의 괴수를 불에 태워 죽이고 전함 2백여 척을 포획하기까지 하여 의기를 동남지역에 크게 떨치자 적추는 혼비백산하여 밤에 도망쳤으니, 국가를 회복시킨 공에 있어서 이 사람이 제일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탄환에 맞아 목숨을 잃게 되었지만 숨을 거두면서도 조용히 처치하였으니 옛날 명장의 풍도를 지녔다고 이를 만하였습니다. 이제 성교를 받들어 관에서 장례를 치러주고 자식들도 모두 관직에 제수하였으니, 충의를 격려함이 이에 이르러 더할 나위 없이 되었습니다. 해변에 사당을 세우는 일은 좌수영 본진에 설립하여 봄·가을로 제사를 올리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전사한 장사들에게 훈전(恤典)을 내리는 일도 해조로 하여금 속히 거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107권 31년 12월 2일 (계축) 5번째기사 / 진 제독이 이순신의 후임에 관한 계첩을 보내다
진 제독(陳提督)이 【진인(陳璘).】 계첩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추 소서행장이, 주사가 노량(露梁) 앞바다에서 격전할 때를 틈타 종적을 감추고 도망치기에 깃발을 돌려 추격하였으나 이미 대양으로 멀리 떠나 잡지 못하였으니 매우 한스럽습니다. 병사를 정돈하고 남해로 진격하여 21일 4경에 적의 소굴에 이르니 적의 배는 텅 비어있고 성 위에만 불빛이 있었는데, 잠시 후에 곧 꺼졌습니다. 새벽녘에 적의 소굴에 올라가 보니 적들이 밤사이 에 뒷산으로 도망쳤는데 말뚝이 아직 따스한 것으로 보아 조금 전에 떠났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쌀·기장·콩·조 등의 곡식을 물가에 운반해 놓고 싣고 가지 못한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대략 몇 만 석쯤 되었고, 크고 작은 총포 및 화약 등의 무기와 일용품까지도 없는 것이 없었으며, 소와 말 등 가축들도 많았습니다. 우선 잠시 안정을 되찾은 뒤에 군사를 풀어 산속에 들여보내 한 명의 적도 남김없이 잡아 전공(戰功)을 크게 빛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순신(李舜臣)의 자리가 비어 있으니 속히 다른 관원을 임명하여 기대하는 마음을 풀어주소서.”

- 선조 107권 31년 12월 2일 (계축) 6번째기사 / 비변사가 왜적의 방어, 진의 설치에 관해 건의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 (중략)
그리고 적을 방어하자면 무엇보다도 주사가 가장 시급합니다. 원균(元均)이 패하기 전부터 주사가 강성하지 못한 것을 걱정하였는데, 주사가 패몰당한 뒤에 이순신이 남은 것들을 수습하여 기계와 선척 그리고 전함을 대충 구비하였다고는 하지만, 역시 원균이 있을 때보다 못합니다. 여러 도의 연해 지방인 장산(長山)·안면(安眠)·변산(邊山) 등지와 그밖의 해안 기슭이나 도서(島嶼) 사이에 소나무가 울창하게 자라 배를 만들 만한 재목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러나 차관들은 이곳 저곳 보내 날짜를 정해놓고 배를 만들라고 독촉한다면 가까스로 살아남은 백성들이 서로 원망을 하게 되어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각도의 방백으로 하여금 각읍의 빈약하고 부유한 상황을 조사하여 빈약한 읍은 여러 읍을 아울러 한 척의 배를 만들게 하고 부유한 읍은 단독으로 한 척은 혹은 여러 척을 만들게 하되, 수령들만이 감독하게 그들의 근면하거나 태만한 점에 대해서는 방백이 상벌을 내리게 하소서. 또한 여러 도의 선척을 거두어 모아 전쟁에 쓸 만한 것은 주사에 배속시키고 바닷가에 있는 육군을 모두 수군에 이속시킨다면 수군의 성세가 매우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고금도(古今島)에 있는 주사를 요해지로 진영을 옮기게 하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먼 데서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니, 도원수와 통제사에게 하유하여 그들로 하여금 형세를 살펴서 조처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선조 107권 31년 12월 4일 (을묘) 3번째기사 / 군문 도감이 수군과 승리한 것에 대해 중군과 담화한 내용을 아뢰다
군문 도감(軍門都監)이 아뢰기를,
..... (중략)
그리고 전일에 기패관(旗牌官) 주충(朱忠)이 독전하는 일로 영기(令旗)를 가지고 주사의 진영에 가서 적들이 탈출하여 도망치지 못하도록 진 도독에게 경계하였는데, 그가 어제 돌아와서 말하기를 ‘적추 소서행장이 강화를 청탁하면서 여러 왜추에게 구원을 청하여 울산(蔚山)·부산(釜山)·사천(泗川) 등지의 적들이 모두 구원병을 보내왔다. 사천이 순천(順天)과 가장 가까우므로 먼저 주사와 서로 마주쳐 혈전이 벌어졌다. 당초에 행장이 천위(天威)를 두려워하여 유 제독과 진 도독에게 강화하자고 하면서 유 제독에게는 수급 2천을, 진 도독에게는 수급 1천을 보내 줄 터이니 자기를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였다. 진 도독은 그 말을 믿고서 말하기를 「나에게도 수급 2천을 보내주면 보내 줄 수 있다.」 하자, 행장이 날마다 예물을 보내고 주찬(酒饌)·창검(槍劍) 따위의 선물도 끊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남해(南海)에 사위가 있는데 그와 만나 의논해야 하므로 사람을 보내어 불러오려고 하니 이곳의 배를 내보

바란다.’ 하자, 이순신(李舜臣)이 말하기를 「속임수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사위를 불러 온다는 것은 구원병을 청하려는 것이니 결코 허락할 수 없는 일이다.」 하였으나, 진 도독은 듣지 않았다. 14일 1척의 작은 배를 보냈는데 왜인 8명이 타고 있었다. 그 뒤에 이순신이 말하기를 「왜선이 나간 지 이미 4일이 되었으니 구원병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도 묘도(猫島) 등지로 가서 파수하여 차단시켜야 한다.」 하였다. 18일 4경에 여러 곳의 구원병이 크게 몰려와 드디어 대전이 벌어졌는데 포와 화살은 쓰지도 않고 불 뭉치만을 적선에 던져 2백여 척을 소각시켰다. 그러자 옷가지와 온갖 물품이 바다를 덮었는데, 행장은 떠내려오는 물품과 하늘에 치솟는 화염을 보고서 구원병이 크게 패한 것을 알고 외양(外洋)으로 도망쳤다. 먼 곳의 구원병도 그들의 선봉이 패한 것을 알고 감히 와서 구제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 만약 며칠만 더 지체하여 사방의 구원병이 모여 왔더라면 왜교(倭橋)의 일이 매우 위태로웠을 것이다. 대개 행장의 계획은 겉으로는 강화를 하는 체하면서 몰래 구원병을 청하여 먼저 주사를 함께 치고 이어 육군을 공격하려고 했던 것인데, 적선의 선봉이 이미 패하여 흥계를 이루지 못하게 되었으니 아마도 하늘의 뜻이 천리에 순종하는 자를 돕는 것인 듯하다. 21일에 주사가 남해로 나아갔으나 왜적은 벌써 도망치고 없었다.’ 하였습시다. 당보를 동봉하여 입계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선조 107권 31년 12월 7일 (무오) 5번째기사 / 좌의정 이덕형이 이순신의 포장을 요청하다

좌의정 이덕형(李德馨)의 장계에, “이순신(李舜臣)의 사람됨을 신이 직접 확인해 본 적이 없었고 한 차례 서신을 통한 적 밖에 없었으므로 그가 어떠한 인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전일에 원균(元均)이 그의 처사가 옳지 못하다고 한 말만 듣고, 그는 재간(才幹)은 있어도 진실성과 용감성은 남보다 못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신이 본도에 들어가 해변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니, 모두가 그를 칭찬하며 한없이 아끼고 추대하였습니다. 또 들건대 그가 금년 4월에 고금도(古今島)로 들어갔는데, 모든 조치를 매우 잘하였으므로 겨우 3~4개월이 지나자 민가와 군량의 수효가 지난해 한산도(閑山島)에 있을 때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그의 재능이 남보다 뛰어난 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유 제독(劉提督)이 힘껏 싸우는 데 뜻이 없다는 것을 간파한 뒤에는 국가의 대사(大事)를 전적으로 수병에 기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신이 주사에 자주 사람을 보내어 이순신으로 하여금 기밀의 일을 주선하게 하였더니, 그는 성의를 다하여 나라에 몸바칠 것을 죽음으로써 스스로 맹세하였고, 영위하고 계획한 일들이 모두가 볼 만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은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국가가 주사의 일에 있어서만은 훌륭한 주장(主將)을 얻어서 우려할 것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가 전사하였으니 앞으로 주사의 일을 책임지워 조치하게 하는데 있어 그만한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참으로 애통합니다. 첩보(捷報)가 있던 날 군량을 운반하던 인부들이 이순신의 전사 소식을 듣고서 무지한 노약자라 할지라도 대부분 눈물을 흘리며 서로 조문하기까지 하였으니, 이처럼 사람을 감복시킬 수 있었던 것이 어찌 우연한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양향(糧餉)을 조치하는 등 모든 일에 있어서 요리해야 할 일들이 매우 광범위한데 하루 아침에 주관하는 사람이 없다면 필시 죄다 산실될 것입니다. 특별히 새 통제사를 임명하시어 마음을 다해 요리하고 장병들을 위무하여 뿔뿔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소서. 이순신이 나라를 위하여 순직한 정상은 옛날의 명장에게도 부끄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포장(褒獎)하는 거조를 조정에서 각별히 시행하소서.” 하였는데, 비변사에 계하하였다.

• 선조 107권 31년 12월 11일 (임술) 7번째기사 / 예조가 이순신의 장례문제에 대해 아뢰다

예조가 아뢰기를, “아무 일로 전교하셨습니다. 등 총병(鄧摠兵)의 치제관(致祭官)은 이미 차출하였으니 곧 내려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들건대 이순신(李舜臣)의 상구(喪柩)가 이미 전사한 곳에서 출발하여 아산(牙山)의 장지(葬地)에 도착할 예정으로, 등 총병의 상구와 한 곳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치제하는 차례에 있어 서로 구애되지 않을 듯하므로 본조의 낭청을 먼저 보냈습니다. 이축(李軸)을 오늘 내일 사이에 재촉해 내려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중국 장수를 먼저 제사하고 다음에 우리 나라 장수를 제사하는 것이 예의상 옳을 것이다. 상구한 곳에 있다 하여 선후의 절차를 따지고, 각기 다른 곳에 있다 하여 중국인이 우리가 하는 일을 모를 것이라고 여

우리 나라 장수를 먼저 제사하려고 하는 것은 도리상 온당치 못한 듯싶다. 등 총병에 대한 치제관을 속히 먼저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 선조 107권 31년 12월 18일 (기사) 4번째기사 / 도원수 권율이 적의 머리를 벤 것이 적은 이유에 대해 아뢰다
도원수 권율(權慄)이 아뢰었다. “통제사 이순신(李舜臣)이 전사한 뒤에 손문옥(孫文彧) 등이 임기 응변으로 잘 처리한 덕택에 죽음을 무릅쓰고 혈전하였습니다. 문옥이 직접 갑판 위에 올라가 적의 형세를 두루 살피며 지휘하여 싸움을 독려하였는데 진 도독이 함몰을 면한 것도 우리 주사의 공이었습니다. 우치적(禹致績) · 이섬(李暹) · 우수(禹壽) · 유형(柳珩)·이언량(李彦良)의 공이 우수하였고, 수공(首功)은 이순신이 타고 있던 배였습니다. 다만 이순신이 군사들에게 약속하기를 ‘다투어 수급을 베려고 하다 보면 적을 많이 죽일 수 없다.’고 경계하였으므로, 이번 전투에서 수급을 참획한 것이 매우 적었습니다.”
- 선조 107권 31년 12월 21일 (임신) 3번째기사 / 네 제독이 각 아문에 보낸 첩문
네 제독이 각 아문에 첩문을 당보(塘報)하였다.진 도독(陳都督)이 **【진인(陳璘).】** 아문에 당보(塘報)한 첩문은 다음과 같다. “본부가 여러 장수들을 통솔하고 노량(露梁)에 당도하여 이순신(李舜臣)이 포위당한 것을 보고 본부가 직접 병정을 거느리고 수백 명의 적을 쳐죽이자 적이 후퇴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승세를 몰아 20여 리를 추격하니 적들이 불에 타 죽고 바다에 빠져 죽었는데, 다 건져내지는 못했지만 생포하거나 참살한 수가 도합 3백 20명이나 되었다. 천총 친구경(陳九經)이 **【진인(陳璘)의 아들이다.】** 왜장 1명을 생포했는데 석만자(石曼子)라고 하였다. 부총병 등자룡(鄧子龍)과 통제사 이순신이 전사하였다.”
- 선조 108권 32년 1월 6일 (정해) 1번째기사 / 조여매의 관소에 가서 담소하다
상이 용산(龍山)에 있는 조 지현(趙知縣)의 **【조여매(趙汝梅).】** 관소에 갔다.
…… (중략) ……
부총이 말하기를, “이순신(李舜臣)은 충신입니다. 이러한 자가 십여 명만 있다면 왜적에 대해 무슨 걱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배신 권희(權愾)는 저를 따라다니며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의 말이 길에서 죽었으므로 제가 왜마(倭馬)를 사도록 하였더니, 희가 땅에 엎드려 말하기를 ‘비록 도보로 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짓은 할 수 없다.’ 하였는데, 이 말은 황금으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중조(中朝) 관원의 예로 대우하였습니다. 통관(通官)도 3년이나 저를 따라다니며 노고가 매우 많았으니 특별히 포상하여 주십시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이는 직분상 마땅히 해야 할 일이나 말씀대로 하겠소이다.” 하였다.
- 선조 108권 32년 1월 8일 (기축) 3번째기사 / 비망기로 주본 내용의 진실성을 살피라고 이르다
비망기로 이르기를,
…… (중략) ……
수전(水戰)할 때에 진 총병(陳摠兵)이 이순신을 선봉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니, 이는 사실이 그러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수병의 공이 은연중에 드러나는 것이다. 한편 파괴한 적선의 수를 3백 척으로 정해 넣은 것은 온당치 못한 것 같으니, 그 숫자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대체적으로 이밖에도 온당치 못한 곳이 있을 것이

이 전교 및 주초(奏草)를 아성 부원군(鵝城府院君)에게 보내어 다시 가감, 수정하여 들이게 하라.” 하고,

- 선조 108권 32년 1월 9일 (경인) 1번째기사 / 강상으로 나아가 마 제독을 맞이하여 위로하다

상이 강상(江上)으로 나아가 마 제독(麻提督)을 맞이하여 위로하였다.

…… (중략) ……

상이 말하기를, “여러 대인들이 우리 나라의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이가 없습디만, 대인은 가장 먼저 본국에 왔고 지난해 울산(蔚山)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으므로 금년에 재차 진격한다면 적은 스스로 도망칠 것입니다.” 하니, 제독이 기뻐하며 말하기를, “당치 않은 말씀입니다. 이순신(李舜臣)이 혈전을 벌이다가 죽었는데, 저는 그를 직접 만나보지는 못하였으나 탄복할 만합니다. 그의 자손에게 포상하여 그 충렬을 정표(旌表)하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이미 추장(追獎)의 은전을 존교(尊敎)대로 하였습니다. 등 총병(鄧摠兵)이 우리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가 죽었으니 참으로 애석합니다.” 하니,

- 선조 108권 32년 1월 9일 (경인) 5번째기사 / 마 제독의 관소에 거동하여 담소하다

저녁에 상이 또 마 제독(麻提督)의 관소에 거동하였다. 제독이 묻기를, “이순신은 어느 지방 사람입니까?” 하니, 상이 대답하기를, “충청도 아산(牙山)사람입니다.” 하였다. 제독은 애석한 일이라고 하고는, 말하기를, “이 땅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주(慶州)·울산(蔚山) 등지에 정병(精兵)이 많으니 훈련을 시키면 사람이 없다고 걱정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군문 노야(軍門老爺)가 3로의 병마를 재촉하여 왔으니, 오늘날의 행군(行軍)은 전날의 경우와 다릅니다. 전날에는 양식이 부족하여 약탈하는 폐단이 많았으나 지금은 이르는 곳마다 서로들 술과 고기를 가지고 와서 영접하니, 이곳의 백성들도 천조의 성대한 은혜를 안 것입니다.” 하니,

- 선조 108권 32년 1월 21일 (임인) 2번째기사 / 미시에 서 관란이 시어소로 와 담소를 나누다

미시에 서 급사(徐給事)가 【서관란(徐觀瀾).】 시어소에 왔다.

…… (중략) ……

급사가 말하기를, “충신·의사(義士)로 의에 죽은 사람에게 모두 정표(旌表)를 해야 하며, 전진(戰陣)에서 죽은 장관(將官)들에 대해서도 마땅히 치제하여야 합니다. 죽은 이를 후대하여야 산 자가 충성을 다하는 법입니다. 이순신(李舜臣)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자손을 녹용(錄用)하고 봄 가을로 치제하는 일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필시 잘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수병(水兵)을 조련하고 양항을 준비하는 일 등이 모두 오늘날의 급선무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인이 우리 나라를 위하여 곡진하게 분부하시니 매우 감격스럽소이다.” 하였다.

- 선조 108권 32년 1월 29일 (경술) 2번째기사 / 강가로가 유 제독을 맞이하여 위로하고 담소하다

상이 강가로 나아가 유 제독(劉提督)을 【유정(劉紘).】 맞이하여 위로하였다.

…… (중략) ……

도독이 말하기를, “감사합니다. 재차 나와서 아무 것도 이룬 것이 없습니다. 이순신(李舜臣) 같은 자들은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쳤으니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저의 군사가 대첩을 거둘 수 있었음에도 하늘의 뜻은 알 수 없는 것이어서 길을 잘못 들어 마침내 적추로 하여금 전군(全軍)을 철수하여 건너가게 하였으니, 한스럽습니다. 대개 대소

각자 생각이 다르고 호령이 여러 곳에서 나와 제동(制動)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었으므로 성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조금도 자랑할 만한 공이 없습니다.” 하였다.

- 선조 109권 32년 2월 2일 (임자) 3번째기사 / 별전에 나아가 대신·육경·비변사·당상을 인견하다

상이 별전(別殿)에 나아가 대신·육경·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였는데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이산해(李山海), 해원 부원군(海原府院君) 윤두수(尹斗壽), 좌의정 이덕형(李德馨), 형조 판서 이헌국(李憲國), 예조 판서 심희수(沈喜壽), 병조 판서 홍여순(洪汝諄), 호조 판서 이광정(李光庭), 이조 참판 이희득(李希得), 호조 참판 유영길(柳永吉), 병조 참판 이준(李準), 형조 참판 김신원(金信元), 동부승지(同副承旨) 이상의(李尙毅), 가주서(假注書) 소광진(蘇光震)·윤황(尹煌), 기사관(記事官) 윤훤(尹暄)·유석증(兪昔曾)이 입시하였다.

…… (중략) ……

상이 이르기를, “행장(行長)은 것처럼 험난한 곳을 점거하고 있었으면서 어찌하여 물러갔는가?” 하니, 이덕형이 아뢰기를, “아마도 수병(水兵)이 두려워 물러갔을 것입니다. 수병이 연일 혈전을 벌였는데 당선(唐船)은 선체가 작아 큰 바다에서는 좋지 않으나 작은 포구에 드나들며 탄환을 쏘고 칼을 쓰는 데에는 매우 신통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 28일 싸움에서는 왜적의 시체가 부지기수였고 11월 3일의 싸움에서도 죽은 왜적이 많았습니다. 소신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니 행장의 집이 동쪽에 있었는데 중국 화전(火箭)이 그 집에 떨어지니 서쪽의 왜적이 모두 동쪽으로 달려가 불을 켜었습니다. 이때 육병(陸兵)이 진격하면 성사시킬 수 있겠다고 생각되어 신이 이억례(李億禮)를 불러 유제독에게 ‘바로 지금 진격해야 한다.’고 청하였으나 유제독은 끝내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성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은 무슨 뜻이었는가?” 하니, 이덕형이 아뢰기를, “유정이 항상 하는 말이 ‘양호(楊鎬)는 용병(用兵)할 줄 몰라서 군사를 많이 죽였는데 나는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적의 소굴을 소탕하려고 한다.’ 하였습니 다. 대체로 틀림없이 이길 형세인데도 겁이 나서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말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행장이 수병이 무서워서 철수한 것이 아니고 혹시 진제독(陳提督)과 유제독이 한 마음이 되어 강화한 것은 아닐까?” 하니, 이덕형이 아뢰기를, “진·유 두 장수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유정이 오종도(吳宗道)를 보내 진인(陳璘)에게 길을 터 적을 내보내라고 요청하니, 진인은 오종도를 크게 꾸짖고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는 술책이 아닐까. 필시 겉으로만 그랬을 것이니 진대인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강화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니, 이덕형이 아뢰기를, “18일에 이순신(李舜臣)이 진인에게 말하기를 ‘적의 구원병이 수일 내에 당도할 것이니 나는 먼저 가서 요격하겠다.’ 하니, 진인이 허락하지 않았으나 이순신은 듣지 않고 요격하기로 결정하고서 나팔을 불며 배를 몰아가자 진인은 어쩔 수 없이 그 뒤를 따랐는데, 중국 배는 선체가 작은데다 뒤쪽에 있으므로 그저 성세(聲勢)만 보였을 뿐이고 등자룡(鄧子龍)과 진인 두 사람이 판옥선(板屋船)을 타고 가서 싸웠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수병이 대첩을 거두었다는 설은 과장된 말인 듯하다.” 하니, 이덕형이 아뢰기를, “수병의 대첩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소신이 종사관(從事官) 정혹(鄭穀)을 보내 알아보니 부서진 배의 판자가 바다를 뒤덮어 흐르고 포구에는 무수한 왜적의 시체가 쌓여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보면 굉장한 승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고, 이헌국은 아뢰기를, “이렇게 적을 토벌한 일이 없었으니 혹 과장된 말이 있더라도 크게 포상하여 다른 사람을 권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이덕형은 아뢰기를, “본국 출신 15인이 등자룡(鄧子龍)에 배에 함께 탔다가 다 전사하고 공주(公州) 출신 한 사람만 살아서 돌아왔는데 그 전투 상황을 알아보니 장하다고 할 만하였습니다.” 하였다.

- 선조 109권 32년 2월 7일 (정사) 1번째기사 / 진 도독의 관사에 거동하여 접견례를 행하다

상이 진 도독의 【진인(陳璘).】 관사에 거동하여 접견례를 행하였다. 【노량(露梁)의 전투에서 진격해오던 적이 물러가 마침내 전승하였으니 그 성공은 천운이었다.】

…… (중략) ……

이르기를, “대인의 신묘하신 계책을 힘입어 8년간의 강적이 하루아침에 섬멸되었으니 고마우신 은덕은 형용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자, 진인이 말하기를, “한창 적이 포위해 올 때 내 배는 큰북을 치고 먼저 나아가고 등자룡(鄧子龍)과 이순신(李舜臣) 두 장수가 좌우에서 협공하였는데 그 두 장수는 다 적에게 죽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죽기를 무릅쓰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동요하지 않아 다행히 패배를 면하였으니 이 또한 운수입니다.” 하였다.

- 선조 109권 32년 2월 8일 (무오) 2번째기사 / 형조 좌랑 윤양이 아뢰다

형조 정랑 윤양(尹暘)이 아뢰기를,

…… (중략) ……

그리고 ‘노량(露梁)의 전공은 모두 이순신이 힘써 싸워 이룬 것으로서 불행히 탄환을 맞아 군관 송희립(宋希立) 등 30여 명이 상인(喪人)의 입을 막아 곡성(哭聲)을 내지 않고 재촉하여 생시나 다름없이 영각(令角)을 불어 모든 배가 주장(主將)의 죽음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승세를 이루었다. 저 손문욱(孫文彥)은 하찮은 졸개로 우연히 한 배에 탔다가 자기의 공으로 가로챘으므로 온 군사의 마음이 모두 분격해 한다.’ 하였습니니다.” 하니, 각 해사(該司)에 말 하라고 전교하였다.

- 선조 111권 32년 4월 14일 (계해) 5번째기사 / 홍문관이 이순신의 사당을 건립하는 문제에 관해 아뢰다

홍문관이 아뢰기를, “이순신(李舜臣)의 사당을 건립하는 일에 있어서, 관청에서 했는지 백성들이 하였는지 전대의 일들을 상고해 보라고 전교하셨습니다. 한(漢)나라 때 한천추(韓千秋)가 여가(呂嘉)를 토벌하다가 죽자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냈고, 송(宋)나라 때 요흥(姚興)이 금(金)나라 사람들과 위자교(尉子橋)에서 싸울 때 직접 수백 명을 죽이고 전사하자 사당을 세워 사액(賜額)하고 그 충성을 정표하였으며, 황조(皇朝)의 하흥룡(賀興隆)은 호광(湖廣)을 맡아 주문귀(周文貴)와 싸우다가 전사하자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냈습니다. 백성들이 사당을 건립한 경우는 당(唐)나라 장근(張謹)이 복건 초토사(福建招討使)로 있을 적에 황소(黃巢)가 관중(關中)을 침범하자 장근은 장교(將校)들을 거느리고 적중에 뛰어들어 적과 함께 싸우다가 죽으니 고을 사람들이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냈고, 당나라 전거태(田居태)가 왕명을 받들고 적을 토벌하여 힘껏 싸우다 죽자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우리 나라의 사적에 있어서는 《삼국사(三國史)》나 《고려사(高麗史)》를 상고해 보았지만 서로 흡사한 예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지승람(輿地勝覽)》에 혹 상고할 곳이 있다고 하나 문적(文籍)이 산실되어 상고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전례를 다시 고찰하여 아뢰라.” 하였다.

- 선조 111권 32년 4월 25일 (갑술) 4번째기사 / 홍문관이 이순신의 사당을 세우는 일에 관해 아뢰다

홍문관이 아뢰기를, “이순신(李舜臣)의 사당을 세우는 일에 관하여 전례를 고찰한 다음 아뢴 것을 전교하셨습니다. 우리 나라의 전사(前事)에, 신라(新羅)의 대각간(大角干) 김유신(金庾信)의 사당은 강릉부(江陵府) 화부산(花浮山)에 있는데 이는 관청에서 세운 것인지 백성들이 건립한 것인지 고증할 수가 없으며, 고려의 대장군 강민첨(姜民瞻)의 사당은 진주(晉州) 부중에 있는데 천희(天禧)중에 거란병(契丹兵)과의 전투에서 공이 있자 고을 사람들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고려 문하 주서(門下注書) 길재(吉再)의 사당은 선산부(善山府) 금오산(金烏山) 아래 있고, 감사가 현재 건립하고 있는 포충사(褒忠祠)와 표절사(表節祠)는 평양부(平壤府)에 있습니다. 고려 고종조(高宗朝)에 필현보(畢玄甫)가 서경(西京)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대장군 정의(鄭顛)를 파견하여 현보를 효유하게 하였는데 오히려 현보가 그를 주장으로 삼으려 하여 유혹도 하고 협박도 하였지만 굴복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장서기(掌書記) 오선각(吳先覺)은 묘청(妙淸)의 난리 때 어리석은 체하며 참여하지 않았고 대장군 조인(趙麟)은 신돈(辛旽)을 죽이려고 꾀하다가

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력(萬歷) 기축년에 감사 윤두수(尹斗壽)가 이들을 모두 정표(旌表)하여 사당을 세웠으며 권징(權徵)이 잇따라 부임하여 위에 알려져 사액(賜額)을 받았습니다. 고려의 안종원(安宗源), 본조의 조운흘(趙云屹)·신유천(辛有天)·유양(柳亮)은 모두 강릉 부사(江陵府使)를 지냈는데, 백성들이 덕정(德政)에 감화되어 모두 생사당을 건립했고, 녹도 만호(鹿島萬戶) 이대원(李大源)은 손죽도(損竹島)에서 전사하였는데 조정에서 포상(褒賞)과 벼슬을 더해 주었으며 감사 윤두수가 본진(本鎭) 수군(水軍)들의 소원에 따라 사당을 세워 그가 죽은 날에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는 상고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선조 121권 33년 1월 29일 (갑술) 1번째기사 / 이항복·이산해와 남방 방비책·마정·군공·봉화법·도적 대책·관왕묘 건립 등의 문제를 논의하다

좌의정 겸 도원수(左議政兼都元帥) 이항복과 영의정 이산해를 인견하였다. 【도승지 유희서(柳熙緒), 가주서(假注書) 이욱(李穡)·권태일(權泰一), 겸 춘추(兼春秋) 이이첨(李爾瞻), 봉교(奉敎) 김선여(金善餘)가 입시하였다.】

…… (중략) ……

상이 이르기를, “사실한 일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했었지만 내가 매번 실소를 금치 못했다. 전장에 임하여 수급을 베지 못했다 하더라도 적장(賊將)을 사살할 수 있다면 이는 옛말에도 있듯이 ‘세 개의 화살로 천산을 평정하고, 한 개의 화살로 승부를 결정했다. [三箭定天山一箭決勝負]’는 것이 된다. 그러나 국가에서 논공(論功)할 때 이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사살했다고 하여 논공한다면 허위만 조장시킬 뿐이다. 이순신(李舜臣)의 사당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는 이미 의논한 바 있었는데 아직까지 하지 않았는가? 《여지도(輿地圖)》를 보건대, 우리 나라에 사당을 세운 것이 외방에 많이 있었다.”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전조(前朝)에서는 원충갑(元冲甲)의 사당을 세웠었고, 진주(晉州)에는 김천일(金千鎰)의 사당을 세웠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민간에서 사사로이 세운 사당은 있지만 국가에서 명하여 세운 것은 없다. 이 일에 대해서는 문견(聞見)을 헤아려서 하라.” 하였다.

- 선조 126권 33년 6월 15일 (병술) 2번째기사 / 사도 도체찰사로 남방을 순찰한 이항복과 농항·요역·관방·수령·적정·전세 등에 대해 논의하다

사도 도체찰사 겸 도원수 의정부 좌의정(四道都體察使兼都元帥議政府左議政) 이항복(李恒福)이 남방에서 올라왔다. 상이 별전(別殿)에서 인견(引見)했는데 동부승지 민중남(閔中男), 가주서(假注書) 변응벽(邊應壁), 기사관(記事官) 2인이 입시하였다.

…… (중략) ……

상이 이르기를, “경은 주사(舟師)를 보았는가?” 하니, 답하기를, “신이 전에 이순신에게 있을 적에 보았는데, 그때엔 배의 수효는 많았으나 병사의 수가 부족하여 격군(格軍)을 충정한 배가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누어 배치된 것이 일정한 수효가 있고 격군의 충정도 잘 정제되어 있는 듯하였습니다만, 원수(元數)가 단약한 것이 우려됩니다. 조정을 떠나던 날 전교하신 봉수(烽燧)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면, 양남(兩南) 연해 지방의 봉수가 간격이 너무 먼 것 같아서 지금 두 곳을 더 설치하게 하고 잘 거행하도록 신명(申明)하였으니, 설령 사변(事變)이 있더라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성(京城) 근처는 어렵습니다. 또 금년의 삼도(三道) 농사는, 밭곡식은 충실치 못하였습니다만 흉년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논농사는 앞으로 7~8월 사이에 풍재(風災)만 없다면 결실이 잘 될 듯한데 성패(成敗)는 바로 여기에 달렸습니다. 혹 풍년이 든다면 백성들이 그래도 의지할 바가 있게 됩니다.” 하였다.

- 선조 133권 34년 1월 17일 (병진) 1번째기사 / 체찰사 이덕형과 국방 문제 전반에 대해 논의하다

진시에 상이 별전(別殿)에 나아가 겸사도 도체찰사(兼四道都體察使) 이덕형(李德馨)과 부사(副使) 한준겸(韓浚謙)을

…… (중략) ……

산성(山城)의 일은 힘이 부족하여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옳지만 산성이 전혀 필요없다는 말은 잘못이다. 그 중에 어찌 지킬 만한 곳과 지킬 수 없는 곳이 없겠는가. 평지의 성은 적이 운제(雲梯)·비루(飛樓)를 이용하면 안을 엿볼 수 있다. 정유년 변란 이후 산성이 필요없다고 말하는 자는 마치 월족(削足)당하는 것을 보고 신발을 벗어버리는 자와 어찌 다르겠는가. 우리 나라 사람들의 말이 대개 이러하다. 당초 권율(權慄)이 행주(幸州)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는 산성을 지켜야 한다고 하다가 이순신(李舜臣)이 수전(水戰)으로 승전하자 그때는 또 반드시 주사(舟師)라 승리를 취할 수 있다고 하니,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싸워야 반드시 이긴다는 것인가.”하니,

…… (중략) ……

상이 이르기를, “원균(元均)이 전쟁에서 패한 후로 사람들이 그를 헐뜯고 있으나 나는 원균 같은 자는 용감하고 슬기로운 자라고 생각한다. 우리 나라는 누가 한 가지 일을 잘 하면 모두 칭찬을 하고 한 가지 일을 실패하면 모두 비난한다. 원래 영웅(英雄)은 성패(成敗)를 가지고 논할 수 없다. 원균을 내가 보지는 못했으나, 당초 임진년에 이순신(李舜臣)과 마음을 함께하여 적을 칠 때 싸움이 벌어지면 반드시 앞장을 섰었으니, 그가 용감히 싸웠던 것을 알 수 있다. 한산(閑山) 싸움에서 패전한 것으로 다투어 그에게 허물을 돌리지만, 그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조정이 그를 빨리 들어가도록 재촉했기 때문이다. 그의 서장(書狀)을 보면, 안골포(安骨浦)가 그 앞에 있어 금방 들어갈 형세가 못되니 육군으로 하여금 먼저 적을 몰아내게 한 다음 들어가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도원수(都元帥)가 잡아들여 곤장을 치자, 그는 반드시 패할 것을 알면서도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게 과연 그가 스스로 패한 것인가? 후에 들으니, 이억기(李億祺)와 최호(崔湖) 등이 조정에서 빨리 들어가라고 재촉한 것을 듣고는 서로 말하기를 ‘명령을 어기면 우리 세 사람이 죽을 것이고 들어가면 나라를 욕되게 함이 작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하니, 패한 죄에 비하면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내가 평소에 매우 온당치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다. 외부의 공론은 어떠한가?” 하니, 이덕형이 아뢰기를, “외부의 공론은 모릅니다. 신이 지난해에 남방을 왕래하면서 그 고장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개는 모두 나라를 위해 죽은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전에 경상 우수사(慶尙右水使)로 있으면서 전쟁에 임했을 때, 사람들이 달려가지 않으면 칼로 그들을 쳤습니다. 그리하여 모두 원균 수사(元均水使)는 미련하다고 했지만, 그는 일에 임해선 강직했기 때문에 이순신을 잡아온 후 그를 임명하여 보냈습니다. 그런데 주위 제장(諸將)이 모두 이순신의 막하(幕下)여서 서로 의논하지 않아 원균의 세력이 고립되었습니다. 그때 한효순(韓孝純)이 체찰사(體察使)에게 보고하여 조치하려고 했는데 미처 못하고 원균이 패전한 것입니다. 제장들의 말은 비록 믿을 수 없으나 격군(格軍)의 말은 믿을 만도 합니다. 부산(釜山)에 가서 공격할 때 우리 나라 주사 90척이 곧바로 적을 행해 돌진하자 부지기수의 적선이 바다에 가득히 떠 오니, 우리 나라의 수호가 적은 주사로서는 도저히 당해낼 수 없어 한산을 행해 후퇴하는데 격군들은 밤낮 없이 노질하여 춘원포(春原浦)에 달았습니다. 적군들이 밤을 이용하여 정면으로 공격해 오는 바람에 힘이 지친 나머지 갑자기 당하는 변이어서 싸움도 하지 못하고 물이 마르듯이 다 도망쳐 1명도 전사자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진서(陣書)》에 ‘대장(大將)이 죽으면 차장(次將)을 참수한다.’ 하였는데, 원균이 이미 싸움에 패하여 죽었으니 그 휘하들을 비록 다 죽이지는 못할지라도 사실을 밝혀 군율에 의하여 처리해야 옳다. 지금 원균의 후인(後人)으로서 고관 대작(高官大爵)이 된 자가 많은데도 그 싸움에 패한 죄를 유독 원균에만 돌린다면 원균의 본심이 후세에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구천에 있는 그의 녀도 어찌 자기 죄를 승복하여 억울하게 여감이 없겠는가.” 하였다.

- 선조 134권 34년 2월 10일 (기묘) 3번째기사 / 대신 및 비변사 당상과 일본 침입에 대한 방비책을 상의하다
사시에 상이 별전에 나아가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였다.

…… (중략) ……

상이 이르기를, “이순신(李舜臣)이 승전한 뒤로 모두 주사(舟師)에 힘을 쏟고 있는데, 승패는 무상한 것이라 과연 주사에 주력하는 것이 필승의 계책이 될지 모르겠다. 그들이 만약 교전을 하지 않고 먼저 하륙(下陸)한다면 아무리 주사가 있더라도 해상에 떠 있기만 할 것이니,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주사에만 전력과 육지의 방비는 하지 않는

속담에 이른바 화살이 떨어진 곳에 과녁을 세운다는 격이 될 것이니, 이는 원대한 생각이 아니다.” 하니, 이런 국이 아뢰기를, “대체로 힘이 수륙(水陸)의 방비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할 뿐인데, 만약 하륙한다면 사실 상의 하교와 같은 상황이 될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하륙할 곳이 매우 많고 바닷길이 널리 통하니, 만약 방비가 허술한 곳으로 온다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전조(前朝) 때 왜적이 다수 나왔지만 임진년 변란과는 달라 전조에서는 그때마다 기복병(奇伏兵)으로 포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수백 년 동안 백성이 병란을 모르고 살았으니, 단번에 패하여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고,

- 선조 135권 34년 3월 14일 (임자) 8번째기사 / 비변사에서 호종 신하와 역전 장사의 녹훈에 대해 아뢰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호종했던 신하들이 오늘 함께 모였는데 큰 절목(節目)은 전일에 이미 상의하여 취품(取稟)하였습니다. 이몽학(李夢鶴)의 난 때에 공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반드시 홍가신(洪可臣)이 올라오기를 기다려 만나서 의논하여 마감해야 할 것인데, 듣건대 홍가신(洪可臣)이 지금 외방에 있다고 하니 급속히 하유하여 역말을 타고 올라오도록 하소서. 그리고 전일의 계사에, 적을 초멸한 신하에 대해서는 아직 원훈(元勳)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상의 결단을 감히 취품하여 먼저 원훈을 결정하려 하였는데, 삼가 대신이 헤아려서 하라는 전교를 받들었습니다. 대체로 녹훈을 마감하는 일은 반드시 원훈이 있는 것입니다. 경중을 헤아려 참고하는 것은 대신에게 의논하는 것이니, 그것은 신들이 원훈의 신하와 상의하여 하겠습니까. 그러나 원훈에 있어서는 신들도 감히 경솔하게 단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우선 전고(前古)의 사례를 들어 말하자면, 한 고조(漢高祖)가 원공(元功) 18위(位)의 순서를 조칙으로 정하고 그 나머지를 논공 행상하였습니다. 이로써 본다면 원훈을 정하는 것은 반드시 성상께서 결단하여야 합니다. 당시의 여러 문무신(文武臣) 중에서 역전(力戰)하여 공을 세운 자를 분명히 알 수 있으니, 성감(聖鑑)께서는 이미 통촉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결단을 내리소서. 그리고 전일 전교에 호종인을 녹훈하되 공이 있는 장사(將士)도 아울러 녹훈하도록 이미 명을 내리셨으니, 호종한 신하와 역전한 장사를 합해서 한 권(券)을 만들어야 할 듯한데, 오늘 호종한 여러 재신(宰臣)들과 반복해서 상의해 보니, 모두가 호종한 것과 역전한 것이 비록 같은 때의 일기는 하지만 그 명분과 사실이 서로 가깝지 않으므로 고하의 차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것이 형세상 매우 곤란하고, 명호(名號)를 의정(議定)할 때에는 반드시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번의 두 가지 일은 포함하여 하나의 명호로 정하기는 문세(文勢)로 보나 어의(語意)로 보나 서로 맞지 않습니다. 하나하나의 곡절이 이와 같이 서로 구애되므로 별도로 하나의 훈록을 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여깁니다. 감히 취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이번 왜란의 적을 평정한 것은 오로지 중국 군대의 힘이었고 우리 나라 장사(將士)는 중국 군대의 뒤를 따르거나 혹은 요행히 잔적(殘賊)의 머리를 얻었을 뿐으로 일찍이 제 힘으로는 한 명의 적병을 베거나 하나의 적진을 함락하지 못하였다. 그 중에서도 이순신과 원균 두 장수는 바다에서 적군을 섬멸하였고, 권율(權栗)은 행주(幸州)에서 승첩을 거두어 약간 나은 편이다. 그리고 중국 군대가 나오게 된 연유를 논하자면 모두가 호종한 여러 신하들이 어려운 길에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따라 의주(義州)까지 가서 중국에 호소하였기 때문이며, 그리하여 왜적을 토벌하고 강토를 회복하게 된 것이다. 별도로 훈명(勳名)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일찍이 생각해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호종한 사람을 녹훈할 적에 아울러 녹훈하도록 말했었다. 그러나 이는 대신들이 의논하여 처리하는 데 달렸다.” 하였다.

- 선조 136권 34년 4월 30일 (정유) 4번째기사 / 대신들과 논공 행상에 대해 논의하다
 비변사가 대신의 뜻으로 아뢰기를, “상께서 ‘여러 장수들을 별도로 녹훈(錄勳)하는 일에 대하여 여러 의논이 저러하니 여러 의논대로 하되 공의 고하(高下)에 대해서는 시안(試案)을 만들어 의정(議定)해서 아뢰면 발락(發落)하겠다. 유흥(兪泓)은 【평생을 탐오(貪汚)하게 지냈는데, 난리 이후로 더욱 심하였다. 말을 하자면 말하는 것 자체가 욕되는 일이다. 뼈는 이미 썩었지만 이름이 아직 남아 있기에 이를 기록하는 것이다.】 박천(博川)에 이르러서 스스로 뒤떨어져 세자에게로 돌아갔다. 이와 같은 사람의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니 그 근고(勤苦)함은 지극하다 하겠

, 처음부터 끝까지 호종(扈從)한 기준에는 들지 못한다. 아울러 녹훈에 넣는 것은 부당할 듯하다. 이몽원(李夢元)·이엽(李燁)·박승종(朴承宗) 등의 일도 이러하니, 의당 삭제해야 한다. 대개 다시 사실대로 자세히 조사하여 허위로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리고 전일 기록하여 입계한 단자(單子)를 내가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제 내려준다. 인원의 수효가 이번의 서계(書啓)와 상당히 다른데, 제궁(諸宮)의 배행(陪行)한 사람은 이번의 서계에서는 모두 삭제되었다. 그러나 그 중에 혹 그대로 둔 자도 있는데, 공이 같은 사람을 누구는 삭제하고, 누구는 그대로 두었으니 그 뜻을 모르겠다. 설사 의당 삭제해야 할 이름이라도 이미 전일 유사(有司)가 서계한 안에 있었으니, 당연히 품의하여 정해 서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중국에 청병하러 가고, 청병을 성사한 사신도 그 공을 같이 녹훈하지 않을 수 없으니 다시 참작해서 시행하라. 단자 2통과 반은기(頒銀記) 4통을 안에서 내린다.’고 전교하셨습니다. 이에 다시 이조와 병조에서 소장하고 있는 영유(永柔)에 있을 때의 서계 단자(書啓單子) 초고와 호조의 호종 급료 문서(扈從給料文書)를 가져다 상고하여 보니, 전에 호조에서 취품한 공사(公事)로 인하여, 위에서 전교하신 내용에 ‘대체로 제궁의 하인(下人)은 하지 말라. 단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뒤떨어졌었는데도 지금은 「호종하였다.」 「호종하였다.」 고들 하니 허위의 일이 없지 않다. 자세히 살펴서 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신들은 제궁의 하인들은 각기 제궁을 따라 갔고, 전적으로 호종하지 않은 사람들로써, 그냥 따라온 군신(群臣)과 다름이 없으므로 이런 전교를 내리신 것이라고 잘못 인식하고서 감히 서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하교를 받으니 매우 황공스럽습니다. 다시 제궁의 하인 단자를 상고해서 별도로 기록하여 아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김득지(金得祉)·변희량(邊希良)·한덕량(韓德良) 등은 처음 서울을 출발할 때에는 모두 제궁의 배행(陪行)하는 인원으로 따라갔는데, 영유(永柔)에 도착하여서 호종인(扈從人)을 서계할 때에는 이들이 이미 내수사의 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해조에서는 제궁의 하인류(下人類)에다 넣지 않고 다른 하인류에다가 섞어서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서계할 때에 신들은 영유에 있을 때 해조에서 서계한 단자만을 근거로 하여 분류해서 등서하였을 뿐으로, 위와 같은 곡절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가 이번 하교를 받들고 나서야 비로소 보고 듣게 되어 잘못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신들이 보고 들지 못한 자가 혹 없지 않을 것이니 이 역시 추후 자세히 조사해서 아뢰겠습니다. 유홍의 일은 상의 하교가 과연 윤당하십니다. 그의 아들 유대건(柳大建)도 유홍을 따라갔는데 유홍이 녹훈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니, 유대건도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이몽원(李夢元)·이엽(李燁)·박승종(朴承宗)은 신들의 계사로 인하여 삭제하라는 하교가 계셨기 때문에 유홍 이하를 아울러 부표(付標)하여 들입니다. 이상의 몇 사람에게 대해서는 우선 중론(衆論)에 따라 자세히 조사하여 아뢰겠습니다. 진효남(秦孝男)은 당초 서울에서부터 의주(義州)까지 호종한 것으로 녹계(錄啓)하였었는데, 지금은 진효남이 대가(大駕)가 도성을 출발한 뒤에 황해도 산길을 따라와 평양에 뒤미처 도착하였다고도 하고, 혹은 분명히 서울에서부터 호종하여 갔다고도 합니다. 대체로 이 사람은 제궁의 사람에 관계되어 외부 사람의 종적과는 다름이 있으므로 신들로서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상계서는 필시 통촉하시고 계실 것이기에 그가 시종 호종하였는지에 대하여 감히 여쭙니다. 그리고 최흥원(崔興源)은 황해도 도순찰사가 되어 종사관(從事官) 유영경(柳永慶)과 같이 일로(一路)의 여러 일을 조치하기 위하여 대가보다 먼저 본도(本道)로 갔는데, 최흥원은 낙점(落點)을 받아 왕세자를 배행(陪行)하였고, 유영경은 대가를 호종하여 모두 시종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원익(李元翼)은 평안도 순찰사로 최흥원 등과 같은 때에 명을 받고 먼저 서로(西路)로 갔는데, 또 낙점을 받아 평양에 남아 지키다가 평양이 함락된 뒤에 의주(義州)로 입조(入朝)하였고, 또다시 본도 관찰사로서 순안(順安)으로 나가 주둔하였었습니다. 이로써 말한 다면 행조(行朝)에 출입한 것은 모두가 공무로 인하여 왕래한 것입니다. 이병(李甕)은 【본성이 거칠고 교활하여 행검(行檢)을 무시하고 공명(功名)을 붙좃는 것으로 일삼았다.】 당초 왕세자 배시 단자(王世子陪侍單子)에 참록(參錄)되었었는데, 이번의 회의에서 혹은 일로 인하여 나갔기 때문에 그대로 배행하지 못했었다고 하였습니다. 신들은 그러하다면 서울에서부터 정주(定州)까지 계속 호종한 자와는 다름이 있으므로 참록하는 것은 미안한 일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정원일기(政院日記)》를 자세히 상고하고 보고 들은 사람의 말을 참고해 보니, 이병은 임진년 12월에 왕세자를 배행하고 용강(龍岡)에 도착하였을 때, 대조(大朝)로부터 여천 찰방(魚川察訪)에 제수되었고, 또다시 대동 찰방(大同察訪)에 제수되었다가 병으로 인하여 체직되었었는데, 당시 왕세자가 영변(寧邊)에 있었으므로 다시 영변으로 가서 그대로 배시(陪侍)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비록 왕래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는 모두 공사로 인하여 출입했던 것이고, 스스로 뒤떨어진 일은 별로 없었으므로 군의(群議)가 모두 함께 참록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중국에 청병 사신(請兵使臣)으로 갔던 정곤수(鄭崑壽)와 서장관 심우승(沈友勝)은 이미 호종 단자에 들어 있으니 다시 의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밖에 지중추부사 신점(申點) 【탐비(貪鄙)한 성품이 늙어가면서 더욱 심하였다.】 과 서장관 정기원(鄭期遠)은 중국에 있을 때에 변란의 소식을 듣고 즉시 호소하여 중국군이 출정하는 바탕이 되었으

, 이제 전교하신 뜻으로 보건대, 정곤수 등 외에 신점 등의 공도 아울러 참록해야 할 듯합니다. 감히 아울러 품의 합니다. 또 전교하신 중에 제장(諸將)들의 공의 고하(高下)에 대하여서는 전일에 하교하신 이순신(李舜臣) 등은 모두 이미 죽었기 때문에 지금은 생존한 원훈(元勳)으로 주관해서 마련할 만한 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호종한 자의 등급을 매기는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원훈이 결정되어야만 비로소 마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일에도 성명(聖明)께서 결정해 내려주실 것을 청하였으나 위에서 아직까지 지명하여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삼가 결정하여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니, 비망기로 전교하기를, “전에 내려준 하인(下人)의 치부(置簿)와 반은기(頒銀記)는 마침 안에서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밖에 내려서 알도록 했을 뿐으로, 이에 의거해서 논공(論功)하여 외람스러운 폐단이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 중에 흑시라도 다행히 논공해야할 사람이 있으면 뒤에 다시 조사하여 내리겠으며 이 단자는 우선 안에다 보관하겠다. 최흥원 등에 관한 일은 참으로 그러하니 아뢴 대로 하도록 하라. 다만 유명경은 이 계사에 ‘대가를 호종하여 끝까지 떠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일찍이 해조에서 서계한 단자에는 왜 이름이 없었으며, 최흥원은 종사관까지 아울러 아뢰면서 이원익은 어찌하여 종사관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았는가? 이병은 ‘임진년 12월에 세자를 배행하여 용강에 도착했었다.’고 하였는데, 그 전까지는 떠나지 않고 계속 배행하였는가? 신점에 관한 일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라가 회복된 것은 오로지 중국 군대의 힘에 의해서인데, 중국 군이 이곳에 나오게 된 것은 의주(義州)로 갔었기 때문이다. 의주의 수신(守臣)과 그곳의 백성들이 베풀어준 충근(忠勤)한 수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다. 또 평양에 있을 때 황망하여 열성(列聖)의 어보(御寶)를 모두 감사에게 주었었는데, 그 당시 감사가 받아서 보관하였다가 왜적이 물러간 뒤에 국가에 전해오는 대보(大寶)를 손상됨이 없이 바쳐서 옛물건을 잃지 않도록 하였으니, 이러한 사람들도 모두 논공하여야 한다. 대체로 자세하게 조사해서 공이 있는 사람은 모두 녹훈되도록 하여 누락된 자가 없도록 하고, 공이 없는 자가 외람하게 끼여들지 않도록 한결같이 지공(至公)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당시 시종 호종하였던 자는 모두가 나와 환란을 함께 한 사람들이다. 만일 호종하고서도 누락이 된다면 개자추(介子推)의 원통함이 전대에만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영상은 도승지로서 나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또 병판(兵判)이 되어서 어려움을 당하여 있는 힘을 다 바쳤으며, 정곤수는 중국군을 얻어서 돌아왔으니, 나의 생각으로는 경들 2인이 당연히 원훈이 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나는 요즈음 정신이 더욱 혼미하니 경들이 다시 더욱 자세히 살펴서 하도록 하라.” 하였다.

- 선조 149권 35년 4월 20일 (신해) 1번째기사 / 서천군 정곤수가 이항복을 출사케하도록 아뢰다

서천군(西川君) 정곤수(鄭崑壽)가 【사람됨이 박식하고 단아하였으며 성보(姓譜)에 능했다. 임진 왜란 때 이항복 등과 함께 호종하였고 고급사(告急使)로 경상(京師)에 가 대병을 청해 평양의 왜적을 토벌하였으므로 이항복과 함께 원훈(元勳)이 되었다.】 아뢰기를,

…… (중략) ……

사신은 논한다. 삼가 살피건대 오늘날 녹공해야 할 공신의 종류는 셋이니 호종(扈從)·토역(討逆)·평왜(平倭)가 그것이다. 이 세 가지 공훈에 대해서는 진실로 보답하지 않을 수 없는 국가의 중대사이다. 그러나 호종과 토역은 본디 그러한 사람이 있으니, 등급이 혹 공평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심한 과오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평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중국 조정의 덕택이었으니 우리 나라 장사(將士)는 진실로 평왜에 해당시키기가 어렵다. 그러나 그 중 힘을 쏟은 이에 대해서는 녹공하지 않을 수 없는데 권율(權慄) · 이정암(李廷翰) · 이순신(李舜臣) · 원균(元均)같은 이들은 또한 표표하게 공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미 죽었으니 누구를 원훈으로 삼아 참된 공로를 논의하여 정할 것인가. 그 나머지는 지혜나 공력들이나 것이 비슷하고 공도 서로 같은 이가 수없이 많은데, 취사(取舍)하고 여탈(與奪)할 때에 혹 공정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마다 원망을 품고는 반드시 불평하는 기색이 있을 것이다. 이는 진실로 쉽사리 논의하여 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유식한 이들이 걱정하는 바였다

- 선조 151권 35년 6월 11일 (신축) 2번째기사 / 김시현이 아버지 김제갑의 순절에 대한 설명, 살인죄에 대한 변명을 하다

(副司直) 김시헌(金時獻)이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 경연(經筵)에 출입한 지 10년이 넘었으니 실로 일대의 명류(名流)라고 할 만하다. 임진년 난리에 아버 김제갑(金梯甲)이 적에게 죽음을 당하자 복수군(復讐軍)의 별장으로 서 영호남(嶺湖南) 지방에 갔는데 유사(儒士) 채유희(蔡有喜)를 장살(杖殺)한 후로 날마다 주색(酒色)만 일삼았다. 그러자 통제사(統制使) 이순신(李舜臣)은 무인인데도 편지까지 보내 책망하기를 ‘복수군의 이름을 지니고서 복수를 한 실적이 없으니 부끄럽지 않는가.’ 하였다.】 상소하였다.

- 선조 152권 35년 7월 23일 (임오) 1번째기사 / 비변사에서 청난·정왜 등 유공자에게 합리적인 상을 주도록 제안하다
비변사 낭청(郎廳)이 대신의 의견으로 아뢰기를, “전일 공신 도감(功臣都監)의 계사(啓辭)에, 청난(淸難)·정왜(征倭) 공신을 주관하여 마련할 원훈(元勳)을 대신들로 하여금 의논해서 계품하여 시행하게 할 것을 청하였는데, 윤희를 내리셨습니다. 청난 공신은 전년에 홍가신(洪可臣)에게 주관하여 마련케 했으니, 홍가신을 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하시어 마감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정왜 공신은 권율(權慄) · 이순신(李舜臣) 등이 모두 이미 죽었으니, 이 밖에 주관하여 마련할 사람들로 어떤 사람이 합당할지 신들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회복한 공로는 모두 성상께서 지성으로 사대(事大)하시어 중국 조정에서 곡진하게 구제해 준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 나라의 여러 신하들에게 조금 수고한 공로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또한 직분 내의 일이니 특별히 기록할 만한 공로가 뭐 있겠습니까. 신들의 생각으로는 호종(扈從)과 정왜를 구별해서는 안 될 듯싶습니다. 전진(戰陣)에서 뛰어나게 힘을 발휘한 자들에 대해서는 상께서 이미 통촉하고 계실테니 몇 명 정도 뽑아 내어 융통성 있게 마련한다면 사체에 합당할 듯합니다만 오직 상께서 재량하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정왜 공신에 참록(參錄)된 자들이 호종한 여러 신하에 비해 지나치게 소략하게 되면 뒷날 장사(將士)들의 마음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이 점 역시 염려가 됩니다. 감히 아올러 아립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윤희한다. 여러 사람들의 의논이 이와 같다면 함록(含錄)하는 것도 좋겠다. 다만 이번의 적변(賊變)은 전에 없던 변고로서 이는 변변찮은 나로 말미암은 소치이다. 그런데 중국 조정에서 군사를 동원하여 적을 몰아내고 강토를 회복했으니 이 또한 옛날에 없던 공적이다. 이것은 호종했던 여러 신하들의 충성스러웠던 덕분이니, 어찌 다른 사람들이 한 일이겠는가. 또 힘껏 싸운 장사(將士)들에 대해서는 그 공을 기록하지 않을 수 없겠으나 우리 나라 장졸에 있어서는 실제로 적을 물리친 공로가 없다. 그 중에서 창작하여 합당하게 마련하되 외람되게 해서는 안된다. 대개 함록할 것인지의 여부는 원훈으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여 창작해서 조치하도록 하라.” 하였다.

- 선조 159권 36년 2월 12일 (기해) 5번째기사 / 장계와 소문을 통해 공신 도감과 각인의 왜인 정벌의 공에 대해 논의하다
공신 도감이 아뢰기를, “정왜(征倭)의 공(功)에 대해서 지금 마련했는데, 신들은 모두 진중(陣中)에 있으면서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아니므로 단지 그 당시의 장계와 소문에 뚜렷하게 드러난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임진년에 순안(順安)에 진을 치고 적로(賊路)를 차단하여 행조(行朝)의 성원(聲援)이 되고 중국군으로 향도(嚮導)하고 토병(土兵)을 수합(收合)하여 모양을 이룰 수 있게 한 것은 순찰사 이원익의 공인 듯합니다. 전에 신들이 왜적을 치는 데 구관(句管)한 공이 있었다고 계청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순신과 원균의 바다에서의 승전과 권율의 해주에서의 승전은 전교대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억기(李億祺)는 전라 수사로서 초반의 한 곳 싸움에는 참가하지 않았으나 그 후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였습니다. 권응수(權應銖)는 영천(永川)에 있는 적을 공격하여 좌도(左道)를 보전시켰고, 김시민(金時敏)은 진주(晉州)를 지키면서 성을 보전하고 적의 명장을 죽여 왜국에까지 소문이 나게 하였습니다. 이정암(李廷菴)은 연안성(延安城)을 지켜 보전하므로써 강화(江華)를 통행하기에 지장이 없게 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드러나게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진주성을 지키는 때 이광약(李光岳)이 곤양 군수(昆陽郡守)로 성중(城中)에 들어가 처음에는 성 지키는 일을 지휘하다가 시인이 전사한 뒤에는 힘껏 싸워 적을 물리쳤습니다. 이순신과 원균의 해상전(海上戰)에 있어서는, 이순신은 권준(權浚) · 이순신(李舜臣) · 안위(安衛) · 배흥립(裵興立)의 공이 크다

하였고 원균은 이운룡(李雲龍)·우치적(禹致積)의 공이 다른 사람보다 크다고 하였습니다. 이순신과 원균은 이미 수공(首功)에 참여되었으니 그들의 편장(裨將)들의 논공(論功)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권율의 행주의 싸움에서 조경(趙敬)이 중위장(中衛將)이 되어 협력하여 지휘하였으니 이 편비(裨裨)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응서(金應瑞)와 고언백(高彦伯) 등은 대진(對陳)하여 승전한 공은 없으나 여러해 동안 싸움을 한 공이 있는데 이들 역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병들은 비록 크게 공을 세우지는 못하였으나 그 가운데에서 먼저 의병을 일으켜 한쪽 방면을 보전한 자는 불가불 논상하여야 합니다. 경상우도가 보전된 것은 실로 곽재우(郭再祐)의 힘에 말미암은 것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개 녹훈(錄勳)을 마련할 때에 호종(扈從)에 대해서는 많게 하고 이들에게는 너무 소략하게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실망할 뿐만 아니라 공로에 보답하고 뒷사람들을 권장함에 있어서도 미안한 듯하기에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우리 나라의 장사(將士)들이 왜적을 막는 것은 양(羊)을 몰아다가 호랑이와 싸우는 것과 같았다. 이순신과 원균의 해상전이 수공(首功)이고 그 이외에는 권율의 행주 싸움과 권응수의 영천 수복이 조금 사람들의 뜻에 차며 그 나머지는 듣지 못하였다. 간혹 그 가운데에 잘하였다고 하는 자도 겨우 한 성을 지킨 것에 불과할 뿐이다. 논공(論功)을 함에 있어서는 조정의 의논을 따르겠다. 다만 반드시 지극히 공평하게 하여 외람되지 않게 하라. 또 여러 해 동안 싸운 공을 논한다면 김응서와 고언백 두장수에 그치지 않을 것이니, 참작해서 시행하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공로에 보답하는 것은 국가의 막중한 행사이다. 막중한 행사인데도 사람들에게 가볍게 시행하였으니 어찌 매우 애석한 일이 아니겠는가. 호종한 것을 녹공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육지(陸贄)가 일찍이 말하였다. 가령 육지가 조금이나마 공로에 보답하는 방도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시에 호종한 신하들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더구나 요리나 하고 말고뿐나 잡던 천한 자들까지 모두 익운의 반열에 참여시켜 이름이 맹부(盟府)에 들어 있는 자가 35인이나 되게 하였으니 어떻게 후세의 비난을 면할 수 있겠는가. 정왜(征倭)의 공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비록 중국 장사(將士)들의 공이라고는 하나 대진(對陣)하여 승전한 공이 없지 않았다. 그런데 호종한 신하들은 많이 참여시키고 싸움에 임한 장사들은 소략하게 하였으니, 공에 보답하는 방도를 잃었다고 할 만하다.

- 선조 159권 36년 2월 15일 (임인) 2번째기사 / 이회의 노모가 병이 중하자 식물을 제공하게 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이회(李薈)가 노모(老母)의 병이 중하다는 이유로 정사(呈辭)하였는데, 이회는 바로 이순신(李舜臣)의 아들이니 순신의 처(妻)가 생존해 있는 것이다. 본도(本道)에서 식물(食物)을 제공(題給)하게 하라.”
- 선조 160권 36년 3월 4일 (경신) 6번째기사 / 공신 도감이 이순신·권응수·정기룡 등 전공이 있는 이들을 취품하다
공신 도감(功臣都監)이 아뢰기를, “우리 나라의 장사(將士)가 전진(戰陣)의 노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드러나게 적을 격파한 자를 찾는다면, 세력이 상대가 안 되어 양을 몰아다가 호랑이를 공격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던 것은 참으로 성교(聖敎)와 같았습니다. 이순신(李舜臣) · 권율(權慄) · 원균(元均) · 권응수(權應銖) 등 약간 인을 제외한 그 나머지 제장(諸將)들은 뛰어난 자가 없습니다. 김응서(金應瑞)·고언백(高彦伯)은 여러해 동안 전쟁에 임했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취품(取稟)합니다. 신들이 다시 함께 상의한 바 임진년 난리 때 박진(朴晉)이 황산(黃山)을 차단하다가 힘이 부쳐 후퇴한 뒤에도 군병들을 수습, 지휘하여 교전(交戰)하게 하였습니다. 권응수가 영천(永川)을 공격한 일 같은 것도 박진이 가려 보낸 데에서 연유한 것으로 그 공을 없앨 수 없습니다. 정기룡(鄭起龍) · 한명련(韓明璉) · 이수일(李守一) · 김태허(金太虛) · 김응함(金應緘) · 이시연(李時彦)도 모두 힘써 싸운 노고가 있는데 더러 수전(水戰) · 육전(陸戰)에 참전한 공도 있습니다. 김응서 · 고언백 등의 공을 논할 경우에는 이들도 마찬가지로 의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김시민 등은 아뢴 대로 하라. 주사(舟師)의 편비(裨裨)는 모두 기록하여 헤아려 조치하라. 육군(陸軍)의 장수는 별달리 적의 예봉을 꺾은 일이 없는데 같이 기록하면 외람됨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만약 수고한 바가 있다고 한다면 혹 특별히 가자(加資)하여 올려 서용해도 되겠지만 훈공(勳功)이 있다고 하는 것은 모를 일이다. 고언백은 왜적을 체포하여 능(陵)을 보호한 공이 있으니, 녹훈(錄勳)하는

마땅할 듯하다.” 하였다.

- 선조 161권 36년 4월 21일 (정미) 2번째기사 / 군공청 혁파에 대해 의논케 하다

군공청(軍功廳)의 계목(啓目) 공사(公事)로 정원에 전교하였다. 【비망기(備忘記)였다.】 “군공청의 공사는 내가 지금도 전말을 모르겠으므로 우선 이 계목만 가지고 말하겠다. 이순신(李舜臣)은 당초에 왜적을 쳐부수었을 적에 통제사의 관직을 제수하여 정헌 대부(正憲大夫)에 이르렀고 그가 죽은 뒤에는 정승으로 증직(贈職)하였으니, 논공(論功)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18자급(資級)을 대가(代加)하려고 함은 무슨 이유인가? 설사 대가(代加)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왕자(王者)의 상이 어찌 18자급이나 줄 수 있겠으며, 또한 사리에 어긋나 나라의 체모에 손상이 없겠는가? 또, 아무는 수급(首級) 몇을 베고 아무는 적 몇을 죽였다는 것도, 베인 것과 죽인 것을 모두 머리를 바치도록 하여 실지인지를 고찰해 본 것인가? 어디에 근거하여 반드시 누가 몇을 베고 누가 몇을 죽였는지를 안 것인가? 사살(射殺)한 것을 상중에 있어서는 더욱 우스운 일이다. 먼 옛날 현원(軒轅)이 탁록(涿鹿)에서 치우(蚩尤)와 싸운 때부터 만력(萬曆)시절에 파주(播州)의 적(賊)을 무찌를 때까지 일찍이 오늘날처럼 사살한 것으로 군공(軍功)을 논한 일을 보았는가? 싸움이 한창 어지러울 때 어떻게 누구는 몇을 사살하고 누구는 몇을 쏘아 맞추었는지를 알 수 있겠는가. 설사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어디에 근거하여 그의 말을 꼭 믿을 것인가. 우리 나라에서 사살했다는 수효를 가지고 왜적의 군사를 헤아려 본다면 일본의 군사는 이미 다 없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참으로 왜적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후세에 비난을 남길까 염려된다. 대저 임진년에서 지금까지는 12년이 되고 정유년에서 지금까지는 7년이 되는데도 논공과 시상(賜賞)을 아직도 끝내지 못하고 있다. 군공청이라는 것을 둔 것이 태만한 관원과 교활한 하리(下吏)들이 농간하는 곳이 되어 그 동안의 일을 이루 다 말할 수 없고 국정을 심하게 어지럽히는 것이 이보다 더한 것이 없는데도 과감하게 그것의 옳고 그름을 논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제는 마땅히 군공청을 혁파하여 하나라도 쓸데 없는 관원을 덜어버려야 할 것이니, 의논하여 아뢰라고 비변사에 이르라.” 【임진년에 이순신이 전라 좌수사(全羅左水使)로서 전함을 거느리고 경상 우수사(慶尙右水使) 원균(元均)과 함께 거제도(巨濟島) 앞바다에서 왜적과 싸워 크게 쳐부수고 왜적의 배 50여 척을 포획하여 전란(戰亂) 이래 제일의 공을 세웠다. 그러나 그때에 계책을 마련하여 먼저 올라갔던 것은 모두 원균의 솜씨에서 나온 것이고, 이순신은 다만 달려와서 구원했을 뿐이었다. 크게 승전한 뒤에 원균이 행조(行朝)에 치보(馳報)하려고 하자, 이순신이 속이기를 ‘공(公)과 협력하여 일을 한다면 왜놈들은 섬멸하고 말고 할 것도 못되는데 이러한 소소한 승전을 어찌 조정에 치계(馳啓)할 필요가 있겠는가. 내가 다른 도(道)에서 급작스럽게 구원하러 왔기에 병기를 갖추지 못했으니, 왜적에게서 노획한 것을 써야 하겠다.’ 하니, 원균이 그대로 따랐다. 그러고는 이순신은 비밀히 사람을 시켜 노획한 병기와 왜적의 배에 실려있던 금병(金屏)·금선(金扇) 등의 물건을 가지고 가 행조에 치계하도록 하여 과시하였으므로 전공(戰功)이 모두 그 자신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이때 행조는 한창 다급한 때였으므로, 치보를 받고 크게 기뻐하여 이순신을 통제사로 제수하고 윤원으로 하여금 이순신의 지휘를 받게 하니, 원균이 이 때문에 크게 화가 나 드디어 서로 협조하지 않았다. 그 뒤 정유재란(丁酉再亂) 때에는 원균이 통제사가 되었는데, 왜적의 기세를 대적할 수 없음을 알고 한산도(閑山島)로 물러나 지키고만 있고 싸우지 않으려고 하자 조정에서 매우 급박하게 싸움을 독려하여 원수(元帥)로 하여금 장벌(杖罰)하게 하였다. 이에 원균이 마지 못하여 싸우다가 패전하여 죽었다. 이순신이 다시 이를 대신하여, 제독(提督) 진인(陳璘)을 따라가 순천(順川) 앞바다에서 왜적을 쳐 거의 크게 승전을 거두게 되었을 때 왜적의 탄환을 맞아 배 안에서 죽었다. 이순신은 재질과 기운이 남보다 뛰어나 중국 사람들도 명장이라 일컬었다.】

- 선조 161권 36년 4월 28일 (갑인) 2번째기사 / 공신 도감에서 공신 등급을 정한 일에 대해 아뢰다

공신 도감(功臣都監)이 【당상(堂上)은 이항복(李恒福)·이호민(李好閔)·황진(黃瑾)·홍가신(洪可臣)·박명현(朴名賢)이다.】 아뢰기를, “전후의 왜적을 정벌할 때에 공로가 있는 사람들을 의의(擬議)하여 취품(取稟)한 것은, 이원익(李元翼)·이순신(李舜臣)·권율(權慄)·원균(元均)·권응수(權應銖)·김시민(金時敏)·이정암(李廷翰)·곽재우(郭再祐)·이억기(李億)

·권준(權俊)·이순신(李純信)·이운룡(李雲龍)·우치적(禹致績)·배흥립(裵興立)·박진(朴晉)·고언백(高彦伯)·김응서(金應瑞)·이광악(李光岳)·조경(趙敬)·정기룡(鄭起龍)·한명련(韓明璉)·안위(安衛)·이수일(李守一)·김태허(金太虛)·김응함(金應緘)·이시언(李時言) 등 26인이었습니다. 지금 상의 분부를 받들고서 다시 참작하여 헤아려 보건대, 김시민과 이광악 등을 이미 녹공(錄功)하였으니 이정암이 연안(延安)에서 성을 지켜낸 공도 또한 마땅히 김시민 등의 예에 의해 마련해야겠습니다. 주사(舟師)의 편비(褊裨)에 있어서는 이순신(李舜臣)의 휘하에는 권준·이순신(李純信)·배흥립이고 원균의 휘하에는 이운룡·우치적이데, 그 당시의 각 장계(狀啓)를 조사해 보건대, 이순신의 장계에는 권준 · 이순신의 이름이 일등의 첫 머리에 있고, 원균의 장계에는 이운룡·우치적의 이름이 등급을 논할 때는 다른 사람의 아래에 있고 또 다른 장계에는 ‘이 두 사람의 공보다 앞설 사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당초에 뽑아 내어 취품한 것은 단지 들은 바 주사(舟師)들의 의논이 그와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마는 원균과 이순신의 두 장수가 공을 다투느라 틈이 있는데다가 또한 이운룡·우치적 등의 은상(恩賞)이 복구된 일로 인하여 유감이 더욱 깊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성명을 먼저 들게 된 것입니다. 나타나 있는 문안(文案)으로 말한다면, 이순신의 장계는 비록 과장한 것인 듯하나 분명히 의거한 데가 있는데 비해 원균의 장계는 당초부터 군공(軍功)의 등급에 있어 분명하지 못하여, 어느 때는 이운룡과 우치적 두 사람을 다른 사람들 밑에다 넣었다가 그 뒤의 장계에는 으뜸 공이라고 했으니 앞뒤의 전도가 심한 편입니다. 공론이 비록 그럴기는 하지만 이 두 사람의 군공은 녹공하기 곤란할 듯합니다. 이순신의 장계에, 이름이 일등에 든 사람은 권준과 이순신(李純信) 두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운(鄭運) 같은 사람에 있어서도 이름이 1등의 셋째 번에 들었고, 본디 역전(力戰)한 사람으로 일컬어져 왔는데, 상께서 수효가 지나치게 많다고 경계하셨습니다. 정운이 이미 녹공되지 않았으니 배흥립도 마땅히 삭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때의 편비 중에 일등에 든 사람들은 우열이 없을 듯한데, 이미 주장(主將)이 없으므로 신들이 들은 것을 참작하여 첫머리에 든 두 사람만 뽑았습니다. 다만 공이 같은데 탈락된 사람들이 반드시 원성이 있을 것입니다. 신들이 날마다 머리를 마주대고 의논하여 감정했지만 합당하게 하지 못했으니, 부득이 이대로 처결하는 것이 어떨겠습니까? 이역기는 전라 우수사(全羅右水使)로서 이미 해상의 전투에 참여하였으니 녹공에 들어가야 함이 의심할 것 없겠으나 안위는 그 당시 일곱 번의 전투에 한 번도 참여 하지 않았으니 삭제하여야 할 듯합니다. 육장(陸將)들에 있어서는 별로 대단하게 적봉(敵鋒)을 겪었거나 적진을 함락시켰거나 한 공이 없었음은 과연 성상께서 분부하신 것과 같습니다. 고언백(高彦伯)은 비록 왜적을 사로잡고 능(陵)을 수호한 공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공로가 고언백과 비등한 사람이 또한 많은데, 고언백은 들어가고 다른 사람은 모두 들어가지 못한다면 못사람들의 마음이 반드시 섭섭하고 원통하게 여길 것입니다. 또 호종(扈從)했던 사람들은 많은 쪽으로 마련하고 왜적을 정벌한 사람들은 이처럼 약소하게 한다면 뒷날에 생길 근심을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일에 취품하였던 육장(陸將)들 중에서 다시 참작하여 뽑아내서 공로가 있는 사람은 모두 녹공을 하는 것이 어떨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그 사람들의 공로는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없으니, 충분히 헤아려 반드시 공평하고 올바르게 하여 사람들의 비난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온당하다. 속담(俗談)에 ‘친구 덕으로 공신(功臣)이 되었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이 농담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런 일이 혹은 틀림없는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의 일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니, 오해하지 말라. 다만 그 일을 신중하게 하여 종정(鍾鼎)에 녹훈(錄勳)하는 일을 한결같이 공정하게 하고 흑시라도 외람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만약 실지로 공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찌 논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 선조 162권 36년 5월 11일 (병인) 7번째기사 / 고경명의 사당에 편액을 하사하고 제사하는 일에 대해 의논하다
전 감찰 박지효(朴之孝)가 상소하여, 고경명(高敬命)의 사우(祠宇)에 편액(扁額)을 하사하고 본주로 하여금 봄·가을로 치제하게 하기를 청하니, 상이 예조로 하여금 의논하도록 하였다.

…… (중략) ……

상소 내용에 인용한 바 이순신(李舜臣)에 대해서는 조정에서 사우를 세우도록 명하고 편액을 하사했으며, 해마다 봄·가을에 향을 내려 치제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가지고 논한다면, 고경명과 이순신이 국가의 일을 위해 죽은 것은 똑같지만, 경명은 앞장서서 창의(倡義)한 것이 가상하여 충성을 다해 왜적을 친 공도 매우 큼니다. 순신은 향을 내려 치제하는 은전을 받고 있으니, 경명이 1등급 낮기는 하지만 청한 대로 본주에서 제사를 차리게 하더

외람된 포상(褒賞)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봄·가을로 향을 내리는 것은 사체가 지극히 중요한 일입니다. 순신의 일에 대해서는 조정에서 강정(講定)한 것이므로 감히 의논할 수 없지만, 신들의 생각에는 예법에 있어서 온당하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고경명에게 치계하는 일을 신들이 감히 그들이 진달한 대로 위에 주청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한번쯤 사람을 보내 치제하게 한다면 또한 선비들의 마음을 격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때의 은전에 관한 일이니 상께서 재결하시어 시행함이 어떨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고경명의 충성은 지극히 가상하다. 그러나 이순신과 동등하게 논할 수는 없으니, 사적으로 세운 사우에 편액을 내리고 관아에서 치제하는 것은 지나친 듯하다. 편액을 내리는 일이 합당한지의 여부를 대신들에게 물어보라. 사우를 세운 이후에 관원을 보내 치제하는 것은 불가할 것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 선조 163권 36년 6월 25일 (경술) 3번째기사 / 이덕형·이항복 등이 익운 공신 등급의 일을 아뢰다

영의정 이덕형(李德馨), 오성 부원군(鰲城府院君) 이항복(李恒福), 좌의정 윤승훈(尹承勳), 우의정 유영경(柳永慶), 대제학 이호민(李好閔), 우참찬 황진(黃璉)이 아뢰기를, “익운 공신(翊運功臣)들이 등급을 마련해야 하겠기에 충훈부에 있는 녹권(錄券)의 전례를 조사해 보니, 정사 공신(定社功臣)의 경우 태종 대왕이 정안공(靖安公) 시절에 일등 공신의 첫머리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왕세자도 종묘와 사직을 호위한 공로가 있으니 마땅히 그전의 예대로 처리해야 할 듯합니다. 왜적을 정벌한 여러 장수들 중에 안위(安衛)는 행상의 대전에는 미처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순신(李舜臣)의 장계에 마련한 군공의 내용을 보면 권준(權俊)이 첫머리에 있고, 이순신(李純信)이 둘째에 있으며, 정운(鄭運)은 셋째에 있고, 배흥립(裵興立)은 넷째에 있습니다. 인원수가 많은 듯하여 그 중에 우등한 사람을 뽑다보니, 정운은 빠지고 배흥립은 참여하여 일이 미안스럽게 되었습니다. 정운을 추가하여 녹공할 수 없다면 이 두 사람도 앞서의 계사대로 산개(刪改)하는 것이 어떨겠습니까?

• 선조 163권 36년 6월 26일 (신해) 2번째기사 / 원군의 등급에 대해 의논하다

비망기로 이르기를, “원군을 2등에 녹공해 놓았다마는, 적변이 발생했던 초기에 원군이 이순신(李舜臣)에게 구원해 주기를 청했던 것이 이순신이 자진해서 간 것이 아니었다. 왜적을 토벌할 적에 원군이 죽기로 결심하고서 매양 선봉이 되어 먼저 올라가 용맹을 떨쳤다. 승전하고 노획한 공이 이순신과 같았는데, 그 노획한 적괴(賊魁)와 누선(樓船)을 도리어 이순신에게 빼앗긴 것이다. 이순신을 대신하여 통제사가 되어서는 원군이 재삼 장계를 올려 부산(釜山) 앞바다에 들어가 토벌할 수 없는 상황을 극력 진달했으나, 비변사가 독촉하고 원수가 억박지르자 원군은 반드시 패전할 것을 환히 알면서도 진(鎭)을 떠나 왜적을 공격하다가 드디어 전군이 패배하게 되자 그는 순국하고 말았다. 원군은 용기만 삼군에서 으뜸이었던 것이 아니라 지해도 또한 지극했던 것이다. 당(唐)나라 때 가서한(哥舒翰)이 가슴을 치면서 동관(潼關)을 나섰다가 마침내 적에게 패전하게 되었고, 송(宋)나라 때 양무적(楊無敵)이 반미(潘美)의 위협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싸우러 나갔다가 적에게 섬멸된 것이 어찌 이와 다르겠는가. 고금(古今)의 인물들을 성공과 실패만 가지고는 논평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원군이 지해와 용기를 구비한 사람이라고 여겨 왔는데, 애석하게도 그의 운명이 시기와 어긋나서 공도 이루지 못하고 일도 실패하여 그의 역량이 밝혀지지 못하고 말았다. 전번에 영상이 남쪽에 내려갈 때 잠시 원군을 민망하게 여기는 뜻을 가졌었는데, 영상이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오늘날 공로를 논하는 마당에 도리어 2등에 두었으니 어찌 원통하지 않겠는가. 원군은 지하에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다. 정운(鄭運)은 배흥립(裵興立)의 일 때문에 삭제하였다. 이순신이 여러 장수들을 모아 놓고 구원하러 가기를 의논할 적에 정운이 극력 찬동했었고, 왜적을 토벌할 때에도 정운의 공이 많았었다. 결국 힘을 다하여 싸우다가 죽었으니 이는 정운이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이다. 배흥립이 범람하다는 것 때문에 마땅히 녹공해야 할 정운까지 아울러 삭제할 수는 없는 일이니, 정운을 녹공해야 함은 의심할 것이 없다. 회복(恢復)하게 된 공로가 오로지 중국군에게 있었으니, 청병(請兵)하러 가서 소청을 얻어낸 사람들을 호종하지 않았다 해서 빠뜨릴 수는 없다. 심희수·유몽정이 이미 청병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은 참여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이 사람들은 버려 둘 수 없으니

참작해야 한다. 홍여순(洪汝諄)은 처음부터 호종했었는데도 지금 빠졌으니 이는 무슨 까닭인가? 홍여율(洪汝栗)은 적변이 발생했던 초기부터 직접 영정(影幀)을 지고 고초를 겪으면서도 온전하게 보호했었다. 이러한 그의 공로도 역시 빠뜨릴 수가 없으니, 녹공의 합당 여부를 의논해서 아뢰라. 당초에 4등급으로 구분한 뜻을 알지 못해서 이봉정(李奉貞)을 원종(原從)에 녹공하라는 것으로 전고했었다. 지금에 와서 이 녹공된 사람들을 보건대, 비록 처음부터 끝까지 호종한 사람이 아닌데도 역시 다른 공로로 참여된 사람이 있다. 이봉정의 경우는 승전색으로서 처음부터 호종하여 평양까지 갔다가 아버지의 상사를 듣고서 고향으로 돌아갔었으니 사사로이 스스로 물러간 것과는 다르다. 그는 본향(本鄉)인 용천(龍川)에서부터 다시 호종하고 의주까지 가느라 고초가 많았고, 주선한 일도 있었으니, 정훈(正勳)에 녹공하지 않을 수 없음이 또한 이러하다. 내가 비록 잘나지는 못했지만 어찌 감히 한 사람의 환시(宦寺) 때문에 경들을 턱없이 속여서 당연히 녹공해서는 안 될 사람을 함부로 여러 훈신들 사이에도 두려 하겠는가. 이봉정은 4등에 녹공해야 한다. 같은 등급 속에는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므로 차례를 논할 수 없으면 당연히 직품에 따라서 기록해야 할 것인데, 많은 사람이 바뀌어 놓여 있으니 좌차(坐次)에 있어서 온당지 못한 듯하다. 또 각 등급에 있어서의 상격(賞格)에 관한 전례를 알고 싶으니 모두 고찰해서 아뢰라. 산하대려(山河帶礪)의 훈공을 종정(鍾鼎)에 기록하는 것은 국가에 더없이 큰 일이니, 반드시 공평 정대하게 하여 공이 있는 사람을 빠뜨려서도 안 되며 공이 없는 사람을 함부로 써서도 안 된다. 우리 나라에는 전부터 친구 덕분에 공신이 되었다는 비난이 있었다. 이 말이 비록 맹랑하기는 하나 이로 인해 경계하기에는 좋은 말이니, 아무쪼록 조용하게 잘 살펴서 처리하라.” 하니, 회계하기를, “이번의 공신은 원수(元數)가 너무 많으니, 전에는 이렇게 많은 적이 없었습니다. 좌명 공신(佐命功臣)과 정국 공신(靖國功臣)은 그 수가 이번보다 적었는데도 4등급으로 마련했었기에 이번에도 또한 이 예에 의해 마련했던 것입니다. 원균은 당초에 군사가 없는 장수로서 해상의 대전에 참여하였고, 뒤에는 주사(舟師)를 패전시킨 과실이 있었으니 이순신·권율과는 같은 등급으로 할 수 없어서 낮추어 2등에 녹공했던 것인데, 방금 성상의 분부를 받들었으니 올려서 1등에 낼 것입니다. 정운은 수록하겠습니다만, 심희수와 유몽정은 청병하여 소청을 얻어낸 사람들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삭제하여 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여순은 평양까지 호종했다가 북도의 요해지(要害地)를 파수하는 일로 명을 받고서 대가(大駕)를 배사하고 의주로 들어갔었고, 뒤에는 경기의 삭녕(朔寧) 등지에 나가 군사를 모집하다가 9월 초에야 비로소 의주로 들어갔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호종한 사람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성명이 당초부터 원훈들이 의논하여 결정하는 속에 나오지 않은 것이었으므로, 감히 제기(提起)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홍여율과 이봉정은 또한 마땅히 수록하겠습니다. 상격에 관한 전례는 문서가 없어서 사고(查考)할 여유가 없었으니 곧바로 고찰하여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하자, 알았다고 답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위 헌공(衛獻公)이 망명했다가 위나라로 돌아올 적에 교외에 이르러 수종했던 사람들에게 고을을 나누어 준 다음 들어오려 하자 유강(柳莊)이 말하기를 ‘만일에 모두가 사직을 지켰더라면 누가 고삐를 잡고 따라갔을 것이며, 모두가 따라갔더라면 누가 사직을 지켰겠습니까. 임금께서 나라에 돌아와 사정(私情)을 쓰려 하시니 불가한 일이 아닙니까.’ 하니, 나누어 주지 않았었다. 환시는 나라 임금의 가노(家奴)로서 녹훈한 일은 고찰해 볼 데가 없다. 원균은 주함(舟艦)을 침몰시키고 군사를 해산시킨 죄가 매우 컸다.

- 선조 165권 36년 8월 17일 (경자) 3번째기사 / 공신 도감에서 공신의 등급에 대해 아뢰다

공신 도감(功臣都監)이 아뢰었다

…… (중략) ……

김응함(金應緘)은 당초에 대동 찰방(大同察訪)으로서 순안진(順安陣)에 있다가 공을 세워 당상이 되었고 그 뒤에는 이순신(李舜臣)의 중군(中軍)이 되어 노량대전(露梁大戰)에 참여하였으므로 그 공로가 많으나, 순안진의 제장(諸將)은 이미 뽑아내어 기록할 공도 없거니와 노량대전에도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순신·원균(元均)이 바다에서 싸운 것과 조목을 같이하여 논하였습니다. 안위(安衛)가 바다에서의 대전(大戰)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하여 삭제되었는데, 김응함만이 참록되는 것은 미안하니, 고쳐야 할 듯합니다. 또 같은 등급 안의 차서에도 혹 해아려서 낮추거나 높일 것이 있는데, 이것은 분부를 기다려 다시 품처(稟處)해야 하겠습니다. 사체가 엄중하므로 잘 헤아리고 의논하여 합당하게 하라고 힘쓰느라 감히 이렇게 곧 청하였다가 도로 고치곤 하니 매우 황공합니다. 감히 여쭙니다.”

- 165권 36년 8월 17일 (경자) 5번째기사 / 녹훈 삭제의 일로 공신 도감에 이르다
비망기로 일렀다. “전일 함께 면대하여 의논해서 감정하려다가 미처 못하였는데 언관(言官)이 논하였으므로 바야흐로 논하려던 일을 곧바로 의논할 수 없다. 이제 번거로이 논하길 마지 않아 이미 윤택하였으므로 별로 면대하여 의논할 일이 없다. 그러므로 면대하지 않은 것이니 이 뜻을 알라. 또 왕자(王子)가 호종하였지만 어찌 여기에 녹공되려 하겠는가. 먼저 삭제하라. 그 나머지 사람 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호종한 자와 군사를 청하러 간 자 이외는 다 삭제하라. 신잡(申礫)·안황(安滉)·구성(具晟)은 처음부터 호종한 사람이므로 다른 사람과 나란히 세울 수 없으니 3등에 두라. 김응수(金應壽)같은 자들은 매우 온당치 못하니, 제신(諸臣)과 마찬가지로 마련해야 마땅하다. 정왜(征倭)에 있어서는 이순신 · 원균 · 권율(權慄)이 1등이 되어야 마땅하고, 이 밖에는 다 삭제하라. 고언백(高彦伯)은 적을 토벌하고 능(陵)을 수호하였으니, 공이 있을 뿐이 아닌데 신하로써 어찌 감히 삭제하자고 말하겠는가. 그대로 두어야 하니, 이를 도감(都監)에 말하라.”

- 선조 175권 37년 6월 19일 (무술) 5번째기사 / 빈청이 공신 명칭은 정해졌지만 무장의 삭감에는 문제가 있음을 아뢰다
빈청이 재차 아뢰기를, “공신의 명칭을 두 가지로 나누는 일에 대해 윤택을 내리셨습니다. 전일 계하한 원단자(元單子) 내에 있는 응당 삭제해야 할 사람들을 부표(付標)하여 입계하고서 어람(御覽)하신 뒤 도로 계하하기를 기다렸다가 두 가지로 단자를 나누어 써서 입계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의 녹훈(錄勳)은 곧 온 나라의 더없이 큰 거조(舉措)인데 일을 시작한 지 4년이 되도록 아직 감정(勘定)을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대간(臺諫)의 의론이 다시 일어나 삭제하는 것과 그대로 두는 것이 무상(無常)하게 되어 사체에 해롭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신들이 감히 다시 말을 할 수 없기는 합니다마는 그 사이에는 진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정왜(征倭)한 무장(武將)들을 모두 삭제하고 나면 그대로 둘 사람은 단지 이순신(李舜臣) · 권율(權慄) · 원균(元均) · 고언백(高彦伯) 네 사람 뿐이고, 권응수(勸應銖)이하 의 제장(諸將)들은 모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진(戰陣)에 종사하며 시종 근로(勤勞)하던 사람들은 반드시 해이해져 장차 거듭 무사(武士)들을 실망시키게 될 것이니 관계되는 바가 작지 않습니다. 따라서 용이하게 감정할 수 없으니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감히 품합니다.” 하니,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답하였다.

- 선조 175권 37년 6월 19일 (무술) 6번째기사 / 빈청이 정왜 공신의 침삭에의 문제점과 2등에는 녹훈자가 없음을 아뢰다
빈청이 세 번째 아뢰기를,
..... (중략)
대저 신하된 사람이 공로가 있으면 맹부(盟府)에 이름을 기록하고 철권(鐵券)을 주는 것은 한때의 공로에 대해 상을 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곧 뒷사람들을 권면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이번에 삭제와 등록을 합당하게 하지 못하여 거듭 인심을 잃게 된다면 국사에 손실이 적지 않을 것이니, 성상께서 참작하여 재량하신다면 이보다 다행함이 없겠습니다. 또 두 공신들을 합하여 녹훈할 때에 이순신 · 권율 · 원균을 1등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의논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기원(鄭期遠)·권협(權挾)·유사원(柳思瑗)·고언백(高彦伯)은 3등에 들어갔는데 이제 이미 명칭을 나누었으니 이 네 사람은 또한 3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2등에는 녹훈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초 3등에 녹훈된 사람을 2등으로 올리는 것은 자못 온당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감히 품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나는 잘 모르니 대신이 침작해서 하도록 하라. 또 3등을 2등으로 올려도 무방하다.” 하였다.

- 175권 37년 6월 21일 (경자) 3번째기사 / 빈청의 원훈 공신들이 공신의 등급단자에 대해 건의하다
빈청의 원훈 대신(元勳大臣)들이 【이항복(李恒福)·윤승훈(尹承勳)·유영경(柳永慶)·기자현(奇自獻).】 아뢰기를, “공신(功臣)의 등급단자(等及單子)는 대신이 다시 참작해서 하라는 것으로 전교하셨습니다마는, 신들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고 다만 무장들로서 이미 녹훈되었던 사람들이 모두 삭제된 것을 미안하게 여긴 것일 뿐입니다. 시종 싸움터에서 자신을 잊은 채 역전(力戰)한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도 이순신 · 원균 이외에는 고연백 1명만 취했을 뿐이고 그 이외의 권응수 등은 현저하게 녹훈할 만한 공이 있는데도 모두 참여되지 못하였습니다. 녹훈한다고 하면서 이처럼 매몰스럽게 했으니, 어떻게 전사(戰士)들의 마음을 격려 권면하여 분발시킬 수 있겠습니까. 단지 격려 권면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도리어 실망하고 해체되게 하여 뒷날 위급한 때에 힘을 다하도록 요구하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비록 대단찮은 논쟁이지만 관계되는 바는 큼니다.

- 선조 175권 37년 6월 21일 (경자) 4번째기사 / 빈청이 무신들의 녹훈이 미온한 것과, 유영경이 없이 의계함이 미안함을 아뢰다

재차 아뢰기를,

…… (중략) ……

지금 다시 6인 가운데 반복해서 헤아려 보건대, 조경은 권율의 중군(中軍)으로 행주(幸州)에서 승전한 공이 있었고, 이광악은 김시민과 힘을 합쳐 진주성(晉州城)을 지켰으므로 모두 훈적(勳籍)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순신과 원균의 관하(管下) 장사들은 모두 삭제되었고 유독 조경과 이광악만 취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듯합니다. 이 두 사람은 녹훈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오직 성상께서 결단하시기에 달렸습니다. 훈호(勳號)의 글자를 넣기가 과연 꼭 맞지 않는 것은 진실로 성상께서 분부하신 것과 같으니, 보절(保節) 두 글자를 버리고 장의(仗義)로 대신하되 결책(決策) 등의 어구(語句)도 첨가하여 넣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익운(翊運)이란 말도 온당하지 못하는데, 이는 추후 개정하여 아뢰도록 하는 것이 합당 하겠습니다.

…… (중략) ……

답하기를, “윤허한다. 이 6인은 아뢴 대로 모두 녹훈하라. 조경(趙敬)은 권율의 휘하(麾下)로 녹훈되었으니 이순신과 원균 두 대장의 휘하에서도 몇 사람을 취해 아울러 녹훈하라. 그렇게 하면 균등하게 될 것이니 그렇게 하라. 그리고 육장(陸將)들 가운데 적을 무찌른 공이 없더라도 또한 전부를 버릴 수는 없다. 이시언(李時言)은 날랜 장수로 처음부터 끝까지 왜적을 쳤으니 한마(汗馬)의 공이 있고, 평양(平壤)에 있던 왜적이 패하여 돌아갈 적에 중도에서 시살한 일이 있는 것 같고, 도산(島山)의 전투에서도 공로가 있었으니, 버려둔다면 이는 또한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나는 까마득하여 기억하지 못하겠으니 잘 살펴서 조치하라. 또 훈호에 대해서는 사실에 의거하여 말한 것이지만 당초부터 터무니없이 외람되이 포장(褒獎)한 것은 아니다. 나는 그 당시 파천(播遷)하였을 뿐인데, 어찌하여 지나치게 사양하여 위에만 공을 돌리고 차지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 선조 175권 37년 6월 21일 (경자) 5번째기사 / 빈청이 호종 공신의 첨삭과 무신의 고른 첨가에 대해 재량할 것을 건의하다

세 번째 아뢰기를,

…… (중략) ……

또 아뢰기를, “삼가 성상의 분부를 받들었습니다만 이순신(李舜臣)과 원균(元均) 두 대장의 휘하 장사들 가운데 당초 녹훈된 사람이 각각 2인씩인데, 권준(權俊) · 이순신(李純信)은 이순신의 관하이므로 이운룡(李雲龍) · 우치적(禹致績)은 원균의 관하입니다. 이 4인은 모두 해상(海上)에서의 전공(戰功)이 있는데 그 우열을 논하는데 있어서는 신들이 정확한 소견도 없고 또한 의거할 만한 문적(文籍)도 없습니다. 만일 모두를 수록(收錄)한다면 숫자가 과하게

듯하고 취사(取捨)하려면 공로가 같아서 경중을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점에 대해 조처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이시언(李時彦)은 평소 날랜 장수라는 평이 있었는데 황해도 방어사로서 평양에 있던 왜적이 패전하고 돌아갈 때 과연 충도에서 가로막고 시살한 일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시살한 일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말이 매우 많은 것은 물론 의자(議者)들은 이시언의 공으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유독 이 사람만을 많은 삭제 대상자 속에서 취한다면, 뒷말하는 사람들이 분개할 것인데 어떻게 조처해야 하겠습니까? 또 훈호(勳號)에 부득이 다른 말을 첨가해야 한다면 결책(決策)의 결(決)자를 협(協)자로 하는 것이 더 온당합니다. 협책(協策) 두 글자로 1등과 2등에 첨가해 넣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감히 아립니다.”하니, 답하기를,“윤허한다. 부득이한 것 이외는 대간(臺諫)의 아림을 이미 윤허했기에 여기기가 곤란하다. 정경신에 대해서는 대간이 불가하다고 했으므로 추가하여 녹훈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신정에 대해서는 의계(議啓)한 대로 하라. 원균과 이순신이 해상에서 세운 공은 진실로 권율보다도 우월한데 권율의 휘하는 녹훈하고 두 대장의 휘하는 녹훈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만일 4인을 녹훈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이 조경(趙徹)도 삭제해야 한다. 그러나 5인을 모두 다 녹훈하는 것만 못하다. 그리고 육장(陸將) 가운데 1인도 참여하지 못한 것은 지나친 듯하다. 이시언과 박진(朴晉) 등도 어찌 그만한 공이 없겠는가. 녹훈하든지 삭제하든지 다시 의논, 침착해서 되도록 알맞게 하라. 무장들을 잘 통제하여 그들의 마음을 수습하는 데 대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 선조 175권 37년 6월 25일 (갑진) 7번째기사 / 대대적으로 공신을 봉하니 명칭은 호성공신, 선무공신, 청난공신이다 공신(功臣)들의 명칭을 정하여 대대적으로 봉(封)했는데, 서울에서 의주까지 시종(始終) 거가(車駕)를 따른 사람들을 호성 공신(扈聖功臣)으로 하여 3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이 있게 명칭을 내렸고, 왜적을 친 제장(諸將)과 군사와 양곡을 주청(奏請)한 사신(使臣)들은 선무 공신(宣武功臣)으로 하여 3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이 있게 명칭을 내렸고, 이몽학(李夢鶴)을 토벌하여 평정한 사람은 청난 공신(淸難功臣)으로 하고 3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있게 명칭을 내렸다. 호성 공신 1등은 이항복(李恒福)·정곤수(鄭崐壽)인데 충근정량갈성효절협력호성 공신(忠勤貞亮竭誠效節協力扈聖功臣)이라 하고, 2등은 신성군 이후(信城君李瑬)·정원균 이부(定遠君李桴)·이원익(李元翼)·윤두수(尹斗壽)·심우승(沈友勝)·이호민(李好閔)·윤근수(尹根壽)·유성룡(柳成龍)·김응남(金應南)·이산보(李山甫)·유근(柳根)·이충원(李忠元)·홍진(洪進)·이곽(李陟)·유영경(柳永慶)·이유징(李幼澄)·박동량(朴東亮)·심대(沈岱)·박승원(朴崇元)·정희번(鄭姬蕃)·이광정(李光庭)·최흥원(崔興源)·심충겸(沈忠謙)·윤자신(尹自新)·한연(韓淵)·해풍군 이기(海豐君李耆)·순의군 이경온(順義君李景溫)·순령군 이경검(順寧君李景儉)·신잡(申礫)·안황(安滉)·구성(具成)인데 충근정량갈성효절협책호성 공신(忠勤貞亮効節協策扈聖功臣)이라 하고, 3등은 정탁(鄭琢)·이헌국(李憲國)·유희림(柳希霖)·이유중(李有中)·임발영(任發英)·기효복(奇孝福)·최응숙(崔應淑)·최빈(崔賔)·오정방(吳定邦)·이응순(李應順)·신수곤(愼壽崑)·송강(宋康)·고희(高曦)·강곤(姜綱)·내시(內侍) 김기문(金起文)·내시 최언준(崔彦俊)·내시 민희건(閔希蹇)·의관(醫官) 허준(許浚)·이연록(李延祿)·이마(理馬) 김응수(金應壽)·이마 오치운(吳致雲)·내시 김봉(金鳳)·내시 김양보(金良輔)·내시 안언봉(安彦鳳)·내시 박충경(朴忠敬)·내시 임우(林祐)·내시 김응창(金應昌)·내시 정한기(鄭漢璣)·내시 박춘성(朴春成)·내시 김예정(金禮楨)·내시 김수원(金秀源)·내시 신응서(申應瑞)·내시 신대용(辛大容)·내시 김새신(金瑩信)·내시 조구수(趙龜壽)·의관(醫官) 이공기(李公沂)·내시 양자검(梁子儉)·내시 백응범(白應範)·내시 최윤영(崔潤榮)·내시 김준영(金俊榮)·내시 정대길(鄭大吉)·내시 김계한(金繼韓)·내시 박몽주(朴夢周)·이사공(李士恭)·유조생(柳肇生)·양수민(楊舜民)·경종지(慶宗智)·내수사 별좌(內需司別坐) 최세준(崔世俊)·사알(司謁) 홍택(洪澤)·이마 전용(全龍)·이마 이춘국(李春國)·이마 오연(吳連)·이마 이희령(李希齡)인데 충근정량호성 공신(忠勤貞亮扈聖功臣)이라 하여, 각각 작위(爵位)를 내리고 군(君)으로 봉했다. 모두 86인인데 내시(內侍)가 24명, 이마(理馬)가 6명, 의관이 2명이고, 별좌(別坐)와 사알(司謁)이 또 2명이다. 선무 공신(宣武功臣) 1등은 이순신(李舜臣) · 권율(權慄) · 원균(元均) 세 대장인데 효충장의의협력선무 공신(效忠仗義迪毅協力宣武功臣)이라 하고, 2등은 신점(申點)·권응수(權應銖)·김시민(金時敏)·이정암(李廷菴)·이억기(李億祺)인데 효충장의협력선무 공신(效忠仗義協力宣武功臣)이라 하고, 3등은 정기원(鄭期遠)·권협(權俠)·유사원(柳思瑗)·고언백(高彦伯)·이광악(李光岳)·조경(趙徹)·권준(權俊)·이순신(李純信)·기효근(奇孝謹)·이운룡(李雲龍)인데 효충장의선무 공신(效忠仗義宣武功臣)이라 하였다. 각각 관작을 내리고 군(君)으로 봉했는데 모두 18인이다. 청난 공신(淸難功臣) 1등은 홍가신(洪可臣)인데 분출출

공신(奮忠出氣合謀迪毅清難功臣)이라 하고, 2등은 박명현(朴名賢)·최호(崔湖)인데 분충출기적의청난 공신(奮忠出氣迪毅清難功臣)이라 하고, 3등은 신경행(辛景行)·임득의(林得義)인데 분충출기청난 공신(奮忠出氣清難功臣)이라 하였다. 각각 관작을 내리고 군으로 봉했는데 모두 5인이다. 사신은 논한다. 국가가 임진년의 왜변을 만나 종사(宗社)가 전복되고 승여(乘輿)가 파천했으며 원릉(園陵)이 화를 입었고 생령들이 해독을 받았으니, 말하기에도 참혹한 일이다. 다행히 황은(皇恩)이 멀리 미침을 힘입어 팔도(八道)가 다시 새로와졌으니, 임금의 도리에 있어 논공행상(論功行賞)하여 공로에 보답하는 특전을 그만둘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호종신(扈從臣)을 80여 명이나 녹훈(錄勳)하였고 그 가운데 중관(中官)이 24명이며 미천한 복레(僕隸)들이 또 20여 명이나 되었으니, 또한 외람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몽학(李夢鶴)의 난에 이르러서는 주군(州郡)에서 불러 모은 도적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니, 그것을 토평한 것이 어찌 공이 될 수 있는 일이겠는가. 단서철권(丹書鐵券)을 만든 것이 당초 어찌 이처럼 구차한 데에 쓰려고 한 것이겠는가. 아, 김응남(金應南)은 신묘년에 부경(赴京)하였을 적에 정신(廷臣)들의 의논을 극력 변론하여 실제 상황을 들어 주문(奏聞)함으로써 마침내 황상(皇上)이 감림(監臨)하게 하였으니, 그의 공이 진실로 크다. 그리고 신점(申點)은 중국에 있다가 국가가 병화(兵火)를 당했다는 말을 듣고서 7일 동안이나 먹지도 않고 울면서 구원병을 보내줄 것을 주청했으나, 중국군이 나오게 된 것은 과연 누구의 공이겠는가. 정근수(鄭根壽)는 구원병을 주청하고 군량을 주청한 공로가 있고, 이호민(李好閔)은 사명(辭命)을 전담한 공로가 있고, 이순신·원균·권율은 혈전(血戰)한 공이 있었다. 그리고 당시 삼공(三公)은 조금이나마 대책을 결단한 일이 있었으니 부득이하다면 이들 몇 사람만 녹훈했어야 했다.

• 선조 180권 37년 10월 29일 (을해) 6번째기사 / 선무 공신의 교서를 반급할 때에 선독한 별교서

선무 공신(宣武功臣)의 교서를 반급할 적에 선독(宣讀)한 별교서(別敎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하로서 귀중한 것은 국가가 위급할 때 적을 방어하는 충성을 바치는 것인데 선왕(先王)께서도 국가를 안정시킨 공을 포함하였으니 어떻게 상을 주어 면려시키는 법전을 거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에 이장(彝章)에 따라 빛나는 은전을 내리는 바이다. 지난번 운뢰(雲雷)의 비색한 운수 때문에 국가에 어려움이 많았었다. 사나운 고래가 갑자기 달려오니 그 형세가 그물로 제어하기는 어려웠고, 무서운 짐승이 갑자기 날뛰니 누가 소굴로 밀어넣어 막을 수 있었겠는가. 애타게도 1백 년의 종사(宗社)가 하루아침에 폐허가 되는 참혹함을 당하였다. 다행히도 하늘에 계신 영령(英靈)의 도움을 받고 또 제신(諸臣)의 힘을 의지하여 칼을 울리고 손바닥을 치면서 다투어 원수 갚기에 분발하였고 비바람을 무릅쓰고 다함께 국가의 일에 정성을 끝까지 바쳤다. 이에 생기(生氣)가 조금 살아났고 꺼진 재가 다시 타오르게 되었다. 형세를 합쳐 밀고 나아가니 배 타고 몰려온 왜적을 쓸어낼 수 있었고 성을 등지고 생사의 일전을 벌이니 백만의 적군을 물리칠 수 있었다. 사방을 전제(專制)하면서 7년간 열심히 근로(勤勞)하였다. 기타 급할 적에 달려가 구하고 적을 쳐부신 과감하고도 굳센 공로가 어찌 한때에 도움이 적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역시 전일에 비추어 훌륭하기 그지없다. 만약 경(卿)들이 흥기하여 마음을 다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어려웠던 일들이 풀려 오늘을 보존할 수가 있었겠는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여 사생(死生)이 같지는 않지만 이들을 높이 받드는 포송(褒崇)의 법전이야 어찌 다름이 있겠는가. 이에 이순신(李舜臣)·권율(權慄)·원균(元均)을 책훈(策勳)하여 1등(一等)에 봉하고 모습을 그려 후세에 전하며 관작과 품계를 세 자급(資級) 초천(超遷)한다. 그의 부모와 처자도 세 자급을 초천하되, 아들이 없으면 생질(甥姪)과 여서(女婿)를 두 자급 초천하고 적장(嫡長)은 세습(世襲)케 하여 그 녹봉을 잃지 않게 할 것이며, 영원히 사유(赦宥)의 은전을 받게 하라. 반당(伴尙) 10인, 노비(奴婢) 13구, 구사(丘史) 7명, 전지 1백 50결, 은자(銀子) 10냥, 내구마(內廐馬) 1필을 하사한다. 권응수(權應銖)·김시민(金時敏)·이정암(李廷翰)·이억기(李億祺)를 2등에 봉하고 모습을 그려 후세에 전하며 관작과 품계를 두 자급 초천한다. 그의 부모와 처자도 두 자급을 초천하되, 아들이 없으면 생질과 여서를 한 자급 초천하라. 적장은 세습케 하여 그 녹봉을 잃지 않게 할 것이며, 영원히 사유의 은전을 받게 하라. 반당 6인, 노비 9구, 구사 4명, 전지 80결, 은자 7냥, 내구마 1필을 하사한다. 정기원(鄭期遠)·권협(權俠)·유사원(柳思瑗)·고언백(高彦伯)·이광악(李光岳) 조경(趙敬)·권준(權俊) 이순신(李純信) 기효근(奇孝謹)·이운룡(李雲龍)을 3등(三等)에 봉하고 모습을 그려 후세에 전하며 관작과 품계를 한 자급 초천한다. 그의 부모와 처자도 한 자급을 초천하되, 아들이 없으면 생질과 여서를 가계(加階)하라. 적장은 세습케 하여 그 녹봉을 잃지 않게 할 것

, 영원히 사유의 은전을 받게 하라. 반당 4인, 노비 7구, 구사 2명, 전지 60결, 은자 5냥, 내구마 1필을 하사한다. 아, 이 삼물(三物)을 내어 이미 다 같이 하산대려(河山帶礪)의 맹세를 이루었으니 백대(百代)에 전하여 가서 영원토록 자손과 후손들이 복록을 누리게 되길 바란다. 때문에 교시(敎示)하노니 잘 알 것으로 여긴다.”

- 선수 21권 20년 9월 1일 (정해) 1번째기사 / 적호가 녹둔도를 함락시켜 둔전이 폐지되다
적호(賊胡)가 녹둔도(鹿屯島)를 함락시켰다. 녹둔도의 둔전(屯田)을 처음 설치할 적에 남도(南道)의 궤액군(關額軍)을 예측시켜 경부(耕夫)로 삼았는데 마침 흉년이 들어 수확이 없었다. 이 해에 조산 만호(造山萬戶) 이순신(李舜臣)에게 그 일을 오로지 관장하게 하였는데 가을에 풍년이 들었다. 부사 이경록(李慶祿)이 군리(軍吏)를 거느리고 이순신과 추수를 감독하였다. 추도(楸島)의 호추(胡酋) 마니응개(牟尼應介)가 경원(慶源) 지역에 있는 호인의 촌락에 화살을 전달하고서 군사를 숨겨놓고 몰래 엿보다가 농민이 들판에 나가고 책루(柵壘)가 빈 것을 보고 갑자기 들어와 에워싸고 군사를 놓아 크게 노략질하였다. 수호장(守護將) 오형(吳亨)·임경번(林景蕃) 등이 포위를 뚫고 책루로 들어가다가 모두 화살을 맞아 죽었다. 마니응개는 참루(塹壘)를 뛰어넘어 들어오다가 수장(戍將) 이몽서(李夢瑞)에게 사살되었다. 적호(賊胡)가 10여 인을 살해하고 1백 60인을 사로잡아 갔다. 이경록 · 이순신이 군사를 거느리고 추격하여 적 3인의 머리를 베고 포로된 사람 50여 인을 빼앗아 돌아왔다. 병사(兵使) 이일(李鎰)이, 이순신에게 죄를 들림으로써 자신은 벗어나기 위하여 형구를 설치하고 그를 베려 하자 순신이 스스로 변명하기를, “전에 군사가 적은 것을 보고 신보하여 더 보태주기를 청하였으나 병사가 따르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공첩(公牒)이 있다.” 하였다. 이 일이 수금하여 놓고 조정에 아뢰니 ‘백의 종군(白衣從軍)하여 공을 세워 스스로 속죄(贖罪)하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상이 수병(戍兵)이 죽은 것을 애도하여 호당(湖堂)에 명하여 시를 지어 조문하게 하였다. 이로부터 둔전(屯田)이 폐지되었는데, 논하는 이들은 정언신(鄭彦信)이 실책(失策)한 것으로 탓하였다. 이순신이 순변사(巡邊使)의 휘하에 종군하여 반로(反虜) 우을기내(于乙其乃)를 꺾어내어 잡아서 드디어 죄를 사면받았는데 이로부터 유명해졌다.
- 선수 23권 22년 12월 1일 (갑술) 21번째기사 / 이순신을 정읍 현감으로 삼다
이순신(李舜臣)을 정읍 현감(井邑縣監)으로 삼았다. 순신이 감사 이광(李洸)의 군관이 되었는데 이광이 그 재주를 기이하게 여겨 주달하여 본도의 조방장(助防將)으로 삼았다. 유성룡이 순신과 이웃에 살면서 그의 행경을 살펴 알고 빈우(賓友)로 대우하니, 이로 말미암아 이름이 알려졌다. 과거에 오른 지 14년 만에 비로소 현감에 제수되었는데 고을을 다스리는 데에 성적(聲績)이 있었다.
- 선수 24권 23년 8월 1일 (경오) 4번째기사 / 이순신을 만포 첨사로 삼았다가 대간들이 논핵하여 개정하다
이순신(李舜臣)을 발탁하여 만포 첨사로 삼았는데, 대간이 갑자기 뛰어 올랐다고 논핵하여 개정하였다.
- 선수 25권 24년 2월 1일 (무진) 5번째기사 / 이순신을 전라좌도 수사로 삼다
이순신을 전라좌도 수사로 삼았다. 이때 순신의 명성이 드러나기 시작하여 칭찬과 천거가 잇따라서 정읍(井邑)에서 진도 군수로 이배(移拜)되어 부임하기도 전에 가리포 첨사에 제수되었다가 얼마 안 되어 수사로 발탁되었다.

- 25권 24년 11월 1일 (계해) 1번째기사 / 부제학 김성일이 차자를 올려 시폐 10조를 논하다

부제학 김성일(金誠一) 등이 차자를 올려 시폐(時弊) 10조를 논하고 이어 또다시 차자를 올렸다. 성일이 모두 세 번 차자를 올리면서 조금도 기휘(忌諱)하지 않았는데, 동료들은 대부분 인피하고 참여하지 않았으나 유성룡만은 편지를 보내 치하하였다. 당시에 왜란을 대비해서 성지(城池)를 수축하고 병정(兵丁)을 선발하자 영남의 사민(士民)들은 원망이 더욱 심하였다. 성일은 본래 왜변을 염려하지 않았으므로 더욱 잘못된 계책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비변사에서 장수를 선발하는데 이순신을 우선 발탁하니 성일은 또 잘못된 정사(政事)라고 하였다.
- 선수 26권 25년 4월 14일 (계묘) 15번째기사 / 해도의 주사(舟師)를 없애도록 명하다

해도(海道)의 주사(舟師)를 없애고 장사(將士)들은 육지에 올라와 전수하도록 명하였는데, 전라 수사 이순신(李舜臣)이 급히 아뢰기를, “수륙(水陸)의 전투와 수비 중 어느 하나도 없애서는 안 됩니다.” 하였으므로 호남의 주사만은 온전하게 되었다.
- 선수 26권 25년 5월 1일 (경신) 20번째기사 / 전라 수군 절도사 이순신이 거제 앞 나루에서 왜적을 격파하다

전라 수군 절도사 이순신(李舜臣)이 경상도에 구원하러 가서 거제(巨濟) 앞 나루에서 왜병을 격파하였다. 왜병들이 바다를 건너오자 경상 우수사 원균(元均)은 대적할 수 없는 형세임을 알고 전함(戰艦)과 전구(戰具)를 모두 물에 침몰시키고 수군 1만여 명을 해산시키고 나서 혼자 옥포 만호(玉浦萬戶) 이운룡(李雲龍)과 영등포 만호(永登浦萬戶) 우치적(禹致績)과 남해현(南海縣) 앞에 머물면서 육지를 찾아 적을 피하려고 하였다. 운룡이 항거하여 말하기를 ‘사또가 나라의 중책을 맡았으니 의리상 관할 경내에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곳은 바로 양호(兩湖)의 요해처로서 이곳을 잃게 되면 양호가 위태롭다. 지금 우리 군사가 흩어지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모을 수 있으며 호남의 수군도와 서 구원하도록 청할 수 있다.’ 하니, 원균이 그 계책을 따라 울포 만호(栗浦萬戶) 이영남(李英男)을 보내 순신에게 가서 청하게 하였다. 이때 순신은 여러 포(浦)의 수군을 앞 바다에 모으고 적이 이르면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영남의 말을 듣고 여러 장수들은 대부분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지역을 지키기에도 부족한데 어느 겨를에 다른 도에 가겠는가.’ 하였다. 그런데 녹도 만호(鹿島萬戶) 정운(鄭運)과 군관 송희립(宋希立)만은 강개하여 눈물을 흘리며 이순신에게 진격하기를 권하여 말하기를 ‘적을 토벌하는 데는 우리 도(道)와 남의 도가 따로 없다. 적의 예봉을 먼저 꺾어놓으면 본도도 보전할 수 있다.’ 하니 순신이 크게 기뻐하였다. 언양 현감(彦陽縣監) 어영담(魚泳潭)이 수로(水路)의 향도가 되기를 자청하여 앞장서서 마침내 거제 앞 바다에서 원균과 만났다. 원균이 운룡과 치적을 선봉으로 삼고 옥포에 이르렀는데, 왜선 30척을 만나 진격하여 대파시키니 남은 적은 육지로 올라가 도망하였다. 이에 그들의 배를 모두 불태우고 돌아왔다. 그리고 다시 노량진(鷲梁津)에서 싸워 적선 13척을 불태우니 적이 모두 물에 빠져 죽었다. 이 전투에서 순신은 왼쪽 어깨에 탄환을 맞았는데도 종일 전투를 독려하다가 전투가 끝나고서야 비로소 사람을 시켜 칼끝으로 탄환을 파내게 하니 군중(軍中)에서는 그때야 그 사실을 알았다. 이에 앞서 순신은 전투 장비를 크게 정비하면서 자의로 거북선을 만들었다. 이 제도는 배 위에 판목을 깔아 거북 등처럼 만들고 그 위에는 우리 군사가 겨우 통행할 수 있을 만큼 십자(十字)로 좁은 길을 내고 나머지는 모두 칼·송곳 같은 것을 줄지어 꽂았다. 그리고 앞은 용의 머리를 만들어 입은 대포 구멍으로 활용하였으며 뒤에는 거북의 꼬리를 만들어 꼬리 밑에 총 구멍을 설치하였다. 좌우에도 총 구멍이 각각 여섯 개가 있었으며, 군사는 모두 그 밑에 숨어 있도록 하였다. 사면으로 포를 쏠 수 있게 하였고 전후 좌우로 이동하는 것이 나는 것처럼 빨랐다. 싸울 때에는 거적이나 풀로 덮어 송곳과 칼날이 드러나지 않게 하였는데, 적이 뛰어오르면 송곳과 칼에 찔리게 되고 덮쳐 포위하면 화총(火銃)을 일제히 쏘았다. 그리하여 적선 속을 횡행(橫行)하는데도 아군은 손상을 입지 않은 채 가는 곳마다 바람에 쓸리듯 적선을 격파하였으므로 언제나 승리하였다. 조정에서는 순신의 승보를 보고 상으로 가선 대부(嘉善大夫)를 가자(加資)하였다.

- 26권 25년 6월 1일 (기축) 2번째기사 / 이순신이 잇따라 왜병을 패배시키다

이순신(李舜臣)이 잇따라 왜병을 패배시켰다. 순신이 본영에서 사량(蛇梁)으로 나아가 진을 쳤는데 당포(唐浦)에서 적선을 만났다. 적장이 큰 군함을 타고 층루(層樓)에 앉아 전투를 독려하였는데, 순신이 휘하 병력을 진격시켜 통전(筒箭)으로 집중 사격하게 하니 층루 위의 왜장이 먼저 화살에 맞아 물에 떨어졌는데 마침내 엄습하여 크게 격파하였다. 얼마 있다가 전라 우수사 이억기(李億祺)가 휘하의 수군을 모두 데리고 와서 회동하여 마침내 함께 당항포(唐項浦)에 이르러 왜선을 만나 크게 싸웠다. 이때 또 선루(船樓) 위의 적장을 쏘아 죽이고 그 수급(首級)의 취했으며, 왜선 30척을 밀어부쳐 격파하니 적이 대패하여 육지로 올라 도망하였다. 또 영등포(永登浦)에서 싸워 모든 배를 나포하여 섬멸시키니 이로부터 수군의 명성이 크게 떨쳤다. 승리를 아뢰자 상으로 순신에게 자헌 대부(資憲大夫)를 가자(加資)하였다.
- 선수 26권 25년 6월 1일 (기축) 3번째기사 / 원균이 이순신과 연명으로 장계를 올리려 하였으나 이순신이 단독으로 장계를 올리다

처음에 원균(元均)이 이순신에게 구원병을 청하여 적을 물리치고 연명(聯名)으로 장계를 올리려 하였다. 이에 순신이 말하기를 ‘천천히 합시다.’ 하고는 밤에 스스로 연유를 갖춰 장계를 올리면서 원균이 군사를 잃어 의지할 데가 없었던 것과 적을 공격함에 있어 공로가 없다는 상황을 모두 진술하였으므로, 원균이 듣고 대단히 유감스럽게 여겼다. 이로부터 각각 장계를 올려 공을 아뢰었는데 두 사람의 틈이 생긴 것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 선수 26권 25년 7월 1일 (무오) 9번째기사 / 이순신이 왜병을 고성 견내량에서 격파하다

이순신(李舜臣)이 왜병을 고성(固城) 견내량(見乃梁)에서 크게 격파하였다. 이때에 왜적이 수군을 크게 출동시켜 호남(湖南)으로 향하자 순신이 이억기(李億祺)와 함께 각기 거느린 군사를 재촉하여 나가다가 견내량에서 적을 만나게 되었는데, 적선이 바다를 뒤덮어 오고 있었다. 원균(元均)이 앞서의 승리에 자신하여 곧장 대적하여 격파하려 하자 순신이 말하기를 ‘이곳은 항구가 좁고 알아 작전할 수가 없으니 넓은 바다로 유인해 내어 격파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원균이 듣지 않자, 순신이 말하기를 ‘공이 병법(兵法)을 이치럼 모른단 말인가.’ 하고 여러 장수들에게 영(令)을 내려 거짓 패하여 물러나는 척하니, 적이 과연 기세를 몰아 추격하였다. 이에 한산도(閑山島) 앞 바다에 이르러 군사를 돌려 급히 전투를 개시하니 포염(砲焰)이 바다를 뒤덮었고 적선 70여 척을 남김없이 격파하니 피비린내가 바다에 진동하였다. 또 안골포(安骨浦)에서 그들의 구원병을 역습하여 패배시키니 적이 해안으로 올라 도망하였는데 적의 배 40척을 불태웠다. 왜진(倭陳)에서 전해진 말에 의하면 ‘조선의 한산도 전투에서 죽은 왜병이 9천 명이다.’고 하였다. 이 일을 아뢰자 순신에게 정헌 대부(正憲大夫)의 자계(資階)를 상으로 내리고 하서(下書)하여 칭찬하였다.
- 선수 26권 25년 8월 1일 (무자) 2번째기사 / 이순신 등이 부산에 주둔한 적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다

이순신(李舜臣) 등이 부산(釜山)에 주둔한 적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왜병이 해상의 전투에서 여러 번 패하자 부산·동래(東萊)에 모여 웅거하면서 전함을 벌여놓고 항구를 지켰다. 순신이 원균과 함께 수군을 총동원하여 진격하였으나 적이 군사를 거두고 전투에 응하지 않고 높은 곳에 올라가 총을 쏘므로 수군이 육지로 오르지 못하고 빈 배 4백여 척만 태워버리고 퇴각하였다. 이때 녹도 만호 정운(鄭運)이 앞장서서 힘을 다하여 싸우다가 탄환에 맞

전사하였는데 순신이 애통해 하였다

- 선수 26권 25년 8월 1일 (무자) 16번째기사 / 이순신이 수군을 거느리고 서해의 입구에 웅거하다
이때 이순신(李舜臣)은 수군을 거느리고 서해(西海)의 입구에 웅거하였으며, 김성일(金誠一) 등은 진주(晉州)의 관요(關要)를 지키고 있었다. 적이 금산(錦山)의 길을 경유하여 호남에 침입했으나 여러 번 좌절당하였으므로 도로 종래의 길로 퇴각하여 돌아가니 호서 또한 함락되는 것을 면하였다. 국가가 이 두 도를 의지하여 군수 물자를 공급할 수 있었으니, 한때의 장사들이 방수(防守)한 공이 또한 대단하다 하겠다.

- 선수 27권 26년 6월 1일 (갑신) 5번째기사 / 왜적이 진주를 함락시키자 김천일·최경회 등이 전사하다
…… (중략) ……
우리 나라는 전대(前代)부터 큰 적을 겪지 못했으므로 국내의 큰 성이라야 높이가 3장(丈)에 불과했으며, 위로는 누로(樓櫓)가 없고 아래로 갱창(坑塹)이 있다 해도 대부분 알고 좁아 뛰어 넘어올 수 있었다. 진주성은 본래 누석(壘石)으로 알게 축조한 것인데, 성안에 비치된 식량이 충분했다 해도 전사(戰士)는 수천 명에 불과하였다

…… (중략) ……
애통하게 여길 만한 것은, 행장(行長)이 청정(淸正)과 혐의가 있는 것처럼 거짓 드러내 보이면서 우리 나라가 필시 진주성을 버리지 않을 것을 알고는 거짓으로 버리고 피하기를 청한 사실이다. 이 때문에 조정에서는 더욱 진주성을 보전하려고 충신(忠臣)과 용장(勇將)을 증파(增派)하여 한성에서 함께 죽게 하였으니, 이는 본시 수길(秀吉)의 계략이었다. 왜인 중에서 말하기를 ‘조선 사람은 소문만 듣고도 먼저 달아나 한 번도 정식으로 대적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건장한 군사들이 모두 죽지 않고 흩어졌다가 다시 합하여 곳곳에서 왜중(倭衆)을 초살(勦殺)하는데 이것이야말로 당하기 어려운 것이다. 행장이 반드시 진주성을 버리라고 한 것은 일부러 그들을 완전히 집결하게 하여 섬멸시키려 한 것이다.’ 하였다. 왜인이 강항(姜沆)에게 말하기를 ‘조선의 장사들이 진주성에서 다 죽었으니, 이후로는 우리를 괴롭힐 자가 없을 것이다.’ 하였다. 그 뒤에 이간질을 하여 이순신(李舜臣)을 떠나게 만들고 원균(元均)을 패하게 만든 것도 모두 깊은 기모(機謀)에서 나온 것이다. 대저 진주성은 이미 누차 승전하여 홀로 온전하게 지켜 냈고 곡식 10만 석을 비축하여 일면의 보장지(保障地)가 되었으니, 반드시 지키고 떠나지 않을 것을 행장은 본래 익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옛날 용병(用兵)을 잘하는 자는 장차 취하려 할 때 먼저 주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이 성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어찌 김명원(金命元) 등이 능히 판단할 수 있었겠는가. 더구나 조정에서 문법(文法)을 가지고 장수들을 휘어잡아 항시 동서로 진퇴하는 일에 대한 통제가 중앙에서 나옴에 있어서라. 김명원 등이 만일 행장의 말에 따라 진주성을 버리게 했더라면 필시 군법에 의해 죄를 얻을 것인데, 김명원이 어찌 감히 스스로 독단할 수 있었겠는가. 이것이 곽재우(郭再祐)의 의논이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이유이다. 진주의 패망된 상황은 여러 장상(將相)들이 조사하여 갖추 주문하였고, 또 기록한 자가 많으므로 사실을 참험(參驗)하여 대략 여기에 적는 바이다.】

- 선수 27권 26년 7월 1일 (계축) 3번째기사 / 전라 좌수사 이순신이 군영을 한산도로 옮기기를 청하다
전라 좌수사(全羅左水使) 이순신(李舜臣)이 군영을 한산도(閑山島)로 옮기기를 청하니, 따랐다. 한산도는 거제(巨濟)의 남쪽 30리 지점에 있는데, 산세가 빙 둘러쳐져 배를 승기기에 편리하였고 왜선(倭船)이 호남을 침범하려면 반드시 이 길을 경유해야만 하였다. 이순신은 본진(本鎭)이 좌측에 치우쳐 있어 방어하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청한 것이었다.

- 27권 26년 8월 1일 (임오) 6번째기사 / 이순신을 본직은 그대로 둔채 삼도 수군 통제사에 겸임시키다

이순신(李舜臣)을 삼도 수군 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에 겸임시키고 본직(本職)은 그대로 두었다. 조정의 의논에서 삼도 수사(三道水使)가 서로 통섭(統攝)할 수 없다고 하여 특별히 통제사를 두어 주관케 하였다. 원균(元均)은 선배로서 그의 밑에 있게 됨을 부끄럽게 여겨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순신이 육지는 군수물자에 고달프다는 점을 들어 체부(體府)에 청하기를, “다만 일면의 해포(海浦)를 부여해 주면 양식과 기계를 자족시킬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이때에 와서 소금을 구워 판매하여 곡식 몇 만 석을 비축하였으며, 영사(營舍)와 기구(器具)가 완비되었다. 백성을 모집하여 완취(完聚)시키니, 하나의 거진(巨鎭)이 되었다.
- 선수 28권 27년 12월 1일 (갑진) 7번째기사 / 경상 우수사 원균을 충청 절도사로 옮겨 제수하다

경상 우수사(慶尙右水使) 원균(元均)을 충청 절도사(忠淸節度使)로 옮겨 제수하였다. 균이 이순신의 차장(次將)이 된 점을 부끄럽게 여기고서 절제(節制)를 받지 않으니 순신은 여러 차례 글을 올려 사면을 청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누차 도원수로 하여금 공죄(功罪)를 조사하게 하였는데, 균은 더욱 거침없이 육지거리를 내뺐어 하는 말이 모두 추악하였으며, 순신 또한 균이 공상(功狀)이 없음을 말하는 가운데 실상과 다른 한 조목이 끼어 있었다. 그런데 조정에서는 대부분 원균을 편들었으므로 마침내 모두 탄핵을 당했다. 상이 다시 비변사로 하여금 조정하게 하였는데, 단지 균은 체차(遞差)시켜 육장(陸將)을 삼고 순신은 병사로 죄책감을 가지고 스스로 공을 세우게 하였다. 균은 서울과 가까운 진(鎭)에 부임하여 총애받는 권신(權臣)과 결탁해 날마다 허황된 말로 순신을 헐뜯었는데, 순신은 성품이 곧고 굳세어 조정 안에서 대부분 순신을 미워하고 균을 칭찬하였으므로 명실(名實)이 도치되었다.
- 선수 30권 29년 윤8월 1일 (기축) 2번째기사 / 통제사 이순신의 청에 따라 한산도에서 무과를 보며 수자리 군사를 뽑다

한효순(韓孝純)을 한산도(閑山島)로 보내어 무과를 설행하여 수자리 군사들을 시험보여 사제(賜第)하였는데, 이는 통제사 이순신(李舜臣)의 청에 따른 것이었다.
- 선수 30권 29년 12월 1일 (계해) 3번째기사 / 평행장과 가등청정의 교묘한 술책을 사평하다

당시에 심유경은 ‘평행장은 실로 가등청정과는 의견을 달리하여 화의의 일이 성심에서 나왔다.’고 하였으며 조정도 그렇게 믿었다. 만약 그렇다면 풍신수길(豊臣秀吉)과 같은 사나움으로 이미 조선이 저희를 업신여겼다고 이르면서 봉전(封典)까지도 받지 않았으니 이는 화의와는 크게 어긋난 것이다. 마땅히 행장을 엄하게 벌해야 하는데도 여전히 그를 의지하고 신임할 뿐 아니라 비밀리에 우리 나라에 첩자를 보내어 이순신(李舜臣)을 제거하고 원균(元均)을 속여 패전하게 만들었으니 이는 실상 가등청정과 표리가 되어 한 짓이다. 더구나 가등청정은 일본 명장들 가운데 우두머리이고 행장은 풍신수길의 중신(重臣)인데 어찌 우리 나라에 몰래 통고하고 틈을 봐서 살해할 리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풍신수길이 어떻게 강적이 되어 우리에게 침범할 수가 있었겠는가. 그들이 화의를 위하여 왕래한 것은 중국 사람의 뜻에 거짓으로 응하면서 사실은 교묘한 계책을 실행하여 중국 군사들을 지치게 하고 우리 나라 군사를 피로하게 한 뒤에 이미 휴식을 취한 저들의 군사들을 재차 출병하고는 중국 황제를 성나게 해서 군대를 동원하여 원정을 오게 함으로써 저들은 군대를 바다에 주둔시킨 채 주인이 객을 기다리는 전술로써 필승의 계책을 삼으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당시에 황신은 상에게 아뢰기를, “예로부터 심원한 모책과 비밀스런 계획이 적장으로부터

것은 아직 없습니다. 행장과 가등청정은 다른 점이 없어서 그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 선수 31권 30년 1월 1일 (임진) 2번째기사 / 이조 좌랑 김신국이 이순신의 군관이 공을 가로챘다고 아뢰다
이조 좌랑 김신국(金薰國)이 서계하였다. “지난번 통제사(統制使) 이순신(李舜臣)이, 부산 군영을 몰래 불태운 사실을 조정에 보고하였는데, 이원익(李元翼)이 신에게 말하기를 ‘군관 정희현(鄭希玄)이 일찍이 조방장(助防將)으로 적의 둔영(屯營) 근처에 오래 머물면서 부산 수군 허수석(許守石)을 심복으로 삼았었다. 수석이 적진을 드나들었는데, 그의 동생이 부산 군영에 있었기 때문에 적의 정세를 잘 알았다. 마침내 수석과 계책을 세워 날짜를 약속하여 몰래 적의 둔영을 불태웠는데, 그날 순신의 군관이 마침 부산에 이르렀다가 먼저 순신에게 보고하여 자기의 공로로 삼은 것이다. 그런데 순신은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그렇게 계문한 것이다. 이제 수석과 다시 도모하는 바가 있는데, 만약 수석에게 벼슬을 상으로 내리면 일이 혹 누설될까 싶고, 공로를 순신의 군관에게로 돌리면 수석이 반드시 분하게 여겨 현재 도모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싶다.’고 하였습니다.”
- 선수 31권 30년 1월 1일 (임진) 4번째기사 / 통제사 이순신이 수군을 거느리고 부산 근처로 진병할 것을 청하다
통제사 이순신이 치계하기를, “중국의 사신이 이미 통신(通信)하며 왕래하였는데도 흉적(兇賊)이 그대로 변경에 있으면서 아직도 틈을 노리어 침략할 계책을 품고 있으니 참으로 분개스럽습니다. 신이 수군을 뽑아 거느리고 부산 근처로 진주(進駐)하여 적이 오는 길을 차단하고 일사의 결전을 하여 하늘에 사무친 치욕을 씻고자 합니다. 만일 지휘(指揮)할 일이 있거든 급히 회유(回諭)를 내려주소서.” 하였는데, 듣는 자들이 모두 장하게 여겼다.
- 선수 31권 30년 2월 1일 (임술) 1번째기사 / 통제사 이순신을 하옥시키라 명하고 원균으로 대신하다
통제사 이순신(李舜臣)을 하옥시키라 명하고, 원균(元均)으로 대신하였다. 이보다 앞서 평행장(平行長)과 경상 우병사 김응서(金應瑞)가 서로 통하여, 요시라(要時羅)가 그 사이를 왕래하였는데, 그가 말한 바가 마치 가등청정(加藤清正)과 사이가 좋지 않은 듯해서 우리 나라는 그걸 믿었었다. 이때에 왜적이 재침을 모의하면서 우리 나라의 수군을 꺼려했고, 그중에서도 더욱더 순신을 꺼렸다. 이에 요시라를 보내서 말하기를 ‘강화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실로 가등청정이 주장하고 있어서이다. 만약 그를 제거하면 나의 한이 풀리게 되고 귀국의 근심도 제거될 것이다. 모월 모일에 가등청정이 어느 섬에서 잘 것이니, 귀국에서 만약 수군을 시켜 몰래 잠복해 있다가 엄습하면 결박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응서가 이로써 보고하니, 상이 황신(黃愼)을 보내 순신에게 비밀히 유지하였다. 그러나 순신은 ‘바닷길이 험난하고 왜적이 필시 복병을 설치하고 기다릴 것이다. 전함(戰艦)을 많이 출동하면 적이 알게 될 것이고, 적게 출동하면 도리어 습격을 받을 것이다.’ 하고는 마침내 거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 가등청정이 과연 다대포(多大浦) 앞바다에 왔다가 그대로 서생포(西生浦)로 향했는데, 이는 실로 행장과 함께 작은 군사로 우리를 유인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런데 조정에서는 오히려 조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을 들어 순신을 하옥시켜 고신(拷訊)하게 하고, 마침내 전남 병사(全南兵使) 원균을 통제사로 삼았다.
- 선수 31권 30년 7월 1일 (경인) 2번째기사 / 적이 수군을 습격하여 깨뜨리니 원균과 이억기, 최호가 전사하다
적이 수군을 습격하여 깨뜨렸다. 통제사 원균(元均)이 패하여 죽고 전라 수사 이억기(李億祺), 충청 수사 최호(崔湖)

죽었으며, 경상 우수사 배설(裴榭)은 도망하여 죽음을 면하였다. 당초 원군이 한산도에 도착하여 이순신이 세워 놓은 규약을 모조리 변경시키고 형벌에 법도가 없어, 군중의 마음이 모두 떠났다. 권율은 원군이 적을 두려워하여 머뭇거리다고 하여 불러 매를 쳤는데, 원군이 분한 마음을 품고 가서 마침내 수군을 거느리고 절영도(絶影島)에 이르러 제군(諸軍)을 독려하여 나아가 싸우게 하였다. 적은 아군을 지치게 할 계책으로, 아군의 배에 가까이 접근하였다가 문득 피하였다. 밤이 깊어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우리 배가 사방으로 흩어지자, 원군은 남은 배를 수습하여 가덕도(加德島)로 돌아왔는데, 사졸들이 갈증이 심하여 다투어 배에서 내려 물을 먹었다. 그러자 적이 갑자기 나와 엄습하니, 원군 등이 황급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고 급히 배를 이끌고 퇴각하여 고성(固城)의 추원포(秋原浦)에 주둔하였는데, 수많은 적선이 몰려와 몇 겹으로 포위하였다. 원군은 크게 놀라 여러 장수와 더불어 힘껏 싸웠으나 대적해내지 못하고, 배설이 먼저 도망하자 아군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억기와 최호 등은 물에 뛰어들어 죽고, 원군은 해안에 내렸다가 적에게 죽음을 당하고, 배설은 도망하여 한산도에 이르렀는데, 조정에서 명하여 주륙하였다.

- 선수 31권 30년 7월 1일 (경인) 3번째기사 / 다시 이순신을 통제사로 삼다
 다시 이순신을 기용하여 통제사로 삼았다. 이때에 한산도의 패전보가 이르자 조야가 크게 놀랐다. 상이 비변사의 여러 신하들을 불러 물으니, 모두 황공하여 대답할 바를 몰랐는데, 경림군(慶林君) 김명원(金命元), 병조 판서 이항복이 ‘현재의 계책으로는 이순신을 다시 통제사로 삼아야만 된다.’ 하니, 상이 따랐다.
- 선수 31권 30년 9월 1일 (기축) 3번째기사 / 통제사 이순신이 진도 벽파정 아래에서 적을 격파하여 왜장을 죽이다
 통제사 이순신(李舜臣)이 진도(珍島) 벽파정(碧波亭) 아래에서 적을 격파하여 왜장 마다시(麻多時)를 죽였다. 순신이 진도에 도착해 병선을 수습하여 10여 척을 얻었다. 이때 배를 타고 피난해 있던 연해(沿海)의 사민(士民)들이 순신이 왔다는 말을 듣고는 기뻐하였다. 순신은 길을 나누어 그들을 불러모아 군대 후면에 있으면서 군사의 형세를 돕도록 했다. 적장 마다시는 수전을 잘한다고 소문난 자인데, 2백여 척을 거느리고 서해를 범하려고 하여, 벽파정 아래에서 접전하게 되었다. 순신은 12척의 배에다 대포를 싣고 조수를 타고 순류(順流)하여 공격하니, 적이 패주(敗走)하였으므로, 수군의 명성이 크게 진동하였다.
- 선수 32권 31년 8월 1일 (갑인) 3번째기사 / 통제사 이순신이 적병을 강진의 고금도에서 크게 격파하다
 통제사 이순신(李舜臣)이 적병을 강진(康津)의 고금도(古今島)에서 크게 격파했다. 순신이 진인(陳璘)과 더불어 연회하려고 하는데, 적이 습격하려 한다는 보고를 듣고는 제장(諸將)으로 하여금 군사를 정돈해 대기하게 하였다. 얼마 후 적선(賊船)이 크게 이르자 순신은 스스로 수군을 거느리고 적중으로 돌격해 들어가면서 화포(火炮)를 쏘아 50여 척을 불사르니, 적이 마침내 도망하였다.
- 선수 32권 31년 11월 1일 (임오) 2번째기사 / 통제사 이순신이 수군을 거느리고서 적의 구원병을 패퇴시키고 전사하다
 유정(劉綎)이 순천(順天)의 적영(賊營)을 다시 공격하고, 통제사(統制使) 이순신(李舜臣)이 수군을 거느리고 그들의 구원병을 크게 패퇴시켰는데 순신은 그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이때에 행장(行將)이 순천 왜교(倭橋)에다 성을 쌓고 굳게 지키면서 물러가지 않자 유정이 다시 진공하고, 순신은 진인(陳璘)과 해구(海口)를 막고 압박하였다. 행장이 사천(泗川)의 적 심안돈오(沈安頓吾)에게 후원을 요청하니, 돈오가 바닷길로 와서 구원하므로 순신이 진격하여 대파하였는데, 적선(賊船) 2백여 척을 불태웠고 죽이고 노획한 것이 무수하였다. 남해(南海) 경계까지 추격해 순신이 몸

시석(矢石)을 무릅쓰고 힘껏 싸우다 날아온 탄환에 가슴을 맞았다. 좌우(左右)가 부족하여 장막 속으로 들어가니, 순신이 말하기를 ‘싸움이 지금 한창 급하니 조심하여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 하고, 말을 마치자 절명하였다. 순신의 형의 아들인 이완(李莞)이 그의 죽음을 숨기고 순신의 명령으로 더욱 급하게 싸움을 독려하니, 군중에서는 알지 못하였다. 진인이 탄 배가 적에게 포위되자 완은 그의 군사를 지휘해 구원하니, 적이 흩어져 갔다. 진인이 순신에게 사람을 보내 자기를 구해 준 것을 사례(謝禮)하다 비로소 그의 죽음을 듣고는 놀라 의자에서 떨어져 가슴을 치며 크게 통곡하였고, 우리 군사와 중국 군사들이 순신의 죽음을 듣고는 병영(兵營)마다 통곡하였다. 그의 운구 행렬이 이르는 곳마다 백성들이 모두 제사를 지내고 수레를 붙잡고 울어 수레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조정에서 우의정(右議政)을 추증했고, 바닷가 사람들이 자진하여 사우(祠宇)를 짓고 충민사(忠愍祠)라 불렀다.

- 선수 38권 37년 6월 6일 (을유) 2번째기사 / 신축년의 공훈을 3등급으로 정하고 정왜의 공훈에 주청사도 넣을 것을 청하다

빈청(賓廳)에서 원훈(元勳)과 대신(大臣)이 아뢰기를, “신축년에 공훈을 결정할 때 호종(扈從)과 정왜(征倭)로 공신들을 나누어 두 가지로 했는데, 임인년 가을에 이르러 비로소 함께 녹훈하자는 의견이 있어 즉시 아뢰어 개정(改正)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관(言官)이 또 나누어 녹공할 것을 청하니, 그중에 삭제할 자가 27인인데 추록(追錄)한 정운(鄭運) 등도 당연히 아울러 삭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정왜 무장(征倭武將)으로 남는 사람은 단지 이순신(李舜臣) · 권율(權慄) · 원균(元均)·고언백(高彦伯) 이 네 사람뿐입니다. 권응수(權應銖)는 영천(永川) 수복(收復)의 공이 있었고, 수전에서 이억기(李億祺)와 해주(幸州)의 조경(趙敬)은 승첩(勝捷)의 공이 있었고, 진주(晋州)의 김시민(金時敏)·이광악(李光岳)과 연안(延安)의 이정암(李廷範)은 모두 성을 온전히 지킨 공이 있었는데 모두 삭제당하였으니, 훗날 무장(武將)들이 해이해질까 걱정스럽습니다. 임진난 초기에 신점(申點)이 옥하관(玉河館)에 있다가 왜변(倭變)을 듣고는 울부짖으며 청병(請兵)하였는데, 그 뒤 많은 중국군이 나온 것은 모두 신점의 힘입니다. 그런데 유독 녹훈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니, 이 몇 사람은 마땅히 함께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공신이 당초에는 그 숫자가 매우 많았기 때문에 4등급으로 나누었으나 이제는 이미 명호를 나누었으니 따라서 3등급으로 나누어 정하고 아울러 군량(軍糧)을 주청하러 갔던 사신들도 정왜(征倭)의 공훈에 옮겨 기록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그 뒤에 호종(扈從)은 호성(扈聖)으로, 정왜(征倭)는 선무(宣武)로 고쳤다.】

- 선수 38권 37년 6월 25일 (갑진) 1번째기사 / 공신을 3등급으로 나누어 대대적으로 봉하다

공신을 대대적으로 봉하였다. 서울서부터 의주(義州)까지 시종 어가(御駕)를 모신 사람을 호성 공신(扈聖功臣)으로 삼고, 왜적을 정벌한 제장(諸將)들과 군량을 주청하러 간 사신들을 선무 공신(宣武功臣)으로 삼고, 이몽학(李夢鶴)의 난을 토벌한 자를 청난 공신(淸難功臣)으로 삼아, 모두 3등급으로 나누고 차등 있게 봉호(封號)를 내렸다. 호성 공신 1등에는 이항복·정근수(鄭峴壽), 2등에 신성군 이우(信城君李瑠)·정원군 이부(定遠君李瑒) 【이 분이 원종 대왕(元宗大王)이다.】 ·이원익(李元翼)·윤두수(尹斗壽)·심우승(沈友勝)·이호민(李好閔)·윤근수(尹根壽)·유성룡·김응남(金應南)·이산보(李山甫)·유근(柳根)·이충원(李忠元)·홍진(洪進)·이곡(李榘)·유영경(柳永慶)·이유징(李幼澄)·박동량(朴東亮)·심대(沈岱)·박승원(朴崇元)·정희번(鄭姬蕃)·이광정(李光庭)·최흥원(崔興源)·심충겸(沈忠謙)·윤자신(尹自新)·한연(韓淵)·해풍군 이기(海豐君李耆)·순의군 이경온(順義君李景溫)·순령군 이경검(順寧君李景儉)·신잡(申礪)·안황(安滄)·구성(具晟), 3등에 정탁(鄭琢)·이헌국(李憲國)·유희림(柳希霖)·이유중(李有中)·임발영(任發英)·기효복(奇孝福)·최응숙(崔應淑)·최빈(崔賁)·여정방(呂定邦)·이응순(李應順)·절신정 이수곤(節愼正李壽峴)·송강(宋康)·고희(高曦)·강인(姜綱)·김기문(金起文)·최연순(崔彦恂)·민희건(閔希鸞)·허준(許浚)·이연록(李延祿)·김응수(金應壽)·오치운(吳致雲)·김봉(金鳳)·김양보(金良輔)·안연봉(安彦鳳)·박충경(朴忠敬)·임우(林祐)·김응창(金應昌), 정한기(鄭漢璣)·박춘성(朴春成)·김예정(金禮禎)·김수원(金秀源)·신응서(申應瑞)·신대용(辛大容)·김새신(金璽信)·조귀수(趙龜壽)·이공기(李公沂)·양자검(梁子儉)·백응범(白應範)·최윤영(崔潤榮)·김준영(金俊榮)·정대길(鄭大吉)·김계한(金繼韓)·박몽주(朴夢周)·이사공(李士恭)·유조생(柳肇生)·양수민(楊

)·경종지(慶宗智)·최세준(崔世俊)·홍택(洪澤)·이춘국(李春國)·전용(全龍)·이희령(李希齡)·오연(吳連) 등 총 86인이요, 내시(內侍) 24인, 마의(馬醫) 6인, 의관(醫官) 2인, 별좌 사알(別坐司謁) 2인이다. 선무 공신은 1등에 이순신·권을·원균, 2등에 신점(申點)·권응수·김시민·이정암·이억기, 3등에 정기원(鄭期遠)·권협(權俠)·유충원(柳忠瑗)·고언백(高彦伯)·이광악(李光岳)·조경(趙敬)·권준(權俊)·이순신(李純信)·기효근(奇孝謹)·이운룡(李雲龍) 등 총 18인이다. 청난 공신은 1등에 홍가신(洪可臣), 2등에 박명현(朴名賢)·최호(崔湖), 3등에 신경행(辛景行)·임득의(林得義) 등 모두 5인이다. 【호성 공신(扈聖功臣) 1등은 충근정량갈성효절협책(忠勤貞亮竭誠効節協策)의 호를 내리고, 2등은 갈성 2자를 줄이고, 3등은 또 효절협책의 4자를 줄였다. 선무 공신(宣武功臣) 1등은 효충장의적의협력(効忠仗義迪毅協力)의 호를 내리고, 2등은 적의 2자를 줄이고, 3등은 또 협력 2자를 줄였다. 청난 공신(淸難功臣) 1등은 분충출기합모적의(奮忠出氣合謀迪毅)의 호를 내리고, 2등은 합모 2자를 줄이고, 3등은 또 적의 2자를 줄였다.】

- 광해 97권 7년 11월 18일 (경인) 2번째기사 / 이대원·이순신·원균 등을 충신 대열에 수록할 것인지 의논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김천일(金千鎰) 등을 충신의 대열에 수록한다면 이대원(李大元) · 이순신(李舜臣) · 원균(元均) · 이억기(李億祺) · 최호(崔湖) · 이복남(李福男) · 임현(任鉉) 등처럼 나라를 위해 죽은 사람들도 어찌 수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사람들은 자세히 의논해 결정하여 아뢰라.”하고, 또 전교하기를, “이 전(箋)의 발(跋)은 대신과 대제학이 함께 의논하여 감정(勘定)한 다음 사용하라.”하였다.

- 광해 97권 7년 11월 23일 (을미) 4번째기사 / 전 부사 첨사 정발을 충신 대열에 수록하게 하다
찬집청(撰集廳)이 아뢰기를, “김천일(金千鎰) 등을 충신의 대열에 수록하라는 하교가 있었는데 ‘이대원(李大元) · 이순신(李舜臣) · 원균(元均) · 이억기(李億祺) · 최호(崔湖) · 이복남(李福男) · 임현(任鉉) 등 나라를 위해 죽은 사람들을 어찌 수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사람들을 자세히 의논해 결정하라.’고 분부하였습니다. 이상 7인들의 사적을 저번 정기원(鄭期遠) 등의 예에 따라 예조로 하여금 속히 조사한 다음 입계하여 결정지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첨사(釜山僉使) 정발(鄭撥)은 송상현(宋象賢)과 함께 왜적에게 죽었으니 또한 예조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하여 수록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 광해 179권 14년 7월 22일 (병진) 4번째기사 / 비변사가 수군에서 거북선을 만들고 기계 갖추기를 청하자 허락하다
비변사가 하교로 인하여 아뢰기를, “옛날 임진년과 정유년 사이에 이순신(李舜臣)은 기이한 꾀를 내어 왜적을 막으면서 바다를 방위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니 한결같이 순신이 왜적을 방어하던 법식에 따라 거북선을 만들고 기계를 갖추어 일을 전라 좌수사와 우수사에게 명백하게 지시하여 < 보내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빨리 순신의 거북선을 만들며 무기를 수리하고 사졸들을 훈련시켜 착실히 변란에 대비하기를 한결같이 순신이 한 것과 같이 하도록 각별히 말해 보내라.”하였다.

- 인조 7권 2년 11월 17일 (정묘) 5번째기사 / 이완·심명세 등을 인견하고 모 도독을 대우하는 문제 등을 의논하다.

추관을 인견하다

상이 의주 부윤(義州府尹) 이완(李莞)과 공조 참판 심명세(沈命世)를 인견하였다.

…… (중략) ……

이르기를, “이러한 일은 묘당이 의논하여 처리하기에 달렸다. 저 적들은 꾀가 많아 간첩 활동을 잘 하니, 경은 주의를 기울여 밝게 살펴야 한다. 그리고 도둑이 반드시 들어주기 어려운 청을 할 것인데,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되고 깊이 생각해서 잘 처리해야 한다.” 하자, 이완이 아뢰기를, “신의 생각에는, 들어줄 만하면 들어주고 안 될 일은 들어주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였다. 정경세(鄭經世)가 아뢰기를, “반드시 먼저 환심을 산 다음에야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선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상국인을 대우할 때만 그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순신(李舜臣)이 중국 장수와 함께 일을 할 적에도 그들의 환심을 얻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중국 사람들을 부릴 수 있었던 것이다.” 하였다. 정경세가 아뢰기를, “이순신은 중국 사람들을 잘 대우하였는데, 호케할 때도 매우 성대하게 했으므로, 중국 사람들이 이순신을 이아(李爺)라고 불렀다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성대하게 호케해 준 것은 다만 여사(餘事)에 불과했다. 죽은 뒤에 중국 사람들 역시 통곡을 하였는데, 이는 필시 그들의 환심을 얻었기 때문이 그렇게 된 것이다.” 하였다.

• 인조 17권 5년 11월 30일 (계사) 1번째기사 / 둔전을 설치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비국이 아뢰기를, “체신(體臣)이 여러 곳에 둔전(屯田) 설치할 것을 청하였는데, 만약 전례대로 관리자를 차송(差送)한다면 끼치는 폐단은 필시 많고 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일찍이 들으니, 고(故) 수신(帥臣) 이순신(李舜臣)이 수사(水使)로 있을 때 여러 성에다 둔전을 널리 설치하였는데, 이 성들은 모두 방수(防守)하는 곳이어서 입방(入防)하는 군사들이 대대적으로 농사를 짓되, 경작과 수비 또는 망을 보는 것도 모두 군사들을 이용하였으므로 백성들에게는 털끝만큼도 폐해는 없으면서 소득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선책(善策)이라 말한답니다. 이제 둔전을 설치한 전라도 해변도 우수사(右水使)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고자 하는데 이응순(李應順)은 나이가 노쇠할 뿐만 아니라 재주도 없어 이 사람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전 병사(兵使) 유림(柳琳)은 원래 부지런하다고 소문난 사람이니, 해조로 하여금 차송하여 겨울 이전에 때맞춰 요리하게 하되 이순신의 고사(故事)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농사짓는 일을 수사(水使)에게 책임지우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고, 또 이 둔전은 반드시 해만 있고 이익은 없을 듯하니, 서서히 의논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 인조 21권 7년 9월 26일 (정미) 2번째기사 / 통영의 둔전에 대해 논하다

통제사(統制使) 구광(具宏)이 통영(統營)의 둔전(屯田)에 대해 예전대로 급복(給復)해 주어서 둔전군(屯田軍)을 잘 보살피도록 청하였는데, 호조가 복계(覆啓)하기를, “통영의 둔전은 처음에 군량이 모자랐기 때문에 공한지에만 설치하였는데, 그 뒤 연해(沿海)에까지 점점 파급되었고 내지에도 퍼지게 되었으므로 그 폐단이 한이 없습니다. 원전(元田)을 경작하는 자들이 둔소(屯所)에 투입(投入)하여 면세 받는 발판을 삼아서, 소위 둔전이라는 것이 없는 데가 없으니, 세입(稅入)이 날로 줄어들고 민역(民役)이 균등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변통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그 폐해를 구제하기 어려울 것이니, 이순신(李舜臣)이 둔전을 설치한 뜻에 따라 연해와 조금 가까운 지역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기타 먼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둔전을 적당히 해아려 혁파하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먼 지역에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혁파하지 말라. 둔전군에 대해서는 해당 고을로 하여금 잘 보살피게 하라.” 하였다.

• 인조 24권 9년 4월 16일 (기미) 3번째기사 / 불차탁용의 법과 무인에 관한 일 등을 논하다

주강에 《서전》을 강하였다. 강이 끝나자 김시양(金時讓)이 아뢰기를, “선왕조에는 불차탁용(不次擢用)하는 법이 있었으니, 이순신(李舜臣) · 이광약(李光岳) 등이 모두 이렇게 선발되었습니다. 요즘도 비국이 적임자를 정선하면 전조(銓曹)는 이 사람을 주의(注擬)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법이 가장 좋긴 하다마는, 정밀하

가려 뽑지 못할까 염려된다. 그리고 옛적에는 무예에 종사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니, 어째서인가?” 하였다.

- 인조 39권 17년 7월 14일 (기사) 1번째기사 / 청나라와 관계를 끊는 것에 대해 비국 당상과 논의하다
상이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 (중략)
명길이가 아뢰기를, “경기 수사(京畿水使)로 하여금 거북선을 제조하여 시험해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이순신이 창제한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뢴 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 인조 39권 17년 7월 23일 (무인) 4번째기사 /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농사와 인재 선발 문제 등을 논의하다
상이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 (중략)
상이 이르기를, “인재가 없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송 고종(宋高宗)의 중흥은 오로지 인재에 힘입은 것이었다. 감사와 병사(兵使)를 모를지기 적합한 사람을 얻어 맡긴 뒤에야 큰일을 할 수가 있는데, 항상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다. 일찍이 선조조(宣祖朝)에는 상신 노수신(盧守愼)이 권율(權慄) · 이순신(李舜臣)을 천거하여 장수로 삼았는데, 이 또한 사람을 알아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큰 인재는 반드시 정규 관원 가운데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니 한신(韓信)에게서 또한 볼 수 있다. 만일 재지와 용모가 영리한 것으로 취할 뿐이라면 반드시 저처럼 큰일을 해내지는 못했을 것이다.” 하였다.

- 인조 43권 20년 5월 13일 (신사) 1번째기사 / 고경명·이순신·조헌에게 증시하는 것 등에 대해 의논하다
상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고 이르기를,
..... (중략)
공조 판서 윤취(尹暉)가 아뢰기를, “증시(贈諡)하는 전례(典禮)는 예로부터 있는 것인데, 고경명(高敬命) · 이순신(李舜臣) · 조헌(趙憲) 등은 아직도 증시를 받지 못했으니, 이는 진실로 흠전(欠典)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예조로 하여금 품의하여 조처하게 하라.” 하였다.

- 효종 6권 2년 6월 6일 (신해) 3번째기사 / 부사과 민정중이 왕도·외직 임용·언로의 확대·기강 확립에 대해 아뢰다
부사과(副司果) 민정중(閔鼎重)이 상소하기를,
..... (중략)
옛날 전국 시대의 유흥(游俠), 서한(西漢)의 순리(循吏), 삼국(三國)의 장사(將士), 이당(李唐)의 문재(文才)는 어찌 천운에 의해 어느 한 시대에 우연하게 배출된 것이었겠습니까. 각기 그 시대의 숭상한 것에 따라 사람들이 다 스스로 힘을 다한 것일 뿐입니다. 임금은 풍화(風化)를 좌우할 만한 권한을 잡고 있으니,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엇을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오직 취사와 배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재주가 있는 사람은 어지러운 세상을 만나면 장수 노릇을 잘하고 태평한 세상을 만나면 재상 노릇을 잘하는 등 자신이 만난 경우에 따라 적응하지 못하는 바가 없지만, 만약 때를 만나지 못하면 그저 평범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조조(宣祖朝)의 인재로 말한다면 이항복(李恒福)·이덕형(李德馨)·이원익(李元翼)·유성룡(柳成龍)과 같은 신하들은

문장가로 이름났을 뿐이니, 이들로써 위급한 난리를 안정시키고 중흥의 공을 세울 수 있다고 말하는 자가 있으면 온 나라 사람이 모두 그렇지 않다고 여기다가 그들이 큰 공로를 세운 다음에야 비로소 그 재주와 공이 한(漢)나라의 등우(鄧禹)와 마원(馬援)에게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순신(李舜臣)의 경우는 본디 미관 말직이었고 권율(權慄)은 명망이 없었으니, 혹시 때를 만나지 못하고 하급 관직에서 늙어 죽었더라면 사람들은 그들이 뛰어난 재주를 지닌 줄을 몰라 오늘날 그 이름이 소멸된 지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또 얼마나 많은 권율과 이순신 같은 인재가 늙어 죽어가고 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비록 그 재주를 지녔더라도 관직으로 시험해 보지 않으면 또한 그런 사람을 얻을 수 없다고 봅니다.

- 효종 11권 4년 7월 2일 (을축) 2번째기사 / 영종추부사 이경여가 올린 재변을 이겨내는데 힘써야할 21항의 상차문 영종추부사 이경여(李敬輿)가 상차하기를,

…… (중략) ……

이순신(李舜臣)이 한산(閑山)에서 이기고 권율(權慄)이 행주(幸州)에서 이긴 그 공로는 중흥(中興)을 연 것이었는데도 그때의 논공(論功)은 한 자급을 올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번 군기(軍器)를 장만하거나 한번 도둑을 잡은 공도 다 금옥으로 자급을 곧바로 올려주면서도 망설이지 않고, 선치한 수령은 첫째라 일컬어져도 의복만을 줄 뿐이니, 그 경중을 잃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대(漢代)에는 현(縣)에서 치적이 가장 뛰어난 자는 군수(郡守)에 초배(超拜)되고 군수가 성적이 있으면 구경(九卿)에 입배(入拜)되었으므로, 격려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인재를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 효종 11권 4년 8월 23일 (을유) 2번째기사 / 자전의 회복을 축하하는 풍정을 간략하게 하고, 무재 박경지·성익을 서용하라 하다

상이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 (중략) ……

상이 이완에게 하문하였다. 이완이 그 쓸 만함을 자세히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 세상이라고 해서 어찌 유독 사람이 없겠는가. 이를테면 이순신(李舜臣)도 유성룡(柳成龍)의 천거로 발탁되어 마침내 큰 공을 이루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반드시 능히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였다.

- 효종 18권 8년 6월 7일 (무인) 1번째기사 / 고쳐야 할 폐단과 임금의 실정들을 아뢰는 대사헌 민응형의 상소문 대사헌 민응형(閔應亨)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아뢰기를,

…… (중략) ……

절의(節義)가 국가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므로 비록 태평한 때라도 포상하기에 겨를이 없는 것인데 더구나 이 어려운 때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고 신 김상헌(金尙憲) · 정온(鄭蘊) · 홍익한(洪翼漢) · 윤집(尹集) · 오달제(吳達濟) 등은 의리를 굳게 지키고 굽히지 않아 충절이 능률하여 우리 조정의 기강이 이들 때문에 부지되었으니 마땅히 정려(旌閭)를 세워 주는 일이 있어야 할 것인데 아직까지 은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헌(趙憲) · 이순신(李舜臣) · 김제갑(金悌甲) · 김응하(金應河) · 김준(金浚) 등의 자손에 이르러서는 마땅히 모두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인데 녹용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으니 장차 어떻게 뒷사람을 권장할 수 있겠습니까. 또 선조(宣祖) 때 국가에 공훈이 있었던 재상인 이준경(李浚慶) · 유성룡(柳成龍) · 이원익(李元翼) · 이덕형(李德馨) · 이항복(李恒福) 등의 자손도 마땅히 일체로 등용하여 그들 조부의 노고에 보답해야 할 것입니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유념하십시오.

- 20권 9년 6월 11일 (정축) 1번째기사 / 사냥하는 명은 정지하고 대군의 집에 가 제사지내는 일을 거행하라 명하다

상이 대신과 비변사의 여러 신하를 불러 보았다.

…… (중략) ……

영돈녕부사 김육(金瑄)이 아뢰기를, “조정에서 현재 절의를 숭상하고 장려하는 은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충신으로 드러나 칭송할 만한 이는 고 통제사 이순신(李舜臣)만한 이가 없는데도, 묘소에 아직까지 조그만 표석(表石)조차도 없으니, 이는 자손들이 미약한 소치입니다. 조정에서 본도로 하여금 세우게 한다면 풍성(風聲)을 수립하는 도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따르고 이어서 그 자손들을 등용하도록 명하였다.
- 효종 21권 10년 윤3월 28일 (무자) 2번째기사 / 남해의 싸움터에 충무공 이순신의 비를 세우다

남해의 싸움터에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의 비(碑)를 세웠다.
- 효종 21권 10년 윤3월 30일 (경인) 1번째기사 / 첨지중추 심광수가 근래의 재이에 대해 아뢰다

상이 옥당의 강관을 소대하여 《심경》을 강하였다.

…… (중략) ……

상이 승지 이경억(李慶億)에게 이르기를, “아침에 이순신(李舜臣)의 비문(碑文)을 보았는데,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다가 순절(殉節)한 일에 이르러서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는 하늘이 우리 나라를 중흥시키기 위하여 이런 훌륭한 장수를 탄생시킨 것이다. 순신의 재능은 악비(岳飛)와 같은데, 더욱 작은 병력으로 큰 병력을 공격하는 데 능하였다. 그 당시 청정(淸正)의 간사한 모략에 빠져 잘못되어 견벌(譴罰)을 받기에 이르렀고 드디어 원균(元均)의 패배가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뒤 순신이 약간의 거북선을 가지고 대적을 격파하였으니, 참으로 쉽게 얻을 수 없는 인재이다.
- 현종 5권 3년 2월 2일 (병오) 2번째기사 / 예조가 남해 노량의 이순신을 위해 세운 사우의 액호와 교서를 예문관으로 하여금 속히 지어 올리게 하라고 아뢰다

예조가 아뢰기를, “교리 민유중이 지난번 경연 석상에서 계달하기를 ‘남해(南海) 노량(露梁)은 곧 고(故) 통제사(統制使) 이순신(李舜臣)이 순절(殉節)한 곳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세웠던 사우(祠宇)가 좁고 퇴락하였으므로 정익(鄭楡)이 통제사로 있을 때 새로 개축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묘액(廟額)을 내려 절의를 높이고 후인을 권장하는 발판으로 삼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하자, 상께서 이미 해조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셨습니다. 액호(額號)와 교서(敎書)를 예문관으로 하여금 속히 지어 올리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 현종 7권 4년 10월 5일 (기해) 1번째기사 / 관서 쌀의 진휼 전용, 세액, 서원 및 사우의 제사 등에 관해 의논하다

상이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 (중략) ……

유중이 아뢰기를, “남해(南海)의 노량(露梁)은 곧 이순신(李舜臣)이 순절한 지역으로서 그곳의 사우(祠宇)에는 이미

‘ (忠烈)’이라고 사액(賜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듣건대 통영(統營) 또한 순신이 처음 개설한 곳이므로 장사(將士)들이 일찍이 사우를 세워 존모(尊慕)하는 정성을 바치고 있다 하니, 거듭 사액하는 데에 구애받지 마시고 노량의 예에 따라 ‘충렬’의 호를 내려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 현종 10권 6년 4월 23일 (기묘) 2번째기사 / 영상 등과 과거 대상자 선정과 부로에게 하사하는 일 등을 의논하다 영의정 정태화, 우의정 허적, 병조 판서 홍중보를 인견하였다.
..... (중략)
태화가 아뢰기를, “삼가 듣건대, 대사간 이경억이 충신과 유현(儒賢)들의 묘소에 제사지낼 것을 청했는데 이순신(李舜臣)만 빠졌습니다. 그의 사당이 아산(牙山)에 있으니 관리를 보내어 제사를 지내주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현종 10권 6년 5월 1일 (병술) 4번째기사 / 예관을 보내어 김장생·조헌·송상현·이순신에게 제사지내게 하다
예관을 보내어, 유신 증 영의정 김장생(金長生), 충신 증 이조 판서 조헌(趙憲), 증 이조 판서 송상현(宋象賢), 증 우의정 이순신(李舜臣)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 현종 14권 8년 12월 25일 (을미) 1번째기사 / 충신 안홍국에게 높은 관직을 추증하다
충신 안홍국(安弘國)에게 송질(崇秩)을 가증(加贈)하라고 명하였다.
..... (중략)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은 충열이 이순신과 닮음이 없었으며 그의 사적(事蹟)이 《황명통기(皇明通紀)》 및 《종신록(從信錄)》·《만력동정기(萬曆東征紀)》에 실려 있다.
- 현종 대왕 행장(行狀)
국왕의 성은 이씨(李氏)이고 휘(諱)는 연(淵)이며 자(字)는 경직(景直)이니, 효종 대왕의 아들이고 인조 대왕의 손자이다.
..... (중략)
9월 9일에 왕이 건원릉(健元陵)을 참배하였다. 이 해에 고려조의 여러 왕릉(王陵)에 화재와 벌채를 금하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남해(南海) 노량(露梁)에 있는 고 통제사(統制使) 이순신(李舜臣)의 사당 편액을 하사하였다. 이순신은 선조조에 왜구를 누쳐 격파하여 충의와 용맹이 가장 드러났고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이다.
- 현개 6권 3년 1월 23일 (정유) 2번째기사 / 상이 흥정당에서 신하를 인견하니 이조 참의 유계 등이 진언하다
상이 흥정당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 (중략)
교리 민유중이 아뢰기를, “남해(南海)의 노량(露梁)은 곧 고 통제사 이순신(李舜臣)이 전사한 곳입니다. 예전에 있던 사우(祠宇)가 좁고 퇴락하였는데 정익(鄭楨)이 통제사가 되어 개수하여 새롭게 하였습니다. 특별히 사당의 편액을

절의(節義)를 표창하고 후인을 격려하는 바탕으로 삼아야 마땅할 듯한데 아직껏 조정의 은명이 있지 않기에 남방 인사들의 희망이 매우 간절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순신의 절의는 본시 표창함이 당연하니 편액을 내리는 등의 일을 해조에게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 현개 9권 4년 10월 5일 (기해) 1번째기사 / 희정당에 나가 대신들을 인견하고 시정에 대해 논하다

상이 희정당에 나아가 대신 및 비국 재신들을 인견하였다.

…… (중략) ……

사간 민유중(閔維重)이 아뢰기를, “고 통제사 총무공 이순신 사우(祠宇)로 남해(南海)의 노량(露梁)에 있는 것에는 일찍이 충렬(忠烈)의 액(額)을 이미 내린 바 있으나, 지금 듣건대 통영(統營) 역시 순신이 창건한 것이기 때문에 장사(將士)들이 이미 사우를 건립하여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노량의 예대로 충렬의 액을 아울러 내리소서.” 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 현개 13권 6년 4월 23일 (기묘) 2번째기사 / 문·무과 정시 응시 자격·노직첩 수여·이순신 사당 제사 등을 의논하다

영의정 정태화, 우의정 허적, 병조 판서 홍중보를 인견하였다.

…… (중략) ……

태화가 아뢰기를, “듣건대, 간신(諫臣)이 충신과 유현(儒賢)들의 묘소에 제사지낼 것을 청했다는데 이순신(李舜臣)의 묘도 도내에 있고 그의 사당이 아산(牙山)에 있으니 일체로 제사를 지내주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현개 13권 6년 5월 1일 (병술) 2번째기사 / 예관을 보내 김장생·조현·송상현·이순신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다

예관을 보내어, 유신 증 영의정 김장생, 충신 증 이조 판서 조현, 증 이조 판서 송상현, 증 우의정 이순신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 현개 14권 6년 10월 10일 (임술) 2번째기사 / 대동 수미·양역·공안·수포·조적 등의 폐단을 논한 부제학 조복양 등의

상차

부제학 조복양, 응교 이민서, 교리 오두인, 수찬 홍만용·이정 등이 상차하기를,

…… (중략) ……

근일에 여러 신하들에게 내린 상전(賞典)에 대하여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불가하다고 말합니다. 양사의 논열도 이미 다하였는데 성명께서는 오히려 윤택하지 않으시니 신들은 삼가 의혹을 느낍니다. 신들이 일찍이 듣건대, 국조의 열성께서는 상전을 가장 중하게 여겨서 이순신(李舜臣)의 한산 대첩(閑山大捷)과 권율(權慄)의 행주 대첩(幸州大捷)에 대해서도 단지 1급만을 더해주었다고 하는데 지금의 여러 신하들은 단지 한 때에 수행했을 뿐입니다. 유직(留直)과 약방(藥房)도 서울에 남아 있는 여러 신하들과 일반인데 어찌 그 사이에 구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상을 알맞게 주지 않는 데에서 뭇 의심이 발생하는 것이니 거리에 나도는 말을 돌아보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양사의 청을 흔쾌히 따르셔서 일제히 환수주소서.

- 18권 8년 12월 25일 (을미) 1번째기사 / 충신 안홍국에게 작질을 가증하라고 명하다
 상이 충신 안홍국(安弘國)에게 작질을 가증(加贈)하라고 명하였다. 안홍국은 임진 왜란을 당하여 선전관으로서 용만(龍灣)까지 호가(扈駕)하였으며, 보성 군수(寶城郡守)에 제수됨에 이순신(李舜臣)이 이끌어 통영 중군(統營中軍)을 삼아 주사(舟師)를 총괄해 다스리게 하였는데 항상 비분 강개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앞장섰다. 6월에 왜적과 안골포(安骨浦)에서 싸워 배 한 척의 군졸을 거느리고 수십 척의 왜선을 격파하고는, 마침내 탄환에 맞아 죽으니, 당시 나이가 43세였다. 그 충의로운 대절(大節)이 이순신과 다름이 없었으며 그의 사적(事蹟)이 《황명통기(皇明通紀)》 및 《증신록(從信錄)》·《만력동정기(萬曆東征記)》에 실려 있다. 호남의 기사(奇士) 임준(林俊)이 전(傳)을 지어 그 일을 기록하였다. 이 때에 이르러 그의 아들 안종술(安宗述)이 상소하여 그의 아버지가 포상의 은전을 받지 못하였음을 하소연하였다. 이에 상이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여, 이런 명이 있게 된 것이다.

- 속중 11권 7년 1월 3일 (정사) 2번째기사 / 제반 정사에 관해 논의하다. 명나라와의 의리에 관한 송시열의 수차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 (중략) ……

민유중(閔維重)이 말하기를, “삼남(三南) 연해(沿海)의 각 고을에 전선(戰船)을 배치한 것은 원래 고제(古制)가 아닌데, 새로 만들거나 고칠 때에 단지 물력(物力)만 허비하고, 완급(緩急)에 쓸만한 가망이 없습니다. 신은 연해(沿海)의 여러 섬 가운데 요해처(要害處)를 가려서 변장(邊將)을 더 설치하여 전선(戰船)을 배치하고, 각 고을의 전선은 마땅히 혁파(革罷)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진(康津)에는 고금(古今)·청산(靑山)의 두 섬이 있는데, 토지가 비옥하고 백성이 많기 때문에, 고(故) 통제사(統制使) 이순신(李舜臣)과 명장(明將) 진인(陳璘)이 유둔(留屯)했던 곳입니다. 고금도(古今島)는 땅이 크니 첨사(僉使)를 설치하고, 청산도(靑山島)는 조금 작으니 마땅히 만호(萬戶)를 설치하여, 각 고을의 전선(戰船) 2척씩을 옮겨 주어서 능로군(能櫓軍)·사포수(射砲手)를 모두 섬에 사는 백성으로 충정(充定)한다면, 연해(沿海)의 방비(防備)가 가장 착실(着實)해져서 조정(朝廷)에서도 수군(水軍)을 나누어 주는 폐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두 섬 외에 또한 진을 설치하기에 합당한 곳이 많지만, 일시에 같이 거행(舉行)할 수는 없으니, 먼저 두 섬을 시험하여 그 성효(成效)를 살펴보고 차례로 설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는데, 이상진이 말하기를, “흥양(興陽)의 나로도(羅老島)가 또한 진(鎭)을 설치하기에 합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우선 두 곳을 시험해 보도록 명하였다.

- 속중 11권 7년 5월 3일 (을묘) 2번째기사 / 재이에 따른 방책을 논의하다
 대신(大臣)과 여러 신하를 인견(引見)하고 재이(災異)를 없앨 방책을 물으니,

…… (중략) ……

김석주가 또 삼남(三南) 각 고을의 전선(戰船)이 물력(物力)을 낭비하면서도 마침내 쓸모 없는 지경에 귀착된 실상을 극진하게 진계(陳啓)하기를, “민유중(閔維重)이 매년 연해(沿海)의 여러 섬의 각 아문(衙門)에서 둔진(屯陣)을 설치한 곳에, 형편에 따라 진장(鎭將)을 두어 배를 만들게 하고, 각 고을에는 다만 해변(海邊)의 요해처(要害處)에만 배를 두고 나머지는 모두 혁파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전선의 수를 줄이지 않고도 허비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민정중(閔鼎重)이 말하기를, “원균(元均)이 전선(戰船)을 많이 모아 바다에 침몰(沈沒)시키고 달아났으나, 이순신(李舜臣)이 십여 척으로 적(賊)을 격파(擊破)하였는데, 쓰인 배는 또한 모두 위급한 상황에 임하여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장차 마땅한 사람을 얻지 못한다면, 배가 비록 많다 하더라도 또한 어디에 쓰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명하여 상의(相議)해서 변통(變通)하도록 하였다.

- 17권 12년 4월 11일 (을미) 2번째기사 / 서종태가 신여철 구일에 대한 가자의 명을 환수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집의 서종태(徐宗泰)가 아뢰기를, “가자(加資)의 은전(恩典)도 가볍게 베풀어서는 아니되거니와, 송품(崇品)에 승진시켜 제수하는 것은 사체가 더욱 분별되어야 합니다. 어찌 일시의 시예(試藝)로 인해 은전을 지나치게 베풀어져야겠습니까? 청컨대 신여철(申汝哲)·구일(具鎰)에 대한 가자의 명을 환수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전의 규례가 있고 또 특별한 은전에서 나온 것이므로 윤택할 수 없다.” 하였다. 시독관 이이명(李頤命)·검도관 이윤수(李允修) 등이 아뢰기를, “이순신(李舜臣)·권율(權慄)의 공도 당시에 가자하는 데 지나지 않았으니, 조종조(祖宗朝)의 신중히 선택하는 뜻을 여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끝내 들어주지 않았다.

- 숙종 39권 30년 5월 16일 (갑인) 2번째기사 / 충청도 유생 서후경이 아산에 충무공 이순신의 사당 건립을 청하다 충청도(忠淸道) 유생(儒生) 서후경(徐後慶)이 소(疏)를 올려, 고(故)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을 위하여 아산(牙山) 땅에 사당을 세우기를 청했으니, 이는 이순신이 생장(生長)한 고향이고, 구묘(丘墓)가 있기 때문이었다. 임금이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 숙종 39권 30년 7월 25일 (계해) 2번째기사 / 대신과 비국의 신하를 불러 문형 선발·이완의 정표 등을 의논하다 대신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 (중략) ……

이어가 말하기를,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의 조카 이완(李莞)은 나이 겨우 20에 이순신(李舜臣)을 따라 군중(軍中)에 있었는데, 이순신이 매우 재기(才器)를 중히 여겼습니다. 이 순신이 탄환을 맞아 죽음에 이르러서 이완에게 말하기를 ‘나는 지금 죽게 되었으니, 너는 내 죽음을 숨기고 제군(諸軍)을 독려하여 힘껏 싸워 적을 물리치라.’ 하였습니다. 이순신이 이미 죽자, 이 완은 그 말대로 싸움을 독려하여 끝내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계해년 반정(反正)한 후에 충청 병사(忠淸兵使)로서 의주 부윤(義州府尹)에 천거되었는데, 과만(瓜滿)하여 체임(遞任)하게 되자, 인조(仁祖)께서, ‘서쪽 관문(關門)은 이 사람이 아니면 안된다.’라고 하시며 특별히 영임(仍任)시켰습니다. 정묘 호란(丁卯胡亂)을 당해서 적들이 방비가 없음을 틈타 암문(暗門)을 따라 몰래 들어와 문졸(門卒)을 때려 죽이니 성이 마침내 함락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완은 급히 군사를 모아 밤새도록 힘껏 싸웠는데, 강홍립(姜弘立)이 글을 보내 만나기를 요구하자, 이완이 노하여 꾸짖기를, ‘나는 이미 죽기로 결심하였는데, 어찌 오랑캐의 얼굴을 보겠는가?’ 하고 사움을 더욱 독려하였으나, 중과부적(衆寡不敵)으로 연달아 적을 쏘아 무지(拇指)가 상해 끊어지게 되니, 이완이 탄식하기를, ‘하늘이 나를 죽이는구나!’ 하고 마침내 죽었습니다. 감사(監司) 김기종(金起宗)이 그 일을 조정에 보고하자, 인조께서 병조 판서를 추증(追贈)하고 치제(致祭)하기를 명하였으나, 아직껏 정표(旌表)하는 온전이 지체되고 있으니, 특별히 정려(旌閭)를 명하시면 거의 격려하는 도리가 될 것입니다.

…… (중략) ……

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 숙종 45권 33년 2월 6일 (기축) 5번째기사 / 이순신·을지문덕 등의 사우에 호를 내리다 충청도 아산(牙山)의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의 사우(祠宇)에 ‘현충(顯忠)’이란 호(號)를 내리고, 평안도 안주(安州)에 고구려(高句麗) 대신(大臣) 을지문덕(乙支文德)·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최윤덕(崔潤德)·영의정(領議政) 문충공(文忠公) 이원익(李元翼)·대사헌(大司憲) 김덕함(金德諫)을 아울러 사우(祠宇)에 향사(享祠)하게 하고 ‘청천(淸川)’

호를 내렸다.

- 숙종 49권 36년 12월 17일 (정축) 2번째기사 / 전라도 고금도의 관왕묘에 진인과 이순신을 향사하는 일을 논의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지난 가을에 대신(大臣)들이 전라도(全羅道) 고금도(古今島)의 진인(陳璘) 도독(都督)과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의 사우(祠宇)에 사액(賜額)하는 일을 진달(陳達)하여 윤휴받았는데, 나중에 듣건대 진 도독(陳都督)은 관왕묘(關王廟)를 창건하였고, 그후에 진 도독과 이순신을 동무(東廡)에 추향(追享)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왕묘와 지세가 너무 가까워서 담장으로 경계를 구획(區劃)할 수가 없으니, 지금 만약 사액(賜額)한다면, 곧 관묘(關廟)의 액호(額號)이어야 합니다. 관왕은 마땅히 지존(至尊)으로 더불어 뜻을 나누어 대등한 예절을 갖추어야 할 사람이니, 그 묘우(廟宇)에 사액함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진 도독 또한 중국의 사명을 받들었던 장수이므로, 우리 조정에서 신하로 예대(禮待)할 수는 없습니다. 이순신과 함께 향사(享祠)하고 치제(致祭)하는 것은 방해(妨礙)됨이 많으니, 청컨대 대신(大臣)들에게 의논하소서.” 하고, 판부사(判府事) 이유(李濡)는 말하기를, “만약 선무사(宣武祠)·무열사(武烈祠)의 예를 쓴다면, 단지 관묘(關廟)에 아름다운 칭호(稱號)를 게시하고, 또 ‘선액(宣額)’이라는 두 글자를 빼는 것이 마땅할 듯하며, 제례(祭禮) 또한 선무사(宣武祠)의 의식(儀式)에 의거해야 합니다. 이순신에 이르러서는 이미 도독(都督)과 한 실(室)에 병향(並享)하였으니, 소중하게 여기는 뜻이 있습니다. 또 충성(忠誠)과 노고(勞苦)가 특이하여, 무릇 숭배하여 보답하는 데 관계된 은전(恩典)은 상격(常格)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으니, 관원(官員)을 차견(差遣)하여 제사를 지낼 즈음에 일체로 거행하게 하는 것이, 아마도 국체(國體)에 손상됨이 없을 듯합니다.” 하고, 좌의정(左議政) 서종태(徐宗泰)는 말하기를, “새로운 묘우(廟宇)는 따로 세운 것이 아니고, 무우(廡宇)에서 향사(享祠)하는 것이라면, 한 묘우(廟宇) 안에서 무우에 편액(扁額)을 걸어두는 것은 일이 매우 불편할 것이니, 단지 관왕묘에만 큰 것을 걸어 일컫게 함이 마땅합니다. 제례(祭禮)에 이르러서는 도독의 제식(祭式)에는 향(香) 및 축사(祝辭)를 내리는 것과, 관원과 집사(執事)를 무열사·선무사의 예에 의하여 준행(遵行)함이 마땅합니다. 이순신(李舜臣)은 우리 나라 사람의 사액(賜額)한 사원(祠院)에 평소 향사(享祀)할 때에, 본래 조정에서 관원을 보낸 규례(規例)가 없으니, 단지 다른 사묘(祠廟)의 예에 의거하여 유생(儒生)·교생(校生)으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비록 한 실(室) 안에 있다 하더라도 이는 후(厚)함과 박(薄)함의 차이가 있는 데에서 나온 소치이니, 아마도 방해됨이 없을 듯합니다.” 하고, 우의정(右議政) 김창집(金昌集)은 말하기를, “만약 아름다운 칭호(稱號)를 하여 두 묘우(廟宇)의 뜻을 포괄하게 하려면, 관묘에 편액(扁額)을 내리면서 ‘사액(賜額)’ 두 글자를 빼버려도 그 뜻에 해로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순신이 비록 우리 나라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첨사(僉使)로 하여금 일체로 거행하게 하는 것도 무방할 듯합니다.” 하고, 판부사(判府事) 이이명(李頤命)은 말하기를, “기자(箕子)의 예(禮)를 관묘에 준용(準用)함이 거의 옳을 것이요, 도독의 지위(地位)는 석성(石星)·이여송(李如松) 등 여러 공(公)의 반열(班列)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묘우를 일컬어 편액(扁額)을 거는 것은 근거할 바가 없지 않으나, 단지 선액(宣額)이라 일컬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문묘(文廟)에도 우리 나라의 선현(先賢)들을 많이 종향(從享)하였는데, 봄·가을의 석전(釋奠)에 관원을 차견(差遣)하여 제사를 지내는 것은, 대개 그 소중함이 성묘(聖廟)에 있기 때문입니다. 2품 이상의 무신(武臣)으로 조용(調用)되었다가 졸(卒)하였을 경우, 조정에서 또한 오히려 관원을 보내어 치제(致祭)하는데, 이순신의 공로(功勞)는 국조(國朝) 이래로 없던 것이었으니, 비록 사묘(祠廟)에서 거행하는 향사(享祀)라 하더라도, 해마다 두 번 관원을 보내는 것이 숭배하여 보은(報恩)하는 도리에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좌상(左相)의 의논을 쓰도록 명하였다. 예조(禮曹)에서 또 아뢰기를, “경중(京中)에서는 관왕묘의 제일(祭日)을 경칩(驚蟄)과 상강(霜降)을 쓰니, 봄·가을에 각각 이날로 설행(設行)한다는 뜻을 또한 지위(知委)하소서. 그리고 찬품(饌品)은 한결같이 선무사(宣武祠)의 규례에 의거할 것이며, 향(香)가 축문(祝文)은 경중(京中)에서 내려보냄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비록 성묘(聖廟)의 규례로 말하더라도, 동무(東廡)와 서무(西廡)에 따로 축문(祝文)을 고하는 일은 없었으니, 관묘(關廟)의 축문(祝文) 말단(末端)에 진 도독과 이순신을 배식(配食)한다는 뜻을 첨입(添入)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50권 37년 3월 20일 (기유) 2번째기사 / 이봉상·이만성·이진검·이재·권침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당초에 임금이 명하여 무신 당상(武臣堂上) 가운데서 승지(承旨)를 의망(擬望)하여 뽑게 하라고 명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이조 판서(吏曹判書) 이돈(李墩)이 좌이(佐貳)와 낭관(郎官)이 구비(具備)되기를 잠시 기다려 널리 물어서 택의(擇擬)하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즉시 비의(備擬)하라고 명하여 금군장(禁軍將) 이봉상(李鳳祥)을 승지로 삼으니, 이봉상은 곧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의 후손이다. 이만성(李晩成)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이진검(李眞儉)을 교리(校理)로, 이재(李緯)를 부교리(副校理)로, 권침(權詹)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윤행교(尹行校)를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로, 양성규(梁成揆)를 헌납(獻納)으로, 윤지인(尹趾仁)을 대사헌(大司憲)으로 삼았다.

- 속중 59권 43년 3월 8일 (계해) 4번째기사 / 임금이 충청 감사와 도내 수령을 소견하다
임금이 충청 감사(忠淸監司) 윤헌주(尹憲柱)와 차원(差員)으로 와서 기다리는 도내의 수령(守令)을 소견(召見)하였다.

…… (중략) ……

임금이 또 이병상에게 묻기를, “지난번 태학생(太學生)들이 선정(先正)의 종사(從祀)를 청한 상소에 대한 비답(批答)에서 이미 온천에 가서 치제(致祭)하려는 뜻을 보였는데, 어찌하여 거행하지 않는가?” 하였는데, 이병상이 대답하기를, “이것은 곧 거행할 것입니다마는, 선조에서 거동하셨을 때에 선정신(先正臣) 송준길(宋浚吉)의 청에 따라 고(故) 판서(判書) 김정(金淨)과 사절신(死節臣) 조헌(趙憲)·송상현(宋象賢)과 고 참찬(參贊) 송인수(宋麟壽)와 고 통제사(統制使) 이순신(李舜臣)의 무덤에 치제하였으니, 지금도 전례에 따라 사제(賜祭)하고 송준길의 무덤에도 치제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마찬가지로 사제하라고 명하였다.

- 속중 59권 43년 3월 12일 (정묘) 2번째기사 / 김장생·김집 등의 무덤에 유제하다
승지(承旨)를 보내어 문원공(文元公) 김장생(金長生) · 문경공(文敬公) 김집(金集) · 문정공(文正公) 송준길(宋浚吉)의 무덤에 유제(諭祭)하고, 예조(禮曹)의 낭관(郎官)을 보내어 이순신(李舜臣) · 송인수(宋麟壽) · 김정(金淨) · 송상현(宋象賢) · 이귀(李貴)의 무덤에 제사하게 하였다.

- 속중 63권 45년 4월 30일 (임신) 2번째기사 / 세자가 대신과 비국의 재신들을 인접하여 금위영 혁파 등을 논의하다
세자(世子)가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재신(宰臣)들을 인접(引接)하였다.

…… (중략) ……

이조 판서(吏曹判書) 권상유(權尙游)가 말하기를, “일찍이 순무사(巡撫使)가 되어 친히 고금도(古今島)와 방답진(防踏鎭)을 살펴 보았는데, 가장 적로(賊路)의 요충(要衝)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고금도(古今島)는 곧 이순신(李舜臣)이 승첩(勝捷)한 지역이므로 특별히 두 척의 전선(戰船)을 설치하였으니, 뜻한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갈두진(葛頭鎭)은 근처에 이미 난갈두(蘭葛頭)가 있으므로 비록 진(鎭)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무방(無妨)할 듯, 애초에 설치하면서 모든 일이 소홀하여 마침내 모양을 이루기 어려웠으니, 이를 혁파(革罷)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러나 이 한 조항 또한 마땅히 도신(道臣)과 수신(帥臣)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니, 세자가 모두 옳게 여겼다.

- 속중 대왕 행장(行狀)

…… () ……

기묘년에 …… (중략) …… 김응하(金應河)와 이순신(李舜臣)의 자손으로 입조(立朝)한 자를 수령(守令)으로 차송(差送)하고, 그 제사를 폐하지 않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 숙보 19권 14년 6월 14일 (을묘) 1번째기사 / 이조 판서 박세채가 올린 시무 12조

이조 판서(吏曹判書) 박세채(朴世采)가 사직소(辭職疏)를 올리고, 덧붙여서 올린 책자(冊子)에 시무(時務) 12조(條)를 논하였다.

…… (중략) ……

수전(水戰)을 익혀야 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진년 · 정유년의 사변에 왜군(倭軍)이 이미 전 국력(國力)을 기울여 침범에 들어와서 무인지경(無人之境)에 들어오듯 하였으나, 다만 해로(海路)에서는 이순신(李舜臣)의 한판 싸움으로 인하여 마침내 감히 뜻을 올리고 북상(北上)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용만(龍灣)의 명령(命令)이 호남(湖南)에 통하여 창의(倡義)한 여러 장수들이 오랫동안 강도(江都)를 보전하였던 것이니, 이로부터 통제영(統制營)을 설치하여 주사(舟師)를 거느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배(船)가 썩고 군사는 원망하여, 한갓 거짓으로 꾸민 장부만 가지고 있으니, 비록 봄·가을로 물에서 조련(操鍊)한다고 하나, 또한 매우 지리멸렬해졌습니다. 지금 마땅히 모두 주사(舟師)의 법에 의하여 자주 연습을 더하게 하되, 바람과 파도가 지극히 험한 즈음에 능히 진퇴(進退)·출몰(出沒)의 묘(妙)를 다하게 한다면 조만간 위급할 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함(戰艦)을 갖추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에서 여러 섬에 선재(船材)를 많이 양성시키지마는, 관리(官吏)의 소모하는 것이 이미 많고, 게다가 용공(庸工)·범부(凡夫)들로써 한갓 옛 제도만 따르니, 이순신이 별도로 거북선(龜船)을 창안하여 기이한 승리로 결정된 것과 같지 아니합니다. 지금 마땅히 연해(沿海) 여러 고을에 나아가서 전선(戰船)이 있는 곳에는 참작해 더 만 들게 하되, 단단하고 편리하게 하고, 또 바다 일에 익숙한 자를 찾아내어 지혜를 쓰고 기계(奇計)를 내게 하여 한 가지 격식에 구애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였다.

- 영조 7권 1년 8월 16일 (신사) 2번째기사 / 김창집·이이명·조태채·이건명 등의 서원 건립을 허락하다

충헌공(忠獻公) 김창집(金昌集)·충문공(忠文公) 이이명(李頤命)·충민공(忠愍公) 이건명(李健命)·충익공(忠翼公) 조태채(趙泰采)의 서원(書院)을 명하여 세우게 하였다. 처음에 유생(儒生) 윤내성(尹來成) 등이 상소하여 서원을 세울 것을 청하니, 대신(大臣)에게 의논하여 품처(稟處)할 것을 명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좌의정(左議政) 민진원이 아뢰기를, “4대신(四大臣)을 합향(合享)하는 것은 비록 숭보(崇報)의 도리에는 합당하나 사당을 세우는 것은 폐단이 있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고(故) 상신(相臣) 김창집(金昌集)은 거제도(巨濟島)에서 체포(逮捕)되었다가 성주(星州)에서 사사(賜死)를 받았으며 거제도나 성주에는 모두 선정신(先正臣) 송시열(宋時烈)의 서원과 영당(影堂)이 있으니 김창집은 여기에 배향(配享)시키고, 이이명은 남해(南海)에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의 사당이 있으니 사적(事蹟)은 비록 다르지마는 나라를 위하여 죽은 것은 같으니 여기에 합향(合享)시키고, 조태채(趙泰采)는 진도(珍島)에 일찍이 귀양 갔었던 여러 현인(賢人)의 서원이 있으니 또한 여기에 합향(合享)시키며, 이건명(李健命)은 흥양(興陽)에서 죽었고 흥양엔 전망(戰亡)한 무장(武將) 두 사람의 사당이 있어 ‘쌍충사(雙忠祠)’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또한 나라를 위하여 죽은 것은 같으니 여기에다 합향(合享)시키고, 다시 액호(額號)를 내리게 되면 이미 조두(俎豆)의 제향(祭享)이 있게 되므로 또한 분잡(紛雜)하고 떠들썩한 폐단은 없을 것입니다.” 하니,

- 英祖 8卷 1年 12月 15日 (戊寅) 1번째기사 / 의종의 어필을 보고 충렬사·삼충사·충무공사에 사제하게 하다

임금이 몸소 경소전(敬昭殿)에 망제(望祭)를 행하고 충렬사(忠烈祠) · 삼충사(三忠祠) · 충무공사(忠武公祠)에 사제

()이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의종(毅宗)의 어필(御筆)을 가져와서 보고 드디어 하교(下敎)하기를, “어제 승정원(承政院)에서 승정 황제(崇禎皇帝)의 어필(御筆)에 대하여, 화양동(華陽洞) 환장암(煥章菴)의 모본(模本)을 올린 것을 보고 감개(感慨)하여 눈물이 흐르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명나라가 재조(再造)하여 준 은혜는 실로 우리 동방(東邦)에서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추모(追慕)할 일인데, 해가 오래 되고 인심(人心)은 익숙하여져서 존주(尊周)하는 한 가지의 일을 거의 서로가 잊게 되었으니, 만약 우리의 성조(聖祖)나 성고(聖考)께서 대의(大義)를 후세(後世)에 퍼지 않으셨다면 우리 동방의 사람이 어찌 존주(尊周)의 의리를 알았겠는가? 그 양조(兩朝)의 뜻을 본받는 데 있어 마땅히 격려(激勵)하고 권장(勸獎)하는 일이 있어야 하니 남한 산성(南漢山城)의 충렬사(忠烈祠)에 관원을 보내어 사제(賜祭)하고, 강화도(江華島)의 구원일(具元一)·강위빙(姜渭聘)·황선신(黃善身) 3신(三臣)이 순절(殉節)한 것에는 감탄하여 칭찬함을 견딜 수 없으니 똑같이 사제(賜祭)할 것이며, 충무공사(忠武公祠)에도 또한 본도(本道)로 하여금 치제(致祭)하게 하라.” 하였다.

- 영조 16권 4년 3월 15일 (을축) 6번째기사 / 이인좌 등 적이 청주성을 함락시키다

적(賊)이 청주성(淸州城)을 함락시키니, 절도사(節度使) 이봉상(李鳳祥)과 토포사(討捕使) 남연년(南延年)이 죽었다. 처음에 적 권서봉(權瑞鳳) 등이 양성(陽城)에서 군사를 모아 청주의 적괴(賊魁) 이인좌(李麟佐)와 더불어 군사 합치기를 약속하고는 청주 경내로 몰래 들어와 거짓으로 행상(行喪)하여 장례를 지낸다고 하면서 상여에다 병기(兵器)를 실어다 고을 성(城) 앞 숲속에다 몰래 숨겨 놓았다. 이에 앞서 성안의 민가에서 술을 빚으니, 청주 가까운 고을 민간에 적이 이르렀다는 말이 무성했다. 병사(兵使) 이봉상을 보고 말한 자가 있었으나 이봉상이 믿지 않고 설비를 하지 않으니, 성안의 장리(將吏)로서 적에게 호응하는 자가 많았다. 이날 밤에 이르러 적이 이봉상이 깊이 잠든 틈을 타 큰 소리로 외치며 영부(營府)로 돌입하니, 영기(營妓) 월례(月禮) 및 이봉상이 친하게 지내고 믿던 비장(裨將) 양덕부(梁德溥)가 문을 열어 끌어들었다. 이봉상이 창황하게 침상 머리의 칼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자 적이 끌어내 칼로 위협했다. 이봉상이 크게 꾸짖기를, “너는 충무공(忠武公) 집안에 충의(忠義)가 서로 전해져 오고 있음을 듣지 못했느냐? 왜 나를 어서 죽이지 않느냐?” 하고 크게 세 번 외치니, 드디어 죽었다. 군관(軍官) 홍임(洪霖)이 변을 듣고는 돌입하여 이봉상 위에 엎드리며 말하기를, “내가 진짜 절도사다.” 하니, 적이 끌어내어 항복하라 협박했으나, 그는 끝임없이 욱을 퍼부었다. 이인좌가 탄복하면서 말하기를, “이는 충신이다. 죽이고 싶지 않지만 나를 죽일까 염려되기 때문에 죽인다. 그러나 일이 성사된 후 너의 후손을 녹용(錄用)하겠다.” 하였다. 홍임이 다시 꾸짖기를, “나에게는 본디 아들이 없지만 있다 하더라도 어찌 너 같은 역적에게 등용되겠느냐?” 하고는 드디어 죽었다.

…… (중략) ……

이봉상은 충무공 이순신(李舜臣)의 후손으로 임금이 그 충성을 가상히 여겨 좌찬성(左贊成)을 추증했다. 시호는 충민(忠愍)이며, 청주(淸州)에 사당을 세우고 표충사(表忠祠)라 사호(賜號)했다. 남연년에게는 좌찬성을 추증했는데, 시호는 충장(忠壯)이다. 홍임(洪霖)에게는 호조 참판(戶曹參判)을 추증하였고 그 마을에 정표(旌表)하였다.

- 영조 29권 7년 2월 9일 (임인) 3번째기사 / 아산 유학 변세구 등이 고 충신 이봉상을 이순신의 묘에 추배할 것을 상소하다

충청도 아산(牙山)의 유학(幼學) 변세구(卞世矩) 등이 상소하여 청하기를, “고(故) 충신(忠臣) 이봉상(李鳳祥)을 그의 할아버지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의 묘(廟)에 추배(追配)하여 조정에서 표충(表忠)하는 뜻을 보여 주소서.” 하니, 임금이 해조에 명하여 복계(覆啓)하게 하였다.

- 영조 39권 10년 9월 1일 (계유) 6번째기사 / 특진관 이삼이 어전의 순령기를 훔쳐서 바꿀 것을 아뢰다

주강(書講)에 나아갔다. 특진관(特進官) 이삼(李森)이 아뢰기를, “순령기(巡令旗)는 모두가 청색(靑色)입니다. 신이 일찍이 통영(統營)에서 홍대단 영기(紅大緞令旗)가 있음을 보았는데, 이는 임진년에 명(明)나라 장수가 충무공(忠武公)과 더불어 독전(督戰)할 때에 사용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어전(御前)의 순령기는 각 군문의 순령기와 빛깔이 같으므로 분별할 수가 없으니, 이제 만약 홍색(紅色)으로 바꾼다면 상하를 분별하는 도리가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병판(兵判) 및 다른 장신(將臣)과 더불어 서로 의논하여 다시 품달하라고 명하였는데, 그 후에 어전의 순령기는 마침내 홍색으로 바꾸었다.

- 영조 40권 11년 1월 20일 (신묘) 1번째기사 / 형조 판서 장봉익이 전선과 거북선 개조에 대한 것을 아뢰다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하였다.

…… (중략) ……

또 아뢰기를, “어제 내시사(內試射)에서 합격하지 못한 자에게 특별히 급제(及第)를 내려 주라고 명하였는데, 어찌 충신의 후손과 조카라고 하여 함부로 규격(規格) 이외의 은전(恩典)을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청컨대 이한범(李漢範)에게 급제를 내려준 명을 도로 거두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윤택하지 않았다. 이한범은 바로 이순신(李舜臣)의 후손으로서 이봉상(李鳳祥)의 조카였다. 헌납 서명형(徐命珩)이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 영조 53권 17년 3월 4일 (기사) 3번째기사 / 경상 감사 정익하가 본도의 일곱 곳의 사우에 면세지 10결을 지급할 것을 청하다

경상 감사 정익하(鄭益河)가 상소하기를, “본도에는 이순신(李舜臣) · 김천일(金千鎰) · 송상현(宋象賢) · 곽재우(郭再祐) · 중 유정(惟政) · 이술원(李述原)의 사우(祠宇)가 있는데, 더러 관(官)에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더러 개인이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고 감사 황선(黃璿)이 본도를 안찰(按察)하다가 무신년 난리를 당하여 반역(叛逆)을 토벌하여 평정한 공이 있었는데, 유독 훈적(勳籍)에 누락되었으므로, 도내(道內)의 사민(士民)들이 그를 위하여 사우를 세우고 그 사우의 이름을 민충사(愍忠祠)라고 하였습니다. 이 일곱 곳의 사우에 대해서는 각기 세금을 면제한 전지(田地) 10결(結)을 지급하여 그것으로 수호(守護)하도록 해야 마땅합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마땅히 대신에게 물어서 하교하겠다.” 하였다. 그 뒤에 대신에게 묻자, 좌의정 송인명(宋寅明)은 말하기를, “전지는 허락할 수 없지만 관청에서 제수(祭需)를 지급하는 것은 아마도 불가함이 없을 듯합니다.” 하고, 우의정 조현명(趙顯命)은 말하기를, “서원(書院)의 〈건립을〉 금지하고 있으니, 사우의 건립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우와 서원은 다르다.” 하였다. 마침내 전지의 지급은 허락하지 않았으며, 사우를 처음 세울 때의 도신은 추고하고 수령은 파직하도록 하였다.

- 영조 59권 20년 2월 27일 (을해) 2번째기사 / 황해 수사 박문수는 황당선의 어로와 밀무역을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 등을 아뢰다

황해 수사(黃海水使) 박문수(朴文秀)가 아뢰기를,

…… (중략) ……

임금이 말하기를,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은 간과(干戈)가 극렬한 가운데에서도 능히 전선(戰船)을 만들었는데 웅진(瓮津)이 아무리 피폐되었다고 해도 돈 4백 냥을 마련하지 못하여 이런 청을 한단 말인가? 수신(帥臣)은 추고하고 스스로 마련하여 배를 만들게 하라.” 하였다.

- 66권 23년 10월 13일 (경오) 1번째기사 / 유신을 불러 《자치통감》을 강하게 하다
유신(儒臣)을 불러 《자치통감(資治通鑑)》을 강(講)하게 하였다.
…… (중략) ……
부교리 김시위(金始燁)는 말하기를, “사람의 전포(展布)란 때를 만나는데 달려 있습니다. 이순신(李舜臣)이 임진년(壬辰年)을 만나지 않았다면 일개 고을의 읍재(邑宰)에 머무는 데 불과했을 뿐입니다.” 하였다.
- 영조 71권 26년 1월 9일 (계축) 1번째기사 / 이조 판서 원경하 등이 인재의 양성에 대하여 아뢰다
이조 판서 원경하(元景夏)가 아뢰기를, “굴을 내리시며 시를 짓게 하신 일은 국조(國朝) 3백 년 만에 다시 있게 된 훌륭한 일입니다. 조종조에는 이러한 훌륭한 일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한 시대 문사(文士)들이 모두 몹시 장려되어 인재가 성하게 배출되었습니다. 임금이 미리 배양하지 않으면 어떻게 위란(危亂)이 있을 때에 사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육신(死六臣)처럼 절의를 세운 선비들은 대체로 영묘(英廟)께서 모아두고 배양하신 사람들입니다. 임진왜란 때에도 이순신(李舜臣) 한 사람만 난리 중에 발탁된 사람이고 여타 충신 석보(碩輔)로서 끝내 중흥의 위공을 세운 사람은 이항복(李恒福) · 이덕형(李德馨) · 윤두수(尹斗壽) · 윤근수(尹根壽) · 유성룡(柳成龍) · 이원익(李元翼) 같은 사람으로 모두가 선조 초년에 배양한 인재들이었습니다.” 하니,
- 영조 71권 26년 1월 23일 (정묘) 3번째기사 / 소대에 《성학집요》를 강하다
임금이 소대에 나아가 《성학집요》를 강하였다.
…… (중략) ……
임금이 말하기를, “송나라 신종(神宗)은 너무나 조급하게 다스려지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쓰게 된 것이다. 선정이 임진년 무렵에 생존했다라면 왜변을 어떻게 주선했었을까?” 하니, 임석현이 말하기를, “이는 우리 나라에 액운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만 선정이 생존했다라면 어찌 파탕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겠습니까?” 하고, 이어서 이순신(李舜臣)의 일을 진달하였다.
- 영조 71권 26년 7월 3일 (계묘) 3번째기사 / 호조 판서 박문수가 상서하여, 용관을 줄이고 주현을 합치는 등의 변통론을 아뢰다
호조 판서 박문수(朴文秀)가 상서 하였는데,
…… (중략) ……
우리 나라의 진보는 매우 많아서 삼남으로 말하더라도 5리, 10리, 20리에 소소한 진보가 겹겹이 잇대어 있으나 있고 없고가 완급에는 별 상관도 없이 앉아서 호령하고 병졸만 못살게 굴며 제 욕심만 채워 백성에게 폐만 끼치는 것이 모두 그러합니다. 설치한 본의를 생각해 보면 임진년에 병란을 겪은 땅이라 하여 대비하려고 함이 어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적의 출몰은 본래 정해진 형적이 없어 신라와 고려 때에는 왜구의 침략이 관동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관동 9군(郡)에 다만 월송(越松)의 쇠잔한 진보 하나만이 있으니, 대비하는 도리에 있어서 한 곳에는 등성등 성하고 한 곳에는 백백한 것은 화살을 따라다니며 과녁을 세우는 것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또 적을 막는 길은 오로지 장수다운 사람을 얻고 못 얻고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통영인데도 원균(元均)이 장수가 되니, 군대 전체가 패망하고, 이순신(李舜臣)이 장수가 되니 가는 곳마다 겨울 만한 상대가 없었습니다. 통영도 이러한데 소소

진보는 말할 것이나 있겠습니까? 하물며 이순신 당시에 이렇듯 허다한 진보가 있어서 힘이 되어 주었습니까? 이제는 그 중 긴요치 않은 진보 4, 50곳을 혁파하고 가장 요해처에 대진(大鎭)을 두어 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다.

- 영조 73권 27년 2월 21일 (기축) 4번째기사 / 호남 군세사 이후가 호남 해도의 상황을, 영남 군세사 박문수가 전선의 일을 아뢰다
호남 군세사 이후(李暭)가 호남의 해도도(海島圖)를 올리고 아뢰기를,
…… (중략) ……
영남 군세사 박문수(朴文秀)가 아뢰기를, “신이 전선(戰船)과 귀선(龜船)의 제도를 상세히 보았더니, 전선은 매양 개조(改造)할 때마다 그 몸뚱이가 점차 길어져 결코 운용(運用)하기가 어렵고 귀선에 있어서는 당초 체제(體制)는 몽충(朦衝)과 같이 위에 두꺼운 판자를 덮어 시석(矢石)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신이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이 기록한 바를 보았더니, 귀선의 좌우에 각각 여섯 개의 총(銃) 쏘는 구멍을 내었는데 지금은 각각 여덟 개의 구멍을 내었으니, 거북선이 종전에 비해 지나치게 커진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으므로 개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
- 영조 77권 28년 6월 3일 (임진) 1번째기사 / 균역청 당상 조영국·어영 대장 홍봉한과 함께 균역 절목을 의논하다
임금이 균역청 당상(均役廳堂上) 조영국(趙榮國)과 어영 대장 홍봉한(洪鳳漢)을 소견(召見)하여 균역 절목(均役節目)을 읽으라고 명하였다.
…… (중략) ……
조영국이 말하기를, “이순신(李舜臣)이 방어할 때에 어찌 일찍이 팔도의 어선(漁船)을 기다렸겠습니까?” 하자, 홍봉한이 급히 앞서 했던 말을 고쳐 말하기를, “1전을 덜어주는 것은 그 은혜가 작고, 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절목 또한 가벼이 고치기 어렵습니다.” 하였다.
- 영조 79권 29년 2월 22일 (무신) 1번째기사 / 화협 옹주방의 외상을 갚아주고, 균역을 실시한 뒤의 폐해에 관해 의논하다
이정청(釐正廳)의 여러 당상(堂上)들을 입시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 (중략) ……
박문수가 말하기를,

이한초(李漢招)·이강(李綱) 등이 담당하고 있었을 적에는 전쟁이 바야흐로 급박했었지만 지금 남방(南方)에 그런 걱정이 있습니까? 민폐가 가장 극심한 것으로 말한다면 통영에서 낙인(烙印)한다고 칭탁하고서 수천의 선척(船隻)들을 독촉하여 바다를 건너 들어오게 하고서는 또 즉시 낙인하지 않은 채 여러 날을 지체시켰는데 그 사이 영속배(營屬輩)들이 조종하여 농간을 부린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원균(元均)이 장수가 되어서는 폐전하였고 이순신(李舜臣)이 장수가 되어서는 승전(勝戰)했으니, 장수의 잘하고 잘못하는 데에 달려 있는 것이지 어찌 선척의 낙인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고,

- 92권 34년 12월 11일 (계해) 2번째기사 / 충청도 유생 윤흠 등이 상서하여 고 참판 이홍무의 배향을 청했으나 불허하다

충청도 유생(儒生) 윤흠(尹僉) 등이 상서(上書)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고 증(贈) 참판 신 이홍무(李弘茂)는 바로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의 현손(玄孫)이고, 충민공(忠愍公) 이봉상(李鳳祥)의 계부(季父)인데, 이봉상이 충청도 병사(兵事)가 되었을 때를 당하여 이홍무가 마침 그 영아(營衙)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신년 역란(逆亂)을 만나, 적(賊)이 먼저 이봉상과 영장(營將) 남연년(南延年)과 비장(裨將) 홍임(洪霖)을 해치고, 차례가 이홍무에게 닥쳐 왔는데, 적이 그를 포박하여 진중(陣中)으로 끌고 가서 군사의 위세를 크게 과시하고 항복하기를 강요하였습니다. 이홍무는 안색을 태연히 한 채 종자(從子) 이학상(李鶴祥)을 돌아보면서 이르기를, ‘불의(不義)에 굴복할 수는 없다.’라고 하고 곳곳이 서서 무릎을 꿇지 아니하였으며, 의(義)로써 버티고 적을 꾸짖었습니다. 적이 이름이 누구인가를 묻자 이홍무가 말하기를, ‘죽이려면 죽일 것이지 이름은 물어 무엇 하겠는가?’라고 하였으며, 적이 또 병부(兵符)가 있는 곳을 묻자, 이홍무가 말하기를, ‘있는 곳을 정말 알지 못한다. 알더라도 또한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니, 적이 더욱 노하여 장차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가쇄(枷鎖)를 씌워서 뇌옥(牢獄)에 가두었는데, 이홍무는 그때 나이가 64세였으나, 몸이 튼튼하고 아무런 병이 없었고 지조가 더욱 격렬하여 분개하다가 먹지 아니하고 죽었습니다. 이홍무를 함께 배향(配享)하자는 청(請)을 허락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왕세자가 답하기를, “같이 배향하자는 청은 너무 중대하니, 가볍게 의논할 수가 없다. 너희들은 물 러가서 학업을 닦도록 하라.” 하였다.

- 영조 95권 36년 5월 29일 (임신) 1번째기사 / 친제 뒤에 관왕묘 태상사에서 재배례를 향하고 내일 선무사를 옮기도록 하다

친제를 거행한 뒤 환궁할 적에 관왕묘(關王廟)에 들어서 재배례(再拜禮)를 행하였으며, 태상시(太常寺)에 나아가서 신실(神室)을 봉심하고 재배례를 행하였다. 이어 원병(援兵)으로 나왔다가 전사한 명(明)나라 관군의 신위판(神位板)을 보고서 선무사(宣武祠)로 옮기도록 명하고, 하교하기를 “아! 어찌하여 이처럼 보기가 늦었던가? 병자년·정축년에서 2년을 넘어서야 이것을 보니, 나의 마음이 갑절 더 감개스럽다. 저 관군은 명장(明將)을 따라서 나왔다가 우리나라에서 전사하였으니, 한결 더 슬프다. 내일 노량진에 제단을 설치하여 이태상(李泰祥)으로 헌관을 삼아서 치제(致祭)하되, 대축은 이훤(李萱)으로 하라.” 하였다. 이태상은 바로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의 손자이고, 이 훤은 바로 <명나라> 제독(提督)의 후손이었다.

- 영조 118권 48년 1월 5일 (신축) 2번째기사 / 약방에서 입진하고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충무공 등의 후손을 서용케 하다

임금이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가자, 약방에서 입진하였다.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고, 고 충신 문렬공(文烈公) 조헌(趙憲),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 충렬공(忠烈公) 송상현(宋象賢), 충렬공(忠烈公) 고경명(高敬命)에게 치제(致祭)하고 그 후손을 녹용(錄用)하도록 명하였다. 이조 판서 김치인(金致仁)이 말하기를, “세갑(歲甲)이 거듭 돌아와서 다시 이 해 <임진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일을 생각하면 인심(人心)이 갑절이나 격렬해집니다. 허다하게 순국(殉國)한 사람들을 일일이 두루 아릴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가장 탁이(卓異)한 사람은 후손을 녹용(錄用)하여 풍성(風聲)을 영구히 수립하는 일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누구인가?” 하며, 김치인이 ‘조헌·이순신·송상현·고경명이라’고 우러러 대답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이 아뢴 바가 아니면 거의 잇을 뻔하였다. 봉사손(奉祀孫)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녹용하게 하고, 제문(祭文)을 마땅히 지어서 내릴 것이니, 예관(禮官)을 보내어 치제하게 하라.” 하였다. 김치인이 말하기를, “고경명의 봉사손은 작년 겨울에 특지(特旨)로 벼슬을 제수(除授)하였고, 이순신·송상현의 봉사손은 전조(銓曹)에서 마땅히 곧 거행하겠습니다. 그러나 조헌의 봉사손은 아직 사환(仕宦)할만한 자가 없고 지손(支孫) 가운데 바야흐로 벼슬에 있는 자가 있으니, 특별히 출륙(出六)해서 차례로 고을 수령을 제수하고, 관(官)에서 제사를 이바지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 118권 48년 2월 5일 (경오) 6번째기사 / 예관을 보내 고 통제사 이순신에게 치제하게 하다
예관(禮官)을 보내어 고 통제사 이순신(李舜臣)에게 치제(致祭)하도록 명하였는데, 선묘(宣廟) 임진년의 공을 돌이켜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 영조 118권 48년 2월 6일 (신미) 2번째기사 / 고 의병장 고경명의 집에 예관을 보내 치제하게 하다
예관을 고(故) 의병장 고경명(高敬命)의 집에 보내어 치제(致祭)하게 하였는데, 이순신(李舜臣)의 예에 의거한 것이었다.
- 영조 118권 48년 2월 11일 (병자) 3번째기사 / 예관을 보내어 고 순절신 송상현을 치제하게 하다
예관(禮官)을 보내어 고(故) 순절신(殉節臣) 부사 송상현(宋象賢)을 치제(致祭)하게 하였는데, 이순신(李舜臣)을 치제한 예에 따른 것이었다.
- 영조 118권 48년 3월 4일 (기해) 4번째기사 / 예관을 보내 의병장 조현에게 치제하게 하다
예관(禮官)을 보내어 고 의병장 조현(趙憲)에게 이순신(李舜臣)에게 행한 예에 의거하여 치제(致祭)하게 하였다.
- 영조 대왕 행장(行狀)
행장(行狀)에 이르기를,
..... (중략)
(원년(元年)) 12월에 이어서 명하여 남한(南漢)에 있는 현절사(顯節祠)에 치제(致祭)하고 또 강도(江都)에 있는 충렬사(忠烈祠)에 제사하고, 또 통제영(統制營)에 있는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의 사당에 제사하고 또 화양동(華陽洞)에 있는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의 사당에 제사하게 하셨다.

(36년) 하5월(夏五月)에 왕께서 남단(南壇)에서 기우(祈雨)하고 회란(回鑾)하다가 태상(太常)에 이르러, 신실(神室)의 한 위판(位版)에 ‘대명동정관군(大明東征官軍)’이라 써 있는 것을 보고 드디어 명하여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의 손자 이태상(李泰祥)을 헌관(獻官)으로 삼고 명나라 제독(提督) 이여송(李如松)의 손자 이훤(李萱)을 대축(大祝)으로 삼고 노량(露梁)에 제단을 설치하여 치제(致祭)하게 하고 이어서 위판을 선무사(宣武祠)에 배향(配享)하게 하셨다.
- 정조 12권 5년 7월 11일 (신해) 1번째기사 / 임란 때 공이 큰 이여송과 정운의 후손을 기용하자는 지중추부사 지선복의 상소문

구선복(具善復)이 상소하기를, “대저 충성을 포상(褒賞)하고 공로에 보답하는 것은 나라를 가진 이의 급선무입니다. 신은 김인서(金麟瑞)의 일 때문에 외람되어 하순(下詢)을 받들었으므로 간략하게 우견(愚見)을 아뢰었습니다만, 오직 이뿐만이 아닙니다. 임진년 남해(南海)에서의 승첩(勝捷)은 이순신(李舜臣)이 실로 원훈(元勳)이고, 사력(死力)을 다하여 마음을 함께 해서 도와서 공적을 이루게 한 데에는 녹도 만호(鹿島萬戶) 정운(鄭運)의 힘이 많았습니다. 정운이 서서 죽은 것 또한 이순신과 똑같은데, 이순신의 자손은 대대로 드러내어 기용하고 있으니, 조가(朝家)에서 보답한 것이 극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독 정운의 후손은 해서(海西)로 유락(流落)되어 하나도 드러나게 기용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임진년에 나라가 다시 구제된 것은 오로지 명(明)나라 제독(提督) 이여송(李如松)이 평양(平壤)에서 세운 공훈에 연유된 것입니다. 명나라가 망하게 되자 제독의 손자가 도망쳐 동쪽으로 왔는데, 이제 그 후손들이 간혹 무예(武藝)로 거용되고는 있습니다만, 세상에서 대하는 것이 도리어 향곡(鄉曲)에서 급제(及第)한 사람만도 못합니다. 신은 이여송과 정운의 후손 가운데 그 쓸 만한 사람을 가려서 기용해야 된다고 여깁니다.

- 정조 16권 7년 10월 2일 (경신) 2번째기사 / 국조보감을 진강하고 임진 왜란 때의 일을 의논하다
 소대(召對)하였다. 《국조보감(國朝寶鑑)》을 진강(進講)했는데, 시독관(侍讀官) 임제원(林濟遠)이 말하기를, “이는 임진년일의 전말(顛末)입니다. 당시의 병력으로 말하건대 출정(出征)한 상장병(上將兵)이 8천 인에 지나지 아니하여 오늘날의 병력에 비하건대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였고, 당시의 인물(人物)로 말하건대 이순신(李舜臣)의 거제(巨濟)에서의 한 차례 전첩(戰捷)은 진실로 기위(奇偉)한 것이었습니다. 고경명(高敬命) · 조헌(趙憲) · 곽재우(郭再祐) 등에 있어서는 관수(官守)의 직책(職責)이 있었던 것이 아니지만 단지 충성과 의리로 사민(士民)들을 격려하여, 양호(兩湖)가 유린되지 않게 되었음은 바로 의병(義兵)들의 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불행히도 군사가 패전하고 몸이 죽게 되었었지만, 그들의 충간(忠肝)과 의담(義膽)은 족히 국맥(國脈)을 만회(挽回)하고 사기(士氣)를 격려하게 되어, 천병(天兵)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이미 극복(克復)하게 될 가망이 있었던 것이니, 열성조(列聖朝)께서 배양(培養)했었기에 흥기(興起)하게 되었던 것임을 대충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만일에 이 사람들이 일찍 그 당시에 쓰임을 보게 되었었다면, 거의 주자(朱子)의 이른바, ‘가만히 화(禍)의 근본을 해소해버리고 앞질러 간사한 싹들을 꺾어버린다.’고 한 말과 같이 될 가망이 있었을 것인데, 태평한 시절에 있어서는 버림받다가 불행 속에 유락(流落)해서야 비로소 절의(節義)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고이래로 이러한 때에 큰 공을 이루고 큰 절의를 세우는 사람은 허다히 임금이 그의 면목(面目)도 모르는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이는 신(臣)이 역설(臆說)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자의 무신 봉사(戊申封事) 내용에 이미 이런 뜻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비록 오늘날의 만호(萬戶)나 첨정(僉正) 속에 있어서라도 이순신과 조헌 같은 사람이 없는 것인지 어찌 알 일이겠습니까? 반드시 소원(疏遠)한 속과 비미(卑微)한 곳에서 인재를 찾아내는 일을 깊이 성명(聖明)께 바라는 바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참 좋은 말이다.” 하였다.

- 정조 17권 8년 윤3월 6일 (신유) 3번째기사 / 김익이 왜란 때 전라 우수사 이억기의 시호를 청하니 따르다
 김익(金燧)이 아뢰기를, “임진년 난리 때에 전라 우수사 이억기(李億祺)가 적을 섬멸한 공로는 이순신(李舜臣)의 다음으로, 당시에 이미 병조 판서에 추증(追贈)되고 뒤따라 또 충민사(忠愍祠)에 봉향(奉享)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호를 내리는 전례(典禮)가 빠뜨려졌으니, 청컨대 특별히 시호(諡號)를 내려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정조 21권 10년 3월 20일 (갑자) 1번째기사 / 윤광소의 일은 다시 거론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다
 차대하였다.

…… (중략) ……

말하기를, “요컨대, 진정(鎭靜)시키는 것이 현재의 급선무이니, 윤광소의 일은 지금 와서 제기할 필요가 없다. 대체로 선정이란 칭호는 유현(儒賢)에게만 사용한 것이 아니고 김인후(金麟厚)에게 제사지낸 제문(祭文)에도 선정이라고 일컬었다. 그리고 이순신(李舜臣)은 무인(武人)이지만 또한 선정으로 일컬었고 보면 선정을 꼭 유현에게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지금 선정이란 두 글자를 가지고 서로 타투어 변론하고 있으니, 또한 이상한 일이다.” 하니,

- 정조 22권 10년 10월 4일 (갑진) 2번째기사 / 비변사에게 어염세를 사목에 따라 징수하도록 아뢰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 (중략) ……

1. 연해안의 전선(戰船) 체제가 매우 커서 배를 정박한 곳에 물이 빠지면 계속 육지에 있게되니, 앞으로는 전선을 새로 건조할 때엔 애써 가볍고 빠르게 만들고 정박한 곳 중 물이 없는 곳은 물이 있는 포구로 옮겨 설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전선의 체제의 척수(尺數)를 줄이는 것에 대해 전후 갑론을박(甲論乙駁)이 한두 번뿐만이 아니었으나, 필경 옛날 체제대로 하기로 한 것은 대체로 이는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이 남긴 제도로서 충무공이 적군을 깨뜨린 공이 대부분 큰 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더구나 조선(漕船)과 상선(商船)은 모두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 옛날의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박할 곳을 옮겨 설치하는 것은 전에 이미 각도의 수영에 알리어 편리에 따라 포구를 파라고 하였으니, 지금 다시 논할 것은 없습니다.”

- 정조 32권 15년 2월 22일 (정묘) 2번째기사 / 사학 유생 이명오 등이 온양의 정퇴 서원의 위치 문제로 상소하다

사학(四學)의 유생 이명오(李明吾) 등이 상소하기를 “ 온양군(溫陽郡) 설화산(雪華山) 아래에 정퇴곡(靜退谷)이란 골짜기가 있는데, 송정(崇禎) 갑술년에 이 고을 사람 조상우(趙相愚)가 그 지명이 문정공(文正公) 조광조(趙光祖)와 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의 별호와 서로 부합된다 하여, 드디어 사우(士友)들과 서원을 건립하고는 문정공과 문순공의 사판(祠版)을 봉안하고 향현(鄉賢) 문장공(文莊公) 홍가신(洪可臣)을 배식하였는데, 서원의 이름은 문정공(文正公) 송준길(宋浚吉)이 ‘정퇴 서원(靜退書院)’이란 네 글자를 직접 써서 달았습니다. 또 서원 옆에 충효당(忠孝堂)을 세워 증 영의정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과 증 참판 강봉수(姜鳳壽)를 배향했으니, 이는 역시 남강사(南康祠)에 별도로 한 사당을 세워 도 정절(陶靖節)과 진 요옹(陳了翁)을 제사한 전례를 모방한 것이었습니다.

- 정조 32권 15년 3월 19일 (계사) 3번째기사 / 삼학사의 봉사손을 거두어 쓰도록 하다

삼학사(三學士)의 봉사손(奉祀孫)을 거두어 쓰도록 명하고, 고 상신 유성룡(柳成龍), 충무공 이순신(李舜臣)의 직계 후손으로서 쓸 만한 자를 찾아서 아뢰도록 하였다.

- 정조 35권 16년 7월 25일 (임술) 1번째기사 / 충무공 이순신과 충민공 임경업의 자손을 황단 망배례에 참례하게 하다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 충민공(忠愍公) 임경업(林慶業)의 자손을 황단(皇壇) 망배례(望拜禮)에 배참(陪參)하게 하고, 고(故) 목사(牧使) 제말(諸末)에게 시호(諡號)를 내리고 그의 조카 제홍록(諸弘錄)에게 벼슬을 추증하였으며 비석을 세워 그곳을 정표(旌表)하라 명하였다. 전교하기를, “어제 황단에 공손히 절한 것은 신종 황제(神宗皇帝)의 기신(忌辰)이기 때문이었다. 그날 충신의 후예를 소견하고 유생은 시제(試製)하고 무사(武士)는 시사(試射)하였다. 그리고 나라를 다시 세워준 황제의 은혜를 길이 생각하고 우리 나라 충신에게 미치게 하여 전수(篆首)로 써서

이순신의 공렬(功烈)을 표창하고자 하였다. 이를 인하여 생각하니,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은 대의(大義)를 창명(倡明)하였으므로 그의 자손을 망배례의 반열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여 이미 정식을 삼았는데, 더구나 충무공은 황조(皇朝)의 도독(都督)이란 고인(誥印)을 받았음에야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충무공의 후예도 문정공 집안의 예에 의해서 반열에 참여하게 하라. 정유년 척화(斥和)한 사람의 자손도 오히려 반열에 참여하는데 충민공 임경업의 후손이 반열에 참여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모두 반열에 참여하게 하라.

- 正祖 35卷 16年 8月 19日 (乙酉) 1번째기사 / 황조의 부총병 등자룡을 강진 탄보묘에 배향하고 관리를 보내

제사지내다

황조(皇朝)의 부총병(副總兵) 등자룡(鄧子龍)을 강진(康津) 탄보묘(誕報廟)에 배향하고 관리를 보내 치제(致祭)하였다. 전교하기를, “근래에 이충무(李忠武)의 유사(遺事)를 보다가 노랑진 싸움을 추억하면서 저도 모르게 넓적다리를 만지면서 길게 탄식하였다. 중국의 부총병 등자룡은 70세의 노장(老將)으로 2백 명의 용사(勇士)를 이끌고 넓은 바다 위를 마음대로 횡행하면서 손에 침을 뱉으며 교활한 왜적을 섬멸할 것을 맹세했으니, 그 호탕한 담력은 대장부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수공(首功)을 차지하고자 하여 충무공의 배로 뛰어올라 곧장 앞으로 돌격하여 수없이 많은 포로를 잡았으나 우연히 화기(火器)를 건드려 중류(中流)에서 불이 붙자 적이 달라붙었는데도 오히려 힘껏 싸웠다. 충무공이 달려가 구해주다가 함께 죽었으니, 이 일은 서희진(徐希辰)의 《동정기(東征記)》에 자세히 실려 있다. 내가 일찍이 불쌍하게 여겨 《명사(明史)》 본전(本傳)을 상고해 보니 ‘조선에서 묘식(廟食)을 받고 있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애당초 묘식함이 없고 강진의 도독(都督) 사당에도 또 배향하지 못했으니, 흥전(欠典)·궐사(闕事)로 어는 것이 이보다 크겠는가. 평양 무열사(武烈祠)에 참장(參將) 낙상지(駱尙志)를 추가로 배향하자고 도백이 건청(建請)하여 이미 허락하였다. 같은 때 같은 일을 한 사람의 공덕을 보답하는 전례가 어찌 한 사람은 하고 한 사람은 하지 않아서 중국 장수의 영혼이 깃들 곳이 없게 하겠는가. 중국 부총병 등자룡 공을 진 도독(陳都督)의 사당에 승배(陞配)해야 하는데 처음에 듣기로는 사당이 남해(南海)에 있다고 하여 이제 평양의 낙공을 추배할 때에 미처서 함께 거행하고자 하였다. 다시 듣건대 도독은 충무공과 강진 땅 탄보묘 옆에 배향하였다고 하니 등공의 별사(別祠)도 마땅히 이 사당에 배향해야 한다. 승배(陞配)하는 날에 관원을 보내 치제하되 충무공을 이미 함께 배향하였으니 일체로 치제하라. 제문은 모두 마땅히 친히 짓겠다. 치제는 비록 명이 있지만 이때에 주전(廚傳)하는 데 폐단이 있으니, 헌관(獻官)은 부근의 문관인 원 가운데서 차출해 보내라. 등 총병은 충무공과 동시에 노랑에서 목숨을 바쳤는데 충무공은 남해의 충열사(忠烈祠)에서 전향(專享)하고 있다 한다. 충무공의 유사를 근래에 내각(內閣)으로 하여금 전서(全書)로 찬(撰)하게 하였으니 인쇄가 끝나기를 기다려서 1본(本)을 본 사당에 보관하고 인하여 치제를 행하라.” 하였다.

- 정조 35권 16년 9월 5일 (신축) 3번째기사 / 각신 서유방이 이순신의 아들들의 증직과 정려를 청하다

이에 앞서 각신(閣臣) 서유방(徐有防)이 아뢰기를,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의 아들 이면(李勉)은 왜적에게 죽었고 서자(庶子) 이훈(李薰)과 이신(李薰)은 오랑캐에게 죽기도 하고 이괄(李适)의 난리에 죽기도 하였으니, 아울러 증직(贈職)하거나 정려(旌閭)할 것을 대신(大臣)에게 물으소서.” 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좌의정 채제공(蔡濟恭)이 복주(覆奏)하기를, “충무공이 통영(統營)에 있을 당시 아들 이면은 고향집에 있다가 왜적을 만나서 여기저기서 싸워 왜적 3명을 죽이고 그도 왜적의 칼날에 죽었습니다. 죽을 당시 총각이었는데 참으로 충무공의 아들로서 부끄러움이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충무공이 순국(殉國)하기 전의 일어서 효자로 정려할 수도 없고 또 충신으로 정려할 수도 없습니다. 이훈은 정묘년 호란(胡亂)에 죽었고 이신은 안현(鞍峴)에서 죽었으니 그 충절(忠節)이 우뚝하다고 일컬을 수 있으나, 다만 이 두 사람도 후손이 없고 또 사판(祠版)도 없으며 전쟁터에서 죽었기 때문에 무덤도 만들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비록 증직의 교지가 있다 한들 누구에게 전할 것이며 어디에 고하겠습니까. 매우 난처한 일입니다.” 하니, 그대로 두라고 명하였다.

- 38권 17년 7월 21일 (임자) 1번째기사 / 총무공 이순신을 의정부 영의정으로 추증한다고 전교하다

승지를 보내어 황단(皇壇)의 위패를 봉안(奉安)한 방을 봉심(奉審)하게 하고, 행 부호군 이원(李源)은 선무사(宣武祠)를 봉심하게 하였으며, 총무공 이순신(李舜臣)에게는 의정부 영의정을 더 추증하였다. 전교하기를, “이 날이 무슨 날인가. 아, 신종(神宗) 황제가 우리 나라를 구원하여 다시 있게 해 준 은혜는 하늘과 더불어 다함이 없다. 비풍(匪風)의 감상(感傷)과 하천(下泉)의 쓰라림을 장차 어디에 그 만분의 일인들 표시할 수 있겠는가. 이미 근신(近臣)을 보내어 위패를 봉안한 방을 대신 봉심하게 하였으며 거듭 무신(武臣) 이원(李源)을 시켜 선무사에 가서 두루 돌아보게 한 것은 주로 이 날을 기억하려 함에서이나 이것으로 어찌 기억이 되겠는가. 덕을 본받고 공을 갚는 데는 나라의 밝은 법규가 있는데, 더구나 작은 나라 배신(陪臣)으로서 명나라의 은총을 입어 천하의 명장이 된 사람은 바로 이 총무공이다. 옛적 무령왕(武寧王) 서달(徐達)의 비석을 황제가 직접 글씨를 쓰고 유사(有司)가 비 세우는 일을 맡아 하였었다. 우리도 삼가 이를 모방하여 일찍이 그 도로 하여금 비석을 깎아놓고서 비석 머리에 새길 전자(篆字) 글씨를 써서 내려 보내고 명시(銘詩)를 지어 보일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였었는데, 작년에는 민생에 관한 일로 바빠서 미처 하지 못하였다. 이에 오늘 총무공 후손을 불러 물어보고 그 공역을 감독하도록 하였다. 또 생각해 보면 총무공의 그 충성과 위무(威武)로서 죽은 뒤에 아직까지 영의정을 가증(加贈)하지 못한 것은 실로 잘못된 일이었다. 유명 수군 도독 조선국 증 효충 장의 적의 협력 선무 공신 대광 보국 승록 대부 의정부 좌의정 덕풍 부원군 행 정헌 대부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 겸 삼도 통제사 총무공 이순신에게 의정부 영의정을 가증하라. 비석을 세우는 날의 치제(致祭)에 대하여는 전에 명을 내려 알렸는데, 벼슬을 추증하고 선고(宣誥)하는 일도 그날 함께 거행하도록 하라. 그리고 《춘추(春秋)》를 읽을 만한 곳이 없다고 하면서 삼전(三傳)을 묶어 높은 데 얹어놓지 말라. 이 의리(義理)는 우주간에 영원히 존재하고 있어 해·별과 함께 광채를 빛낼 것이다. 어찌 이를 강명(講明)할 방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날이 무슨 날인가.”하였다.
- 정조 38권 17년 7월 21일 (임자) 2번째기사 / 행 부호군 이원을 지중추부사에 제수하라고 전교하다

이원을 자헌(資憲)의 품계로 특별히 올려주고 지중추부사에 제수하였다.

…… (중략) ……

제독(提督)의 사당에 총무공 이순신의 후손인 금위 대장(禁衛大將) 이한풍(李漢豐)을 보내어 길일을 가려서 치제하게 하라. 제문은 내가 친히 지을 것이며 제물과 제의(祭儀)는 기유년에 행한 60돌 때의 전례를 사용하라.” 하였다.
- 정조 42권 19년 5월 11일 (신유) 2번째기사 / 임금이 지은 고 충신 이순신의 상충 정무비 인본을 나누어 주다

임금이 지은 고(故) 충신 이순신(李舜臣)의 상충 정무비(尙忠旌武碑) 인본(印本)을 나누어 주었다. 이에 앞서 상이 총무공(忠武公) 이순신의 탁월한 공적과 충절을 생각하여 신도비명(神道碑銘)을 친히 지었다. 그리고 송(宋)나라 부필(富弼)의 묘비(墓碑) 제목을 전자(篆字)로 썼던 예를 본따 그 비의 제목을 전자로 써서 ‘상충 정무지비(尙忠旌武之碑)’라고 하고, 내각에 명하여 안진경(顔眞卿)의 가묘(家廟)의 비(碑)에서 글자를 모아쓰게 하였다. 그리고는 호남의 도백(道伯) 이형원(李亨元)에게 명하여 돌을 캐내어 그 묘에 세우게 하였는데, 갑인년에 그 일이 마무리되었다. 이 때에 이르러 내각이 탐본(榻本)을 바치자 다섯 군데의 사고(史庫) 및 관각(館閣)과 태학(太學)에 나누어 보관토록 명하였다.
- 정조 43권 19년 9월 14일 (임술) 1번째기사 / 《총무공이순신전서》를 발간하다

《총무공이순신전서(忠武公李舜臣全書)》를 발간하였다. 이에 앞서 내각에 명하여 이순신의 옛날 행적 및 유고(遺稿)를 모아 한 책으로 만들도록 명하였는데, 이 때에 와서 편찬해 올리니, 하교하기를, “이번 일은 충의를 드높이고 공로에 보답하며 무용(武勇)을 드러내고 공적을 표창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편집할 때에도 여러 차례

걸쳐 관심을 표명했었으니 이제 인쇄할 때에 와서도 역시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마땅하다. 이제 내탕(內帑)의 돈 5백 민(緡)과 어영(御營)의 돈 5백 민을 내려주어 책을 인쇄하는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라.” 하였다.

- 정조 43권 19년 12월 5일 (임오) 1번째기사 / 충무공 이순신의 치제문을 친히 짓고, 통영의 충렬사에 제사를 올리게 하다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의 치제문(致祭文)을 친히 지은 뒤 통제사(統制使) 이득제(李得濟)에게 명하여 통영(統營)의 충렬사(忠烈祠)에 제사를 올리게 하였다.

- 정조 45권 20년 7월 22일 (을축) 1번째기사 / 이완·이순신·이억기 자손에 대한 관직 의망을 논의하다
 전교하였다.

…… (중략) ……

어제 이 제독(李提督)과 이충무공의 일에 대해 감회가 일어나 이를 정익(貞翼)에게까지 미루어서 특별히 배향하고자 하여 붓을 가져다 글을 짓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그 즈음에 들건대 그의 봉사손이 궁마(弓馬)에 종사하다가 지방으로 떠돌아다닌다고 하니 어쩌면 이리도 늦게 그러한 일을 전해 들었던 말인가. 대체로 정익의 충성스럽고 맑은 큰 절개는 충무공 이후 이 한 사람뿐인데 영릉(寧陵)을 만나 매우 분명하게 뜻이 맞아 몸소 장상(將相)을 거느려 나라의 안위를 짊어졌으니 차마 기해년 여름 북영(北營)에 직속했을 때의 일을 말할 수 있겠는가. 매번 유사(遺事)를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책을 덮으며 눈물을 닦았다. 더구나 스스로 하찮고 미미한 정성을 부쳐 삼가 배장(陪葬)하는 의리를 본받아, 마침내 그 몸을 능 앞의 상석 가까운 곳에 묻게 하였다. 이러한 은혜로운 대우와 이러한 정성은 지난 역사에 드문 일이니 어찌 사라져 없어지게 해서야 되겠는가. 그런데 정익이 죽은 후에 그 사관이 한 번도 관향(官享)을 받지 못하였으니 다만 그 봉사손이 승적(承嫡)한 것이 시속에 구애되어 그렇게 된 것이나 승적한 것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이다. 이문성(李文成)·김문경(金文敬)의 집안에는 곤수(閻帥)와 침랑(寢郎)이 되는 데 구애되는 바가 없었는데 유독 정익 집안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였으니 어찌 성조(聖祖)의 성의를 몸받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고우의정 정익공 이완(李浣)의 봉사손 한량 이득형(李得馨)을 오늘 안으로 남행(南行) 선전(宣薦)에 자급을 뛰어올려 보내고 이어 오늘 정사에서 선전관 가설직에 의망해 넣으라. 이후로 이 계파의 사람들은 충무공 이순신, 의민공(毅愍公) 이억기(李億祺) 집안의 예에 따라 선전 관청에 자급을 뛰어올려 천거하고 우선 권점을 더하라. 그리하여 이 세 집안을 한결같이 보아 혹 취사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를 해당 관청의 수교(受敎)에 기록하라. 또 정익의 묘소에 승지를 보내어 길일을 잡아 치제하라.”

- 정조 45권 20년 8월 9일 (신사) 4번째기사 / 유지걸 등 유씨 집안과 이순신 집안에 시호를 내리는 문제를 논의하다
 우의정 윤시동이 아뢰기를, “고 통제사 유형(柳珩)과 고 훈련 도정 유병연(柳炳然)은 할아버지와 손자로 모두 송나라 신하 악비(岳飛)의 일처럼 ‘진충 보국(盡忠報國)’ 네 글자로 등에 문신을 했었습니다. 유형은 본래 남해 현감(南海縣監)으로서 충무공 이순신의 노랑해전을 도왔는데 탄환을 맞고도 죽지 않았으니 그 자취가 매우 위대하였습니다. 유병연은 효종조 때 정익공(貞翼公) 이완(李浣)의 천거를 받았는데 선정신 송시열이 비밀 유시를 받고는 그로 하여금 와신상담하는 성상의 의지를 알게 하였습니다. 그의 지혜롭고 용감하며 청백했던 사적이 모두 선정이 찬술한 비문 가운데 실려 있습니다. 문정공(文正公) 이재(李穡)가 칭찬 바 ‘중국에는 천고에 한 사람의 무목(武穆)만이 있었는데 우리 나라에는 한 집안에 두 무목이 있다.’는 말은 또한 그를 드러내 빛낸 명언입니다. 성상의 조정에서 정전(旌典)을 시행함에 조그마한 선이라도 반드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두 신하에 대해서만은 아직까지 드러내 주는 거조가 없

. 호서의 유생과 선비들이 연명으로 신들에게 단자를 올려 그것을 진달해 주도록 청하였습니다. 증시(贈諡)의 실적이 이미 이와 같고 공의 또한 민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히 이에 우러러 아립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유씨의 집안에는 어쩌면 그리도 충신과 명장이 많은가. 대체로 증 영상 유형과 그 손자 증 판서 유병연은 곧 충무공 이순신과 정익공 이완이 혹 천거하여 자신을 대신하게 하기도 하고 혹 장수의 재질이 있다고 천거하기도 한 사람들이니 그 사람됨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진충 보국’ 네 글자로 등에 문신을 한 충성은 할아버지와 손자가 똑같았으니, 시호를 내리는 은전을 우리 나라의 두 무목에게 시행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먼저 하겠는가. 특별히 아울러 증시하라. 고 충용사 유림(柳琳)은 중국 조정을 위하여 금주(錦州)의 싸움에서 절개를 온전히 하여 저들이 아직까지도 칭찬해 마지 않고 있다. 유효걸(柳孝傑)은 유형의 아들로서 강홍립의 부름에 굴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서제 유지걸(柳智傑)이 20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상투를 틀고 스스로 대신 가기를 청하여 심하(深河)에서 숨을 거두었다. 유효걸의 아들 가운데 또 고 훈련 대장 유혁연과 병연이 모두 정익공에게 천거받아 중요한 정사에 모두 참여하였는데, 사람들이 서로 호흡이 잘 맞는 것을 두고 마치 오른손과 왼손 같다고 비유하였다. 지난번에 무사들을 시험보이는 일로 인해서 가마가 태평교(太平橋)를 지날 때 길 곁으로 고 장가(將家)의 유허가 나타났는데 한참 동안이나 탄식하였다. 유지걸에게 만약 정증(旌贈)한 바가 없으면 상세히 상고하여 초기하라. 이로 인하여 또 생각건대, 충무공의 아들 이면(李勉)이 정유년에 순국하고 이훈(李薰)이 갑자년에 순국하였으며 이신(李薰)이 정묘년에 순국하였는데 정증하는 전례가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 유지걸을 정증하는 문제에 대하여 의논하는 때에 차마 충무공의 집안에 이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해조로 하여금 각기 화함(華啣)을 증정하도록 하라.” 하였다.

- 정조 45권 20년 11월 3일 (갑진) 2번째기사 / 유지걸을 당하의 직책에 추증하고, 공주 땅에 정려하라고 명하다
유지걸(柳智傑)을 당하의 직책에 추증하고 그의 고향에다 정려하라고 명하였다. 지걸은 바로 증 영의정 유형(柳珩)의 서자로서 심하(深河)의 싸움에서 목숨을 바친 자이다. 이보다 앞서 표창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예조가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의 서자의 예에 따라 관직을 추증하기를 청하니, 따랐다. 또 정려하라고 명하였으나 지걸은 정문을 세울 만한 묘나 사당이 없었다. 예조가, 여러 유씨들이 원하는 대로 그가 태어나서 자란 공주(公州) 땅의 종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세워주기를 청하자, 따랐다.
- 정조 46권 21년 윤6월 6일 (갑진) 1번째기사 / 이병모가 인재 등용, 《대전통편》의 편집, 역로의 피폐 등에 대해 아뢰다
차대(次對)를 하였다. 우의정 이병모(李秉模)가 아뢰기를, “조급하게 진출을 다투는 풍습은 구하는 자는 얻고 구하지 않는 자는 얻지 못하는 데서 전적으로 연유합니다. 정 숙자(程叔子)가 이른바 ‘높은 자급으로 위(位)에 있으면서 인재를 구하지 않고 남으로 하여금 거꾸로 와서 자신을 구하게 하니, 이는 무슨 도리인가.’ 한 것은 바로 천고의 격언입니다.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 같은 이는 거의 제갈무후(諸葛武侯) 뒤의 일인자인 격인데, 그가 영락하였을 때를 당하여 동종(同宗)으로서의 친밀함이 겹쳐 있고 거기에서 본병(本兵)의 권한까지 겸하고 있던 현명한 선정(先正) 이 문성(李文成)이 그를 구하였지만 만나볼 수 없었으니, 이 한 가지 일만 관찰하여도 뒷날의 전공 수립을 추측하기에 충분합니다. 오늘날의 무너진 풍속으로 이와 같은 인재를 구하여 벼슬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바로 7년이 된 병에 3년 목은 약썩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전형(銓衡)의 책임을 맡은 자가 과연 자나 깨나 이런 마음을 지닌다면 재능을 소유하고서 값을 기다리는 인사가 없으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정(大政)이 멀지 않았으니 이것을 두 전조(銓曹)의 신하에게 엄중히 경계하소서.” 하니, 윤택하였다.

- 47卷 21年 8月 19日 (乙卯) 3번째기사 / 안홍국에 대한 《충무공전서》의 기록을 상고하여 이를 바로잡게 하다
용인(龍仁)의 유학(幼學) 안석광(安錫光)이 상언(上言)하기를, “신의 6대조 안홍국(安弘國)은 힘껏 싸우다가 만력(萬曆) 정유년 6월 19일 안골포(安骨浦) 앞 나루에서 한 몸을 바쳤는데, 《충무공전서(忠武公全書)》에는 ‘통제사(統制使) 원균(元均)과 7월 15일 한산도(閑山島)의 군진(軍陣)이 무너질 때 같이 죽었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죽은 것은 같으나 싸우다가 죽은 것과 군진이 무너져서 죽은 것은 아주 다릅니다. 뜻을 두었던 일이 이로 인하여 묻혀버리고 공적이 이로 말미암아 없어졌으니, 삼가 바라건대 특별으로 《충무공전서》에 고쳐 기록하게 해 주소서.”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힘껏 싸우다가 죽은 것이나 군진이 무너져서 죽은 것이나 죽은 것은 마찬가지로입니다만 용맹함과 비겁함은 판이합니다. 지명과 날짜가 이처럼 서로 틀리니, 당초 책을 편집한 신하로 하여금 사적을 다시 상고해서 사실대로 바로잡도록 하소서.”하니, 하교하기를, “내각(內閣)으로 하여금 공사(公私)의 문적을 다시 고증하게 한 뒤 바로잡아야 하거든 바로잡도록 하라.”하였다.

- 정조 47권 21년 10월 28일 (계해) 1번째기사 / 여준영을 불러 보고, 춘당대에 나아가 별군직·무예청의 시사를 행하
관서 안사(關西按查御史) 여준영(呂駿永)을 불러 보았는데, 복명(復命)한 때문이었다. 춘당대에 나아가 별군직(別軍職)·무예청(武藝廳)의 시사(試射)를 행하였다. 하교하기를, “작고한 충신 정운(鄭運)의 사손(祀孫)을 호남에서 찾아내어 특별히 내승(內乘)의 직에 붙인 뒤 그로 하여금 활쏘기를 익히게 한 것이 이미 몇 년이 되었는데, 오늘 시사에서 4발을 맞추었다. 그 할아버지의 충의를 추념(追念)하면 비록 1발을 맞추었다 하더라도 한 번 급제시키는 것이 무슨 아까울 것이 있겠는가. 이 충무(李忠武)가 충무(忠武)가 된 것은 곧 그 사람의 공로 때문이라고 대답한 그 말이야말로 얼마나 강렬한가. 검에 새긴 말보다도 능름하였다. 지금 그 후손이 입격한 것을 보니 배나 감격스럽다. 내승 정계주(鄭繼周)를 전시에 직부(直赴)하게 하라. 그리고 여장(御將)으로 하여금 양식과 자금을 넉넉히 주어 내려보내게 하고 도신으로 하여금 유가(遊街)의 비용을 주어 그가 향리에 돌아가 자랑하게 함으로써 먼 지방 사람으로 하여금 충의를 숭상하는 정치를 알게 하라.”하고,

- 정조 48권 22년 3월 19일 (계미) 3번째기사 / 문정공 윤희와 충무공 김응하에게 어제시를 내리다
참반(參班)했던 제신(諸臣)들에게 명하여 문정공 윤희에게 부조(不祧)의 특전을 내리고 나서 지은 어제시(御製詩)와 충무공 김응하의 봉사손에게 사제(賜第)하고 나서 지은 어제시에 대해서 각각 창화하여 올리도록 하였다.

…… (중략) ……

또 명하여 무장인 충무공 이순신(李舜臣)과 충숙공(忠肅公) 조정익(趙廷翼)의 후손들에게 북영(北營)으로 가서 유엽전(柳葉箭)을 시험하게 하여 초시(初試) 합격을 내리고 인하여 북원(北苑)으로 가서는 친히 시험하여 사제(賜第)하고서, 특별히 무오 식년의 방방(放榜)에 붙이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일이 마치 때를 기다림이 있는 듯하니, 어찌 옛일에 대한 슬픔을 이루 다 감당하랴. 만일 영령(英靈)들이 앓아 있다면 반드시 흐르는 눈물을 금치 못할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시 일절(一絶)을 써서 철원(鐵原)의 포충사(褒忠祠)에 걸게 하는 바이다.” 하였다. 그 시는 다음과 같다. 남야의 높은 명성 사이에까지 알려져 천자의 고명 요동백이 해동에 내리었네 심하의 늙은 버들이 사람마냥 서있노니 장군이 칼 기대고 서 있던 모습일레라.

- 정조 49권 22년 7월 22일 (갑신) 4번째기사 / 충무공 이순신의 사손을 서용하라고 명하다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의 사손(祀孫)을 녹용(錄用)하라고 명하였다.

- 50권 22년 12월 19일 (무신) 3번째기사 / 이번 도목정 때 충신 자손을 많이 등용하다

전교하였다. “매번 정사를 할 때마다 특별히 유시하여 충신의 자손을 등용하라고 했었는데도 종이장 위의 빈말이 됨을 면치 못하였다. 이번 정사에서는 두 전조에서 이 뜻을 잘 받들어서 조 문충공(曹文忠公)의 집안에서는 감사를 내고, 임 충민공(林忠愍公)의 집안에서는 곤수를 내고, 황 충민공(黃忠愍公)의 집안에서는 도정(都正)을 내고, 윤 충헌공(尹忠憲公)의 후손은 전례대로 목사로 올려 제수하고, 남 충장공(南忠壯公)의 후손은 특별히 발탁하여 수령에 제수하고, 포은(圃隱)의 후손은 곧바로 당상관 자리인 부사(府使)에 제수하였다. 3대의 효자이며 8개의 정려문을 세운 집안의 사람인 이중온(李重溫)에게는 처음으로 벼슬자리를 주었으며, 직급이 낮은 이한두(李漢斗)에 이르러서도 충무공(忠武公)의 서손(庶孫)이라는 이유로 충무공이 처음으로 벼슬길에 나섰던 발포진장(鉢浦鎭將)으로 삼았으니, 말이 족히 들을 만하고 명분 역시 실질에 부합된다. 이를 인하여 생각해 보건대, 증 참판 정운(鄭運)은 충무공과 옛 비슷한 공을 세웠는데, 그의 후손인 정혁(鄭赫)이 근래에 비로소 발탁되어 변방에서 근무하고 있으니, 세 병영 가운데서 별장(別將)의 자리를 만들어서 그를 특별히 의망하되 경력은 방어사(防禦使)와 똑같이 쳐주도록 하라고 분부하라. 그리고 포은의 제사를 받드는 후손이 당상관으로 올라 가까운 고을의 수령이 되었으니 어찌 희귀한 일이 아니겠는가. 부임하는 날 송양 서원(松陽書院)에 관원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게 하라.”
- 정조 51권 23년 2월 23일 (신해) 2번째기사 / 단향을 거행하고 김시민·이순신 등의 자손을 단향 집사로 차임하는 것을 법식으로 정하다

전교하였다. “오늘 밤이 어떤 밤인가. 단향(壇享)을 장차 거행하려고 하니, 서계(誓戒)하며 옛 일을 생각하는 이외에 훌륭한 인물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참으로 간절하다. 요동 백(遼東伯)의 봉사손 김택기(金宅基)에 대해서 어찌 계제(階梯)에 얽매일 것이 있겠는가. 오늘 정사에서 훈련원 정(訓練院正)으로 의망해 들이라. 그리고 김 충무(金忠武) · 이 충무(李忠武) · 이 제독(李提督) 이외에도 이상의 세 집과 같은 충신 집 자손들에 대해서는 비록 무관일지라도 단향의 집사(執事)로 차임하는 것을 지금부터 법식으로 정하라.”
- 순조 2권 1년 1월 26일 (계묘) 2번째기사 / 예조에서 충신의 증직과 열녀·효자의 급복을 청하다

예조에서 유생(儒生)의 상언(上言)으로 인하여 회계(回啓)하여, 충신(忠臣) 고 판관 정승복(鄭承復), 그 아들 고 현감 정사준(鄭思竣)·정사횡(鄭思竑), 그 손자 고 현감 정빈(鄭斌) 등 3세(世)의 네 충신 및 효자 나주(羅州)의 고 처사(處士) 최여진(崔汝軫), 풍천(豐川)의 고 학생 여시망(呂時望) 등에게 아울러 증직(贈職)하기를 청하고, 열녀(烈女) 음죽(陰竹)의 고 학생 이희성(李希成)의 처 정씨(鄭氏), 충신 광주의 고 병사 선거이(宣居怡), 효자 청주(淸州)의 증 지평 홍주화(洪胄華) 등에게 아울러 정려(旌閭)하기를 청하였으며, 효자 춘천(春川)의 고 학생 이유복(李維復), 무안(務安)의 고 학생 김약화(金躍華), 배천(白川)의 고 효자 조정(趙禎) 등에게 아울러 급복(給復)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정승복은 명종(明宗) 을묘년의 왜란(倭亂)을 당하여 도원수 이준경(李浚慶)을 따라 출정하여 군공(軍功)이 있었고, 그 아들과 손자는 모두 임진년의 왜란 때 이순신(李舜臣)·권율(權慄) 등을 보좌하여 모두 공적이 드러난 자들이었다.
- 純祖 2卷 1年 3月 2日 (戊寅) 2번째기사 / 이여송의 봉사손 이효승과 충무공의 봉사손을 녹용하라 하교하다

- 5권 3년 1월 1일 (정묘) 3번째기사 / 행 호군 이한풍의 졸기

행 호군 이한풍(李漢豐)이 졸(卒)하였다. 이한풍은 덕수(德水) 사람으로, 충무공 이순신(李舜臣)의 후손이다. 지위가 원융(元戎)에 이르렀는데, 청렴하고 검소하여 법(法)을 받들었으며, 한사(寒士)와 같이 옷차림이 소연(蕭然)하고 수신(帥臣)들 가운데 가장 조수(操守)가 있었다고 한다.
- 순조 11권 8년 1월 10일 (정미) 2번째기사 / 전 통제사 이당을 소견하고 통영의 폐단에 대해 순문하다

전 통제사 이당(李滄)을 소견하고, 통영(統營)의 폐단에 대해 순문하였다. 이어서 군총(軍摠)이 어떠한가에 대해 하문하니, 이당이 말하기를, “1만여 명 되는데, 절제(節制)가 육군에 견주어 훨씬 낫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듣건대 수조(水操) 때 홍령기(紅令旗)는 곧 황조(皇朝)에서 이순신(李舜臣)에게 하사한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있는가?” 하니, 이당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선(戰船)은 몇 척인가?” 하니, 이당이 말하기를, “크고 작은 배가 5백 60여 척 되는데, 급수(汲水)하는 작은 배가 절반이 넘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순신이 어느 지역에서 왜군(倭軍)을 진압하였는가?” 하니, 이당이 말하기를, “한산도(閑山島)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형이 어떠한가?” 하니, 이당이 말하기를, “한산도는 해문(海門)의 인후(咽喉)가 되는 곳으로, 전면에서 보면 바다에 통하는 길이 있는 듯하지만, 그 가운데에 들어가면 사면이 모두 막혀 있습니다. 그 당시 왜군은 산을 뚫고 나가려고 하기에 이르렀으나, 곧 암석(巖石)이 노출되어 다시 뚫지 못하고 마침내 이곳에서 함몰(陷沒)되었던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거북선이 있는가, 없는가?” 하니, 이당이 말하기를, “있습니다. 그 모양이 거북같이 생겼는데, 1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 없이 바다에 떠다니는 것이 마치 거북이 떠 있는 것 같으며, 입과 코에서 연기가 나오므로 지금도 표류(漂流)해 온 왜인(倭人)이 이를 보며 서로 놀라서 말하기를, ‘이것은 사람을 사로잡는 기계이다.’라고 한다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순신의 사적(事蹟)이 무슨 책에 있는가?” 하니, 승지 박종훈(朴宗薰)이 말하기를, “《충무공전서(忠武公全書)》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통영(統營)의 백성들은 지금까지 이순신을 사모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니, 이당이 말하기를, “충무공의 상(喪) 때에는 백성들이 모두 흰 옷을 입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유전(流傳)되어 비록 여자라 하더라도 모두 흰 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자손으로 조정에 있는 자가 누구인가?” 하니, 이당이 말하기를, “이인수(李仁秀) · 이승권(李升權)이 모두 그 자손입니다.” 하였다.
- 순조 22권 19년 9월 28일 (정해) 4번째기사 / 효자 고 침지 이찬건 등을 증직하다

효자인 명천(明川)의 고 침지 이찬건(李贊建)과, 목천(木川)의 고 군수 김도혁(金道赫)과, 죽산(竹山)의 고 사인(士人) 박인영(朴仁永)과, 열녀인 충원(忠原)의 고 학생(學生) 김복인(金復人)의 처 이씨(李氏)와 신천(信川)의 고 사인 유덕신(柳德新)의 처 정씨(鄭氏)와 배천(白川)의 고 급제(及第) 유광추(柳光樞)의 처 이씨(李氏)에게 모두 정려하고, 효자인 화성(華城)의 고 사인 강덕휘(姜德輝)와, 온양(溫陽)의 고 학생(學生) 전시술(全始述)과, 신천(信川)의 고 사인 이봉조(李鳳朝)와 함안(咸安)의 고 사인 이경암(李景菴)에게 모두 증직(贈職)하며, 보은(報恩)의 고 학생 김도명(金道明) 및 그 아들 김한봉(金漢鵬) · 손자 김성덕(金成德) 삼세(三世)의 효행에 대하여 김도명과 김한봉에게는 모두 정려하고, 김성덕에게는 증직하며, 충신인 순천(順天)의 증 참판(參判) 박대복(朴大福)에게 증직을 더하고, 순천(順天)의 절사(節士) 조여관(趙汝寬)에게 증직하라 명하였다. 박대복은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을 따라 순절하였고 조여관은 충렬공(忠烈公) 조헌(趙憲)을 따라 순절하였는데, 유생들이 상언하고 본도에서 조사하여 아림으로 인하여 예조에서 요청했기 때문이었다.
- 순조 32권 32년 2월 6일 (계미) 2번째기사 / 명나라의 재조해 준 은혜와 여러 신하들의 충성과 노고에 대한 치제를

하교하기를,

…… (중략) ……

충렬공(忠烈公) 송상현(宋象賢)·문열공(文烈公) 조헌(趙憲)·충렬공 고경명(高敬命)·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이 순절(殉節)한 곳에는 함께 국난에 목숨을 바친 장사들과 더불어 단(壇)을 설치해 치제(致祭)하도록 하되, 제관은 본도(本道)의 수령 가운데서 직질이 높은 자를 가려서 차출하도록 하라.

• 순조 대왕 행장(行狀)

행장(行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략) ……

신묘년 충렬공(忠烈公) 송상현(宋象賢) · 문열공(文烈公) 조헌(趙憲) · 충렬공(忠烈公) 고경명(高敬命) ·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이 순절(殉節)한 곳과 함께 순국한 장사(將士)들을 위하여 단(壇)을 설치하고 제사를 지내주되 제관(祭官)은 본도(本道)의 수령들 가운데 품질(品秩)이 높은 사람을 가려서 차임하라.

• 고종 19권 19년 5월 4일 (기축) 1번째기사 / 충청도 유생 백낙관이 원정을 올리다

충청도(忠淸道) 유생 백낙관(白樂寬)이 올린 원정(原情) 【단적으로 올린 상소가 보고되지 않게 되자 남산(南山)에 봉화를 피워 원통함을 하소연함으로써 원정(原情)이 보고되게 되었다.】 의 대략에,

…… (중략) ……

아! 애통함이야 어찌 차마 다 말하겠습니까? 어가를 모시고 서쪽으로 파천하여 중국에 들어가 의지하려 하였는데 마침 명(明) 나라의 구원을 받았고, 또 이항복(李恒福) · 이덕형(李德馨) · 이순신(李舜臣) · 객재우(郭再祐)와 같은 신하들은 모두 나라의 중흥을 보좌한 인물 중에 가장 현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 고종 28권 28년 12월 24일 (갑인) 1번째기사 / 영의정 심순택을 소견하다

영의정(領議政) 심순택(沈舜澤)을 소견(召見)하였다.

…… (중략) ……

심순택(沈舜澤)이 아뢰기를,“옛날 순조(純祖) 임진년(1832)에 특별히 윤음(綸音)을 내리시어 선무사(宣武祠), 정동관군사(征東官軍祠), 평양 무열사(平壤武烈祠)에 제사를 지냈고, 충렬공(忠烈公) 송상현(宋象賢), 문열공(文烈公) 조헌(趙憲), 충렬공(忠烈公) 고경명(高敬命),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은 절개를 지켜 숨진 곳에 제단을 만들고 그들과 같이 희생된 장사(將士)들과 함께 제사를 내렸으며, 두 충렬공(忠烈公)과 문열공(文烈公)의 집안의 봉사손(奉祀孫)을 수용(收用)하였고, 문충공(文忠公) 이항복(李恒福), 문정공(文靖公) 윤두수(尹斗壽), 충익공(忠翼公) 정근수(鄭崑壽), 문충공(文忠公) 유성룡(柳成龍), 충장공(忠莊公) 권율(權慄)은 승지(承旨)를 보내 제사를 내렸으며, 고(故) 순변사(巡邊使) 신립(申稜), 고 종사관(從事官) 김여물(金汝物), 고 목사(牧使) 이종장(李宗張)은 전쟁 터인 충주(忠州) 달천(澗川)에 같이 희생된 장사들과 함께 제사를 내렸고, 고 종사관(從事官) 박지(朴箴)·윤섬(尹暹)·이경류(李慶流)는 절개를 지켜 숨진 곳인 상주(尙州) 증연(甑淵)에 모두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내렸습니다. 오래도록 잊지 않는 뜻과 충성에 보답하고 절개를 장려하는 훌륭한 덕에 대해 참으로 흠모하여 마지 않는데 내년은 바로 옛날의 그 해입니다. 선대 임금들의 업적을 이어받는 뜻에 있어서 마땅히 은덕을 갚는 일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모두 순조(純祖) 때에 시행한 전례대로 내년 봄에 제사를 지내주는 것이 어떻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 3권 2년 1월 7일 (양력) 3번째기사 / 연로에 있는 선비들과 이름난 신하들의 사당들에 모두 치제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 (중략) ……

또 조령을 내리기를, “아! 우리 선조 임금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때에 충성을 다하여 큰 공훈을 세웠으니 천년이 지나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행차가 호서(湖西)를 지나면서 큰 나무를 바라보니 깊은 감회를 금할 수 없다. 고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의 무덤에 지방 관리를 보내어 치제하게 하라.” 하였다.